

2015년도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

2015

연구책임자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

연구자

이태문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본 연구는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들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 드립니다.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독서율과 독서빈도는 OECD의 주도로 이루어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3년 보고서의 배경설문 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2011년~2012년 16세부터 65세까지 24개국의 총 15만7천명이 참여한 국제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4개국 중 데이터의 대표성이 부족한 터키(사이프러스만 포함)와 러시아(모스크바 인구 불포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호주, 3개국을 제외한 21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2. 본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은 모두 OECD 가입국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가나다 순)이다.
3. 2장에 담긴 모든 표와 그래프는 PIAAC의 원자료를 연구자가 SPSS로 통계 분석한 것이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원자료가 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http://www.oecd.org/site/piaac/publicdataandanalysis.htm>
4.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일반적인 ‘독서율’에 포함되는 읽기는 ‘소설이나 교양서 등의 도서를 종이책이나 전자매체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 및 업무용 독서율’에 포함되는 읽기는 ‘학업 및 업무 종사자가 학업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과서, 교재, 수험서를 종이책이나 전자매체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
5.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독서율과 독서빈도를 보여주는 질문은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나는 책 읽기를~”이다. 응답자는 “①전혀 하지 않는다. ②몇 달에 한 번 한다. ③한 달에 한두 번 한다 ④일주일에 몇 번 하나 매일은 아니다 ⑤매일 한다” 중 하나로 답했다. 독서율은 100%-(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으로 계산했다.
6. 본 보고서에서 비독자는 위의 질문에 “① 전혀 하지 않는다”로 답한 사람을 의미하고, 독자는 “② 몇 달에 한 번 한다. ③ 한 달에 한두 번 한다 ④ 일주일에 몇 번 하나 매일은 아니다 ⑤ 매일 한다”로 응답한 사람을 의미한다.
7. 요약에 서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에 근거와 통계, 출처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8. 본 보고서에 기재된 사진은 모두 비상업적 용도로만 허용되었다.

목차

요약	1
----------	---

1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 목적과 내용	11
3. 연구 방법	12

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독서실태 비교	13
------------------------------	----

1절 독서율 및 독서빈도 국제 비교	19
1. 독서율 국제 비교	19
2. 독서빈도 국제 비교	20
3. 연령별 독서율 및 독서빈도 국제 비교	23
4. 성별 독서율 및 독서빈도 국제 비교	36
5. 한국과 주요국의 연령별·성별 독서율 국제 비교	39
6. 학업 및 업무용 독서율 국제 비교	43
2절 언어능력 국제 비교	45
1. 언어능력 국제 비교	45
2. 연령별 언어능력, 성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47
3. 한국과 주요국의 연령별·성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51
3절 독자와 비독자의 언어능력 국제 비교	54

3

주요국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57
-----------------------	----

1절 미국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59
1. 독서환경과 독서실태	60
2.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65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73
4. 사례 탐구: 도서관의 청소년실과 청소년담당사서 양성과정	78
2절 영국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83
1. 독서환경	84
2.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91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96
4. 사례 탐구: 비독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	106
3절 핀란드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111
1. 독서환경과 독서실태	112
2.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16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127
4. 사례 탐구: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업	132
4절 프랑스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136
1. 독서환경과 독서실태	137
2. 독서진흥 주체 조직과 활동	145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149
4. 사례 탐구: 지역 독서 정보를 한 눈에	153
5절 일본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158
1. 독서환경과 독서실태	159
2.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164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166
4. 사례탐구: 시니어를 위한 서점, 출판, 도서관 서비스	170

4

우리나라 독서문화진흥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독서의 생태계	181
2.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187
3. 성인과 노년의 독서	190

부록	192
----------	-----

표 목차

표 1 언어능력 평가 문항 예시	17
표 2 독서율 국제 비교	19
표 3 독서빈도 국제 비교	20
표 4 한국인의 연령별 독서빈도와 독서율	23
표 5 16~24세 독서빈도 국제비교	24
표 6 25~34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26
표 7 35~44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28
표 8 45~54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30
표 9 55~65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32
표 10 16~24세 독서율과 55~65세 독서율, 그리고 그 차이	34
표 11 한국인의 성별 독서빈도 및 독서율	36
표 12 성별 독서율 국제 비교	37
표 13 한국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39
표 14 미국 성별·연령별 독서율	40
표 15 일본 성별·연령별 독서율	40
표 16 스웨덴 성별·연령별 독서율	41
표 17 프랑스 성별·연령별 독서율	41
표 18 영국 성별·연령별 독서율	42
표 19 스페인 성별·연령별 독서율	42
표 20 학업 및 업무용 독서빈도 국제비교	43
표 21 언어능력 점수 국제비교	45
표 22 연령별 언어능력 국제비교	47
표 23 16~24세 언어능력 점수	48
표 24 55~65세 언어능력 점수	48
표 25 성별 언어능력과 차이	50
표 26 한국인의 성별·연령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51
표 27 주요국의 성별·연령별 언어능력 비교	52
표 28 독서빈도별 언어능력 점수 국제 비교	54
표 29 미국 GDP를 차지하는 산업 1~8위와 비율	60
표 30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전공과목	82
표 31 영국 출판산업의 연간 총부가가치	84
표 32 영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	88
표 33 영국 성인의 독서습관과 태도	108
표 34 핀란드인의 연간 도서관 이용 연령별 비율	114
표 35 포올라라 학교와 투르크 시립도서관의 ‘독서의 즐거움’ 활동	135
표 36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사업	169
표 37 활동적 시니어와 비활동적 시니어	171
표 38 2000년대 일본 시니어 출판의 주제들	176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2
그림 2 독서빈도 국제 비교	21
그림 3 한국인의 연령별 독서빈도	23
그림 4 16~24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25
그림 5 25~34세의 독서빈도 국제비교	27
그림 6 35~44세의 독서빈도 국제비교	29
그림 7 45~54세의 독서빈도 국제비교	31
그림 8 55~65세의 독서빈도와 국제비교	33
그림 9 55~65세 독서율과 16~24세 독서율의 차이	35
그림 10 한국인의 성별 독서빈도	36
그림 11 성별 독서율 차이 국제 비교	38
그림 12 한국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39
그림 13 미국 성별·연령별 독서율	40
그림 14 일본 성별·연령별 독서율	40
그림 15 스웨덴 성별·연령별 독서율	41
그림 16 프랑스 성별·연령별 독서율	41
그림 17 영국 성별·연령별 독서율	42
그림 18 스페인 성별·연령별 독서율	42
그림 19 학업 및 업무용 책읽기 독서빈도 국제비교	44
그림 20 언어능력 점수 국제비교	46
그림 21 55~65세의 언어능력과 16~24세 언어능력의 차이 국제 비교	49
그림 22 한국인의 성별·연령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51
그림 23 독서빈도별 언어능력 점수 국제 비교	55
그림 24 학업 및 업무 관련 독서빈도별 언어능력 점수 국제 비교	56
그림 25 미국인의 독서빈도	61
그림 26 미국인의 독서빈도 성별비교	61
그림 27 미국인의 독서빈도 연령별 비교	62
그림 28 미국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63
그림 29 미국인이 지난 1년간 책을 읽은 목적과 빈도 (2011년 조사)	64
그림 30 미국인의 도서관 방문 이유 (2012년 조사)	70
그림 31 미국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과 시행주체	71
그림 32 미국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경제 및 취업 프로그램과 시행주체	72
그림 33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컴퓨터 테크놀로지 프로그램과 시행주체	72
그림 34 미국 도서관의 개에게 읽어주기	75
그림 35 미국 시애틀 중앙 도서관 청소년실	78
그림 36 영국인의 독서빈도	85
그림 37 영국인의 독서빈도 성별 비교	86
그림 38 영국인의 독서빈도 연령별 비교	87
그림 39 영국인의 성별·연령별 독서율 교차분석	88

그림 40	영국인의 연간 도서관 방문률	89
그림 41	영국 도서관 방문자의 도서관 방문 빈도 추이 (2005~2014년)	89
그림 42	영국인의 계층별 도서관 방문률	90
그림 43	영국 런던의 새로운 도서관, 아이디어가게(Ideastore)	92
그림 44	영국 공공도서관의 연간 지출 내역 (2002/3~2013/14)	94
그림 45	영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서관 서비스	95
그림 46	영국의 북스타트 책 선물(영아용, 유아용)	96
그림 47	영국 리딩 에이전시의 책 분류기(Book Sorter)	98
그림 48	영국 '책은 내 가방'의 사이트	102
그림 49	영국 리딩웰의 치매 관련 처방 도서 자료	103
그림 50	영국 런던의 북 벤치	104
그림 51	영국 런던 그린위치 지역의 북 벤치 안내도	104
그림 52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	109
그림 53	독서에 대한 덜 긍정적인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	109
그림 54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비율	110
그림 55	핀란드인의 독서빈도	112
그림 56	핀란드인의 독서빈도 성별 비교	113
그림 57	핀란드인의 독서빈도 연령별	114
그림 58	핀란드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115
그림 59	유럽 국가들의 1인당 연간 도서관 지출	118
그림 60	에스투 지역 이동도서관	119
그림 61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입구	120
그림 62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서가와 자유 독서 공간	121
그림 63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어린이실	121
그림 64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청소년실과 미디어실	122
그림 65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좌석	122
그림 66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조용한 독서 공간	122
그림 67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강의실	122
그림 68	핀란드인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123
그림 69	핀란드인,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성	124
그림 70	'독서의 즐거움'에 참여한 핀란드 청소년들	132
그림 71	프랑스인의 독서빈도	137
그림 72	프랑스인의 성별 독서빈도	138
그림 73	프랑스인의 연령별 독서빈도	139
그림 74	독서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한 프랑스인의 연령별 독서 목적	140
그림 75	프랑스인의 연령별 독서빈도	140
그림 76	프랑스 독자가 지난 1년간 읽은 책의 취득 경로	141
그림 77	프랑스 도서 구입자의 도서 구입 경로	141
그림 78	프랑스 독자의 도서관 도서 대출 비율	142
그림 79	프랑스 독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지 않는 이유	142
그림 80	프랑스인의 책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	143

그림 81 프랑스인이 1년간 읽은 종이책 및 전자책의 장르	144
그림 82 프랑스의 읽기와 읽히기 프로그램 수혜 학생 수	150
그림 83 랑그독-루시옹 도서·독서센터의 홈페이지	153
그림 84 프랑스 랑그독-루시옹 도서·독서센터 웹 사이트의 작가 정보 사례	154
그림 85 2015년 프랑스 랑그독-루시옹 지역의 독서 행사 안내도	156
그림 86 일본인의 독서빈도	159
그림 87 일본인의 독서율 성별 비교	160
그림 88 일본인의 연령별 독서빈도	161
그림 89 일본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162
그림 90 일본인의 1달 독서량 추세	162
그림 91 일본인의 연령대별 1달 비독자율 추이	163
그림 92 일본의 다이칸야마 쓰타야서점	174
그림 93 북 클럽 키트를 안내하는 도서관 사이트	182
그림 94 런던의 Canada Water 공공 도서관의 동아리방	183
그림 95 영국 페컴도서관의 청소년 공간	189
그림 96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 (2014년)	190

요약

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독서실태 비교

- 우리나라의 독서율과 독서빈도 국제비교는 **2013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의 배경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2011년~2012년 **16세부터 65세까지의 24개국 총 15만 7천명이 참가**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성인역량조사에 참가한 24개국 중에서 데이터의 대표성이 부족한 터키(사이프러스만 포함)와 러시아(모스크바 인구 불포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호주, 3개국을 제외한 **OECD 21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비교 대상 국가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이다.
- 우리나라의 독서율은 **74.4%**로 조사국 중 **중간(OECD 평균 76.5%)**이다. 책은 종이책과 전자책, 만화를 모두 포함하며, 업무에 필요한 교재나 학업관련 교과서와 수험서를 제외한 소설이나 교양서를 포함한다.
- 우리나라 국민은 **매일 읽는 독자의 비중이 조사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의 수가 가장 많다**. 매일 읽는 독자는 8.4%(OECD 평균 20.2%), 일주일에 몇 번 읽으나 매일 읽지는 않는 독자는 16.7%(OECD 평균 19.9%),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는 26.2%(OECD 평균 14.35%),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는 23.1%(OECD 평균 22.1%)이다. 매일 읽는 독자와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를 습관적 독자라고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읽거나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를 간헐적 독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25.1%(OECD 평균 40.1%)로 낮고, 간헐적 독자의 비율이 49.3%(OECD 평균 36.4%)로 높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25.1%로 조사국 중 가장 낮다.
- 우리나라 **16~24세의 독서율은 87.4%(OECD 평균 78.1%)으로 조사국 중 가장 높다**. 25~34세는 85.1%(OECD 평균 77.7%), 35~44세는 81.4%(OECD 평균 77.7%), 45~54세는 68.8%(OECD 평균 75.8%), 55~65세는 51%(OECD 평균 73.9%)이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독서율이 점점 하락하는데, 45세 이후 급감하여 **55~65세의 독서율은 조사국 중 가장 낮다**. 한국은 독서율의 연령별 차이가 36.4%p로 조사국 중 가장 크다. 55~65세 연령대의 독서율은 OECD 평균보다 22.9%p 낮고, 우리나라 전체 독서율 평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55~65세 연령대는 습관화된 독자의 비율도 20%이하(OECD 평균 41.8%)로 월등하게 낮다.

- 한국인의 성별·연령별 독서율을 교차분석해보면, 16~54세까지는 약 9%p~14%p 정도 여성의 독서율이 높으나, 55~65세에는 남성의 독서율이 여성의 독서율보다 2.2%p 앞선다.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높아지면서 독서율이 낮아지나, 여성 독자의 연령대별 독서율 하락이 남성보다 훨씬 가파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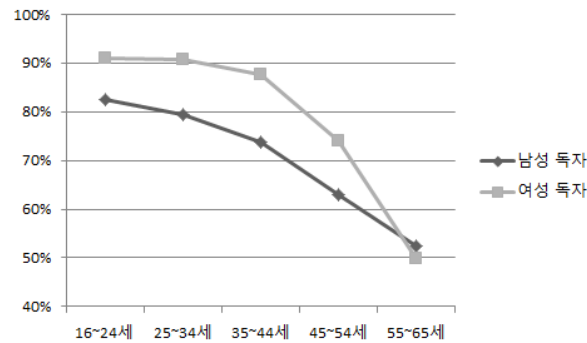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출처〉 PIAAC 2013, 16~65세 한국 성인

- 우리나라는 학업 및 업무와 관련된 책 읽기를 하는 독자비율이 전 인구의 49.49%로 조사국 중 가장 높다.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회 읽는 습관적인 독자의 비율도 가장 높다.
-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한국인의 언어능력은 272.6점으로 조사국의 평균인 272.8에 가깝다. 16~24세의 한국인은 292.9점으로 조사국 중 상위권인데 비해, 55~65세 언어능력은 244.1점으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한국은 16~24세와 55~65세의 점수 차이가 48.8점으로, 젊은 세대와 중·노년 세대의 언어능력 차이가 가장 큰 나라이다. 언어능력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남성과 여성의 점수 차이가 조사국 중 가장 크다. 그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16~34세의 연령대에는 성별 언어능력의 차이가 없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언어능력 점수를 나타낸다. 한국인의 성별 언어능력 차이는 35세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며, 55세 이후에는 매우 크게 벌어진다. 언어능력의 성별 차이는 35세~65세 여성, 특히 45~65세 중·노년 여성의 낮은 언어능력에서 기인한다.
- 모든 조사국에서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책을 읽는 인구의 언어능력 점수는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의 언어능력 점수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우리나라 비독자의 언어능력 평균은 246점인데 비해,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는 278점이다.

2. 주요국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의 공통점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 5개국은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독서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독서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기관이나 실행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5개국 공통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는 학교와 도서관을 통해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시행한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주관은 도서관의 사서, 학교의 교사, 독서관련 민간단체, 독서진흥 프로젝트 기획자에 위임하고, 정부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재정을 지원하거나 행정적 협력(행정부 안팎의 협력, 법령 개선, 국영방송 및 신문의 협력)에 집중한다.**

-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의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는 교재의 하나로, **교과서가 아닌 단행본 책을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나 영국은 정부가 관여하는 교과서가 전혀 없고, 프랑스는 초등만 지방자치단체가 인정교과서 목록을 제공하고, 중등은 완전 자유발행제이다. 미국은 교과서 인정제를 시행하는 주가 전체의 절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는 주가 절반이다. 교사들은 그림책, 소설 및 교양서 등 단행본을 수업의 교재로 다양하게 활용한다.
- 주요국은 대부분 어린이를 위한 여름방학 독서프로그램, 유아에게 책 읽어주기, 방과 후 프로그램, 어린이와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독서 동아리, 저자와의 만남, 영화 상영, 전시, 매체 읽기를 위한 컴퓨터 테크놀로지 사용법, 이민자를 위한 언어 및 시민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책 나누어주기, 읽기 부진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을 자국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북스타트, 리딩 리커버리, 개에게 읽어주기, 독서의 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은 그러한 확산의 사례이다.

3. 미국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 국제성인역량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독서율은 80.1%**로 조사국중 상위권이다. 독서빈도를 살펴보면, 매일 읽는다가 27%, 일주일에 몇 번이 20%, 한 달에 한 두 번이 13%, 몇 달에 한 번이 21%, 전혀 읽지 않는다가 19%로, 습관적 독자가 많다. 여성이 남성보다 독서율이 더 높고 더 자주 읽는다. 연령별 독서율 차이는 별로 없고, **평생 독자**가 많다.
- 미국은 **주별로 도서관정책 및 독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기구(IMLS)**가 주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와 관련된 자문, 조사연구, 통계 등을 담당한다. 미국은 사서들의 연합인 **미국도서관 협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도서관 정책에 영향력이 높다.

-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9,082개이고 학교도서관은 98,460개(2015년 4월, ALA)이다. 14세 이상 **국민의 69%가 도서관 회원**이다. 미국의 도서관은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취업·창업·경제활동**과 관련된 읽고 쓰기 프로그램과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읽고 쓰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미국의 대표적인 독서진흥 프로젝트로 ‘독서는 기본(Reading is Fundamental)’, ‘퍼스트 북’, ‘리딩 리커버리’, ‘책 배틀’, ‘개에게 읽어주기’, ‘문학작가에게 편지 쓰기’, ‘한 도시 한 책 읽기’, ‘도서관을 사랑해’, ‘아메리칸 드림 스타트’, ‘달러 스토어 프로젝트’ 등이 있다.
- 미국은 90년대 말부터 **공공도서관에 청소년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노베이션하고 있다. 낮아지는 청소년의 독서율과 독서흥미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 서비스를 위해 예비 사서를 위한 **청소년사서 양성과정**이 전문화되어 있다.

4. 영국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 **영국인의 독서율은 81.1%**로 OECD국가 중 상위권이다. 매일 읽는 독자가 32.6%,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9.2%,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가 11%,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는 18.3%, 전혀 읽지 않는 이들은 18.9%이다.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51.8%**로 매우 높다. 여성의 독서율이 전 연령대에 걸쳐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율이 높아진다**.
- 영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4,145개 (2014년, LISU)이다. 영국인의 연간 도서관 방문율은 5~15세는 70.3%, 16세 이상은 34.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UK), 2015)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소수인종의 이용률이 높아, 도서관이 **사회적 약자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호**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운영한다. 독서진흥정책은 중앙정부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를 통해 실행한다. 영국예술위원회는 주로 다양한 독서관련 기획자와 북트러스트, 전국독서재단, 리딩 에이전시 등 민간단체의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출판사, 학계, 서점, 도서관, 학교, 기업, 방송, 독자모임 등과의 **창의적인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 영국의 대표적인 독서진흥 프로젝트는 ‘북스타트’, ‘책수다모임(Chatterbooks)’, ‘북타임’, ‘프리미어리그 리딩 스타’, ‘여름방학 독서챌린지’, ‘리딩 해크’, ‘학교도서관 패키지’, ‘리딩 어헤드’, ‘책은 내 가방’, ‘리딩 웰’, ‘도시에 책을’, ‘모두를 위한 독서동아리’가 있다.

- 영국은 독자와 비독자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가 활발하고, 연구를 통해 비독자의 특성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들의 독서 경험, 독서에 대한 편견, 독서 태도, 독서 환경,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독서진흥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5. 핀란드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 핀란드인의 독서율은 83.4%로 최상위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율도 높아, 인구의 90%가 도서관 회원이며, 연간 도서관 방문율도 67%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핀란드인은 매일 읽는 독자가 16.2%,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21.4%,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가 17.1%,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는 28.7%,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는 16.6%이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보다 높지만, 연령별 독서율과 독서빈도 차이는 없다.
- 핀란드의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정부가 운영한다. 중앙정부의 교육문화부가 학교와 도서관의 독서교육과 문화를 총괄한다. 공공도서관 수는 756개(2014, 핀란드공공도서관통계)이며, 인구희박지역을 위해 142개의 버스 모양의 이동도서관이 운영된다. 1인당 연간 도서관 지출액(63유로)이 EU가운데 독보적인 1위이다. 핀란드에는 도서관 건축가에 의해 건물부터 실내장식, 의자까지 디자인된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도서관이 많다. 핀란드인은 도서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핀란드의 도서관 중 1/3은 학교와 어린이집 주위에 설치되어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학교는 학교도서관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 공공도서관과 협업한다. 교육문화부가 학교와 도서관을 모두 담당하기에 이러한 협업은 행정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며, 모든 학교와 공공도서관은 서로 담당자를 두고 협력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독서의 즐거움’ 프로젝트는 이러한 협력의 사례이다.
- 핀란드의 대표적인 독서진흥 활동으로는 ‘작가 데이터베이스’, ‘작가 방문’, ‘사서 예약제’, ‘독서의 즐거움’, ‘학습동아리 지원’ 등이 있다.

6. 프랑스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 프랑스의 독서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74.7%이다. 그러나 독서빈도를 살펴보면,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40%로 우리나라의 25%보다 높다. 성별 독서율 차이는 14.3%p로 여성이 높으나, 연령별 독서율 차이는 거의 없다.

- 프랑스 독자들은 **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해서 읽는 비율이 높다.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서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이 건재하다. 또한 학령기 동안 **철학 수업**이 이루어져, **인문학 독자**의 수가 많다.
- 프랑스의 독서진흥정책은 중앙정부의 **‘도서·독서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서·독서국은 **도서관 뿐 아니라, 작가, 출판사, 서점, 고문서보관소, 독서행사 기획자 등 모든 독서의 생태계를 포괄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독서 축제나 독서 행사, 관련 종사자 재교육, 문자유산의 디지털화 등 하나의 프로젝트에 독서 생태계 전체가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
- 지방자치단체도 도서·독서국을 두고, 웹 사이트와 SNS를 통해 지역의 독서생태계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독서행사, 지역 저자, 지역 출판사, 도서관 등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중복 행사와 지원으로 인한 독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역 내의 다양한 독서관련 단체와 개인의 협력을 촉진한다.
- 프랑스의 대표적인 독서진흥 활동으로 **‘첫 페이지’, ‘어린이 독서챔피언’, ‘읽기와 읽히기’, ‘문학 친구’, ‘독서축제, 당신이 읽을 차례’, ‘10단어를 말해요’** 등이 있다.

7. 일본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 **일본인의 독서율은 67%**로 국제성인역량조사국 중 **하위권**이다. 매일 읽는 독자가 10%,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5.1%,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가 15.7%,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는 26.2%, 전혀 읽지 않는 비율은 33%이다. 성별 독서율 차이는 조사국 중 가장 작다. 연령별 독서율은 우리나라처럼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나 감소폭이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학업 및 직업 종사자들의 교재 및 교과서 독서율이 높다.**
- 일본의 도서관은 3246개(2014년, 일본도서관협회)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독서진흥정책은 **문부과학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가 독서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 일본의 대표적인 독서진흥 활동으로 **‘아침독서운동’, ‘북스타트’, ‘독서주간과 어린이독서주간’, ‘독서마을’,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등이 있다.
-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시니어에 대한 출판, 서점, 도서관 서비스가 활발**하다. 신체적 장애로 도서관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비활동적인 시니어를 위한 도서택배서비스, 낭독 서비스 뿐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를 위한 창업, 취업, 건강, 평생학습 서비스**도 제공한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문명 세계의 개인은 읽고 쓰면서 배운다. 또한 휴식하고, 웃고, 위로받고, 슬퍼하고, 감동하며 개인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읽기를 통해 개인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성장, 안녕을 이룬다. 읽기는 개인적인 활동인 동시에 사회적인 활동이다.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토론하는 능력은 시민으로 살기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는 타자에게 귀 기울이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이웃의 능력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읽어내고 그것을 새롭게 편집해서 표현하는 능력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모든 국가는 국민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발전과 통합을 위해 독서에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서는 국가적인 정책과 관심의 영역이다. 2006년에는 「독서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2008년에는 ‘독서문화진흥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실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PISA에서의 높은 독해력 순위)도 있지만, ‘책 읽지 않는 국민’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반복된다. 이러한 평가가 타당한지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우리 독서실태의 명암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차 보고서가 발표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OECD 주요 국가의 독서율과 독서빈도, 언어능력에 대한 정보를 조사의 일부분으로 포함하였다. 약 15만 7천명이 참가한 이 조사는 인구 통계적 정확성과 조사과정의 엄밀성이 보장된 국제적 조사로, 우리나라의 독서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실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실태는 연령별로 혹은 성별로 균일한지 다른지, 이는 다른 국가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독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대상자를 설정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미디어 환경, 인구 구성의 변화(노령화, 다문화화, 1인 가족화, 저출산), 산업구조의 변동은 학교안팎의 독서교육, 도서관, 출판 산업의 시급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운영되고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주요국의 독서문화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운영체계를 가진 나라는 서로 상이한 독서문화정책과 사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교할 국가를 선정할 때, 다양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로 상이한 체계를 가진

다섯 개 국가, 북미의 경제 강대국 미국과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출판 산업의 시발점인 영국, 사회복지시스템이 강한 북유럽의 핀란드, 유럽 대륙의 프랑스, 동아시아의 일본을 탐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해외의 사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독성과 현장성이 높은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요국의 정부보고서나 연구물에 대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독서문화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인터뷰, 취재를 바탕으로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진과 그림, 그래프 등의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제공하고, 향후 더 깊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젝트의 웹 사이트를 표기했다. 짧은 연구 기간과 지면의 한계로 모든 사례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 국가별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심층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독서현장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사례 탐구의 주제로 잡아, 정책과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실과 청소년 전문사서 양성과정(미국), 비독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영국),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분업과 협업 프로젝트 (핀란드), 독서관련 주체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웹 사이트인 지역 도서·독서국(프랑스), 시니어 세대를 위한 출판과 서점, 도서관 서비스 (일본)가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2. 연구 목적과 내용

- (1)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독서진흥정책의 향후 계획 수립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 자료로 제시한다.
 -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과 독서빈도, 언어능력을 OECD 주요국과 비교·분석한다.
 -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성별 독서율과 독서빈도, 언어능력을 OECD 주요국과 비교·분석한다.
 -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성별 교차분석 결과를 OECD 주요국과 비교·분석한다.
 - 우리나라 국민 중 학업 및 업무 종사자의 교재 및 교과서 읽기(학업 및 업무관련 읽기) 빈도를 OECD 주요국과 비교·분석한다.
 - 우리나라 및 OECD 주요국 독자와 비독자의 언어능력을 비교·분석한다.
- (2) 미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 5개국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와 민간단체, 출판 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 5개국의 독서환경과 독서실태를 분석한다.
 - 5개국 독서진흥정책의 전체적 맥락과 조직, 추진방향을 분석한다.
 - 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 사례와 효과를 분석한다.
 - 5개국 독서문화진흥 활동 중 가장 특징적인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 (3)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실태 국제비교와 주요국의 독서문화정책과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학교, 도서관, 민간단체 등의 독서현장에 활용도 높은 자료를 제공한다.
 - 우리나라 독서 문화에서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현안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활동 사례를 선택하여 제시한다.
 - 미국, 영국, 핀란드, 일본은 방문 관찰 및 취재, 인터뷰를 진행하여 활동 사례에 대한 현장성을 높인다.
 - 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각 이미지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시한다.
 -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실태 국제비교와 주요국의 독서문화정책과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독서문화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인의 독서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객관화하고, 해외 주요국의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우선순위와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조사, 통계분석, 현장 사례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1) 문헌 조사

- 주요국(미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의 독서진흥정책과 사례에 대한 인쇄 및 전자 문헌 자료 조사
- 주요국의 독서진흥정책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분석
- 독서진흥정책과 사례에 관련된 도서 및 학술논문 조사

(2) 통계 분석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참여한 OECD 21개국의 독서율, 독서빈도 및 언어능력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
- 국제성인역량조사 데이터로 성별, 연령별 독서율 및 독서빈도, 언어능력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

(3) 관찰 및 인터뷰

- 독서문화진흥 정책과 사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감 있게 소개하기위해, 미국, 영국, 핀란드, 일본 방문 관찰 및 취재
- 주요국의 독서문화진흥정책 및 사례를 심층조사하기 위해, 주요국의 독서진흥기관 및 시민단체의 담당자, 서점, 도서관 사서와 인터뷰

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독서실태 비교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자료는 OECD의 주도로 수행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의 결과에서 추출했다. 이 조사는 2011년~2012년 16세부터 65세까지의 24개국 총 15만 7천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국제조사로, 현재 추가로 9개국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6667명이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3년 10월 8일 1차 보고서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OECD 가입 국가 중 2013년 PIAAC에 참여한 국가는 아래의 23개국이다.

대한민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OECD 가입 국가 중 2013년 PIAAC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아래의 11개국이다.

그리스,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칠레, 포르투갈, 헝가리

OECD 가입국은 아니지만 PIAAC에 참여한 국가는 러시아 1개국이다.

조사국 24개국 중 독서빈도를 보여주는 원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나라는 호주이다.¹⁾ 나머지 23개국 중 러시아와 터키를 제외한 21개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러시아의 경우, 수도인 모스크바 인구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라서 국가 전체의 독서를 대표하지 못한다. 터키는 사이프러스 인구만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점은 터키의 매우 일부 지역이고 독서율과 관련된 응답의 16.7%가 Missing으로 분류되어 제외했다. 영국은 잉글랜드만, 벨기에는 플랑드르 지역만 포함하였으나, 두 곳 모두 수도가 있는 지역으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인구와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기에 비교에 포함시켰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OECD 21개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1) 호주는 독서율과 독서빈도를 보여주는 배경설문 원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International Data Explorer(IDE)를 통해 언어능력 점수를 계산할 수 있기에, 언어능력 국제비교에는 포함시켰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대상자의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조사하였다. 연령, 성별, 학력, 경제력, 문화자본,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읽기와 쓰기, 문제해결 활동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중 독서실태와 관련된 질문으로 ‘책 읽기 활동’의 빈도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은 종이책 뿐 만 아니라 컴퓨터나 기타 전자 기기 화면을 통한 읽기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현대사회의 책 읽기 양상을 포괄하고 있다.

1절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킬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 가운데, 일상 속에서 책읽기 (종이책 및 전자매체를 통한 책읽기)를 얼마나 자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독서율 및 독서빈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또한 독서율과 독서의 빈도를 연령별로, 성별로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은 연령별 차이가 비교국 가운데 가장 큰 반면, 성별 차이는 크지 않다. 성별 독서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고른지 조사하기 위해, 독서율을 연령별·성별로 교차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주요국과 비교하였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일상의 독서 뿐 아니라 업무용 독서에 대한 실태를 묻는 문항이 있다. 학업과 일을 하는 인구에만 한정된 문항이라서 국가 전체의 독서율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독서율이나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지표 중의 하나라서 포함했다.

2절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언어능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크게 세 가지 성인역량을 측정하였다. 언어능력(literacy), 수리능력(mathematics),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이 그것이다. 이중 언어능력 결과는 한국인의 읽기능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2절에서는 한국인의 언어능력을 연령별, 성별로 국제 비교하고, 독자와 비독자의 언어능력을 분석할 것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조사한 언어능력은 문맹을 벗어났다는 의미의 기본적 문해력과 다르다. 이 조사에서 언어능력은 “사회참여, 목표달성, 개인의 지식과 가능성 개발을 목적으로 문서화된 글을 이해·평가·활용하며 글로써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원래 언어능력은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지만, 쓰기는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제외되었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언어능력은 다양한 일상과 일을 상황에서 “글로 표현된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복잡한 문자의 이해, 해석,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응답자가 디지털화면의 글을 읽고 답을 클릭하거나 올바른 링크를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언어능력 평가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수준: 1 이하 · 문항제목: 선거결과 · 필요전략: 지문의 접근 및 내용확인 · 소재: 사회와 커뮤니티 · 텍스트형태: 혼합, 난이도:162	메인 화면에는 노동조합 선거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함께 세 명의 선거후보 이름과 득표수가 적힌 표가 나타난다. 득표수가 가장 적은 후보자를 찾는 것이 응답자에게 제시된 과제임. 응답자는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비교하여 최소 득표수를 얻은 후보자의 이름을 찾아냄. “득표수”라는 단어는 문항과 표에 각각 한 번씩만 나타나며 화면의 다른 텍스트에는 없음.
문항수준: 1 · 문항제목: 복제약품 · 필요전략: 정보통합과 자료해석 · 소재: 건강과 안전 · 텍스트형태: 혼합(Mixed) · 난이도: 219	메인 화면에는 “복제 의약품: 스위스에서 판매 부진”이라는 제목의 짧은 신문기사가 나타남. 기사는 두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으며, 화면의 가운데에는 유럽 14개 국가와 미국에서의 복제 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표가 있음. 복제 의약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 되는 나라의 개수를 알아내는 것이 응답자에게 주어진 과제. 표에는 응답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국가별 시장 점유율이 내림차순으로 제시됨. “의약품 판매량(drug sales)”이라는 구절은 제시된 지문에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응답자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점유율(market share)”과 “의약품판매량”이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이해해야 함.
문항수준: 2 · 문항제목: 건강 달리기 대회 · 필요전략: 검토와 반영 · 소재: 여가생활 · 텍스트형태: 혼합 · 난이도: 240	메인 화면에는 일산구청에서 주관하는 연례 건강 달리기 대회에 대한 웹 사이트가 나타나고 이 첫화면에는 “등록”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포함하여 몇 개의 링크가 연결되어 있음. 주최자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것이 응답자에게 주어진 과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응답자는 “등록”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야 함. 이 과정은 응답자가 디지털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웹 기반 환경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함. 웹기반 텍스트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단순한 과제일 수 있으나, 이러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응답자들의 경우 추측을 통해 올바른 링크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됨.
문항수준: 3 · 문항제목: 도서검색 · 필요전략: 정보접근과 활용 · 소재: 교육과 훈련 · 텍스트형태: 복합형 · 난이도: 289	메인 화면에는 도서관의 웹 사이트에서 검색한 도서 검색 목록이 나타나고, 도서 〈환경신화〉의 저자 이름을 찾는 것이 응답자에게 주어진 과제임.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응답자는 스크롤을 사용하여 검색된 도서목록의 아래까지 살펴보고, 책제목 아래에 적혀 있는 저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함. 스크롤의 사용과 함께 응답자는 페이지 숫자 〈2〉 또는 “다음”을 클릭하여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하여야 도서 〈환경신화〉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음. 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응답자는 정답과 무관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것이 이 과제의 난이도를 높임.
문항수준: 4 · 문항제목: 도서검색 · 필요전략: 정보통합과 자료해석 · 소재: 교육과 훈련 · 텍스트형태: 복합형 · 난이도: 348	이 문항은 이전 예시와 동일한 메인 화면을 사용하여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의 주장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을 찾는 것이 응답자에게 주어진 과제임.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응답자는 도서 검색 결과 목록에서 모든 책의 제목과 소개 내용을 살펴봐야 함.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섞여 있음.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에 신뢰성이 떨어짐을 보여주는 정답의 책은 “이 열띤 찬반 논쟁을 둘러싸고 양측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홍보했으며 대중을 속이려 했는지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라고 적힌 소개 글을 통해 찾을 수 있음.

표 1 언어능력 평가 문항 예시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보고서」, 2013, 19쪽.

3절에서는 독자와 비독자의 언어능력을 비교하였다.

국제성인역량조사의 데이터로 독서를 하는 사람과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언어능력 점수를 비교하였다.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언어능력은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였다.

제 2장에 담긴 모든 표와 그래프는 PIAAC의 원자료를 연구자가 SPSS로 통계 분석한 것이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원자료가 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http://www.oecd.org/site/piaac/publicdataandanalysis.htm>

1절

독서율 및 독서빈도 국제 비교

1. 독서율 국제 비교

일상생활에서 책읽기를 하는 한국인의 인구비율은 74.4%로 전체 조사대상국의 중간이다. OECD 조사국의 평균인 76.5%보다 아주 약간 낮다. 여기에 포함되는 책은 종이책과 전자책

을 모두 포함하며, 업무에 필요한 교재나 학업관련 교과서와 수험서를 제외한 소설이나 교양서를 뜻한다.

Sweden	85.7%
Estonia	84.9%
Denmark	84.9%
Finland	83.4%
Norway	83.2%
England	81.1%
United States	81.1%
Germany	81.1%
Czech Republic	79.2%
Austria	78.7%
Ireland	78.1%
Canada	77.0%
평균	76.5%
France	74.7%
Korea	74.4%
Netherlands	73.6%
Poland	73.6%
Slovak Republic	69.6%
Japan	67.0%
Belgium	65.5%
Spain	65.2%
Italy	63.6%

표 2 독서율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독서율=100%-(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독서율과 독서빈도를 보여주는 질문은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나는 책 읽기를~”이다. 응답자는 “①전혀 하지 않는다. ②몇 달에 한 번 한다. ③한 달에 한두 번 한다 ④일주일에 몇 번 하나 매일은 아니다 ⑤매일 한다” 중 하나로 답했다. 독서율은 100%-(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으로 계산했다.

책을 읽는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독일로 80%이상의 독서율을 보이고 있다. 상위 5위를 차지한 나라들이 모두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그리고 출판 강국인 영국과 미국, 독일이 6~8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캐나다 순으로 75~80% 사이의 독서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74.4%로,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은 67%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와 함께 독서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2. 독서빈도 국제 비교

일상 속에서 책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독서의 빈도를 국제적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질문은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나는 책 읽기를~”이다. 응답자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몇 달에 한 번 한다. ③ 한 달에 한두 번 한다 ④ 일주일에 몇 번 하나 매일은 아니다 ⑤ 매일 한다” 중 하나로 답했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에	매일
Sweden	14.3%	20.7%	14.1%	24.8%	26.1%
Estonia	15.1%	23.4%	16.8%	26.0%	18.8%
Denmark	15.1%	20.1%	13.7%	22.1%	28.9%
Finland	16.6%	28.7%	17.1%	21.4%	16.2%
Norway	16.8%	23.4%	14.3%	22.6%	22.9%
England	18.9%	18.3%	11.0%	19.2%	32.6%
United States	18.9%	20.7%	13.3%	20.2%	26.9%
Germany	18.9%	23.3%	13.4%	22.7%	21.7%
Czech Republic	20.8%	22.2%	13.2%	24.1%	19.7%
Austria	21.3%	20.6%	15.0%	23.9%	19.1%
Ireland	21.9%	17.8%	11.8%	16.9%	31.5%
Canada	23.0%	19.7%	11.9%	19.2%	26.2%
평균	23.5%	22.1%	14.3%	19.9%	20.2%
France	25.3%	22.7%	12.0%	16.9%	23.0%
Korea	25.6%	23.1%	26.2%	16.7%	8.4%
Netherlands	26.4%	23.4%	14.2%	19.8%	16.3%
Poland	26.4%	26.2%	17.0%	18.4%	12.0%
Slovak Republic	30.4%	22.9%	14.5%	21.0%	11.3%
Japan	33.0%	26.2%	15.7%	15.1%	10.0%
Belgium	34.5%	24.0%	12.8%	15.2%	13.5%
Spain	34.8%	17.3%	10.4%	15.2%	22.3%
Italy	36.4%	18.8%	11.3%	17.3%	16.2%

표 3 독서빈도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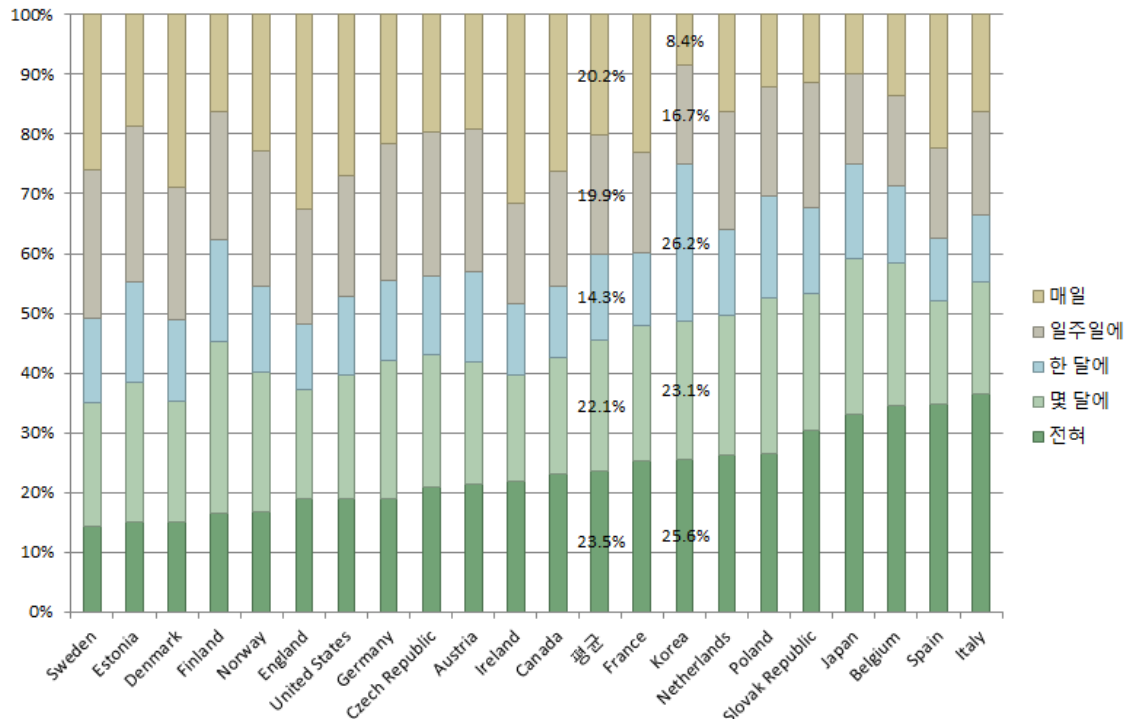


그림 2 독서빈도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독서의 빈도를 국제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은 매일 읽는 독자의 비중이 조사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의 수가 가장 많다. 매일 읽는 독자는 8.4%로 우리나라보다 독서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인 스페인(22.3%), 벨기에(13.5%), 이탈리아(16.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혀 읽지 않는 독자를 비독자로, 몇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를 간헐적 독자로, 일주일에 몇 번 읽거나 매일 읽는 독자를 습관적 독자로 상정해보자. 습관적 독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조사대상의 51.8%가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고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덴마크(51%)와 스웨덴(50.9%)이 차지한다. 아일랜드(48.4%), 미국(47.1%)도 습관적 독자 비율이 높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의 반이 습관적 독자인 셈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5.1%로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가장 낮다. 한국과 독서율이 비슷한 캐나다(45.4%), 프랑스(39.9%), 네덜란드(36.1%)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종합하면 한국은 독서율은 조사국의 평균에 가깝지만,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의 수는 매우 적고,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간헐적 독자는 가장 많다.

한국인의 습관적 독서빈도가 낮다는 사실은 한국의 독서 시간이 가장 낮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마케팅 회사인 NOP World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30개국의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여가 문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독서에 할애한 시간을 묻는 조사에 대해 한국인은 평균 일주일에 3.1시간으로 3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당시 조사국의 평균은 6.5시간이었다.

3. 연령별 독서율과 독서빈도 국제비교

한국인의 평균 독서율은 OECD 평균에 가깝지만,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16~24세의 독서율은 87.4%으로 높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낮아지다가 45세 이상 구간부터 급격하게 낮아진다. 55세 이상의 비독자 비율은 50% 가까이 높아진다. 55세 이상의 중·노년은 반은 독자이고, 반은 비독자인 상황이다.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거나,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비율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에	매일	독서율
16~24세	12.6%	22.0%	31.4%	24.7%	9.3%	87.4%
25~34세	14.9%	26.4%	30.9%	19.2%	8.5%	85.1%
35~44세	18.6%	28.2%	26.9%	15.8%	10.5%	81.4%
45~54세	31.2%	22.1%	25.4%	13.8%	7.5%	68.8%
55~65세	49.0%	15.7%	17.0%	12.0%	6.3%	51.0%

표 4 한국인의 연령별 독서빈도와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한국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독서율=100%-(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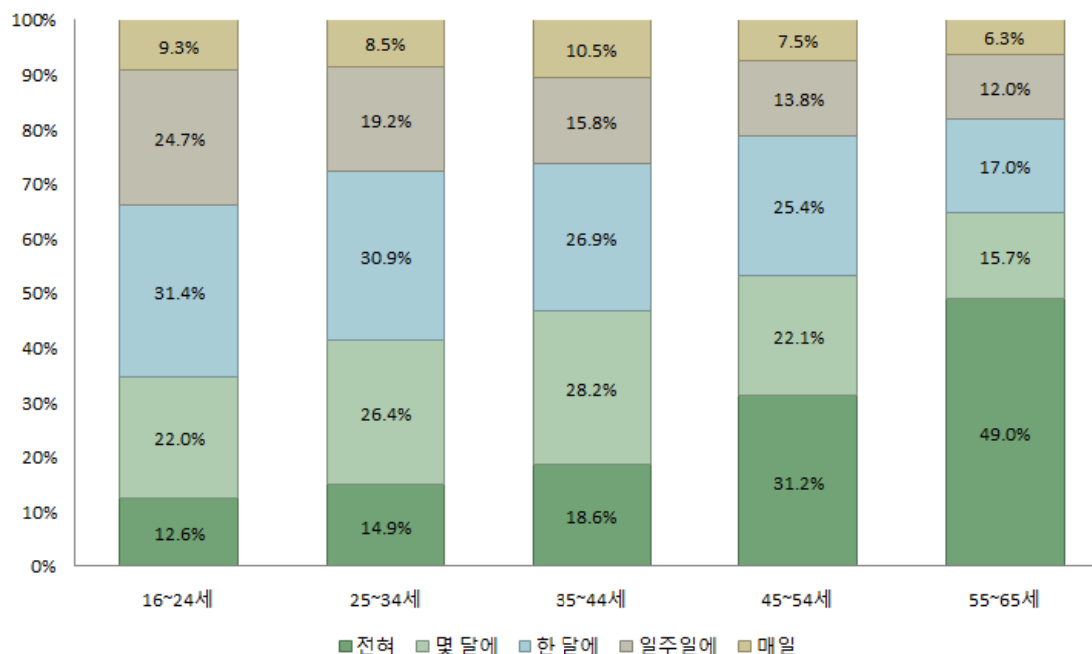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인의 연령별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한국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한국인의 독서빈도를 연령대별로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았다.

(1) 16~24세의 독서율과 독서빈도 국제 비교

16~24세의 독서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87.4%로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78.1%에 비해 9.3%p 높다. 한국 청년들 중 매일 읽는 비율은 9.3%으로 OECD 평균 18.5%에 비해 낮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비율이 24.67%로 평균보다는 조금 높다. 한국, 에스토니아,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가 독서율 상위 5개국이고, 스페인, 벨기에,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일본이 하위 5개국이다. 평균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독일, 체코, 노르웨이, 폴란드 등이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에	매일	독서율
Korea	12.6%	22.0%	31.4%	24.7%	9.3%	87.4%
Estonia	12.7%	26.8%	19.8%	26.6%	14.1%	87.3%
United States	14.6%	16.7%	15.9%	24.6%	28.2%	85.4%
Sweden	15.2%	19.7%	15.4%	27.1%	22.6%	84.8%
Canada	15.4%	17.4%	15.1%	22.8%	29.3%	84.6%
Denmark	16.6%	16.8%	9.8%	24.0%	32.8%	83.4%
Netherlands	18.9%	20.1%	18.0%	23.6%	19.4%	81.1%
Finland	19.5%	28.4%	16.9%	22.3%	13.0%	80.5%
Germany	20.5%	23.5%	15.2%	21.3%	19.5%	79.5%
Czech Republic	20.9%	20.4%	15.4%	25.2%	18.1%	79.1%
평균	21.9%	21.9%	15.8%	21.8%	18.5%	78.1%
Norway	23.0%	22.0%	12.9%	22.4%	19.7%	77.0%
Poland	23.1%	25.7%	19.7%	19.9%	11.6%	76.9%
Ireland	23.9%	17.8%	12.7%	17.4%	28.2%	76.1%
England	24.3%	19.5%	13.3%	18.9%	24.0%	75.7%
France	24.3%	24.5%	15.7%	17.6%	17.9%	75.7%
Austria	26.9%	18.8%	15.1%	24.1%	15.0%	73.1%
Japan	27.8%	25.3%	16.6%	21.9%	8.3%	72.2%
Italy	29.2%	23.3%	11.5%	19.3%	16.8%	70.8%
Slovak Republic	29.5%	23.1%	14.7%	22.4%	10.3%	70.5%
Belgium	30.0%	27.6%	17.6%	15.1%	9.7%	70.0%
Spain	31.2%	19.6%	10.1%	17.9%	21.3%	68.8%

표 5 16~24세 독서빈도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16~24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독서율=100%-(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

그래프를 통해 독서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16~24세 독서율은 가장 높지만,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습관적 독자는 약 34%로, 조사국 평균인 40.3%에 비해 약간 낮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16~24세는 절반이 습관적 독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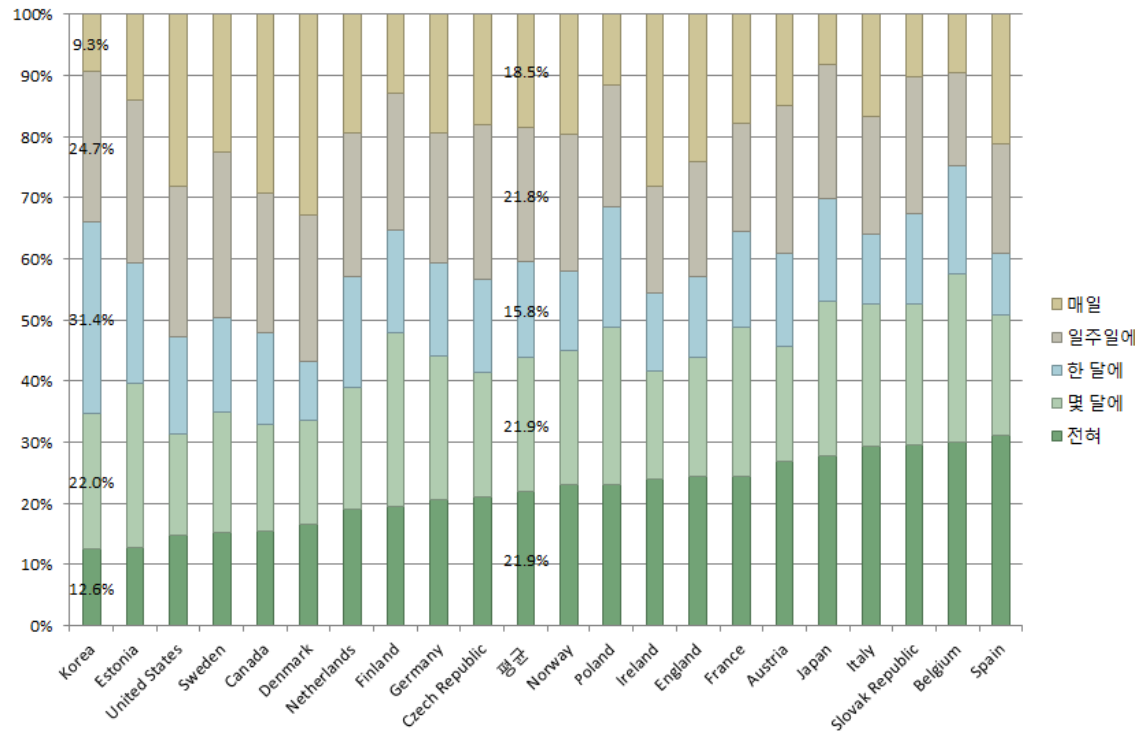


그림 4 16~24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16~24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한국의 16~24세 인구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에 끝난 교육인적자원부의 1차 5개년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리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에 학령기를 보냈다. 이들은 또한 1990년대의 풍부한 어린이 청소년 도서 출판기에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쳤다. 학교 수업에서도 책을 교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숙제, 수행평가, 입시, 사교육 등을 통해 독서가 매우 강조되었다.

(2) 25~34세의 독서율과 독서빈도 국제 비교

25~34세 한국인의 독서율을 살펴보면, 85.1%로 여전히 최상위권에 위치해있다. 평균인 75.7%에 비해 9.4%p 높다. 핀란드가 1위이고 한국은 5위이나, 1위부터 5위까지의 차이가 1%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한국이 상위 5위권이며, 85%이상의 25~34세 인구가 독자이다. 하위 5개국은 16~25세의 독서율 양상과 비슷하여,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일본이 하위 5개국이다. 평균에 가까운 나라는 네덜란드, 캐나다, 체코, 프랑스가 있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에	매일	독서율
Finland	13.9%	27.2%	20.2%	24.6%	14.0%	86.1%
Sweden	14.2%	21.4%	13.6%	28.4%	22.3%	85.8%
Norway	14.4%	24.7%	16.8%	25.1%	19.1%	85.6%
United States	14.6%	16.7%	15.9%	24.6%	28.2%	85.4%
Korea	14.9%	26.4%	30.9%	19.2%	8.5%	85.1%
Estonia	16.3%	28.7%	17.1%	24.9%	13.0%	83.7%
Denmark	16.6%	21.8%	14.8%	26.8%	20.0%	83.4%
England	18.0%	19.2%	12.8%	21.7%	28.3%	82.0%
Austria	19.1%	20.5%	14.7%	27.1%	18.6%	80.9%
Germany	19.9%	21.1%	12.8%	26.0%	20.1%	80.1%
Ireland	20.9%	16.3%	14.2%	18.5%	30.1%	79.1%
Netherlands	21.8%	25.5%	17.0%	22.1%	13.7%	78.2%
Canada	22.0%	20.8%	13.5%	19.9%	23.9%	78.0%
평균	24.3%	23.0%	15.2%	21.0%	18.6%	75.7%
Czech Republic	23.2%	23.2%	12.0%	24.4%	17.2%	76.8%
France	24.7%	24.6%	12.2%	18.7%	19.7%	75.3%
Poland	26.1%	28.4%	15.8%	17.5%	12.3%	73.9%
Japan	31.4%	27.8%	16.6%	15.6%	8.7%	68.6%
Slovak Republic	31.7%	23.6%	14.9%	19.4%	10.3%	68.3%
Spain	35.6%	17.4%	10.9%	15.5%	20.5%	64.4%
Belgium	35.9%	25.9%	11.6%	14.5%	12.2%	64.1%
Italy	37.9%	21.4%	10.7%	15.3%	14.7%	62.1%

표 6 25~34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25~34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독서율=100%-(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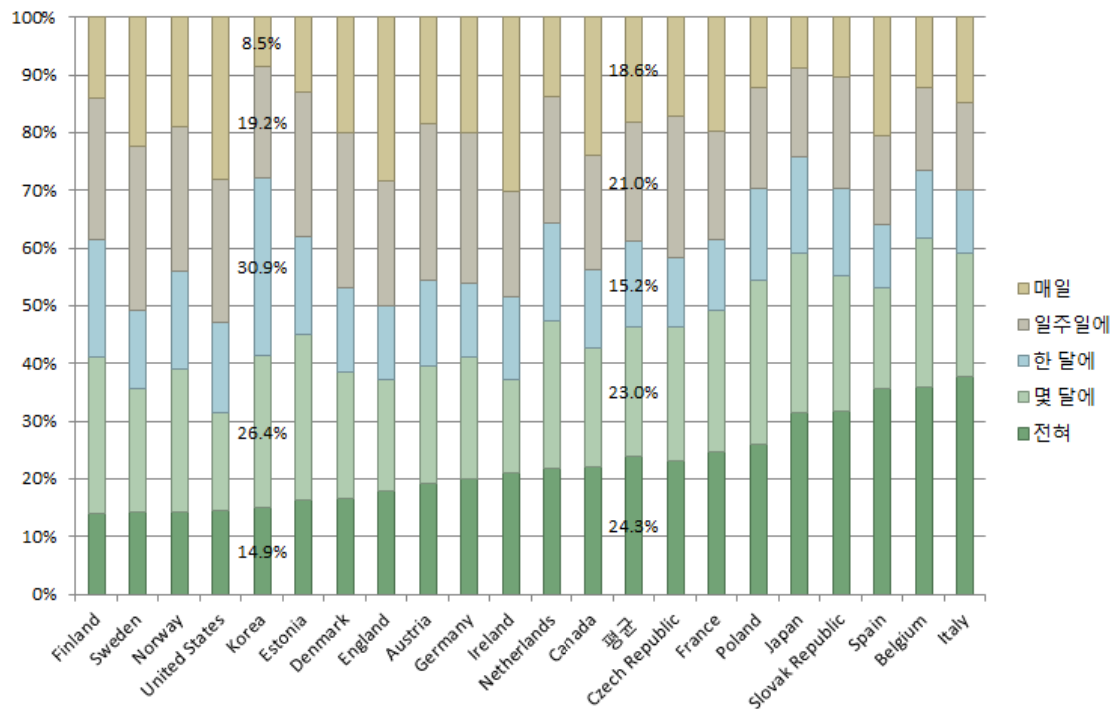


그림 5 25~34세의 독서빈도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25~34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25~34세의 독서빈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미국,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청년의 절반이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이다. 한국의 경우 읽지 않는 비독자의 비율은 14.9%로 낮지만, 매일 읽는 독자가 8.5%,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9.2%이다. 습관적 독자는 약 28%로 OECD 평균인 39.6%에 비해 11.6%p 낮다.

(3) 35~44세의 독서율과 독서빈도 국제 비교

35~44세 한국인의 독서율은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81.4%로 OECD 평균인 77.7%에 비해 여전히 높다. 35세 미만 연령대에 비하면 독서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덴마크가 상위 5개국에 속한다. 모두 북유럽 국가이다. 하위 5개국은 앞선 연령대와 동일하게,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일본, 슬로바키아가 차지하고 있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	매일	독서율
Sweden	12.4%	22.5%	13.5%	26.9%	24.7%	87.6%
Finland	13.1%	28.1%	19.3%	24.2%	15.3%	86.9%
Estonia	14.1%	22.1%	18.3%	26.6%	18.8%	85.9%
Norway	14.8%	24.6%	13.5%	24.5%	22.6%	85.2%
Denmark	14.9%	22.1%	16.8%	22.6%	23.7%	85.1%
United States	18.1%	21.6%	15.8%	20.8%	23.7%	81.9%
England	18.4%	18.9%	11.0%	18.7%	33.0%	81.6%
Korea	18.6%	28.2%	26.9%	15.8%	10.5%	81.4%
Germany	19.5%	21.3%	15.2%	23.5%	20.6%	80.5%
Austria	19.9%	19.6%	16.0%	23.7%	20.7%	80.1%
Ireland	21.3%	18.3%	10.5%	17.1%	32.8%	78.7%
평균	22.3%	23.2%	14.7%	20.3%	19.4%	77.7%
Czech Republic	22.6%	23.5%	12.3%	22.7%	19.0%	77.4%
Canada	23.4%	21.5%	11.0%	19.9%	24.2%	76.6%
France	23.7%	24.2%	12.1%	17.1%	23.0%	76.3%
Netherlands	24.7%	26.3%	13.8%	20.6%	14.6%	75.3%
Poland	27.9%	29.7%	13.9%	16.7%	11.9%	72.1%
Slovak Republic	30.5%	24.1%	15.3%	20.7%	9.5%	69.5%
Japan	30.9%	28.1%	18.4%	13.7%	8.9%	69.1%
Belgium	31.2%	24.6%	13.4%	17.5%	13.3%	68.8%
Spain	32.7%	19.1%	10.6%	14.8%	22.8%	67.3%
Italy	35.5%	19.3%	11.6%	19.2%	14.4%	64.5%

표 7 35~44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35~44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독서율=100%-(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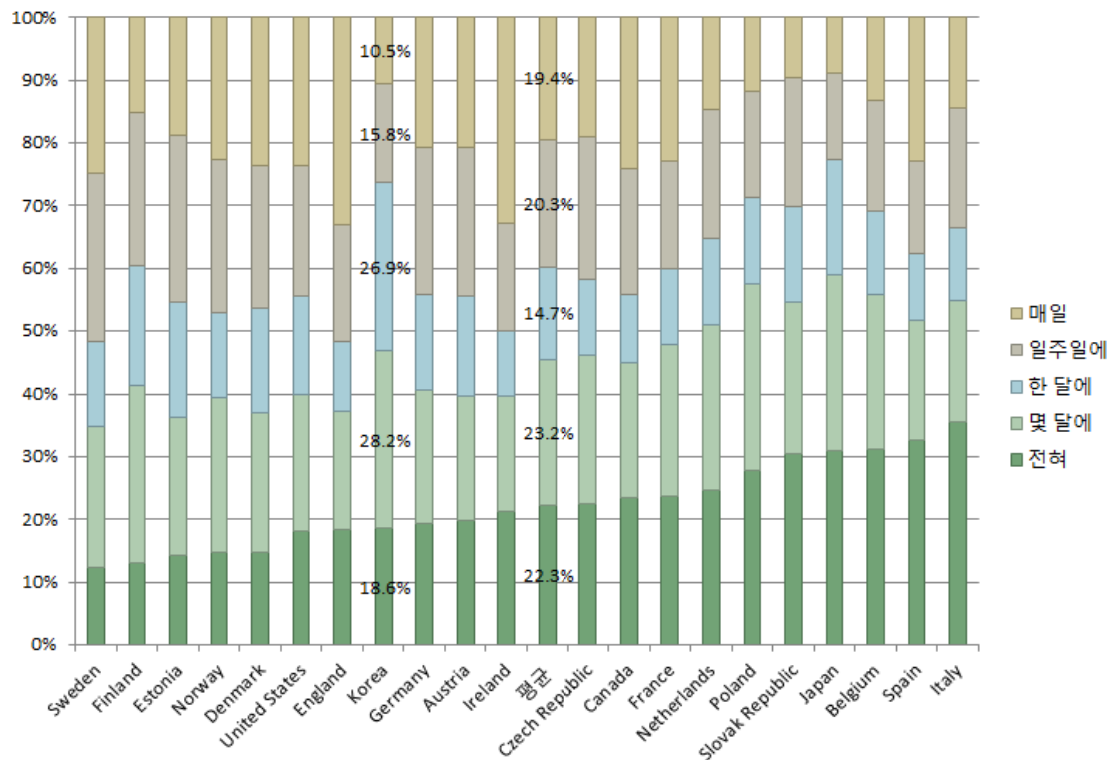


그림 6 35~44세의 독서빈도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35~44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그래프를 살펴보면, 35~44세 절반이상의 인구가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나라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이다. 습관화된 독자가 30%이하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폴란드 3개국 뿐이다. 매일 읽는 한국인 독자의 비율은 10.5%로 OECD 평균인 19.4%에 비해 절반이다.

(4) 45~54세 독서율과 독서빈도 국제 비교

45~54세의 독서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68.8%로 OECD 평균인 75.8%에 비해 7%p 낮다. 평균보다 높았던 16~44세 젊은 연령대와는 반대 양상을 띤다.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85%대의 높은 독서율을 보인다. 한국의 독서율이 이 연령대에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이들 국가는 이전 연령대와 거의 차이가 없이 독서율이 높다. 그리고 독일, 미국, 체코, 오스트리아가 6~10위를 차지한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약 69%의 독서율로 하위권에 속한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에	매일	독서율
Denmark	14.8%	21.7%	14.6%	21.9%	27.1%	85.2%
Sweden	15.2%	19.2%	14.6%	22.5%	28.5%	84.8%
Estonia	15.5%	21.9%	16.1%	26.3%	20.2%	84.5%
Norway	16.4%	24.3%	14.6%	21.2%	23.6%	83.6%
Finland	16.7%	29.1%	16.3%	21.4%	16.6%	83.3%
Germany	18.0%	25.3%	11.1%	22.0%	23.6%	82.0%
United States	18.8%	23.4%	13.1%	19.9%	24.8%	81.2%
Czech Republic	19.0%	24.5%	12.4%	25.3%	18.8%	81.0%
England	19.8%	17.8%	10.8%	18.9%	32.8%	80.2%
Austria	20.1%	22.7%	14.9%	22.7%	19.7%	79.9%
Ireland	21.9%	18.6%	11.1%	16.5%	31.8%	78.1%
평균	24.2%	22.3%	13.8%	19.1%	20.6%	75.8%
France	26.1%	21.8%	10.3%	17.0%	24.8%	73.9%
Netherlands	26.4%	24.1%	14.3%	17.8%	17.4%	73.6%
Canada	26.8%	20.2%	11.2%	17.9%	23.9%	73.2%
Japan	31.0%	26.3%	15.7%	14.4%	12.5%	69.0%
Korea	31.2%	22.1%	25.4%	13.8%	7.5%	68.8%
Slovak Republic	31.5%	20.9%	13.7%	21.5%	12.4%	68.5%
Poland	32.8%	26.0%	14.3%	15.4%	11.5%	67.2%
Spain	33.6%	15.9%	10.5%	15.6%	24.4%	66.4%
Belgium	35.5%	24.0%	12.1%	14.4%	14.0%	64.5%
Italy	37.2%	17.9%	12.4%	15.2%	17.4%	62.8%

표 8 45~54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45~54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독서율=100%-(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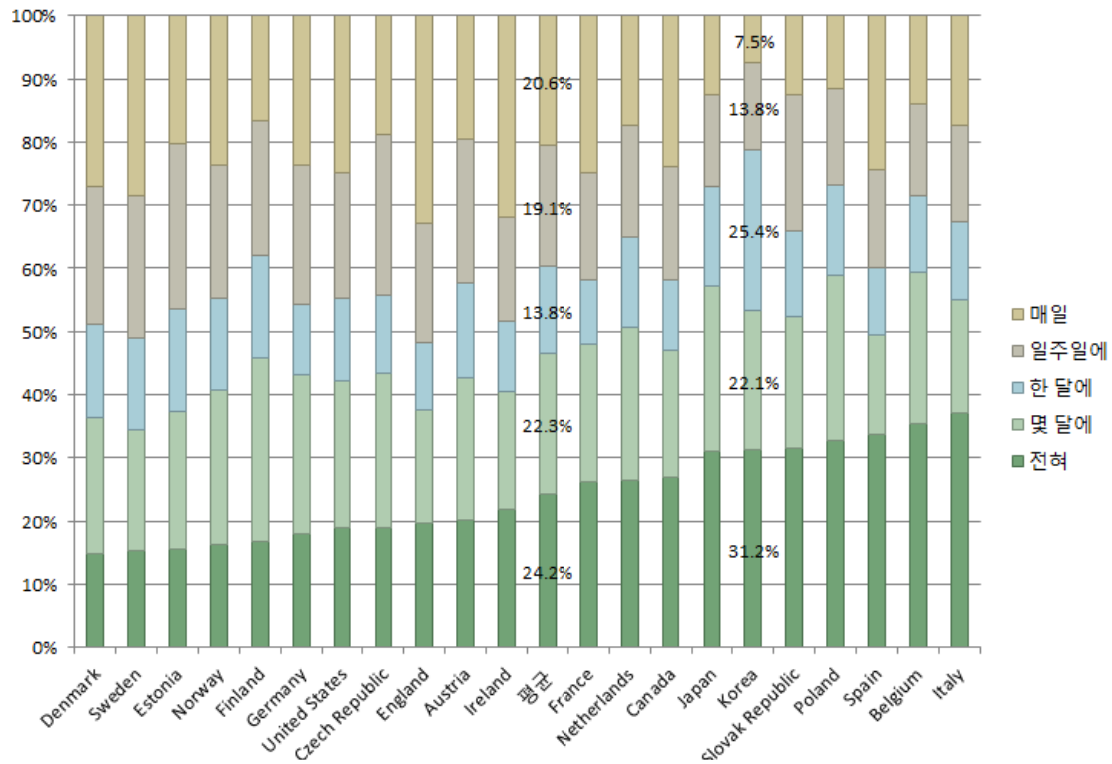


그림 7 45~54세의 독서빈도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45~54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45~54세의 독서빈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한국의 습관화된 독자는 약 20%로 모든 조사국 중 가장 낮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45~54세의 절반은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독자이다.

한국의 45~54세는 1960년대에 태어나 70~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베이비부머들이다. 이들은 학령기에 교과서로만 수업을 받았다. 취미로서의 개인적 독서가 이루어졌지만 학교에서의 독서지도는 거의 없었던 시기이다. 별도의 어린이, 청소년 도서의 출판도 매우 적었던 시기였다. 또한 이들은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문화적 경험이 없다. 이 세대에게 도서관은 입장료를 내고 칸막이식 자리에 앉아 시험 공부를 하던 경험을 관련되어 있다. 이들이 성년기 이전에 경험한 도서관은 대부분 폐가식으로 도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5) 55~65세 독서율과 독서빈도 국제 비교

55~65세의 독서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51%로 최하위이다. 하위권인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가 보이는 약 60%의 독서율보다도 9%p나 차이가 난다. 한국의 45~54세가 68.8%인데 비하면, 17.8%p나 급격하게 하락한다. OECD 평균이 73.9%과 비교하면, 무려 23%p가 낮다. OECD 조사국의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은 독서율이다. 55~65세 인구의 독서율은 한국의 전체 독서율 평균을 낮추는 주된 원인이 된다. 비독자를 독자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가장 필요한 연령대이다. 상위권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에스토니아, 독일로 83%~86%의 높은 독서율을 보인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에	매일	독서율
Denmark	14.2%	18.8%	12.8%	19.1%	35.0%	85.8%
Sweden	14.4%	20.6%	13.5%	20.6%	30.8%	85.6%
Norway	15.3%	21.2%	13.9%	20.0%	29.6%	84.7%
England	15.8%	16.4%	8.1%	17.8%	41.9%	84.2%
Estonia	16.4%	18.7%	13.3%	25.5%	26.2%	83.6%
Germany	16.7%	24.8%	13.3%	21.0%	24.3%	83.3%
Czech Republic	18.2%	20.7%	13.3%	23.1%	24.7%	81.8%
Finland	19.1%	30.0%	14.0%	16.8%	20.1%	80.9%
United States	19.3%	19.3%	10.6%	19.0%	31.8%	80.7%
Austria	21.5%	21.2%	14.2%	22.0%	21.1%	78.5%
Ireland	22.8%	18.2%	10.7%	14.7%	33.5%	77.2%
Canada	25.7%	18.4%	9.2%	16.1%	30.5%	74.3%
평균	26.1%	20.0%	12.2%	18.0%	23.8%	73.9%
France	27.1%	19.8%	11.0%	15.0%	27.1%	72.9%
Netherland	28.1%	20.6%	12.2%	19.0%	20.1%	71.9%
Slovak Republic	28.7%	22.7%	13.8%	21.0%	13.7%	71.3%
Poland	34.4%	21.6%	13.1%	17.5%	13.4%	65.6%
Belgium	39.3%	18.8%	9.9%	14.4%	17.6%	60.7%
Italy	39.3%	15.0%	10.0%	17.5%	18.3%	60.7%
Japan	40.9%	23.5%	12.1%	12.6%	10.9%	59.1%
Spain	41.6%	14.4%	9.5%	12.6%	21.9%	58.4%
Korea	49.0%	15.7%	17.0%	12.0%	6.3%	51.0%

표 9 55~65세의 독서빈도와 독서율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55~65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독서율=100%-(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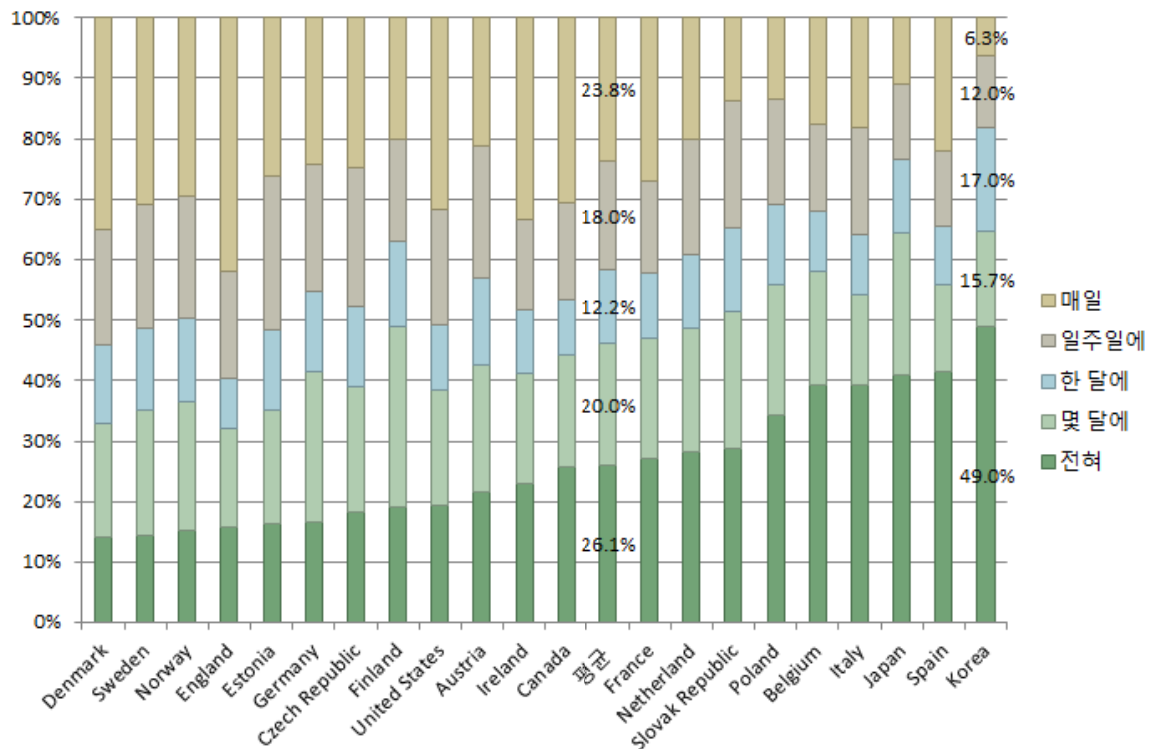


그림 8 55~65세의 독서빈도와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55~65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상위권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에스토니아, 독일의 55~65세 인구는 매일 읽는 독자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자녀양육이 종료되고 은퇴시기가 가까운 이 연령대에 매일 읽는 인구는 45~54세에 비해 오히려 더 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는 27.1%(45~54세)에서 35%로(55~65세), 스웨덴은 28.5%에서 30.8%로, 노르웨이는 23.6%에서 29.55%로, 핀란드는 16.56%에서 20.14%로 영국은 32.8%에서 41.9%로 는다. 45~54세에 비해 55~65세 연령대의 매일 읽는 독자가 줄어드는 나라는 단 3국으로, 최하위인 일본, 스페인, 한국뿐이다.

55~65세 한국인의 독서율은 최하위이고 또한 습관적 독자의 비율도 18.3%으로 월등하게 낮다. 55~65세 영국인의 약 60%가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인 점과 매우 대비된다. 55~65세의 절반이상이 습관적 독자인 국가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미국, 노르웨이 등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캐나다는 전 연령대에 걸쳐 OECD 평균과 가장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6) 16~24세 연령대와 55~65세 연령대의 독서율 차이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16~24세 연령대와 55~65세 연령대의 독서율 차이가 조사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우, 55~65세 독서율이 16~24세 독서율보다 더 높다.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미국은 거의 비슷하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일본은 55~65세 독서율이 16~24세 독서율보다 9~13%p정도 낮다.

	16~24세	55~64세	차이
England	75.7%	84.2%	8.5%p
Norway	77.0%	84.7%	7.7%p
Austria	73.1%	78.5%	5.4%p
Germany	79.5%	83.3%	3.8%p
Czech Republic	79.1%	81.8%	2.8%p
Denmark	83.4%	85.8%	2.4%p
Ireland	76.1%	77.2%	1.0%p
Slovak Republic	70.5%	71.3%	0.8%p
Sweden	84.8%	85.6%	0.8%p
Finland	80.5%	80.9%	0.4%p
France	75.7%	72.9%	-2.8%p
Estonia	87.3%	83.6%	-3.7%p
평균	78.1%	73.9%	-4.2%p
United States	85.4%	80.7%	-4.6%p
Netherlands	81.1%	71.9%	-9.1%p
Belgium	70.0%	60.7%	-9.3%p
Italy	70.8%	60.7%	-10.1%p
Canada	84.6%	74.3%	-10.3%p
Spain	68.8%	58.4%	-10.4%p
Poland	76.9%	65.6%	-11.2%p
Japan	72.2%	59.1%	-13.1%p
Korea	87.4%	51.0%	-36.4%p

표 10 16~24세 독서율과 55~65세 독서율, 그리고 그 차이

〈출처〉 PIAAC 2013

〈주〉 차이=(55~65세 독서율)-(16~24세 독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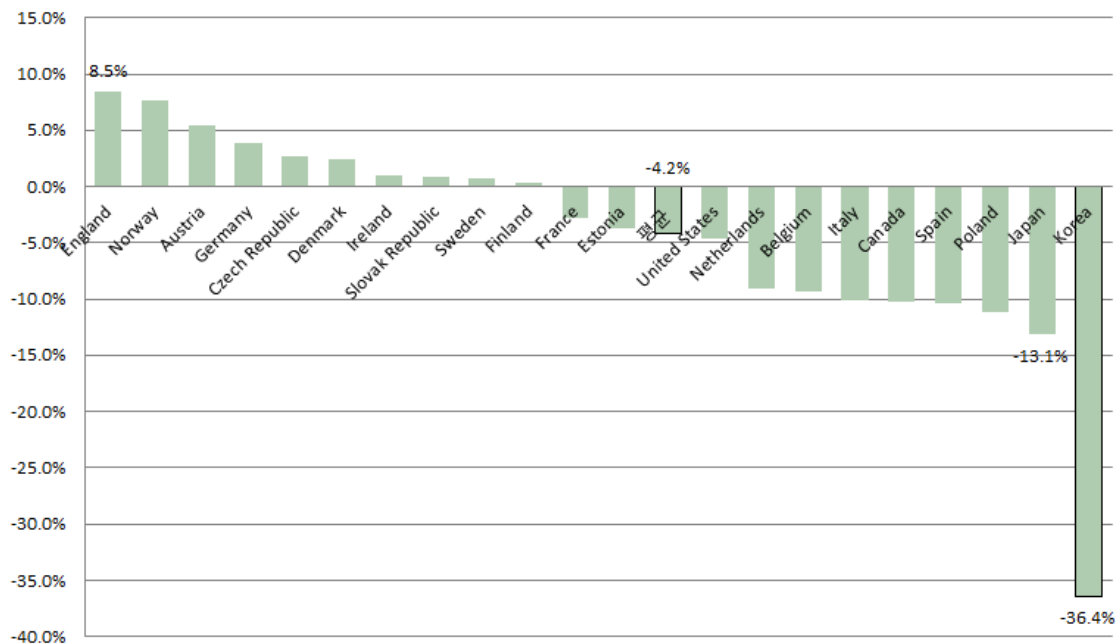


그림 9 55~65세 독서율과 16~24세 독서율의 차이

〈출처〉 PIAAC 2013

〈주〉 차이=(55~65세 독서율)-(16~24세 독서율), 단위는 %p

16~24세 연령대와 55~65세 연령대의 독서율 차이의 OECD 평균이 -4.2%p인데 비하면, 한국의 차이는 -36.4%p로 제일 두드러진다. 바로 위인 일본의 -13.1%p와 비교해도 약 3배 가까이 큰 수치이다. OECD 조사국 국민의 연령대별 독서율 차이는, 독서율 평균이 높은 나라이든, 그렇지 않은 나라이든 대부분 $\pm 10\%p$ 이내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의 세대별 차이,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대한 세대별 문화자본 차이가 크다. 학업과 직업, 자녀 양육 등으로 절대적 독서 시간이 부족한 34세 이하 젊은 세대의 독서율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한 편으로 한국의 도서관문화운동, 독서진흥운동, 어린이 청소년 출판, 학교 안팎의 독서교육 등이 만든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젊은 세대에 비해 중·노년은 절대적인 여가 시간이 많더라도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사서, 출판 등 독서와 관련된 풍부한 자원에 대한 경험, 이러한 문화자본을 자유롭게 이용해본 경험이 평생의 독서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유추할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중·노년의 독서보다 젊은 세대의 독서율이 낮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캠페인과 독서진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중·노년의 독서 진흥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4. 성별 독서율과 독서빈도 국제 비교

한국인의 성별 독서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69.7%, 여성은 78.5%의 독서율을 보인다.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의 독서율보다 약 9%p 높다. 독서의 빈도를 살펴보면, 여성은 매일 읽는 독자가 9.7%,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8.5%로, 습관적 독자가 총 28.2%이다. 여성 중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는 28%,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가 22.3%로, 간헐적 독자가 50.3%이다. 반면, 남성은 매일 읽는 독자가 7%,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4.6%로, 습관적 독자가 총 21.6%이다. 남성 중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는 24%,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가 24.1%로, 간헐적 독자가 48.1%로 나타났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에	매일	독서율
남성	30.3%	24.1%	24.0%	14.6%	7.0%	69.7%
여성	21.5%	22.3%	28.0%	18.5%	9.7%	78.5%

표 11 한국인의 성별 독서빈도 및 독서율

〈출처〉 PIAAC 2013, 한국의 16~65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독서율=100%-(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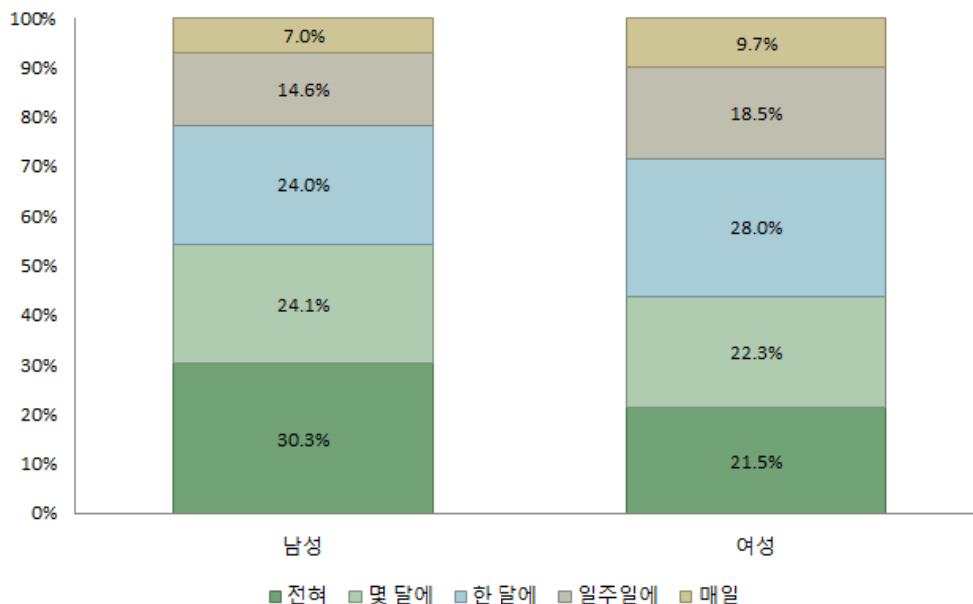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인의 성별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한국의 16~65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한국인의 성별 독서율을 국제 비교해보면, 한국은 성별 독서율 차이가 8.8%p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일본의 성별 독서율 차이가 7.3%p로 국제적으로 가장 작다. 경제 선진국인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의 독서율보다 높다. 남성의 독서율이 더 높은 국가는 하나도 없다. 평균적으로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보다 14.2%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성별 독서율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벨기에, 슬로바키아, 캐나다, 네덜란드, 폴란드 등으로 여성 독자가 17~21%p 더 높다.

	여성 독서율	남성 독서율	성별 차이
Japan	70.5%	63.2%	7.34%p
Korea	78.5%	69.7%	8.81%p
Sweden	91.0%	80.5%	10.56%p
United States	86.2%	75.2%	10.99%p
Denmark	90.5%	79.1%	11.45%p
England	86.2%	74.1%	12.13%p
Czech Republic	84.9%	72.4%	12.48%p
Finland	89.8%	77.2%	12.58%p
Estonia	90.8%	77.8%	13.04%p
Austria	85.2%	72.0%	13.22%p
Spain	72.0%	58.1%	13.88%p
평균	83.3%	69.2%	14.16%p
France	81.7%	67.4%	14.32%p
Norway	91.0%	76.3%	14.73%p
Ireland	85.0%	69.9%	15.03%p
Germany	88.8%	73.1%	15.66%p
Italy	71.6%	55.1%	16.54%p
Poland	82.2%	65.1%	17.09%p
Netherlands	82.3%	64.7%	17.59%p
Canada	86.2%	67.8%	18.40%p
Slovak Republic	79.5%	58.8%	20.71%p
Belgium	75.9%	55.0%	20.89%p

표 12 성별 독서율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성별차이=(여성 독서율)-(남성 독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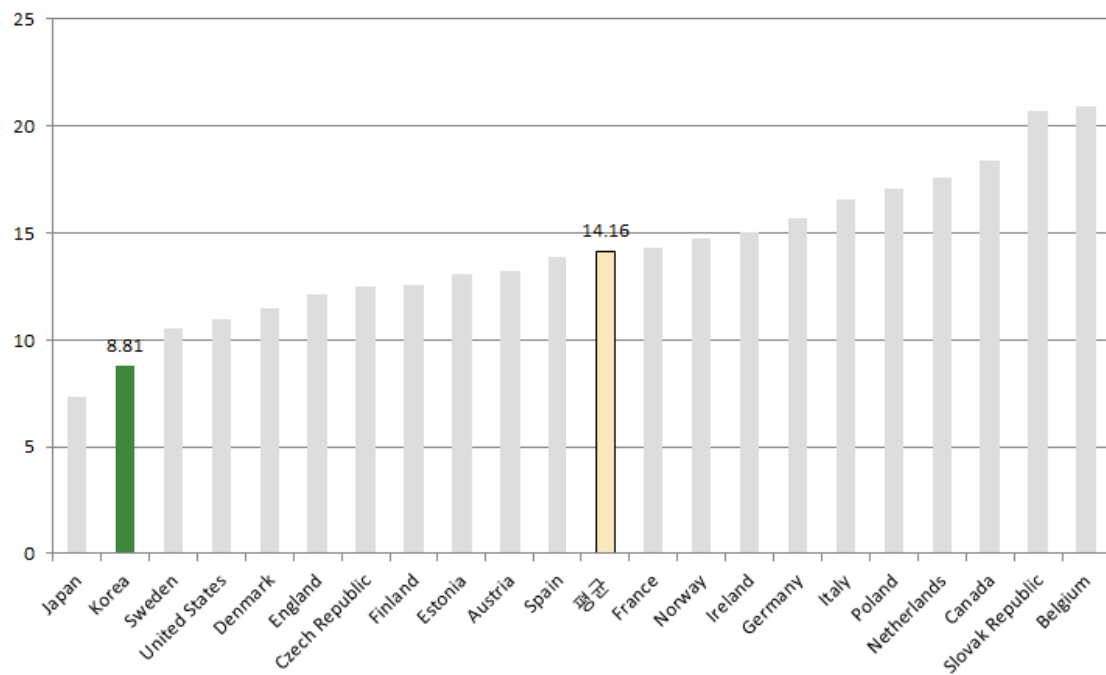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 독서율 차이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성별차이=(여성 독서율)-(남성 독서율), 단위는 %p

5. 한국과 주요국의 연령별·성별 독서율 국제 비교

한국인은 연령별 독서율 차이는 크고, 성별 독서율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성별 독서율 차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지 혹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성별 독서율과 연령별 독서율을 교차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독서율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남성 독서율	여성 독서율	독서율 차이
16~24세	82.7%	91.2%	8.5%p
25~34세	79.4%	90.8%	11.4%p
35~44세	73.8%	87.7%	13.9%p
45~54세	62.9%	74.1%	11.2%p
55~65세	52.4%	49.8%	-2.2%p

표 13 한국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출처〉 PIAAC 2013, 16~65세 한국 성인

〈주〉 독서율 차이=(여성 독서율)-(남성 독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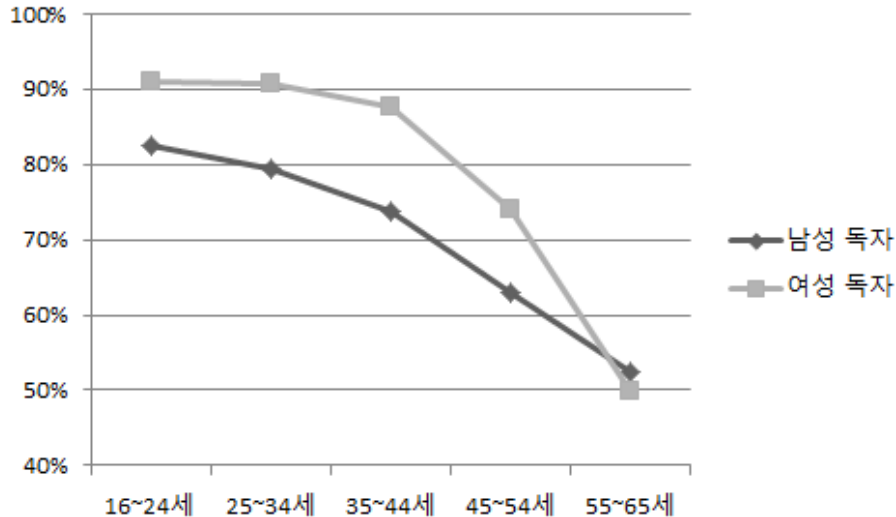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출처〉 PIAAC 2013, 16~65세 한국 성인

한국인의 성별 독서율 차이는 평균값으로는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16~54세까지는 약 9%p~14%p 정도 여성의 독서율이 높다. 그러나 55~65세에는 남성의 독서율이 여성의 독서율보다 앞선다.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높아지면서 독서율이 낮아지나, 여성 독자의 연령대별 독서율 하락이 남성보다 훨씬 가파르다.

주요국의 성별·연령별 독서율은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동아시아 비교국가로 일본, 영미권을 대표하여 미국과 영국, 최고의 독서율을 보이는 북유럽을 대표하여 스웨덴, 유럽 대륙 국가를 대표하여 프랑스, 남부 유럽을 대표하여 스페인의 성별·연령별 독서율 패턴을 살펴보자.

미국	남성 독서율	여성 독서율
16~24세	82.3%	88.5%
25~34세	75.9%	86.7%
35~44세	74.4%	87.0%
45~54세	70.0%	83.8%
55~65세	74.4%	85.6%

표 14 미국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미국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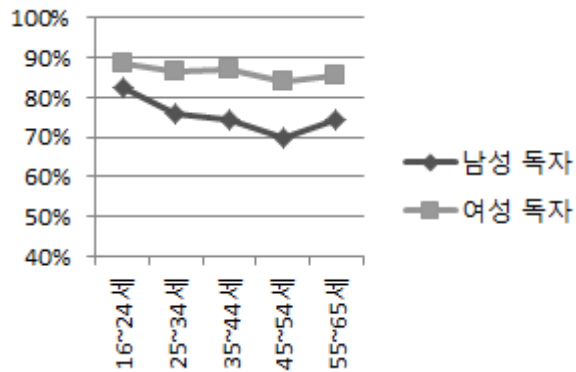


그림 13 미국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미국 성인

미국은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의 독서율보다 전 연령대에 걸쳐 높다. 그러나 연령대별 독서율 차이는 거의 없다. 16~24세의 독서율이 가장 높고 남녀 모두 45~54세의 독서율이 가장 낮지만 그 차이가 약 5~8%p 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55~65세의 독서율이 45~54세보다 약간 상회한다.

일본	남성 독서율	여성 독서율
16~24세	70.0%	74.6%
25~34세	66.3%	70.7%
35~44세	65.6%	71.9%
45~54세	60.8%	76.0%
55~65세	56.3%	61.9%

표 15 일본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일본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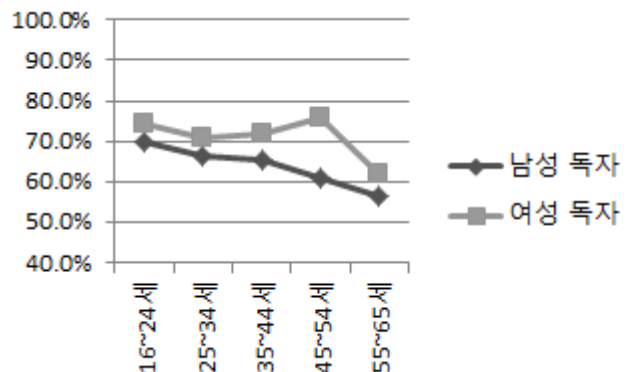


그림 14 일본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일본 성인

일본의 독서율은 전체적으로 56~76%로 낮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보다 아주 약간(3~4%p) 높다. 45~54세의 성별 독서율 차이는 약 15%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조금씩 하락한다.

스웨덴	남성 독서율	여성 독서율
16~24세	79.2%	90.1%
25~34세	82.8%	88.9%
35~44세	83.5%	92.2%
45~54세	79.1%	84.8%
55~65세	78.2%	93.4%

표 16 스웨덴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스웨덴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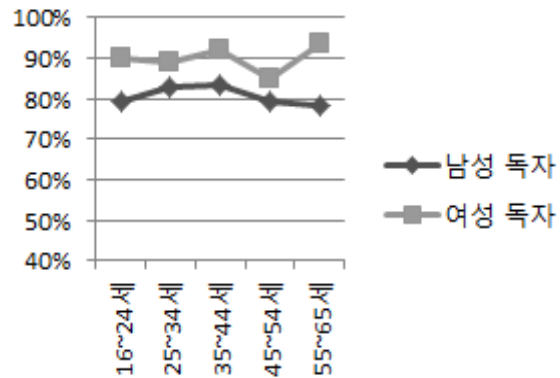


그림 15 스웨덴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스웨덴 성인

스웨덴의 독서율 평균은 85.7%로 조사국 중 가장 높다. 연령대별 독서율도 거의 차이가 없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독서율이 높다. 특히 여성의 독서율은 90% 전후로, 55~65세의 독서율은 무려 93.4%에 이른다. 같은 연령대의 우리나라 여성 독서율 49.8%와 대조를 이룬다. 남성의 독서율은 전 연령대에 걸쳐 8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55~65세 남성의 독서율도 78.2%로 우리나라의 52.4%에 비하면 약 26%p 높다.

프랑스	남성 독서율	여성 독서율
16~24세	70.5%	80.7%
25~34세	68.1%	81.8%
35~44세	67.5%	84.5%
45~54세	67.3%	80.6%
55~65세	64.9%	80.8%

표 17 프랑스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프랑스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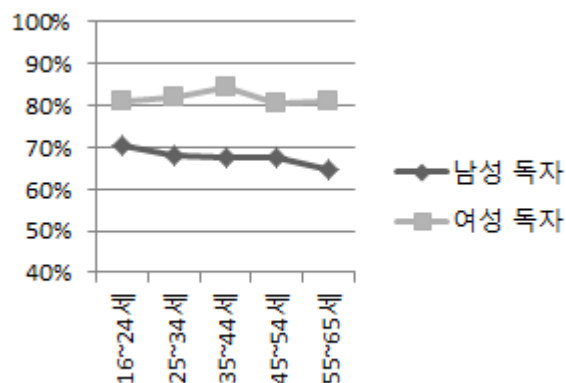


그림 16 프랑스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프랑스 성인

프랑스의 독서율 평균은 우리나라처럼 OECD 평균에 가깝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보다 높다. 특히 35~44세, 55~65세의 성별 독서율 차이가 약 15~17%p로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프랑스는 성별 독서율 차이가 크고 연령별 독서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

영국	남성 독서율	여성 독서율
16~24세	69.1%	80.7%
25~34세	75.6%	86.2%
35~44세	74.6%	86.2%
45~54세	72.6%	86.3%
55~65세	77.0%	89.8%

표 18 영국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영국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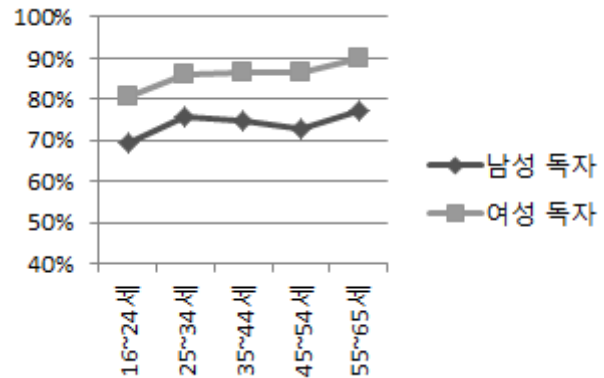


그림 17 영국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영국 성인

영국의 독서율 평균은 상위권에 위치한다. 흥미롭게도 영국인의 독서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16~24세 영국 남성의 독서율은 69.1%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고, 55~65세 여성의 독서율이 89.8%로 가장 높다. 젊은 남성의 독서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독서율이 낮아지는 우리나라와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독서율이 높다.

스페인	남성 독서율	여성 독서율
16~24세	62.6%	75.3%
25~34세	56.7%	71.5%
35~44세	61.5%	73.2%
45~54세	55.5%	76.2%
55~65세	53.5%	62.9%

표 19 스페인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스페인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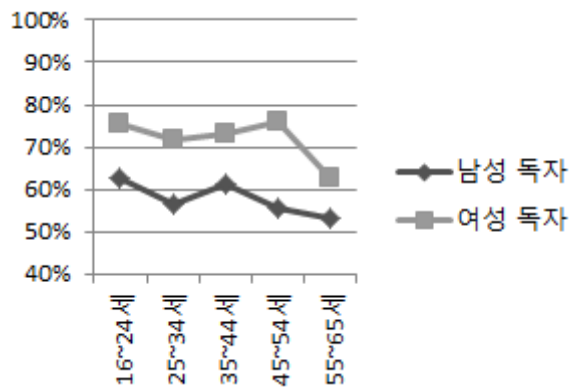


그림 18 스페인 성별·연령별 독서율

〈출처〉 PIAAC 2013, 16~65세 스페인 성인

스페인의 독서율은 조사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보다 높다. 45~54세의 성별 독서율 차이는 약 21%p로 벌어지다가 55~65세에 이르러 여성의 독서율이 급감하면서 성별 독서율 차이가 10%p로 좁아진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낮아지지만, 우리나라만큼 급감하지 않는다.

6. 학업 및 업무용 독서를 국제 비교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일상에서의 책읽기와 별개로 학업 및 업무와 관련된 독서에 대한 질문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학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 인구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독서실태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학업 및 업무용 독서에 포함되는 책은 소설이나 교양서를 제외하고, 학업을 위한 교과서 및 교재, 직업과 관련된 교재나 도서이다. 종이책 및 전자기기를 통한 읽기를 포함한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	매일	해당 없음
Korea	29.2%	11.2%	14.3%	11.4%	8.6%	25.1%
Japan	36.2%	15.7%	10.5%	9.1%	7.1%	21.0%
United States	43.9%	15.4%	7.4%	6.6%	7.6%	18.6%
Norway	48.4%	18.1%	6.8%	6.9%	4.7%	15.0%
Finland	43.6%	19.2%	7.8%	5.1%	4.0%	20.1%
Sweden	47.8%	18.4%	6.2%	5.6%	4.9%	16.9%
Canada	49.3%	15.2%	6.3%	5.9%	6.7%	16.5%
England	43.3%	13.7%	6.9%	6.4%	6.4%	23.2%
Estonia	45.8%	14.9%	7.5%	6.3%	4.2%	21.0%
Denmark	49.6%	15.9%	6.2%	5.6%	4.5%	18.0%
Germany	49.2%	14.6%	6.7%	5.3%	4.7%	19.5%
평균	47.0%	12.7%	6.1%	5.5%	4.7%	23.8%
Netherlands	53.3%	15.9%	6.0%	3.6%	2.8%	18.3%
Austria	51.8%	13.1%	5.8%	4.9%	3.2%	21.0%
Ireland	41.7%	10.4%	4.7%	5.1%	6.4%	31.7%
Belgium	47.9%	15.3%	5.3%	3.5%	1.8%	26.0%
France	51.3%	9.6%	3.2%	3.7%	3.2%	28.7%
Spain	50.4%	5.8%	3.8%	3.9%	5.1%	30.6%
Czech Republic	54.3%	7.0%	3.7%	4.3%	3.1%	27.0%
Poland	49.5%	6.8%	3.7%	4.2%	3.1%	32.3%
Slovak Republic	52.0%	5.0%	3.0%	4.7%	2.7%	32.4%
Italy	48.8%	4.7%	2.9%	2.8%	2.9%	37.3%

표 20 학업 및 업무용 독서빈도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학업 및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독서빈도, 단위는 퍼센트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일주일에 몇 번, 매일: 매일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업무와 관련된 책 읽기를 하는 독서비율이 전 인구의 49.49%, 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100%으로 놓으면 60.95%로 조사국 중 단연 최고이다.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회 읽는 적극적인 독자의 비율도 가장 높다. 다음이 일본과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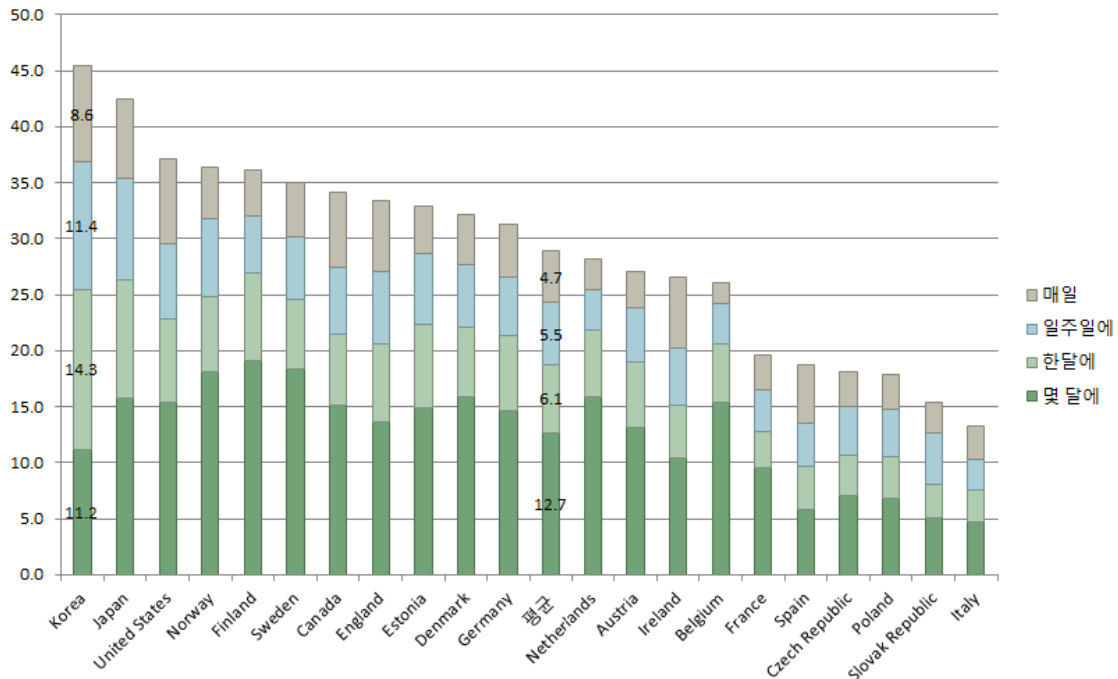


그림 19 학업 및 업무용 책읽기 독서빈도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학업 및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독서빈도, 단위는 퍼센트

일상생활 속의 소설 및 교양서의 독서율(전 인구 대상)과 학업 및 업무에서의 독서율(업무 종사자 대상)의 국가별 경향성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동아시아권인 한국과 일본은 일상생활의 독서율에 비해 학업 및 업무에서 책읽기를 하는 인구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일상에서 책읽기를 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고, 학업 및 업무에서 책 읽기를 하는 인구도 높다.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영미권도 양부분에서 비교적 높은 독자 비율을 갖고 있다. 반면, 체코와 프랑스는 업무와 관련 없는 독서율은 중위권인데 비해, 업무와 관련된 독서율은 하위권이다.

업무에서의 독서빈도는 국가의 산업 구조나 학생의 비율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책읽기가 요구되는 직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일수록 또한 학생 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업무용 독서율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언어능력 국제 비교

1. 언어능력 국제 비교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한국인의 언어능력은 272.6점으로 조사국의 평균인 272.8에 가깝다.²⁾

	언어능력	표준편차
Japan	296.2	(0.7)
Finland	287.5	(0.7)
Netherlands	284.0	(0.7)
Australia	280.4	(0.9)
Sweden	279.2	(0.7)
Norway	278.4	(0.6)
Estonia	275.9	(0.7)
Belgium	275.5	(0.8)
Czech Republic	274.0	(1.0)
Slovak Republic	273.8	(0.6)
Canada	273.5	(0.6)
평균	272.8	(0.2)
Korea	272.6	(0.6)
England	272.5	(1.0)
Denmark	270.8	(0.6)
Germany	269.8	(0.9)
United States	269.8	(1.0)
Austria	269.5	(0.7)
Poland	266.9	(0.6)
Ireland	266.5	(0.9)
France	262.1	(0.6)
Spain	251.8	(0.7)
Italy	250.5	(1.1)

표 21 언어능력 점수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단위는 언어능력 점수

2)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조사한 언어능력에 대해서는 2장의 시작 부분에 제시된 설명과 예시를 참고 바란다. 언어능력과 관련된 더 자세한 국제비교 분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 조사(PIAAC) 보고서」, 2013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이 296.2점으로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핀란드(287.5점)와 네덜란드(284점)의 점수가 높다. 통계적 유의도를 감안한다면, 한국은 체코, 슬로바키아, 캐나다, 영국과 비슷한 점수이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250점 이하로 하위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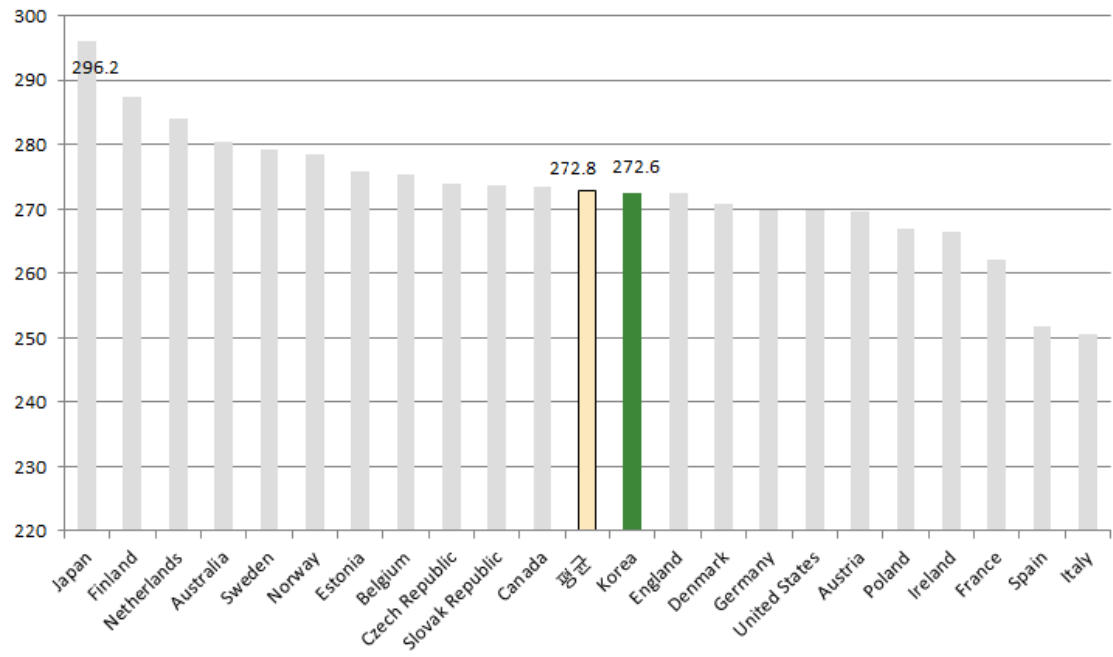


그림 20 언어능력 점수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단위는 언어능력 점수

2. 연령별, 성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1) 연령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한국인의 언어능력을 연령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정렬은 나라별 평균값 순이다.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5세	차이	평균
Japan	299.4	309.2	307.0	297.1	273.3	26.1	296.2
Finland	296.7	308.9	298.8	283.6	259.7	37.0	287.5
Netherlands	294.6	298.1	294.0	277.2	260.8	33.8	284.0
Australia	284.1	287.5	288.7	276.9	262.7	21.4	280.4
Sweden	282.8	290.0	287.4	276.0	262.4	20.4	279.2
Norway	275.0	288.5	288.2	277.5	261.9	13.2	278.4
Estonia	287.1	285.9	277.8	268.8	260.6	26.4	275.9
Belgium	285.0	290.8	282.4	271.9	255.0	30.0	275.5
Czech Republic	280.5	286.7	275.1	265.8	262.4	18.2	274.0
Slovak Republic	276.0	278.4	278.3	270.1	266.0	10.0	273.8
Canada	275.7	285.1	279.7	268.0	260.4	15.4	273.5
평균	279.6	284.1	278.9	267.9	255.2	24.4	272.8
Korea	292.9	289.5	277.5	258.6	244.1	48.8	272.6
England	265.7	280.0	279.0	271.0	265.0	0.7	272.5
Denmark	276.1	282.1	281.1	265.5	252.4	23.6	270.8
Germany	278.9	281.3	275.3	263.6	253.6	25.3	269.8
United States	271.5	275.5	273.4	265.9	262.9	8.6	269.8
Austria	277.7	279.8	274.6	266.2	249.8	27.9	269.5
Poland	281.5	277.2	268.1	259.1	249.1	32.4	266.9
Ireland	270.6	275.6	271.1	259.3	250.5	20.1	266.5
France	275.0	278.0	266.8	253.7	241.8	33.2	262.1
Spain	263.9	262.8	259.6	248.5	226.7	37.2	251.8
Italy	260.8	260.2	252.8	248.8	233.4	27.4	250.5

표 22 연령별 언어능력 국제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차이=(55~65세 언어능력 점수)-(16~24세 점수)

언어능력 점수를 다시 16~24세의 점수 순으로, 그리고 55~65세의 점수 순으로 다시 정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6~24세의 한국인은 292.9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일본, 핀란드, 네덜란드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 조사국 평균인 279.6점에서 13.3점이 높은 점수이다. 반면, 55~65세의 언어능력에 상위권에 속한 국가는 일본, 슬로바키아, 영국이다. 한국인의 55~65세 언어능력은 244.1점으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평균인 255.2점에서 11.1점이 낮은 점수이다.

	16-24세
Japan	299.4
Finland	296.7
Netherlands	294.6
Korea	292.9
Estonia	287.1
Belgium	285.0
Australia	284.1
Sweden	282.8
Poland	281.5
Czech Republic	280.5
평균	279.6
Germany	278.9
Austria	277.7
Denmark	276.1
Slovak Republic	276.0
Canada	275.7
Norway	275.0
France	275.0
United States	271.5
Ireland	270.6
England	265.7
Spain	263.9
Italy	260.8

표 23 16~24세 언어능력 점수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55-65세
Japan	273.3
Slovak Republic	266.0
England	265.0
United States	262.9
Australia	262.7
Czech Republic	262.4
Sweden	262.4
Norway	261.9
Netherlands	260.8
Estonia	260.6
Canada	260.4
Finland	259.7
평균	255.2
Belgium	255.0
Germany	253.6
Denmark	252.4
Ireland	250.5
Austria	249.8
Poland	249.1
Korea	244.1
France	241.8
Italy	233.4
Spain	226.7

표 24 55~65세 언어능력 점수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연령별 점수 차이를 크기에 따라 살펴보면, 16~24세의 점수는 55~65세보다 평균 약 24점 높다. 그런데 한국은 16~24세와 55~65세의 점수 차이가 48.8점으로, 젊은 세대와 중·노년 세대의 언어능력 차이가 가장 큰 나라이다. OECD 점수 차이 평균인 24.4의 두 배에 가깝고, 바로 위인 스페인의 37.2점과 비교해도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 반면,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는 나라는 영국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16~24세의 언어능력은 하위권이나, 55~65세의 언어능력이 상위권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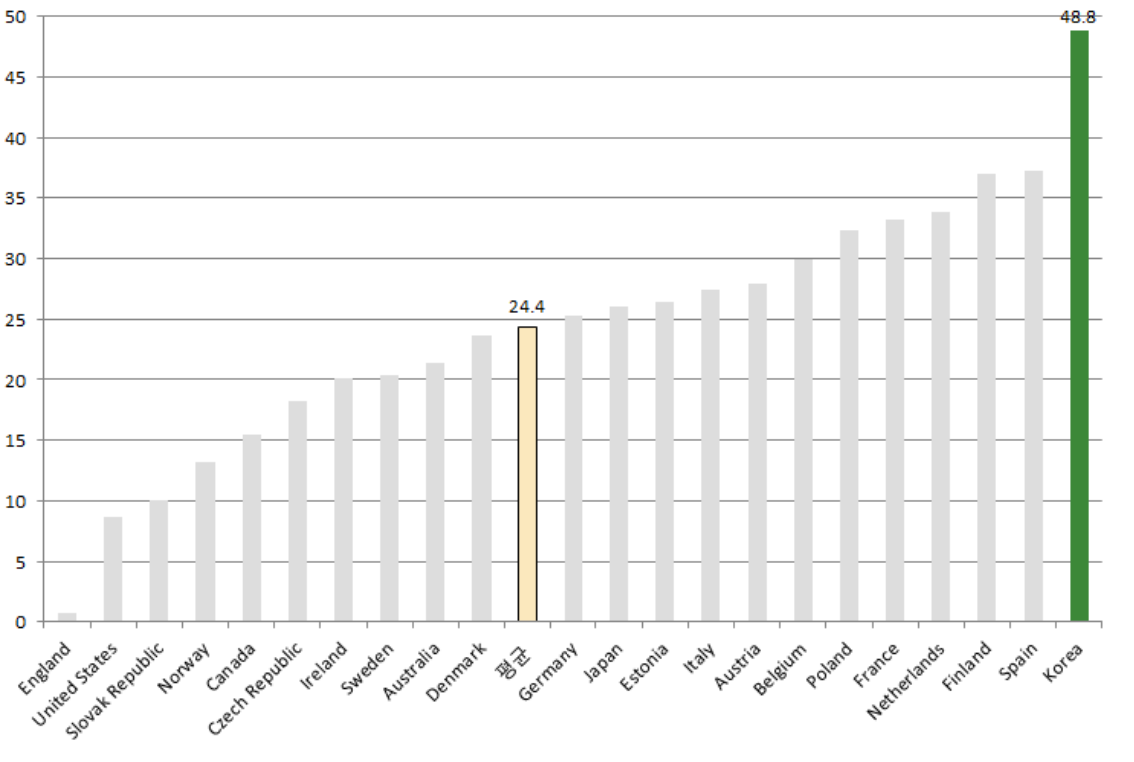


그림 21 55~65세의 언어능력과 16~24세 언어능력의 차이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단위는 점수 차이, 점수 차이=(16~24세 언어능력 점수)-(55~65세 언어능력 점수)

대부분의 조사국에서 최고의 언어능력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25~34세이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폴란드만 예외적으로 16~24세의 언어능력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이후부터 하락세에 들어선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매우 이른 시기인 20대 중반부터 언어능력의 하락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국인의 언어능력은 국제적으로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연령별 차이가 조사국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한국인의 언어능력을 평균으로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인의 10대와 20대 초반의 언어능력은 월등하나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져 55세 이상 중·노년의 언어능력은 심각하게 낮다.

(2) 성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언어능력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남성과 여성의 점수 차이가 조사국 중 가장 크다. 차이 점수는 남성 평균에서 여성 평균을 뺀 점수로, 한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는 남성의 언어능력이 여성보다 더 높다. 폴란드는 예외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언어능력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이외의 국가들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남성	여성	차이
Korea	275.7	269.4	6.3
Netherlands	287.1	280.9	6.1
Belgium	278.1	272.8	5.3
Germany	272.3	267.2	5.1
Spain	254.1	249.4	4.7
Austria	271.5	267.4	4.1
Norway	280.3	276.4	3.9
Czech Republic	275.7	272.3	3.4
Sweden	280.9	277.5	3.3
Japan	297.8	294.7	3.1
England	273.9	271.0	2.9
Canada	274.6	272.3	2.3
Ireland	267.7	265.4	2.3
평균	273.7	271.8	1.9
Australia	281.3	279.5	1.8
United States	270.2	269.5	0.7
France	262.0	262.2	-0.2
Italy	250.4	250.6	-0.3
Denmark	270.6	271.0	-0.4
Slovak Republic	273.5	274.2	-0.8
Estonia	275.1	276.6	-1.6
Finland	286.0	289.1	-3.2
Poland	263.7	270.1	-6.4

표 25 성별 언어능력과 차이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차이=남성의 언어능력 점수-여성의 언어능력 점수

3. 한국과 주요국의 성별·연령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한국인의 언어능력은 연령별 차이와 성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두 변인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비교해보았다.

	한국 남성	한국 여성	OECD 남성 평균	OECD 여성 평균
16~24세	294	292	279	280
25~34세	290	289	284	284
35~44세	281	274	280	278
45~54세	262	255	269	267
55~65세	252	237	257	253

표 26 한국인의 성별·연령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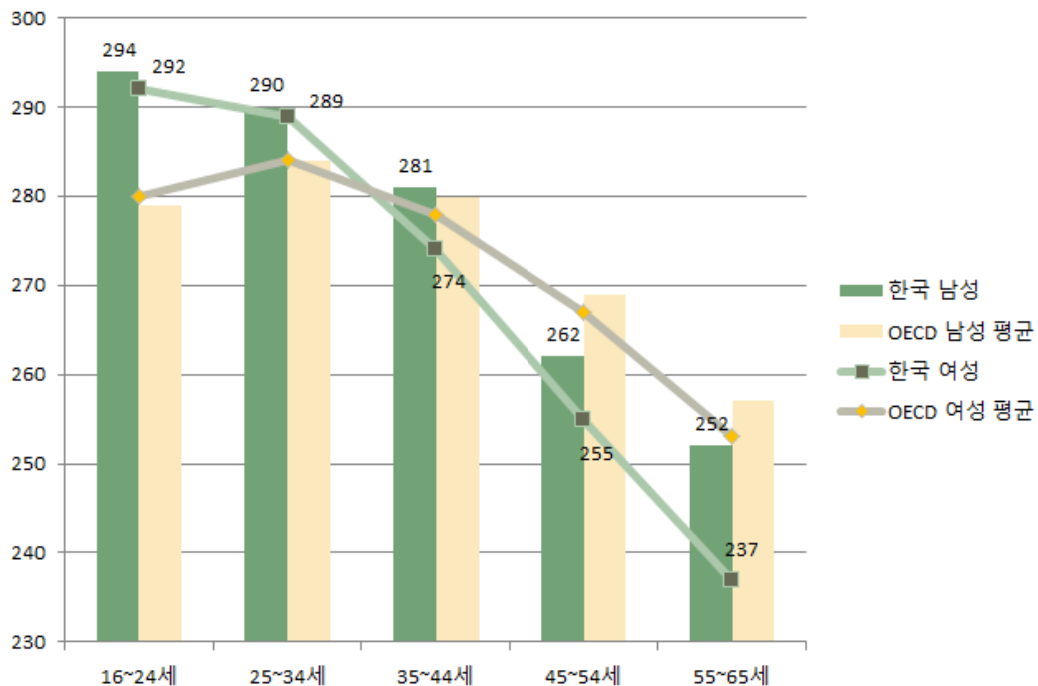


그림 22 한국인의 성별·연령별 언어능력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한국인의 언어능력 점수를 성별·연령별로 분석해보면, 16~24세, 25~34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없다. 즉, 남성이든 여성이든 16~34세의 연령대에는 성별 언어능력의 차이가 없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언어능력 점수를 나타낸다. 한국인의 성별 언어능

력 차이는 35세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며, 55세 이후에는 매우 크게 벌어진다. 한국은 OECD 조사국 가운데 가장 언어능력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큰 나라인데, 이 차이는 35세~65세 여성, 특히 45~65세 중·노년 여성의 낮은 언어능력에서 기인한다.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16~24세는 남녀 모두 매우 높은 언어능력을 나타낸다. 25~34세까지도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언어능력을 보인다. 그러다가 한국 여성의 언어능력은 35세 이후부터 OECD 평균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격차가 커진다. 반면, 한국 남성의 언어능력은 35~44세에는 OECD 평균과 같으나, 45세 이후부터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 여성의 언어능력 하락이 더 빠르게 시작된다.

한국인은 남녀 모두 16~24세를 정점으로 25세 이후부터 언어능력이 하강한다. OECD 평균을 살펴보면 25~34세의 언어능력이 최고점인 것과 대조된다. 가장 어린 연령대의 언어능력이 전 국민을 통틀어 가장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한국의 성별·연령별 언어능력의 유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문화권별로 일정한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고, 전 연령대별로 높은 언어능력을 나타낸다. 16~54세까지 300점대의 높은 언어능력이 유지되고, 55세 이후부터 하강한다. 25~44세에 가장 높은 언어능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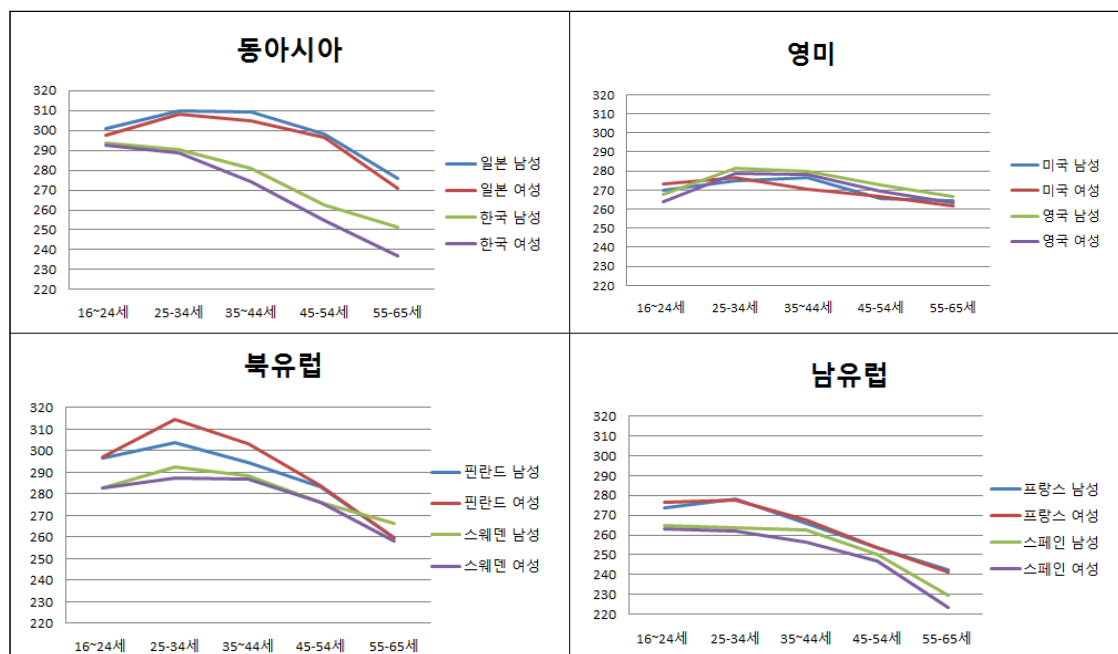


표 27 주요국의 성별·연령별 언어능력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영국과 미국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성별 차이와 연령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16~24세의 언어능력은 OECD 평균 수준이나 연령이 높아져도 언어능력의 하강이 거의 없다. 55~65세의 언어능력은 조사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16~35세 젊은 층의 언어능력은 평균에 가까우나, 중·노년층의 언어능력은 높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전 연령대에 걸쳐 높은 언어능력을 보인다. 특히 25~34세의 언어능력이 최고로 높고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서서히 하강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과 비교하면 하강의 추세가 완만하다. 평균적인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핀란드의 경우는 25~44세에 여성의 언어능력이 월등히 높고, 스웨덴은 55~64세에 여성의 언어능력이 약간 낮아진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하면 중장년층의 언어능력 또한 상위층이다.

남유럽의 프랑스와 스페인은 전 연령대와 성별에 걸쳐 낮은 언어능력을 보인다. 언어능력의 남녀 성차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프랑스는 전 연령대에 걸쳐 성별 차이가 없고, 스페인은 35~44세부터 차이나 나타나나 크지 않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24세의 언어능력이 25~34세에 유지되다가 35세 이후부터 서서히 낮아진다. 언어능력의 하강 곡선을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25세 이후부터 일찍 시작되는 반면, 남유럽은 45세 이후부터 본격화된다. 따라서 남유럽 국가의 언어능력은 전 연령대에서 한국보다 낮지만, 그 차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좁아져서 55세 이상 중·노년층의 언어능력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3절

독자와 비독자의 언어능력 국제 비교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독서와 언어능력은 서로 관련이 있을까. 3절에서는 일상 속에서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 간에 언어능력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혀	몇 달에	한 달에	일주일에	매일
Japan	282	299	305	311	304
Finland	255	284	299	303	298
Netherlands	259	290	293	296	293
Belgium	258	281	285	287	287
Norway	255	277	287	288	284
Sweden	251	275	285	289	287
Slovak Republic	258	276	282	284	281
Korea	246	278	282	284	284
Czech Republic	255	277	278	283	280
Estonia	252	276	281	285	278
Canada	250	276	277	284	284
평균	249	274	280	283	283
England	241	271	280	279	285
Poland	244	269	275	282	284
Germany	242	268	278	281	282
Austria	248	267	274	280	282
United States	241	272	275	280	279
Denmark	239	271	278	280	279
Ireland	242	270	269	273	280
France	238	264	270	270	277
Italy	234	253	260	264	272
Spain	231	254	258	263	271

표 28 독서빈도별 언어능력 점수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책읽기의 빈도에 따른 언어능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특히 매일 읽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사람들 간에 언어능력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혀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와 책을 조금이라도 손에 잡는 독자 간에는 언어능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 아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국에서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책을 읽는 인구의 언어능력 점수는 비독자의 언어능력 점수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독자의 언어능력 평균은 246점인데 비해,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는 278점을 나타낸다.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와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를 비교하면, 모든 조사국에서 공통적으로 약간의 점수 차이가 존재한다. 습관적으로 읽는 독자와 간헐적으로 읽는 독자 사이에도 언어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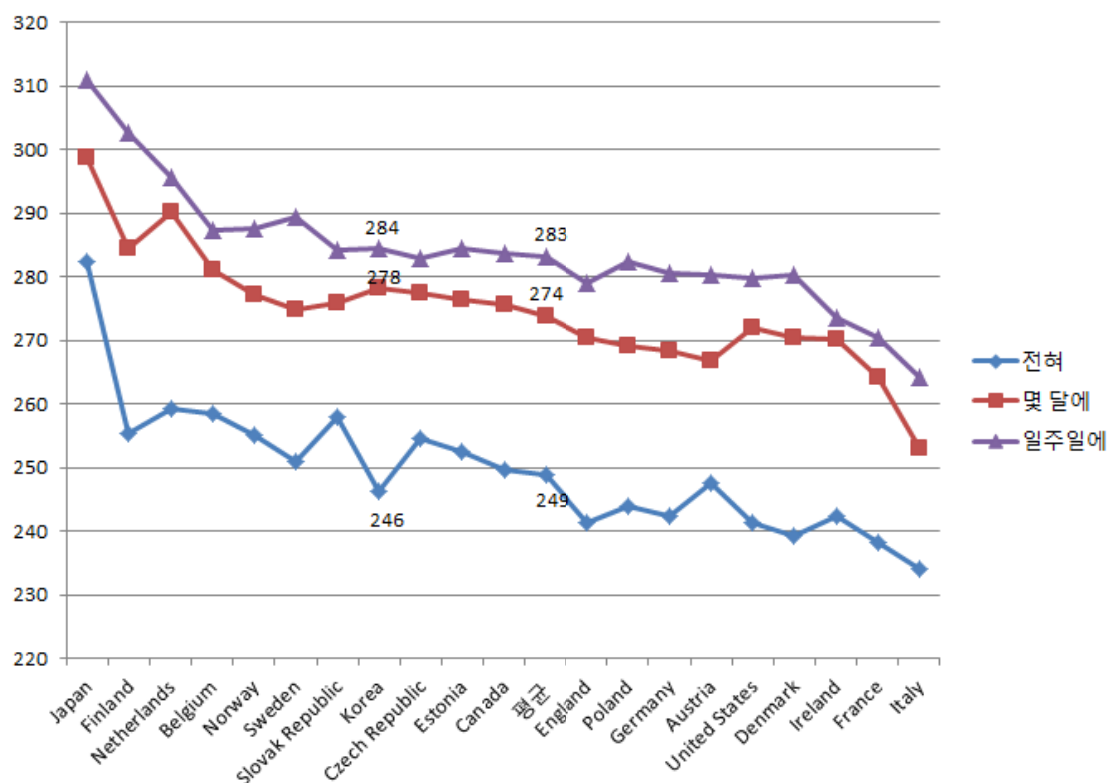


그림 23 독서빈도별 언어능력 점수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책읽기만으로 언어능력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학력, 여가시간, 경제력, 직종, 문화자본 등의 많은 요인이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어능력이 높다고 해서 책을 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책을 읽는 독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비독자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언어능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에 변인을 통제한 상관 연구가 필요하다.

학업 및 업무 독서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언어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학업 및 업무 종사자의 언어능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업과 업무에 관한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인구와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읽는 인구는 언어능력 점수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몇 달에 한 번 읽는 학업 및 업무 관련 도서 독자는 287점인데 비해, 학업 및 업무 관련 도서를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는 270점의 언어능력 점수를 보인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업 및 업무 종사자가 교재나 교과서를 얼마나 자주 읽는지는 언어능력 점수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독자와 비독자의 언어능력 차이는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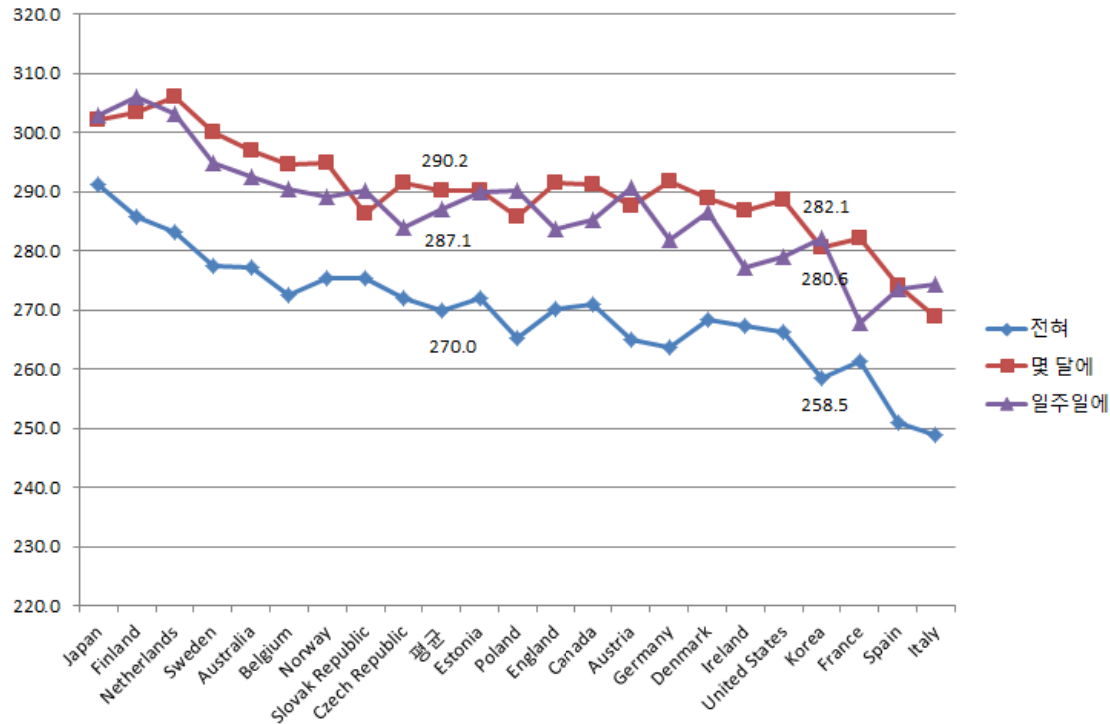


그림 24 학업 및 업무 관련 도서빈도별 언어능력 점수 국제 비교

<출처> PIAAC 2013, 16~65세 성인 중 학업 및 업무 종사자

<주>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3

주요국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1절

미국의 독서진흥 정책과 활동



1. 독서환경과 독서실태

미국은 51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공화국으로, 각 주마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도서관 정책, 독서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다. 약 3억 2천만명(2014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기대 수명은 78.84세(2013년, 월드뱅크)이다. 이민자의 나라로 다인종, 다민족이 살고 있다. 백인(해스페닉 제외)이 62%, 히스패닉이 17%, 흑인 및 아프리카인 미국인이 12%, 아시아인이 5% 등으로 인종과 관련된 차별과 불평등이 종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독서와 관련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성인 및 그 자녀의 읽기,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이민자 가족의 문해력, 경제적 약자의 책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 이슈가 된다.

201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8조 달러로 월등한 경제 최강국이다. GDP 2위인 중국(약 11조 4천 달러), 3위 일본 (약 4조 달러) 4위 독일(약 3조 3천 달러)의 총합과 비슷하다. 3차 산업이 약 85% 이상인 산업구조로, GDP에서 기여하는 산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20.2%
공공 부문	12.9%
제조업	12.0%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12.0%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8.2%
도매업	6.0%
소매업	5.8%
정보	4.6%

표 29 미국 GDP를 차지하는 산업 1~8위와 비율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4

1인당 GDP는 54,629 미국달러(2014년, OECD)로 상위권이다. 실업률은 2008년 경제위기로 9.6%까지 급상승하였으나, 점점 줄어들어 2014년 6.2%까지 줄었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밝혀진 독서와 관련된 미국인의 특성을 통계 수치로 살펴보면, 미국인의 독서율은, 80.1%로 상위권이다. 책 읽기의 빈도는 전혀 읽지 않는다가 19%, 몇 달에 한 번이 21%, 한 달에 한 두 번이 13%, 일주일에 몇 번이 20%, 매일이 27%이다.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47% 가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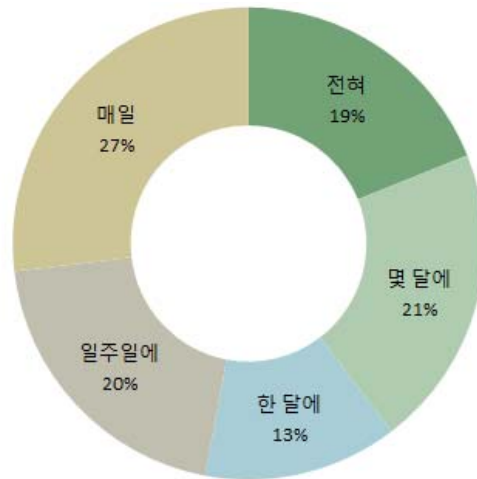


그림 25 미국인의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주〉 미국의 16~24세 5010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성별 독서율을 비교해보면,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에 비해 독서율도 높고, 더 자주 읽는다. 여성의 85%가 독자인데 비해, 남성은 75%가 독자이다. 독서의 빈도를 놓고 보았을 때도 매일 읽거나(33%)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22%) 습관적 독자의 수가 여성은 52%인데 비해, 남성은 3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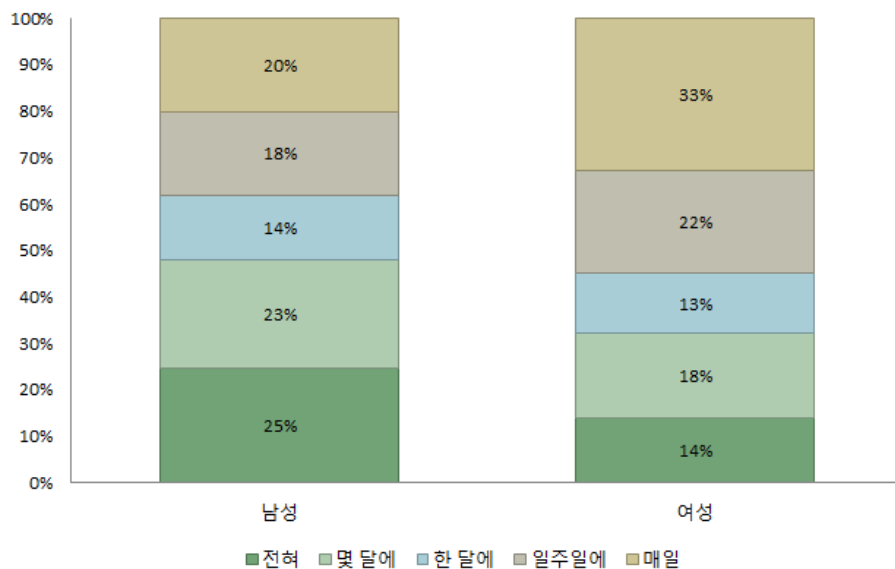


그림 26 미국인의 독서빈도 성별비교

〈출처〉 PIAAC 2013

〈주〉 미국의 16~24세 5010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 간의 독서율 차이가 비교적 거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독서율은 16~24세에 85%로 가장 높고, 서서히 낮아져 45~54세에 77%까지 내려간 다음, 55~65세에는 81%로 다시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55~65세 독서율 49%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미국은 오히려 자녀 양육이 끝나는 55세 이상의 경우 매일 읽는 독자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인은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높다. 16~24세와 55~65세의 습관적 독자는 약 50%으로 매우 높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독서율 또한 70%로 높게 나타난다.³⁾ 시니어층의 독서율이 줄어들지 않고 독서가 습관화된 평생 독자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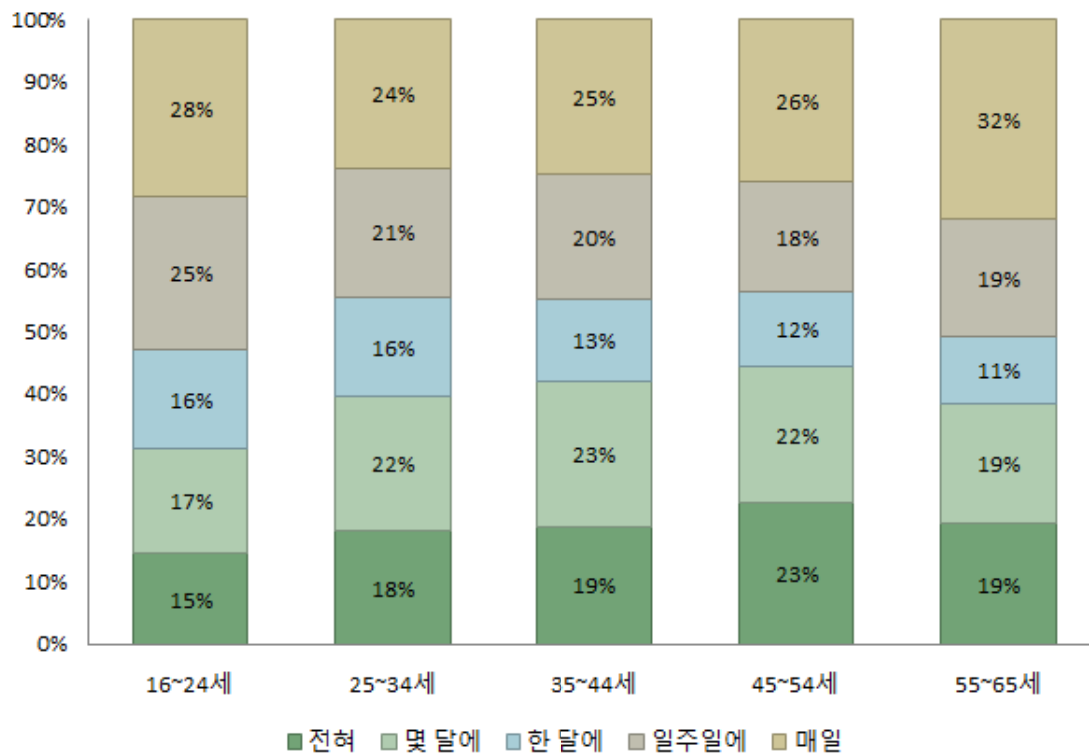


그림 27 미국인의 독서빈도 연령별 비교

〈출처〉 PIAAC 2013

〈주〉 미국의 16~24세 5010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하지 않음,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매일: 매일

3) Pew Research Center, *E-Reading Rises as Device Ownership Jumps 2014*, p.7

미국인의 성별·연령별 독서율을 교차 분석 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성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독서율이 높고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없다. 16~24세의 연령대에는 성별 차이가 7%p로 크지 않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이가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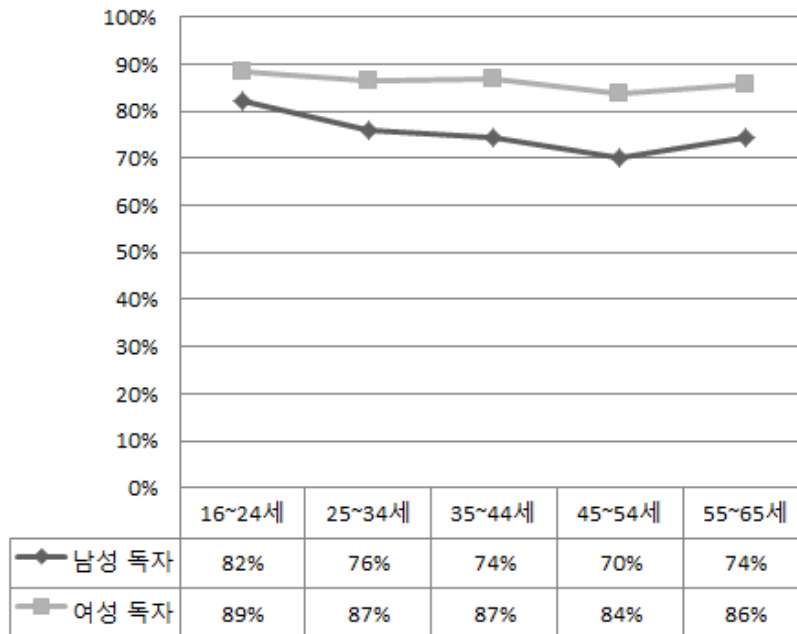


그림 28 미국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출처〉 PIAAC 2013

〈주〉 미국의 16~24세 5010명 대상 인터뷰 조사

미국인의 가구당 도서관가입비는 연간 103달러 (2014년,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이며, 도서관 가입 비율은 전 인구의 64% (2014년, Harris Interactive)를 차지한다. 미국 독자들은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2015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미국인은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빌려 읽는 인구가 5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체인서점 (52%), 중고서점(45%), 친구나 가족, 동료에게 구하는 경우(44%), 인터넷 서점이나 사이트(40%), 대형마트(37%), 독립서점(32%) 순이다.⁴⁾

미국인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북클럽에 적극적이다. 가정집, 도서관, 서점, 커피숍, 술집 등 다양한 공간에서 북클럽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몇 년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가구수입 20만 달러이상의 인구 중 7.1%가, 가구수입 10만 달러이상의 인구 중 5.6%가 북클럽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다.⁵⁾

4) Publishing Technology, *Millennials & Media*, 2015

5) Ipsos, *2014 Ipsos Affluent Survey USA*, 2014

책을 읽는 목적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읽기가 즐겁기 때문(80%), 시사 이슈나 최신 정보를 알기 위해(78%)라는 응답률이 높다. 다음으로 관심 주제에 대해 조사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 (75%) 읽는다는 응답이 나온다. 직업이나 학교에서의 필요하기 때문에 읽는다는 응답은 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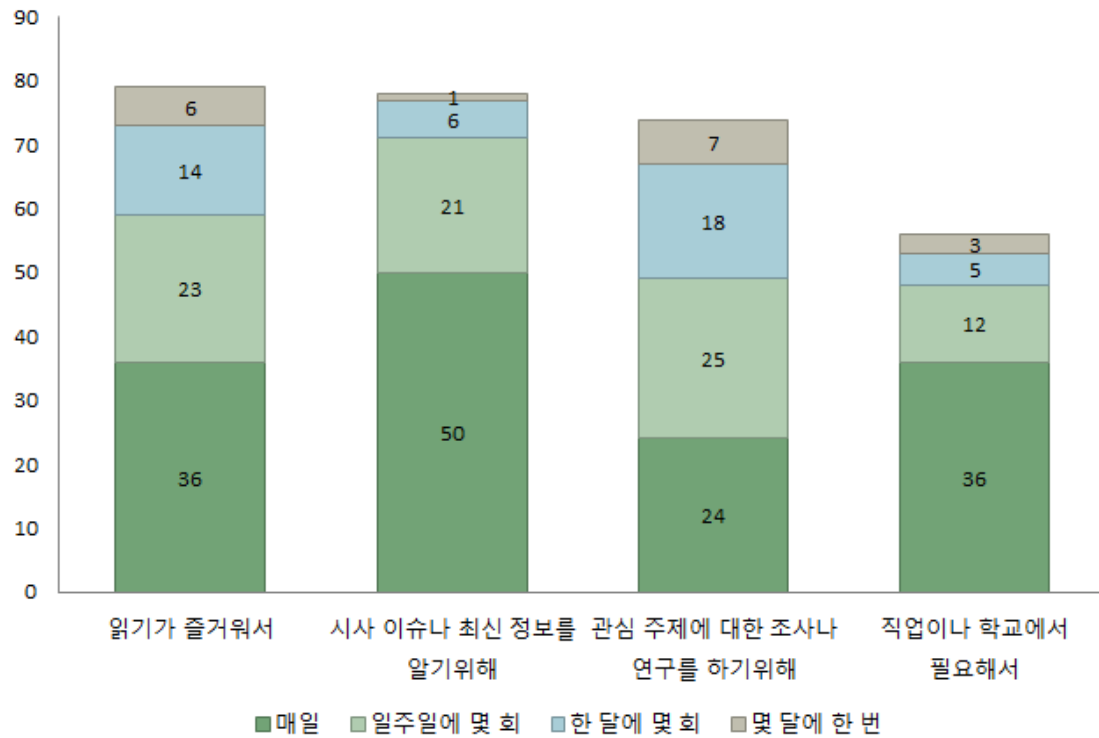


그림 29 미국인이 지난 1년간 책을 읽은 목적과 빈도 (2011년 조사)

〈출처〉 Pew Research Center, *The rise of e-reading*, 2012

〈주〉 16세 이상 미국인 2,986명, 단위는 퍼센트

2.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진흥정책을 입안한다. 연방 정부이든 주정부이든 독서정책이 실현되는 기관은 크게 학교와 도서관이다. 학교는 주로 학생의 문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포함한 시민의 독서문화증진에 초점을 둔다.

도서관의 기능도 분업화되어, 학교도서관인 스쿨미디어센터(School Media Center)는 학생들의 읽기능력, 정보 문해력 (Information Literacy)과 연구기술(Research Skills) 등 '배움을 위한 독서'에 초점을 두고, 공공도서관은 '독서의 즐거움'에 초점을 둔다.

학교의 독서교육은 읽기 수업과 스쿨미디어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 독서진흥 정책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 문해력의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재고
- 초중등학교의 24%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 학생의 낮은 독서율과 문해력의 향상
- 저소득층 자녀의 독서 환경 개선과 문해력 향상
-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읽기 교수법의 강조
- 표준화된 읽기 평가의 강조
- 학교에 리딩 스페셜리스트나 리딩 코치 지원
- 학교도서관을 통한 전 과목 독서 강조
- 학교도서관을 통한 정보 문해력과 연구기술 향상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정책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이루며 이루어진다. 도서관 중심의 독서진흥 정책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 가족 문해 프로그램 강조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공간과 프로그램
- 한 도시 한 책 읽기, 북클럽 등 함께 읽기 도모
- 정보사회 컴퓨터 활용 교육
- 평생 교육의 거점

(1)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정책

미국은 읽기 전쟁(Reading War)이라고 불릴 만큼 독서교육과 관련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주로 아동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진영의 논쟁이다. 하나는 ‘발음 중심’의 교수법으로, 읽기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자모의 체계나 발음의 규칙 등 읽기의 하위기술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접근이다. 알파벳의 음소나 글자 읽기를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의미 중심’의 교수법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언어가 풍부하게 사용되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서 총체적으로 읽기를 배워야 한다는 접근이다. 이 두 진영의 논쟁은 학계 뿐 아니라, 신문의 논설, 선거의 정치적 캠페인에서도 매우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그리고 어떤 진영의 접근법이 우세한가에 따라 독서교육정책의 초점과 내용, 재정지원이 달라졌다.

이 논쟁은 오랜 역사에 기원을 둔다. 존 듀이(John Dewey)의 진보주의적 아동중심적 교육 방법을 표방하던 1940~50년대의 독서교육정책은 의미 중심 접근법이 우세하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구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발사 이후 소련과의 학습 경쟁으로 1958년 국방부교육법안(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에 의해 국방예산이 독서교육을 위해 배정된다.⁶⁾ 이 예산은 교사가 주도하여 하향식으로 발음의 규칙을 아이들에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발음중심의 독서교육에 할애되었다. 또한 연방정부가 학교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지원을 최초로 명시하여 학교도서관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⁷⁾

발음중심의 독서교육 기조로 1964년에는 연방정부가 국가학업성취도검사(NAEP)를 도입했다. 이 시험은 표준화된 평가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장기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6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서 타이틀 원(Title 1)이라는 재정지원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정책의 핵심은 저소득층 아동의 비율이 높은 학교의 독서와 수학 학습을 지원하는데 있었다. 타이틀원은 이후 2002년 부시 행정부의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으로 발전된다. 한편으로 과학적 연구와 과학적 측정을 통해 학생의 독해력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력의 차를 좁히려는 미국 독서교육의 정책적 특징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과학적 방법론과 측정을 강조한 60년대~70년대초의 독서교육정책으로 아동의 글자 읽기 능

6) 마이클 맥케너, “미국 문식성 교육의 현황과 문제들”, 『독서교육연구』 제7권, 2011, pp.5-25.

7) 학교도서관의 설치한 학교 수가 1958-59년 41,463개교에서, 1960-61년 47,546개교(46%)로, 1962-63년도에는 49,158개교(59%)로 급증하게 된다. 광철완, 최재황, “미국 학교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연방 법률과 학교 도서관 기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2008, 119쪽.

력은 유창해졌으나 읽기 이해력은 큰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70~80년대에는 이해중심의 독서교육이 강조되었다. 1976년 연방독서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Reading)가 일리노이 대학에 만들어져, 발음중심 지도법과 이해중심 지도법의 모두 포함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총체적 언어 교수법(Whole language teaching)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총체적 언어교수법은 구체적인 맥락을 가진 풍부한 언어환경 속에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활동을 통해 언어가 발달한다고 본다. 그래서 글자 학습이나 단계별 읽기교재(basal readers)보다는 그림책이나 아동 문학 읽기나 생활환경에서 볼 수 있는 읽기를 강조했다.

1965년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도서관 장서의 기준을 주별로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결과 학교도서관의 학생당 장서의 수는 3권(1953/54년)에서, 5권(1962/63년), 12권(1978/79년)으로 급속히 늘었다. 학교도서관이 있는 학교의 수도 59%(1962/63년)에서 85%(1978/79년)으로 증가했다.⁸⁾

총체적 언어교수법은 1992년 국가학업성취도검사(NAEP)에서 최초로 공개한 주별 성취도 결과에서, 이 교수법을 가장 활발히 시행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낮은 독해력을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1997년 독서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위원회(National Reading Panel)를 만들고 이제까지의 연구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독서교육 방법을 추출하도록 했다. 의회는 이 방법을 학교현장에 실행할 수 있도록 1998년 독서진흥법(Reading Excellence Act)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2000년 보고서 "Teaching Children to Read"을 발간한다. 이 보고서에는 주로 실험연구와 준-실험연구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발음 중심, 해독 중심의 교수법을 주로 제안했다. 연방정부는 이 보고서가 제시한 방식으로 교수법과 교재를 사용하겠다고 서약한 주정부에만 재정지원을 했다. 이에 대해 매우 따라서 학교 현장은 발음중심의 교수법이 다시 우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체적 언어 학습법을 주장하는 진영과 발음 중심의 교수법을 주장하는 진영 사이에, 학계를 비롯한 언론,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발음 중심의 접근은 독해력의 하락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총체적 언어 교수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총체적 접근 쪽에서는 독해력의 하락은 저소득층 아동의 부족한 언어적 환경, 이민자 가족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읽기 수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격렬한 논쟁 이후 미국의 읽기 교육은 이 두 가지 접근을 다 아우르는 읽기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한 편으로는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발음중심의 수업, 단계별 해독 교육이 이루어지고,

8) 위의 글, 120쪽.

다른 한 편으로는 그림책, 아동 문학, 정보 책을 통한 의미 중심의 읽기교육, 아동의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전통을 반영한 읽기교재와 수업활동을 담아내고 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1965년의 타이틀 원을 더 발전시켜 아동 낙오 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을 제정한다. 주마다 성취 목표를 정하게 하고, 주에서 일정한 학년에 모든 학교에서 표준화된 시험을 보아 성취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는 재정 삭감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학교의 성취도를 국가가 통제하는 동시에, 리딩 퍼스트(Reading First)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연방 정부는 리딩 퍼스트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재와 교수법으로 읽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리딩 코치를 두어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 수업을 하도록 지원했다. 매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한 리딩 퍼스트는 독해력 발달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에 당면하여 2008년 폐지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히스패닉계 이민자 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1995년 14%였던 히스패닉 초중등 학생의 비율은 2012년 24%까지 상승했다. 공립학교에서 English Language Learner 로 분류된 학생은 4,397,318명으로 전체 학생의 9.2%(2012/13학년도)에 달한다.⁹⁾ 또한 백인과 히스패닉과의 독해력 차이가 큰 문제가 되었다. 책을 읽어주는 유치원생 가정의 비율은 백인가정이 90%에 달하는 반면, 히스패닉의 가정은 70%로 훨씬 적다.

2007년 교육부는 “What Works Clearinghouse”라는 보고서를 내어, 시행되고 있는 150여 개의 독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했다. 이 결과 리딩 리커버리(Reading Recovery)가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검증되었다. 리딩 리커버리는 읽기 능력이 하위 20%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30분씩 12주~20주간 일대일 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75%의 학생들이 학급 평균 수준의 읽기 능력에 도달하였다. 높은 효과성은 인정받은 리딩 리커버리 프로그램은 2010년 미국 교육부로부터 456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 학교 전역에 확대되고 있다.¹⁰⁾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LEARN(Literacy Education for All, Result for Nation Act)법을 통해 23억 5천 달러를 유아부터 12학년까지 학교 독서교육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공립 학교에서 Reading Specialist가 있는 학교는 52% (초등학교의 58%), Reading Coach 25% (초등학교의 32%) (NCES, 2012/13학년도)이다.

9) The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0) 엄훈, 2015, “미국의 리딩 리커버리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참여관찰적 연구”, 『독서연구』 36, p.43쪽.

(2)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진흥정책

미국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도서관법이나 중앙정부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별로 도서관 관련에 관한 법을 제정하며, 주법에 따라 도서관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진다. 연방 정부차원에서는 도서관의 서비스나 건물, 인프라를 개선하는 보조금 사업이 운영될 뿐이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아닌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인 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가 도서관 및 독서 문화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보조금을 집행한다.

1956년에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도서관서비스법(Library Service and Technology Act)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운영에 관련된 협소한 내용이었다. 1962년 도서관서비스건설법(Library Services Construction Act)이 만들어져 도서관 건물과 도서관의 테크놀로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운영되었다. 1996년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이 제정되어, 보조금 사업은 박물관도서관서비스진흥기구(IMLS)가 담당하게 된다. IMLS는 현재까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학술도서관 등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보고금 지원, 조사연구, 수상 등을 맡고 있다.

미국은 각 주의 주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주 전체의 지역 공공도서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방 정부의 지원 예산을 주 차원에서 배분한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장려하고, 도서관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서관의 계획, 평가 등을 수행한다. 또한 주별로 책 축제를 열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책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저자와 만나는 행사를 마련한다.¹¹⁾

미국은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도서관협회의 다양한 위원회와 분과, 라운드테이블 등은 개별 도서관의 정책에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분과, 학교도서관 분과, 어린이 서비스 분과, 청소년 서비스 분과, 대학 및 연구 도서관 분과, 기업도서관 분과 등 11개의 분과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각 분과는 전문지와 뉴스레터, 책, 자료집 등을 발간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며, 상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분과별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지원한다.

11) <http://read.gov/resources/statefairs.php>에서는 주별 도서축제 목록과 관련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도서관의 인프라가 발달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15년 4월, 학교도서관은 98,460개, 공공도서관은 9,082개, 특수도서관(직장, 의학, 법, 종교)은 7,179개, 학술도서관은 3,793개, 정부도서관은 955개, 군대도서관은 260개 운영되고 있다.¹²⁾

미국의 도서관 이용자는 약 1억6천9백만 (14세 이상 국민의 69%) (2014년, IMLS)이고,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은 평균적으로 인구 5천명 당 62.4개, 이중 어린이대상은 40개 (2009년, IMLS)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의 자료의 구성비율은 2012년 종이책 78%, 오디오 매체 7.5% 비디오 매체 5.8%, 전자책 8.7%로 해마다 점점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전자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¹³⁾

미국인은 주로 책이나 미디어를 검색하고(73%) 종이책을 대여하기 위해(73%) 도서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된다. 도서관 방문자의 절반은 관심 주제를 조사하거나(54%)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46%) 등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 어린이나 십대 프로그램 참여(41%), 모임 참여(23%),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21%) 도서관을 방문한 이들도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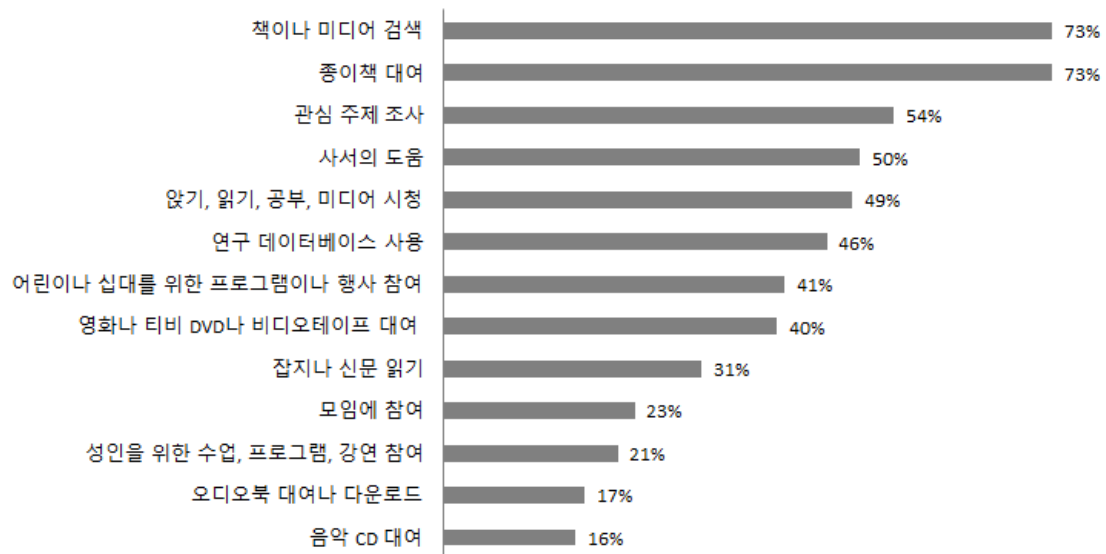


그림 30 미국인의 도서관 방문 이유 (2012년 조사)

〈출처〉 Pew Research Center, *Library Services in the Digital Age* 2013

〈주〉 16세 이상 미국인 2,252 명 전화인터뷰, 지난 1년간 도서관을 방문한 이유, 중복응답

도서관에 대한 미국인의 만족도는 높다. 2014년 9월 Harris Interactive의 조사에 의하면, 극히 만족이 24%, 매우 만족이 42%, 전반적으로 만족이 20%, 약간 만족은 4%로 조사되었

1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pril, 2015)

13) 2003년에는 종이책 91.3%, 오디오 매체 4.3%, 비디오 매체 3.7%, 전자책 0.5%이었다. 2013년 IMLS

다. 불만족은 2%, 모른다는 응답은 9%였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서관에서 마련하는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은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도서관 직원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과학·기술·공학·수학·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90%의 도서관이 시행하고 있다. 협력기관의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고졸학력인증코스(47.7%) 타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교육(38.3%), 기초문해교육(35.2%) 등이다. 자원봉사자들은 타언어를 사용자를 위한 영어교육(46.9%), 기초문해교육(40.5%)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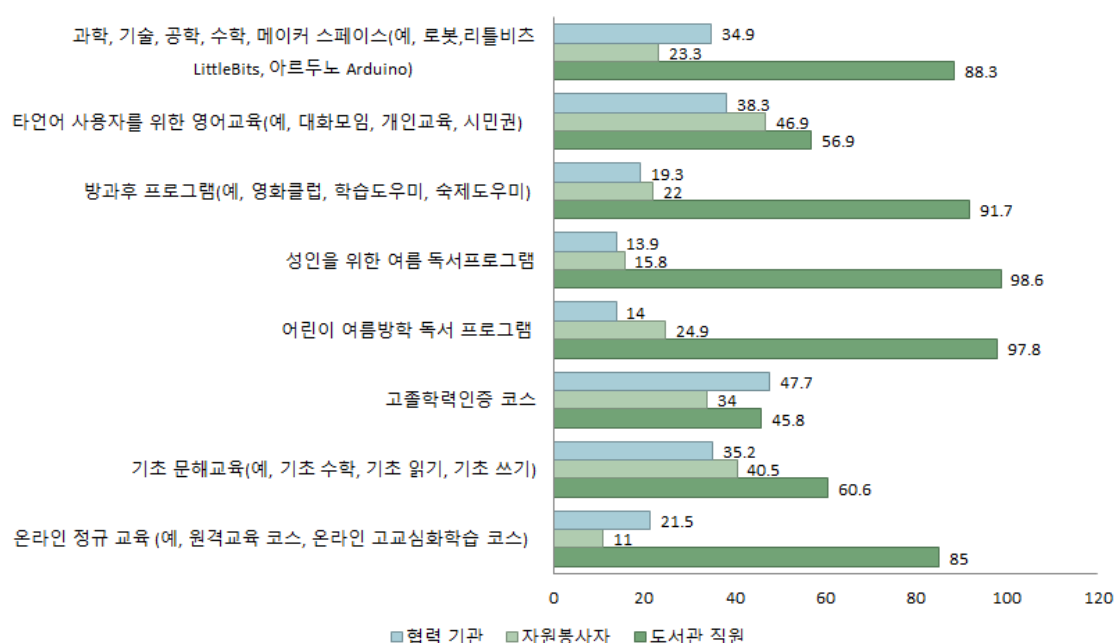


그림 31 미국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과 시행주체

〈출처〉 iPAC, 2014 Digital Inclusion Survey, 2015

〈주〉 2,304 공공도서관 조사, 단위는 퍼센트, 중복응답 가능

미국의 도서관은 경제 및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하고 있다. 실업 급여 및 혜택의 온라인 지원서 작성법(95%), 공동작업공간이나 인큐베이터 제공(91.3%), 취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취업 자료 사용법(89.8%), 입사지원법(89.8%), 온라인 비즈니스 정보자료 이용법(88.5%)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서가 제공하고 있다. 협업기관을 통해서도 창업 및 소규모 사업계획 (58.1%)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실업률과 이직율, 비정규직, 세컨드 잡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경제 및 취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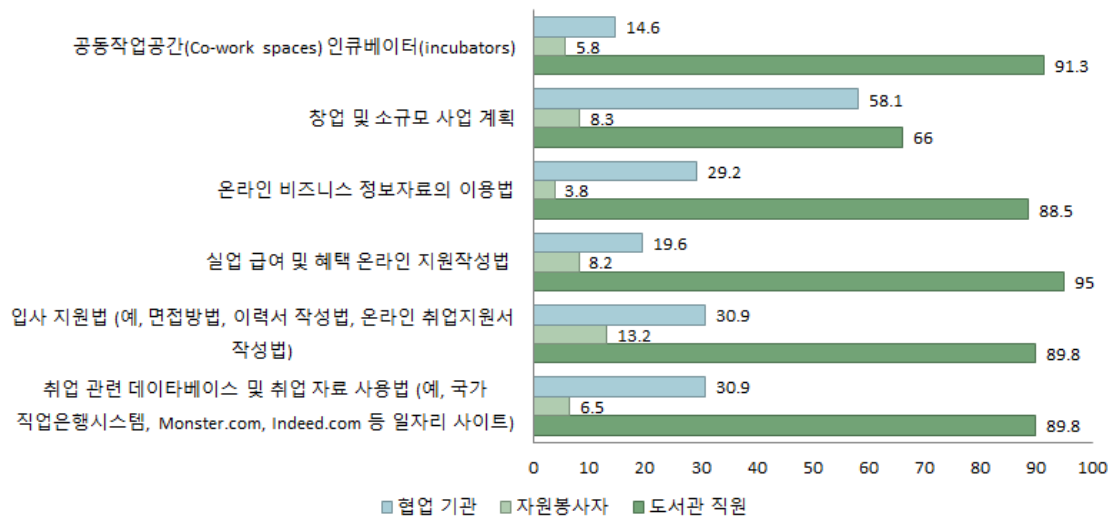


그림 32 미국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경제 및 취업 프로그램과 시행주체

〈출처〉 iPAC, 2014 Digital Inclusion Survey, 2015

〈주〉 2,304개 공공도서관 조사, 단위는 퍼센트

미국의 도서관의 제공하는 컴퓨터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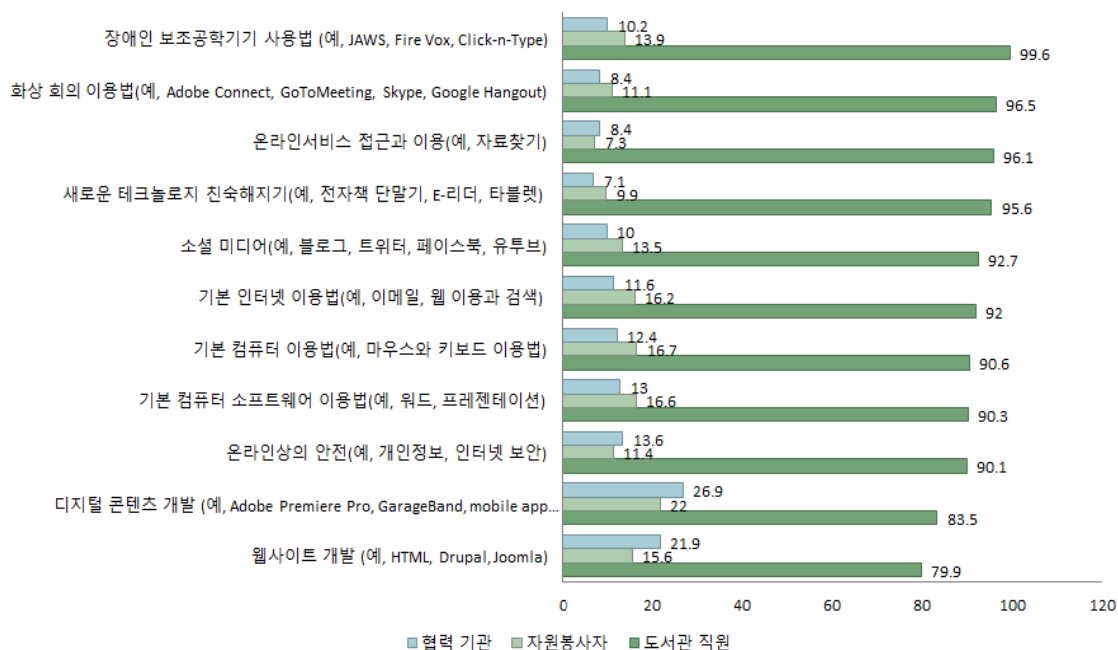


그림 33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컴퓨터 테크놀로지 프로그램과 시행주체

〈출처〉 iPAC, 2014 Digital Inclusion Survey, 2015.

〈주〉 2,304개 공공도서관 조사, 단위는 퍼센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인 JAWS는 문자음성전환기이고, Fire Vox는 웹 사이트 음성전환기이며, Click-n-Type는 마우스로 자판을 쓰는 가상키보드이다.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1) 독서는 기본 (Reading is Fundamental, RIF)

- 대상: 어린이 (신생아~11세)
- 목적: 어린이들, 특히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책을 가짐으로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또한 부모들에게 유아기의 독서, 가정 독서의 중요성을 설득한다
- 추진기관: Reading is Fundamental 재단
- 내용:
 -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한다
 - RIF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의 학교, 도서관, 유치원, 커뮤니티 센터, 보건소, 이민자 캠프, 노숙자 쉼터 등에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책 파티를 연다
 - 학급을 단위로 한 독서 프로그램(Reading for Success) 패키지를 보급한다. 여기에는 학생 1인당 100달러로 전문가가 뽑은 35권의 학급문고, 8권의 학생이 선호하는 책, 교사용 지도서, 독서 활동 및 평가 웹 사이트, 온라인 전문가 조언 등이 제공된다
- 웹 사이트: <http://www.rif.org>

(2) 퍼스트 북 (First Book)

- 대상: 취약계층 어린이
- 목적: 어린이들, 특히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높인다
- 추진기관: 퍼스트 북이 주관하고 다양한 어린이 출판사가 후원한다
- 내용:
 - 퍼스트 북 시장(First Book Marketplace)을 통해 새 책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 퍼스트 북 책 은행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새 책과 교육 자료를 배부한다
- 웹 사이트: <https://www.firstbook.org/>

(3) 리딩 리커버리(Reading Recovery)

- 대상: 1학년 읽기부진 아동
- 목적: 읽기 부진 아동의 읽기를 1학년 초기에 도와주어, 이들의 독해능력, 독서에 대한 자신감,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증진하고 읽기 부진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 추진기관: Reading Recovery가 주관하고, 연방정부의 교육부 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내용:
 - 읽기부진 아동의 지도에 특화된 교사가 읽기부진 학생을 12~20주간 매일 30분간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 리딩리커버리 교사는 학생의 읽고 쓰기를 세밀히 관찰한 뒤 개별 학생에 맞는 수업 구성한다. 또한 수업 시간 중에도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읽기부진 소그룹을 지원한다
 - 리딩 리커버리 센터는 읽기부진아동 지원을 위한 교사 교육,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 프로그램의 결과, 교육받은 75%의 읽기부진아가 부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웹 사이트: <http://readingrecovery.org/>

(4) 책 배틀 (Battle of the Books)

- 대상: 3~12학년 학생
- 목적: 친구들과 함께 읽고 독서 퀴즈 게임을 하면서 독해능력을 증진하고, 독서의 흥미를 높인다.
- 추진기관: America's Battle of the Books
- 내용:
 - 원하는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 매년 책 배틀에 선정된 책을 읽는다
 - 학교, 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학교는 45달러의 회비로 추진기관에서 선정도서와 관련된 퀴즈, 책 배틀 운영방법 등 안내를 받는다
 - 책 배틀은 TV 퀴즈쇼와 비슷한 형식으로, 교육목적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 지역별 예선을 거쳐 주별 배틀 및 전국 경기에 참가한다
- 웹 사이트: <http://www.battleofthebooks.org/>

(5) 문학 작가에게 편지 쓰기(Letters About Literature)

- 대상: 4~12학년 학생
- 목적: 학생들의 문학 읽기를 촉진하고,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문학 읽기의 효과를 설득하며,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높인다.
- 추진기관: 미 의회도서관이 주관하고, Dollar General Literacy Foundation과 Center for the Book in the Library of Congress가 재정을 후원한다.
- 내용:
 - 학생들은 책, 시, 연설 등을 읽고 글을 쓴 저자에게 편지를 써서 의회도서관에 보낸다. 저자가 살아있든 아니든 관계없다
 - 글의 형식은 서평이나 논술이 아니라 편지로, 책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생활에 어떤

-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담는다. 편지의 봉투를 디자인하기도 한다
- 학급의 미술, 국어 활동, 독서동아리 활동으로 널리 활용되어,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고, 매년 콘테스트를 통해 시상한다

- 웹 사이트: <http://read.gov/letters/>

(5) 개에게 읽어주기 (The Reading Education Assistance Dogs, R.E.A.D)

- 대상: 어린이
- 목적: 아이가 개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문해력을 높이고 읽기의 즐거움 느낀다. 또한 동물과 인간과의 교류를 통해 의사소통의 능력을 키운다.
- 추진기관: International Therapy Animals 주관, 다수의 자원봉사 견주와 개가 활동,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서 실행한다
- 내용:
 - 자신의 개와 함께 R.E.A.D. 팀으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견주는 International Therapy Animals에 등록을 하고 보험에 들고 교육을 받는다.
 -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은 개에게 책을 읽어준다
 - 현재 3500팀이 등록되어 학교와 도서관, 양로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읽기부진아, 장애아, 학습부진아의 읽기 자신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34 미국 도서관의 개에게 읽어주기
 <출처> Sheree Kozel-La Ha (CC BY-NC-SA 2.0)

- 웹 사이트: <http://www.therapyanimals.org/R.E.A.D.html>

(7) 한 도시 한 책 읽기 (One City One Book, OCOB)

- 대상: 성인
- 목적: 함께 읽기를 통해 성인의 문해력을 높이고,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시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
- 추진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도서관이 주관하고 각 지방의 기업이 후원한다
- 내용:
 - 시민들이 선정한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한다
 - 도서관이나 학교, 지자체에서 선정 도서와 관련된 작가와의 대화, 독서 활동 이벤트를 연다
 - 미국의회도서관 사이트에서 지역별, 연도별 프로그램명, 진행 상황, 저자별 선정도서 등을 찾을 수 있다
- 웹 사이트: <http://read.gov/resources/>

(8) 달러 스토어 프로젝트 (Dollar General Store-Generated Referrals)

- 대상: 저소득계층의 성인과 가족
- 목적: 저소득계층 성인과 가족의 문해력을 증진하고, 저소득계층 가족에게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관 (도서관, 학습센터)을 안내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높인다
- 추진기관: Proliteracy가 주관하고, 달러스토어가 후원한다
- 내용:
 - 저소득계층이 주로 물건을 구입을 하는 전국 1만개의 달러스토어의 계산대 옆에 안내 브로슈어를 탑재한다
 - 문해력 향상을 원하는 성인이나 가족이 브로슈어에 담긴 엽서를 Proliteracy에 보내면, Proliteracy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나 지역사회의 문해력, 독서 관련 기관에 연결시켜준다
 - 참여자는 연결된 이후에도 다음 단계에 대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15년 현재 7만 명의 성인이 도움을 받았다
- 웹 사이트:

<https://proliteracy.org/our-solutions/referral/dollar-general-store-generated-referrals>

(9) 도서관을 사랑해 (I Love Libraries)

- 대상: 시민
- 목적: 도서관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 등을 홍보한다
- 추진기관: 미국도서관협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내용:
 - 미국도서관협회가 벌였던 @your library의 후속편으로, 도서관과 사서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 도서관을 지원한 기업, 개인, 단체를 도서관 챔피언으로 선정한다
 - 도서관과 관련된 이슈를 알리고, 법안 재정 등을 위해 시민들에게 행동을 호소한다
- 웹 사이트: <http://www.ilovelibraries.org/about>

(10) 어메리칸 드림 스타트 (American Dream Starts @ your library)

- 대상: 성인 영어 학습자와 가족
- 목적: 이민자의 문해력 증진하고,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며, 이들의 사회적 통합 기회를 넓힌다.
- 추진기관: 미국도서관협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가 주관하고 Dollar General Literacy Foundation가 재정을 지원한다
- 내용:
 - 이민자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위해 100여관의 도서관에 5000달러의 재원 지원한다
 - 각 도서관은 이 예산으로 ESL 관련 교재 및 도서 구입, ESL 수업 마련, ESL 서비스를 위한 사서 교육,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업 등의 사업을 펼친다
- 웹 사이트: <http://www.ilovelibraries.org/what-libraries-do/promote-literacy>

4. 사례 탐구: 도서관의 청소년실과 청소년사서 양성과정¹⁴⁾

(1)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실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실처럼 청소년 전용 공간, 청소년실 (Teen space, Teen zone)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새로 지어지는 중소규모 이상의 도서관은 모두 십대 전용 공간을 설치하며, 최근 리노베이션하는 도서관도 우선순위가 십대 공간을 만드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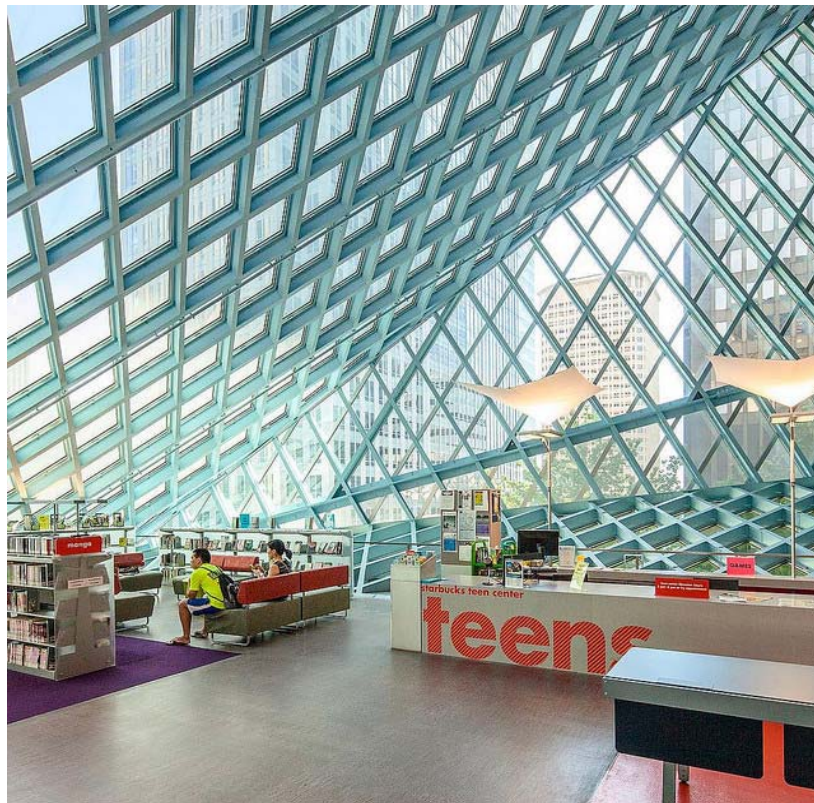


그림 35 미국 시애틀 중앙 도서관 청소년실

<출처> Peter Alfred Hess (CC BY 2.0)

약 80% 정도의 미국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전문가들에 따르면, 별도의 청소년실을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약 60%로 추정한다.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격차가 큰데, 십대 인구 비율이 높은 대도시의 큰 도서관은 대부분 십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약 40%는 청소년을 위해서만 일하는 청소년 전문 사서가 있다.¹⁵⁾

14) 미국의 청소년실과 청소년사서 양성과정에 대한 설명은 김은하,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공간1”, 『학교도서관저널』, 2015년 3월호, 114~121쪽과 “위기 청소년을 위해 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앤젤라 크레이그와 셸리 L. 맥도웰 인터뷰”, 『학교도서관저널』, 2015년 10월호, 116~125쪽, “청소년 전문 사서를 꿈꾼다면”, 『학교도서관저널』 2016 1+2월호, 96~103쪽에서 발췌하였다.

15) 미국 청소년전담사서이자 위기청소년관련 안내서, *Serving At-Risk Teens : Proven Strategies and*

1990년대 미국 도서관협회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침대가 되면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걸 문제로 여기기 시작했다.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용자들을 잃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침대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관찰 결과, 그들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서관을 인식하고 이용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침대 공간이 있기 전, 침대들은 도서관에 와도 어디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무리였다. 그들은 어린이실에 있기도 성인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원하지 않았다. 그들끼리 편하게 머물고 어울릴 침대의 공간이 필요했다.¹⁶⁾

미국에서도 침대를 위한 전용 공간이 생겨난 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최근 20년간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최초의 시도는 산호세주립대학교 교수인 앤소니 베르니에(Anthony Bernier)로, 미국 로스 앤젤레스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18년간 청소년 전문 사서로 일하면서 1996년 미국 최초로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전용 공간인 틴스케이프(Teen'Scape)를 만들었다. 그는 청소년 공간은 화장실보다도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실은, 어린이실이 그렇듯, 단순히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장서를 들여놓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실은 대부분 설계와 기획과정부터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다움”을 고려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청소년 전문 사서가 그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청소년의 특징은 또래와 상호작용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실은 의사소통이 핵심인 공간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공간의 한쪽에서 소리 내어 읽기가 자연스럽듯, 청소년 공간의 한쪽에서는 읽으면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독서 행위가 된다. 이야기와 토론이 가능한 테이블, 서로 마주 보거나 옆으로 앉아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이 필수적이다.

청소년 공간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책과 잡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별도의 청소년 공간이 없을 경우, 청소년 독자를 위해 쓰여진 책들, 그들의 관심사를 담은 책과 자료가 어린이 공간이나 성인 공간에 섞여 있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이 청소년을 환영하며, 그들이 당당히 머물 자리를 별도로 마련했고, 청소년 독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청소년 공간을 맡게 되는 사서의 역량과 서비스도 청소년에 집중하게 된다. 공간의 구성도 청소년이 선호하는 색과 빛, 가구, 디자인을 반영하게 된다.

Programs for Bridging the Gap Proven Strategies and Programs for Bridging the Gap, Neal-Schuman Publishers, 2013의 저자, 앤젤라 그레이그(Angela Craig) 인터뷰
 16) 미국 청소년 담당 사서, 셸리 L. 맥도웰 인터뷰

청소년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청소년을 위한 책의 분야가 있으며,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어서도 계속 도서관에 올 공간이 있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는 메시지이다.¹⁷⁾ 청소년실이 어린이실과 성인실의 징검다리가 된다.

미국 도서관협회의 청소년분과는 “십대의 도서관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도서관은 이를 참고하여 청소년실을 만든다.¹⁸⁾ 가이드라인을 간추려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십대의 공간을 계획하고 만들 때는 십대들의 의견을 구한다.

십대를 위한 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서, 서비스, 프로그램에 십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② 십대들의 정서적, 사회적, 지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십대의 공간이며 그들이 유지하는 공간임을 알려준다. 탁 트여있고, 생기 있는 공간으로, 십대 친화적인 외양과 분위기를 풍기도록 한다. 십대들이 고른 다채로운 색감의 재미있는 장식물들을 전시하고, 십대가 좋아할만한 최신의 실내장식으로 꾸민다.

③ 십대들이 속한 공동체를 반영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십대의 공간은 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지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십대 인구 비율에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져야 한다. 십대들이 만드는 소음이나 활동이 들리지 않도록 절대 정숙이 필요한 공간 혹은 어린이실과는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면 좋다.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과 조용한 공부 공간이 둘 다 필요하다. 또한 즐거움을 위한 독서, 사교, 개인과 집단 활동 등 공간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십대의 교육과 여가를 지원하는 자료들을 제공한다.

도서관 전체의 자료 수집 계획에 십대 자료를 항상 포함한다. 청소년 특유의 정서적인, 지적인, 사회적인 성장에 맞는 자료를 수서한다. 규칙적으로 자료의 상태와 적절성을 평가하고 속아낸다. 종이로 된 소설과 정보책, 음악, 영상, 전자책, 전자책 스테이션, 랩탑 등의 전자기기, 오디오북, 만화, 비디오게임,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나 전자 자료, 인쇄된 연구자료 등 다양한 종류의 십대 자료를 제공한다.

17) Brehm-Heeger, P., 2008, *Serving Urban Teens*, Libraries Unlimited, p. 85~86.

18)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 *National Teen Space Guideline*, 2012

⑤ 침대들이 환영받는 느낌, 안전한 느낌을 받도록 연령의 제한을 두고 적절한 사용규칙을 알린다.

침대의 공간에 대한 사용 규칙을 만들 때 침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이들이 토론하고 결정한 규칙을 명확하게 써서 전시한다. 사용 규칙에는 공간을 이용하는 적정 연령대, 적절한 언어나 행동 (예, 폭력 금지, 노골적인 애정표현 금지, 자기 쓰레기 치우기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⑥ 가구나 전자기기들을 실용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용 가능하도록 마련한다.

서가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담아야 한다. 침대의 신체와 활동에 맞는 의자와 테이블이 구비되고, 휠체어 이용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개인, 집단,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이 가능한 가구가 좋다.

(2) 청소년 사서 양성과정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사서를 꿈꾸는 미국의 예비사서들은 정식 사서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과 정에서 도서관정보학과(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의 석사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전공 코스로 이수한다.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전공에서 어린이전문 사서가 되고 싶다면 어린이 관련 수업을, 청소년 전문 사서가 되고 싶다면 청소년 관련 수업을 주로 선택한다. 한 달 이상의 현장 실습은 반드시 포함되어, 예비사서는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실이나 청소년 관련 출판사 등 관련 현장으로 나간다.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문 사서를 길러내는 도서관정보학과 대학원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과목들을 담고 있다.

- ① 청소년 문학 및 비문학 도서
- ② 청소년을 위한 오디오, 미디어, 인터넷 자료
- ③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④ 청소년 독자 상담
- ⑤ 청소년들이 관심 갖는 만화, 판타지, 게임 등 특정 장르
- 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 ⑦ 소외계층이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2013년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도서관정보학과 대학원 중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섀م페인의 도서관정보학과와 교육과정을 살펴 보자. 석사졸업을 위해 총 40학점이 필요한데, 석사과정 공통 필수로 두 과목, 어린이·청소년서비스 과정 필수로 두 과목을 수강한다. 그리고 나머지 8학점은 원하는 과목에서 선택한다. 아래의 표에서 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은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사서를 위한 과목들이다.

과정	필수/선택	과목명 (학점)
석사 공통	필수 (6~8학점)	정보의 조직과 접근(4)
		도서관, 정보 그리고 사회(2 혹은 4)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전공	필수 (6학점)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전문 사서 (4)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실에서 실습(2)
	선택 (26~28학점)	어린이 문학 및 자료 (2 혹은 4)
		청소년 문학 및 자료 (2 혹은 4)
		스토리 텔링 (2 혹은 4)
		어린이·청소년 정보책과 자료 (2 혹은 4)
		어린이·청소년 판타지 문학과 미디어 (2 혹은 4)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 (2)
		어린이 문학의 역사 (2 혹은 4)
		미디어 문해력과 어린이·청소년(2 혹은 4)
		문해력, 읽기, 독자 (4)
		만화: 어린이·청소년과 성인 독자 상담 (2)
		연구의 자유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2 혹은 4)
		도서관의 게임 프로그램 (2)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세계적 문맥과 사회 정의 (2 혹은 4)
		어린이 문학 서평 쓰기 (2)
		어린이를 위한 정보 소스와 서비스 (2)

표 30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전공과목

〈출처〉 https://www.lis.illinois.edu/academics/degrees/specializations/youth_services

미국의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한 분야의 서비스만을 계속 선택하여 일할 수 있다. 청소년실에서 일하고 싶다면, 청소년 전담 사서로 계속 일할 수 있다. 예비 사서과정에 청소년 서비스에 대해 전공하고, 현장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평생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

2절

영국의 독서진흥 정책과 활동



1. 독서 환경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입헌왕국이다. 각 정부는 독립적인 행정제도와 교육제도를 운영한다. 전체 인구는 6471만6천명 (2015년, OECD)이고 기대수명은 80.5세이다. 국내총생산 (GDP)는 2조 9419억 US\$(2014년, OECD)이고, 1인당 GDP는 45,603 US\$(2014년, OECD)인 경제선진국이다.

GDP에 기여하는 산업비율을 살펴보면, 농업은 0.6%, 제조업 및 공업은 19.9%, 서비스산업은 79.5%로 3차 산업 의존도가 높다. 2013년 기준으로 창의 산업¹⁹⁾의 총부가가치는 약 770억 파운드이고²⁰⁾, 이중 출판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약 13%를 차지한다.

출판 산업 자체만의 총부가가치는 높지 않지만, 영화, TV, 디자인, 관광 등 창의산업 안팎의 아이디어가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책의 콘텐츠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원천이기 때문에, 출판 산업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연도	도서	디렉터리와 메일링리스트	신문	저널과 잡지	기타 출판활동	번역 및 통역 활동
2008	1,770	28	2,463	3,958	966	70
2009	2,005	17	2,139	3,920	816	71
2010	2,261	29	2,325	4,093	792	80
2011	1,919	19	2,179	4,015	1,046	108
2012	2,186	44	2,279	3,958	1,033	124
2013	2,244	75	2,315	3,902	1,254	148

표 31 영국 출판산업의 연간 총부가가치

〈출처〉 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 (UK),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January 2015

〈주〉 단위는 백만 파운드

19) 창의산업은 다음을 포함한다. 광고와 마케팅, 건축, 공예, 디자인 (상품, 그래픽, 패션), 영화, TV, 비디오, 라디오 사진, IT,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출판, 음악, 공연, 비주얼아트

20) 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2015.

PIACC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독서율은 81.1%로, 미국, 독일과 유사하며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독서율이 6.7%p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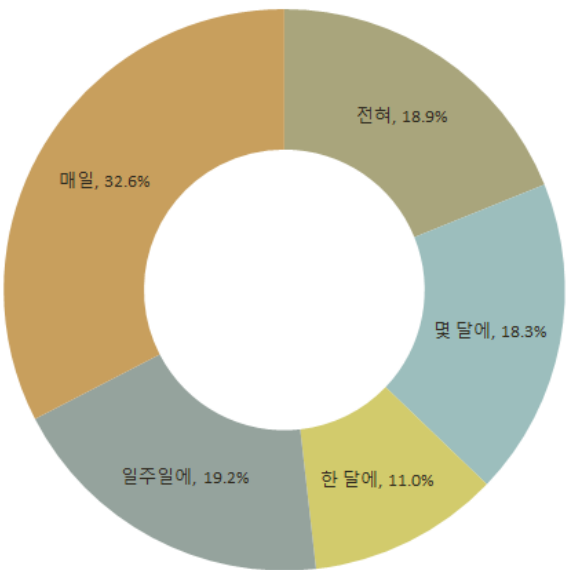


그림 36 영국인의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주〉 영국의 16~65세 8892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독서빈도를 살펴보면, 매일 읽는 독자가 32.6%,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9.2%,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가 11.0%,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는 18.3%이다.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는 18.9%이다.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무려 51.8%에 육박한다. 한국의 매일 읽는 독자가 8.4%,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6.7%인데 비하면, 영국인은 자주 읽는 인구 비율이 높다.

독자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독서율이 74.1%, 여성의 독서율이 86.2%로 12.1%p의 (OECD 평균, 14.16%p)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진 성별 차이는 매일 읽는 독자의 성별 차이이다. 여성은 매일 읽는 독자가 약 39.4%인데 비해, 남성은 23.2%이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남성, 특히 가장 독서율이 낮은 남자 아이들의 읽기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캠페인,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국제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읽는 경향이 있지만, 영국은 매일 읽는 여성 독자(39.4%)만 따져보면 세계 최상이다. 아일랜드 여성의 40%, 덴마크 여성의 36.5%, 캐나다 여성의 35%, 스웨덴 여성의 33%가 매일 책을 읽는다. 한국 여성의 9.7%가 매일 읽는 것에 비하면 거의 4배의 차이가 난다. 특히 55세 이상의 영국 여성은 55.7%가 매일 읽는 것으로 조사된다. 55세 이상 한국 여성의 5.9%에 비하면 9배가 넘는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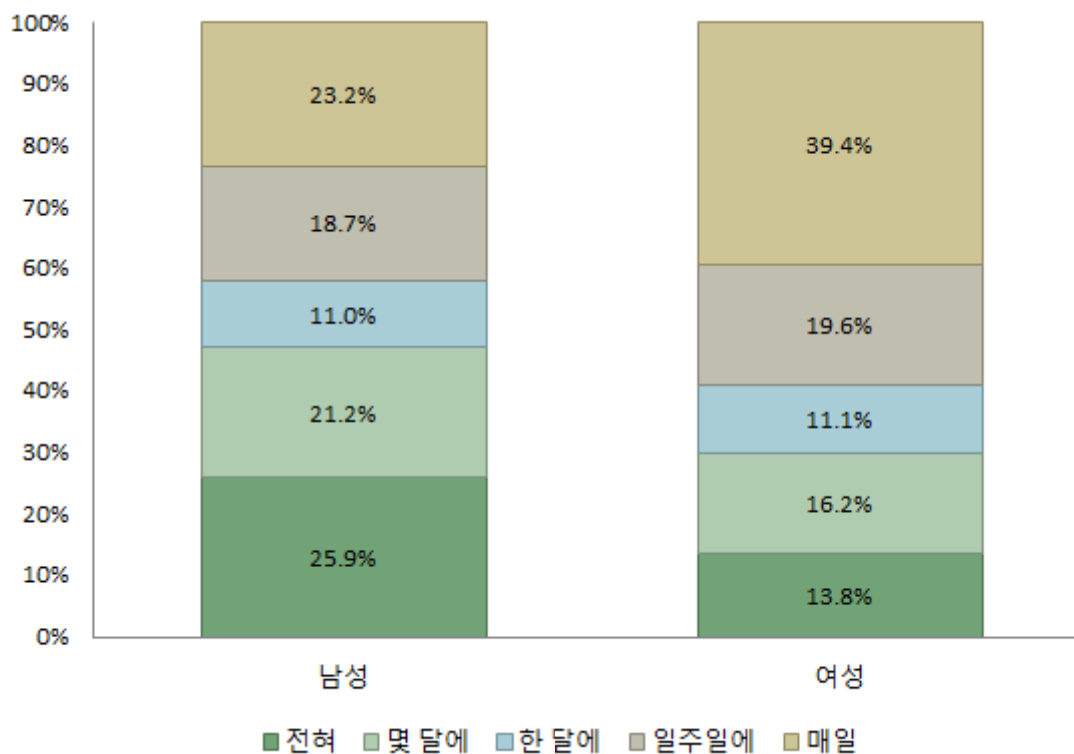


그림 37 영국인의 독서빈도 성별 비교

〈출처〉 PIAAC 2013

〈주〉 영국의 16~65세 8892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일주일: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독서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4세는 75.7%, 25~34세 82.0%, 35~44세 81.6%, 45~54세 80.2%, 55~65세 84.2%의 추세를 보인다. 16~24세의 독서율이 가장 낮고, 55~65세 중장년층의 독서율이 가장 높다. 8.48%p의 차이로,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율이 제일 높아진다. 우리나라가 정반대의 경우이다. 한국은 55~65세 중장년층의 독서율이 16~24세의 독서율보다 36%p나 낮다.

독서빈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한 두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녀 양육이 끝나는 55세 이후에는 매일 읽는 독자층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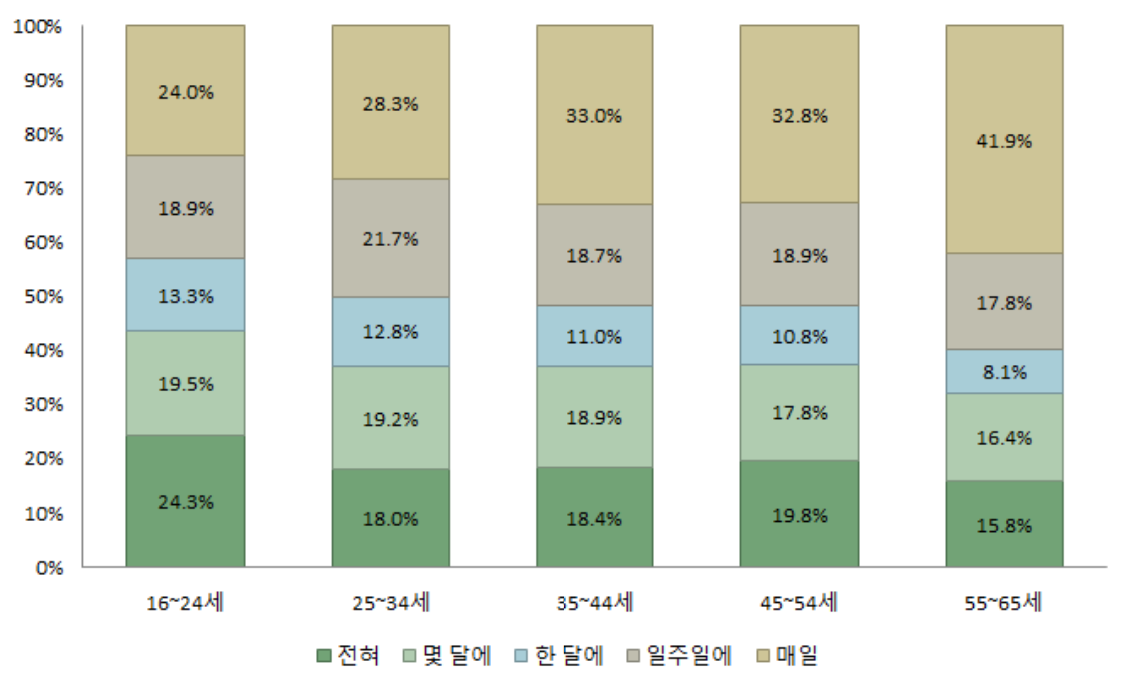


그림 38 영국인의 독서빈도 연령별 비교

〈출처〉 PIAAC 2013

〈주〉 영국의 16~65세 8892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영국 통계청에서 조사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봐도 고령층이 비중이 매우 높다. <표 3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가 갈수록 고령층의 비율이 더 늘어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젊은 세대의 도서관 이용률은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16-24세	25-44세	45-64세	65-74세	75세 이상
2011	9.26%	31.86%	32.75%	13.87%	12.22%
2012	7.81%	29.75%	33.30%	16.17%	12.94%
2013	7.37%	29.06%	33.50%	16.67%	13.38%
2014	6.82%	27.08%	34.07%	17.91%	14.10%

표 32 영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June 2015

독서율을 연령별, 성별로 교차분석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의 독서율보다 7%p~13%p 높은 경향이 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통적으로 16~24세의 독서율이 가장 낮고 55~65세의 독서율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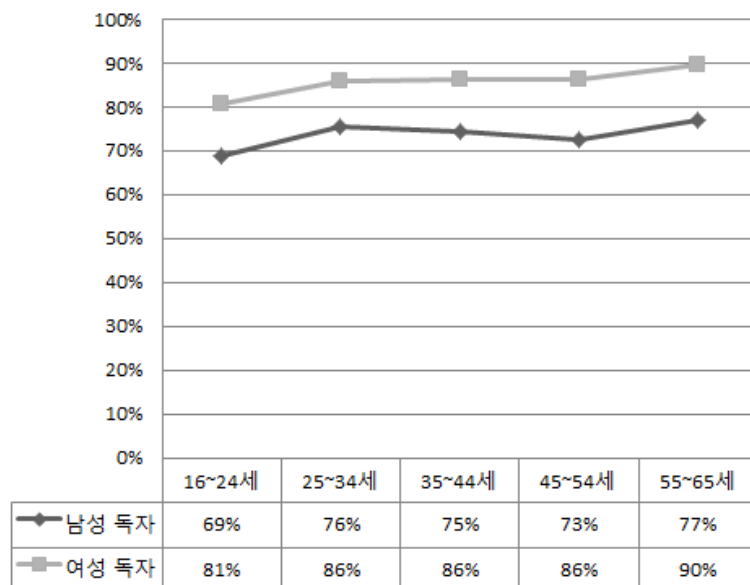


그림 39 영국인의 성별·연령별 독서율 교차분석

〈출처〉 PIAAC 2013, 원자료 정리

〈주〉 영국의 16~65세 8892명 대상 인터뷰 조사

영국 도서관 방문자의 성비도 여성이 55.82%, 남성 44.18%(2014년)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영국 어린이들의 2014/15학년도 도서관 방문률은 70.3%이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5~10세가 67.7%, 11~15세가 73.6%로 나타난다.²¹⁾

2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June 2015

영국인의 연간 공공도서관 방문율은 2014년 34.5%였다. 2005년의 48.2%에 비하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이다. 2007년 45%에서 2008년 41.1%로 급감하게 되는데, 2007~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영국 정부의 도서관 예산이 삭감되어 도서관의 수가 줄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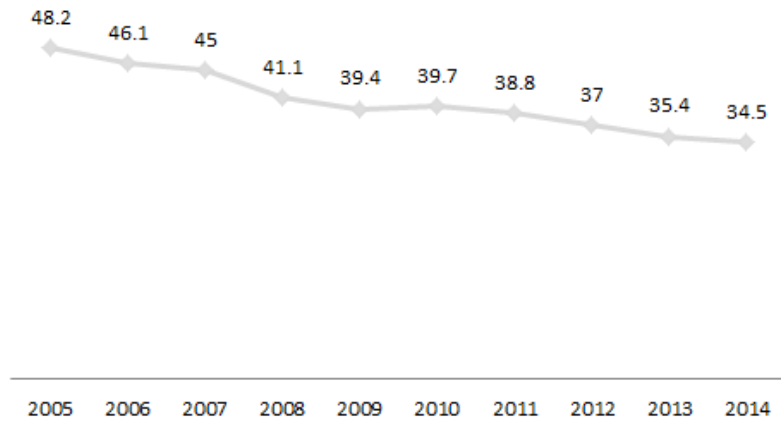


그림 40 영국인의 연간 도서관 방문률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2005~2015

〈주〉 단위는 퍼센트

방문 빈도를 살펴봐도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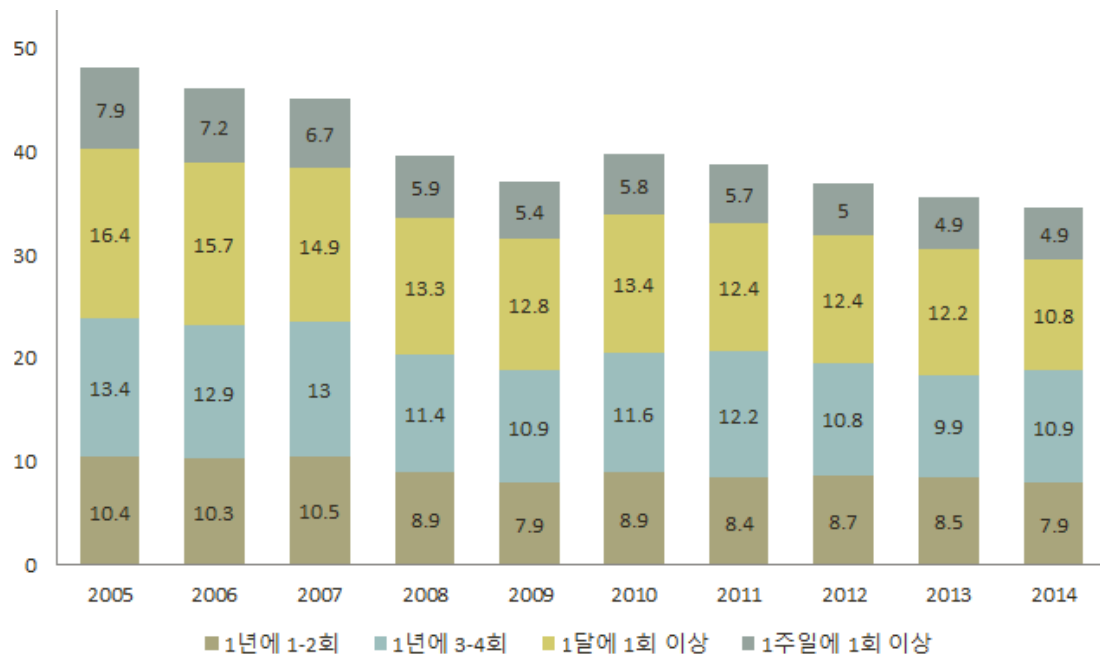


그림 41 영국 도서관 방문자의 도서관 방문 빈도 추이 (2005~2014년)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주〉 단위는 퍼센트

영국인의 계층별 도서관 방문 비율을 분석해보면, 모든 계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은 가장 가난한 경제적 소외층이고, 10은 가장 부유한 계층인데, 방문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경제적 약자에게도 도서관의 문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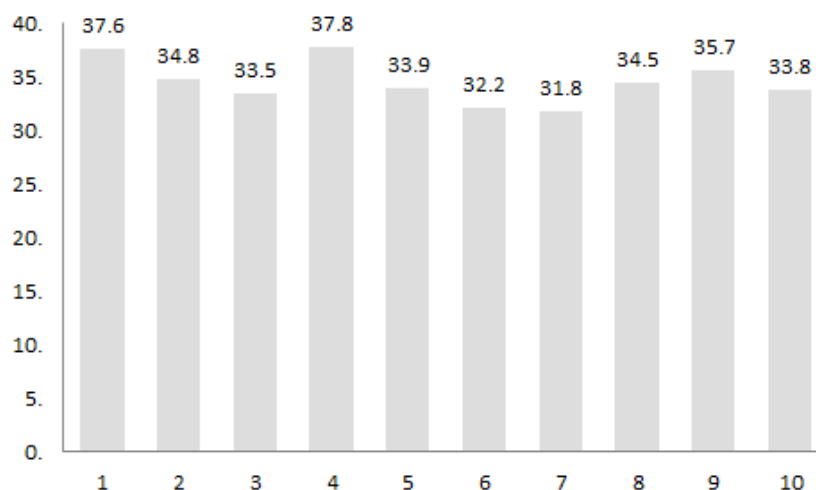


그림 42 영국인의 계층별 도서관 방문률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June 2015

〈주〉 1은 가장 가난한 계층. 10은 가장 부유한 계층, 단위는 퍼센트

영국의 도서관이 사회적 약자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호한다는 통계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 도서관 이용률을 인종별로 살펴보면, 백인의 32.9%가, 흑인 및 소수인종의 47.5%가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유색인종은 영국 전체 인구의 소수를 차지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장애인의 35.7%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비해, 장애인/만성질환자의 31.6%가 도서관을 이용한다.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이 비장애인에 비해 특별히 어렵지 않음을 보여준다.²²⁾

또한 도서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이용자의 48%가 도서관 이외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도서관 컴퓨터 이용자 중 실업자의 23%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²³⁾ 도서관의 컴퓨터는 정보소외층, 경제적 소외층 일부가 인터넷에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컴퓨터를 살 수 없는 경제력만이 장애가 아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사서의 도움, 더 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업과 관련된 정보 찾기 서비스, 자기소개서와 같은 취업관련 글쓰기 등을 도서관이 돕기 때문에, 도서관의 컴퓨터 사용을 선호한다.

22) 2014년 기준,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June 2015

23)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United Kingdom*, 2013, p.13

2.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영국의 독서진흥정책은 다양한 공적기관과 기업, 시민사회의 분업과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4개 정부의 연합정부로 이루어진다. 각 정부는 별도의 도서관정책 및 법령을 제정하여 따르고 있으며, 학교 체계도 다르다. 중앙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맡는다. 그러나 직접적인 도서관 및 독서정책에 대한 구상이나 재정지원 등은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 독서진흥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읽기의 즐거움 강조
- 비독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 초당적 의회 그룹(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APPG)의 의제 선정
- 도서·출판 관련 기관 간, 혹은 이를 넘어선 기관과의 창의적인 파트너십
- 독서진흥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와 프리랜서 기획자의 활발한 활동
- ‘독서의 해’와 같이 모든 도서 및 출판 분야가 협력하는 전국적 프로젝트
- 영국 복권(National Lottery) 수익으로 독서진흥프로젝트에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참여 프로젝트로 독서진흥프로그램에 예산 지원
- 국영방송인 BBC, Channel 4 등 방송과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
-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모델, 셰프 등 유명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 작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이를 담아내는 다양한 문학축제

영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850)을 제정하여, 현대적인 공공도서관의 원칙들에 맞는, 즉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무료로 책을 이용하는 도서관을 만들었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각각 도서관과 관련된 법령을 가지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964년에 공공도서관·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1955년에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Scotland] Act 1955)이 제정되었고, 북아일랜드는 1972년의 교육·도서관령(The Education and Libraries [Northern Ireland] Order 1972)을 제정하여 따르고 있다.

독서문화진흥정책과 도서관 정책은 영국예술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한다.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건설과 리노베이션, 시민사회나 독서 및 도서 전문직협의회의 독서진흥 프로젝트, 축제에 대한 재정 지원, 도서관의 현대화, 디지털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최근에 지어지는 도서관은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의 상업공간이나 시장 안에 만들어진다. 1층에는 상점과 카페가 위치하고, 취업 센터(Job Centre)가 함께 들어선 경우도 많다. 런던에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은 이름부터 아이디어가게(Idea store)이다. 각종 독서 동아리와 강의, 컴퓨터 이용수업이 이루어지는 소모임 공간이 매 층마다 위치해 있다. 공연장과 갤러리, TV 라운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43 영국 런던의 새로운 도서관, 아이디어가게(Ideastore)

〈출처〉 McGinnly (CC BY-SA 3.0)

〈주〉 재래시장 앞에 위치한 아이디어가게

프리랜서 기획자이며 어린이 책 작가인 톰 팔머(Tom Palmer)에 의하면, 영국예술위원회는 1992~95년까지 도서관펀드(Arts Council Library Fund)를 통해 창의적인 독서진흥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사서와 시민단체, 프리랜서 기획자들에게 16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이 자금을 통해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 현재의 독서진흥 프로그램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시민단체인 오픈 더 북(Opening the Book)은 사서들을 위한 독자개발 방법을 교육했다.

1996년에는 영국 복권 (National Lottery)의 이익금이 대거 문화예술분야로 유입되면서, 대규모의 전국적인 독서진흥 프로젝트가 가능해졌다. 1998년과 2008년 ‘독서의 해’ 사업은 독

서와 관련된 전 분야가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였다. 1998년 모두 86개의 프로젝트가 총 80만 파운드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부터 2004년에는 공공도서관 도전기금(Public libraries Challenge Fund)으로 독서진흥 프로젝트에 총 400만 파운드가 투자되었다. 이 기금은 참여기관들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도서관은 반드시 아이디어 개발에 기업이나 비영리 분야의 협력기관과 일해야 했다. 이 기금으로 운영된 프로젝트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²⁴⁾

영국예술위원회는 다양한 도서관 직종단체와 시민단체, 정치인, 행정 각료와 함께 도서관 태스크포스를 위한 리더쉽(Leadership for Libraries Taskforce)을 구성하여 다음을 2015~16년의 중점 과제로 삼았다.²⁵⁾ 향후의 영국 독서진흥정책은 도서관을 허브로 더 활발한 정책적 협업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에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 도서관과 다른 정책(건강, 복지, 산업, 경제정책 등)과의 전략적 연결을 강화하기
-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장기적 협업으로 좋은 실천 사례 만들어내기
- 도서관의 인력이 폭넓고 창의적인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강화
- 도서관의 가치를 대중에게 설득하고, 도서관의 혁신과 좋은 아이디어를 알리기

의원내각제인 영국은 국회의원 출신들로 내각이 구성된다. 따라서 국회의 역할이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영국 의회에는 초당적 의회 그룹(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APPG)이라는 국회의원의 모임이 존재한다. 초당적 의회 그룹은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상원과 하원)이 일정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 비형식적인 모임과 토론을 운영하는 모임이다.

문해력에 관한 APPG(APPG on Literacy)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현장의 실천가, 시민단체와 함께 문해력 향상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천적 전략을 논의한다. 2012년에는 남자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이 초점이 되어, "Boys' Reading Commission"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3년의 주된 주제는 직업 능력에 적합한 청소년의 문해력 향상으로, "Youth Literacy and Employability Commission" 보고서가 나왔다. 각각의 보고서에는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된 연구를 종합하고, 좋은 프로젝트나 사례를 안내하고, 학교, 도서관, 정부, 가정, 기업 등에 전 방위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도서관에 대해서도

24) 톰 팔머, 박재용 역, 『영국의 독자개발: 개관 및 사례 보고서』, British Council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18~20쪽.

25)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Report under the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1964 for 2015, December 2015, 6~7쪽.

APPG (Libraries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가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 APPG는 2014년 "The Beating Heart of the School"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학교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의 수는 2014년 4,145관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도서관 예산 삭감으로 2004년 4622개 관이었던 도서관 수가 약 500관 가량 줄었다.²⁶⁾ 도서관의 연간 지출액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지출액 중 인력비 비중이 가장 높다. 도서관예산 삭감에 가장 영향을 받은 부문도 인력이어서, 도서관을 줄이거나 사서를 줄여야 했다. 특히 2011~12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80%의 도서관이 직원을 줄여야했다. 이 때문에 30%의 도서관이 개관시간을 줄였으며, 65%의 도서관이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해야 했고, 14%의 도서관이 문을 닫았거나 닫을 운명에 놓였다. 13%의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던 작은 지역사회도서관 (community managed libraries)을 닫아야 했다.²⁷⁾ 영국의 1인당 도서관지출은 22 유로 (2013년)로, 유럽연합 평균인 19.2유로에 약간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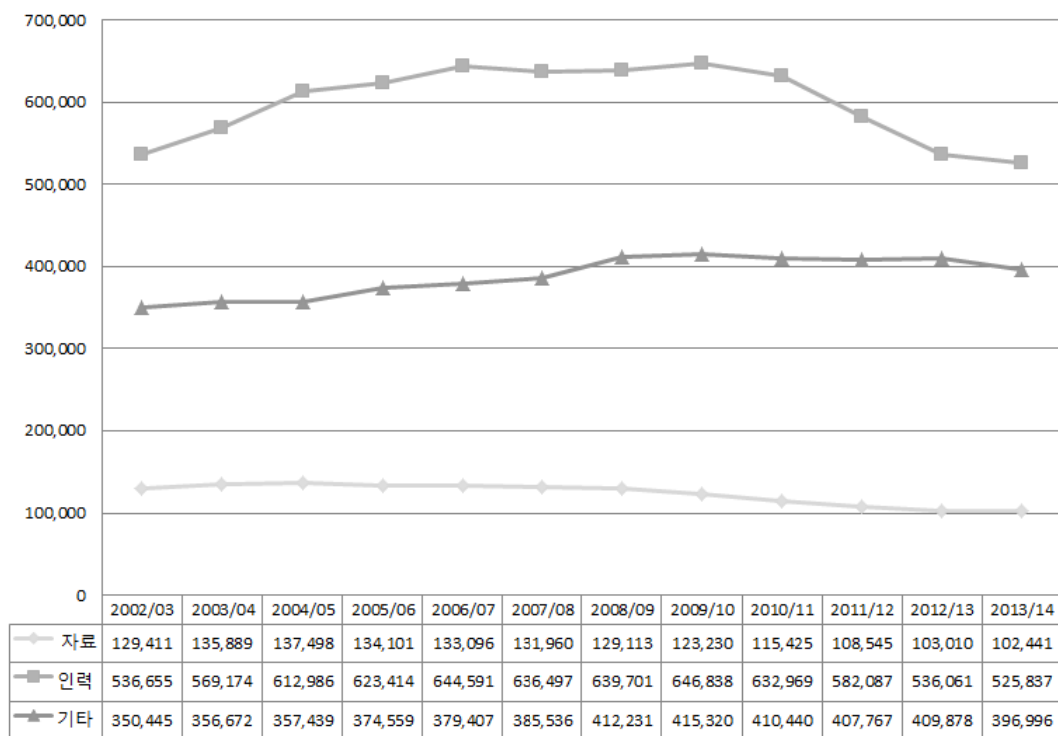


그림 44 영국 공공도서관의 연간 지출 내역 (2002/3~2013/14)

〈출처〉 Loughborough University, *LISU's Trends in UK Library and Publishing Statistics 2015*, April 2015

〈주〉 단위는 천만 파운드

26) Loughborough University, *LISU's Trends in UK Library and Publishing Statistics 2015*, April 2015

27)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Kingdom*, 2013, p.8

영국인들이 도서관의 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야는, 책을 읽거나 읽는 것 (91%)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비교했을 때, 무료 인터넷 접속이나 무료 컴퓨터 이용 서비스의 중요도 순위가 높다. 영국인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76% (유럽연합 평균 57%), 지역 사회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66%(유럽연합 평균 50%)로 지역사회 허브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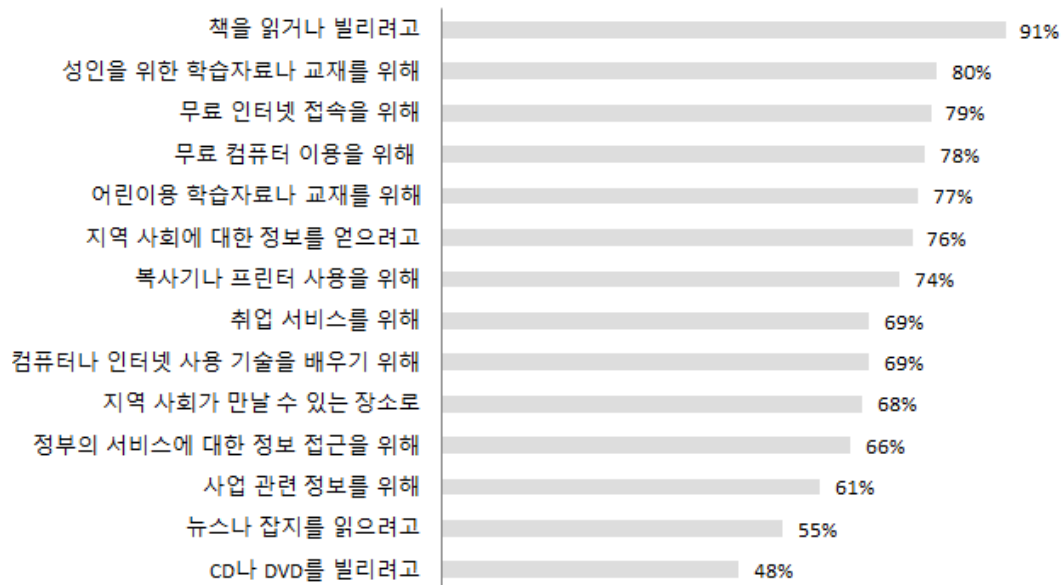


그림 45 영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서관 서비스

〈출처〉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Kingdom*, 2013

〈주〉 15세 이상의 성인 1,432명 대면 인터뷰, 중복응답 가능

영국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이 대체 정부에 만들어졌으나 매우 일반적이고 제한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영국은 국정이나 검정, 인정 등의 국가에 관여하는 교과서가 없다. 완전한 자유발행제로, 교사는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재를 선정할 자유를 갖는다. 주로 이용되는 학교의 교재는 책이다. 모든 수업에서 책으로, 혹은 책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수업한다. 책이 국어과 뿐 아니라 모든 교과에 걸쳐 수업의 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국은 정보책 출판이 매우 발달해있다.

영국의 학교도서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통계도 없다. 큰 규모의 학교에만 학교도서관이 있고, 운영은 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의회에서 일어나 법안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학교의 독서교육은 주로 수업에서 그리고 공공도서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1) 북스타트 (BookStart)

- 대상: 전국의 모든 영·유아와 부모 (2015년부터 북아일랜드 제외)
- 목적: 유아기부터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가정 독서의 중요성을 부모와 양육자에게 인식시킨다.
- 추진기관: 시민단체인 Book Trust가 주관하고, 지방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보건소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료를 배부하고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버밍햄 교육학과가 연구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이다.
- 내용:
 - 일정 연령에 도달한 전국의 모든 아기와 부모에게 책과 자료를 선물한다
 - 영아용 선물은 아기 출산 후 모든 산모의 가정에 방문하는 간호사를 통해 전달된다. 두 권의 보드 북, 라임(rhymes), 책 읽어주기 관련 조언이 담겨있다
 - 유아용 선물은 3~4세 아동의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한 권의 그림책과 부모를 위한 조언이 담겨있다
 - 2중언어로 쓰여진 선물, 장애아를 위한 선물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 도서관에서 아기와 부모, 혹은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곰돌이 동아리가 운영된다
- 웹 사이트: <http://www.bookstart.org.uk/>



그림 46 영국의 북스타트 책 선물(영아용, 유아용)

〈출처〉 <http://www.bookstart.org.uk>

(2) 책 수다 모임(Chatterbooks)

- 대상: 전국의 4~12세 어린이
- 목적: 어린이 독서모임을 통해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독서 동기와 의사소통 능력, 자신감을 향상한다
- 추진기관: 리딩 에이전시(The Reading Agency)가 주관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배부하며 활동가를 교육한다. 오렌지사와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가 재정지원하며,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모임을 실행한다.
- 내용:
 - 도서관과 학교의 교사나 사서, 자원봉사자가 리더 교육에 참가한다
 - 책 수다 모임에 참여할 아이들을 모집하여 결성하고 독서동아리 진행한다
 - 리딩 에이전시는 정기적으로 웹 사이트, 전자우편, 분기별 채터 북스 뉴스레터를 통해 주제별 책 목록, 활동 자료, 활동 양식 등을 지원한다. 또한 리딩 에이전시는 포스터, 패키지, 기념품, 파일 등을 그림책 작가의 그림으로 대량 제작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
 - 전국적인 책 수다 모임 축제와 웹 사이트에서 서로 다른 모임의 활동을 공유한다
- 웹 사이트: www.chatterbooks.org.uk

(3) 북타임 (Booktime)

- 대상: 잉글랜드의 모든 4-5세 어린이
- 목적: 학교 공동체에서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 추진기관: 북트러스트(Booktrust)가 주관하고, 영국 정부의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와 Social Action Fund가 재정지원하며, 학교와 도서관이 실행한다
- 내용:
 - 초등학교 예비 반에 들어가는 어린이에게 책과 기념품 선물한다. 여기에는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과 자료가 제공된다
 - 북트러스트는 도서관 사서와 교사를 위한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 2014-2015 사업결과, 참여 교사들의 67%가 북타임이 어린이의 읽기의 즐거움을 높였다고 응답했고, 37%의 교사는 어린이 가정에서의 독서빈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50%의 교사는 책과 독서관련 활동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 웹 사이트: <http://www.booktime.org.uk/>

(4) 여름방학 독서 챌린지(Summer Reading Challenge)

- 대상: 전국의 4세부터 11세의 어린이
- 목적: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방학에도 아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독서를 계속 하도록 독려한다. 주제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도록 권장한다
- 추진기관: 리딩 에이전시(The Reading Agency)가 주관하고, 영국 정부의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가 재정지원 (스코틀랜드는 Tesco 은행이 재정지원)하며, BBC 등의 방송사가 협력한다. 프로그램은 도서관이 시행한다.
- 내용:
 - 방학 중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고 읽은 도서를 반납할 때마다 스티커를 받는다. 2개의 스티커는 동메달, 4개는 은메달, 6권은 금메달을 수여한다
 - 리딩 에이전시는 매 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관련된 기념품, 보드게임, 도서목록, 활동자료, 웹 사이트 등을 제작한다
 -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컴퓨터 게임, 온라인 채팅, 책 추천 서비스 제공한다.
 - 90%이상의 도서관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매년 도서관의 새로운 이용자로 등록하고 있다.
 - 짧은 크리스마스 방학 기간에는 크리스마스 독서 챌린지가 운영된다.
- 웹 사이트: <http://summerreadingchallenge.or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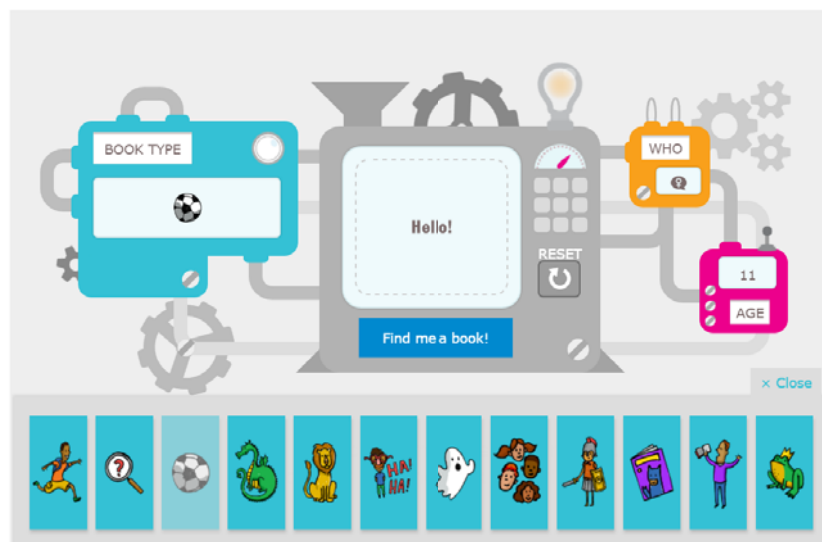


그림 47 영국 리딩 에이전시의 책 분류기(Book Sorter)

〈출처〉 <http://summerreadingchallenge.org.uk/book-sorter>

〈주〉 웹 사이트에서 원하는 주제와 성별, 나이를 입력하면 관련 책들의 목록이 나온다.

(5) 리딩해크 (Reading Hack)

- 대상: 13~24세 청소년과 청년
- 목적: 청소년의 자원봉사로 어린이 독자들의 역할 모델이 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도서관과 관련된 일과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삶과 노동의 기술들을 실전에서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은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 자료에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며,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과 자료, 서비스, 행사에 대해 도서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서는 청소년 관련된 실무역량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 추진기관: 리딩 에이전시(The Reading Agency)가 주관하고, 영국 정부의 영국예술위원회와 Social Action Fund가 재정지원하며, 도서관이 실행한다.
- 내용:
 - 청소년이 어린이 여름방학 독서 챌린지에 자원 봉사자로 활동한다
 - 청소년은 어린이 여름방학 독서 챌린지에 담당 사서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어린이에게 자료를 안내하고 활동에 보조교사로 참여한다.
 - 2014년 총 8126명의 청소년이 Reading Hack으로 봉사했고,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에 있다²⁸⁾
 - Reading Hack 효과연구 결과, 85%의 자원봉사자가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맛보았다고 응답했고, 56%는 자원봉사의 결과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여름방학 독서 챌린지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50%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했다
 - 리딩 에이전시는 핸드북, 활동 아이디어, 기념품 제작, 사서 교육, 뉴스레터, 웹 사이트 등을 지원한다
- 웹 사이트: <http://readinghack.readingagency.org.uk/>

(6) 프리미어리그 리딩스타 (Premier league reading stars)

- 대상: 축구를 좋아하지만 읽기를 싫어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주로 5~8학년), 읽기부진이거나 소외계층의 남자 아이들, 학교에서 퇴학당한 위탁교육기관(pupil referral units)의 학생
- 목적: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 경험하고, 독서는 여성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깨며, 독서 흥미를 높인다.
- 추진기관: 전국독서재단(National Literacy Trust)이 주관하고, 프리미어축구단이 재정 지원하며 협력한다. 초·중등학교나 공공도서관이 실행하며, 수혜자가 부분적으로 재정을

28) Reading Hack의 담당자인 니키 웨스트(Nici West) 인터뷰

부담한다. 방송과 신문이 적극적인 홍보하고 영국 왕실도 개막식 등에 참여한다

■ 내용:

- 프리미어리그 리딩 스타에 참여하고 싶은 학교나 모임, 도서관은 사이트에 등록하고, 1년에 300파운드 회비 (웨일즈 학교는 웨일즈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무료)를 낸다. 이 회비로 전국독서재단(National Literacy Trust) 네트워크 회원이 되어 다양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전국독서재단은 10주의 프로그램을 담은 패키지를 제공한다. 패키지에는 20명의 학생을 위한 자료, 교사용 지도서, 활동 책, 상장, 스티커, 포스터, 프로그램 평가지가 포함된다. 20권의 책은 읽기를 싫어하고 읽기 수준이 낮은 독자가 좋아할 도서로 구성한다. 또한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 목록이 제공된다.
- 아이들은 다양한 온라인 대회(축구 선수와 구단 맞추기 퀴즈 등)에 참여하며 참여자는 추천을 통해 프리미어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 전국독서재단은 인터랙티브 도전과 게임, 퀴즈를 담은 웹 사이트를 제공한다. 이 웹 사이트에 들어가 구단을 고르면, 축구선수들이 책과 독서를 추천하는 영상이 담겨 있다. 또한 축구에 관한 3단계의 퀴즈를 풀 수 있다. 3단계를 모두 통과하면 부상을 받는다
- 각 축구단의 경기장에서 프리미어리그 리딩 스타 참여자를 위한 저자와의 만남과 경기장 투어가 개최되고, 교사와 사서, 리더 연수도 시행된다
- 패키지를 구입한 학교는 도전하고 싶은 책, 선수의 추천 도서에 대해 Browns Books for Students(학교도서관 도서 대량공급업체)에서 30%의 할인된 가격으로 책 구입이 가능하다
- 2015년, 맨체스터 시티 구단의 프랭크 램파드(Frank Lampard)와 19명의 선수가 홍보 대사로 활동하며, 개막식은 BBC와 신문 등 언론에 크게 홍보되었다
- 2014년 프로그램 평가에 의하면, 3/4의 참가 어린이가 10주 만에 6개월 치의 읽기능력이 향상되고, 1/3은 1년 치의 읽기 능력 향상되었다. 독서를 아주 좋아한다는 학생과 매일 책을 읽는다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두 배 증가했다. 70%의 참여자가 독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50% 넘는 참여자가 이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을 방문했고, 1/3는 도서관 회원이 되었다. 50%의 참여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다고 응답했고, 2/3의 참여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더 읽고 싶다고 응답했다.²⁹⁾

■ 웹 사이트: <http://plrs.literacytrust.org.uk/>

29) http://www.literacytrust.org.uk/premier_league_reading_stars/impact

(7) 학교도서관 패키지(School Library Pack)

- 대상: 잉글랜드의 중등학교
- 목적: 현대 청소년 문학 신간을 학교에 지원하여, 영국의 현대 청소년 문학을 널리 읽히고 청소년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한다. 읽기부진 청소년을 위한 읽기자료를 지원하여 부진의 문해력과 독서 동기를 높인다.
- 추진기관: 북스타트(Bookstart)
- 내용:
 -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등록하면, 40권의 청소년 도서를 학교에 선물한다
 -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책을 선정하는데, 동아리활성화를 위해 5종의 책은 각각 6권씩, 읽기동기가 낮은 청소년을 위해 5종을 각 1권씩, 단편모음집 5종을 각 1권씩 증정한다
 - 2014-15학년도 총 4,700개의 학교가 등록하여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 북스타트는 증정된 책과 관련된 활동과 토론 자료, 청소년 독서동아리 운영 방법에 대한 자료를 웹 사이트에 제공한다
- 웹 사이트: <http://www.booktrust.org.uk/programmes/secondary/school-library-pack/>

(8) 리딩 어헤드 (Reading Ahead)

- 대상: 성인
- 목적: 성인의 읽기를 생활화하여 읽기 능력을 높이고,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다. 또한 읽기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 추진기관: 리딩 에이전시(Reading Agency)가 주관하고, 도서관, 직장, 성인교육기관이 실행한다. 개인도 웹 사이트로 참여 가능하다
- 내용:
 - '6권의 도전'이라고 불리던 성인대상의 독서진흥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읽고 싶은 책 6권을 선정하여 읽고 일지에 간단한 평을 기록하고 상장을 받는다
 - 리딩 에이전시는 기념품과 일지, 자료, 활동안내를 제공, 또한 전국적인 축제와 경품행사, 저자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 2014-15학년도에 성인 48,00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중 설문에 응답한 92%가 읽기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 웹 사이트: <http://readingagency.org.uk/adults/quick-guides/reading-ahead/>

(9) 책은 내 가방 (Books are my bag, BAMB)

- 대상: 모든 시민
- 목적: 책을 구경하고, 사고, 읽고, 토론하는 오프라인 공간인 독립 서점을 활성화 한다
- 추진기관: 서점연합회(The Booksellers Association) 주관하고, M&C Saatchi와 여러 출판사가 협조하고 재정을 보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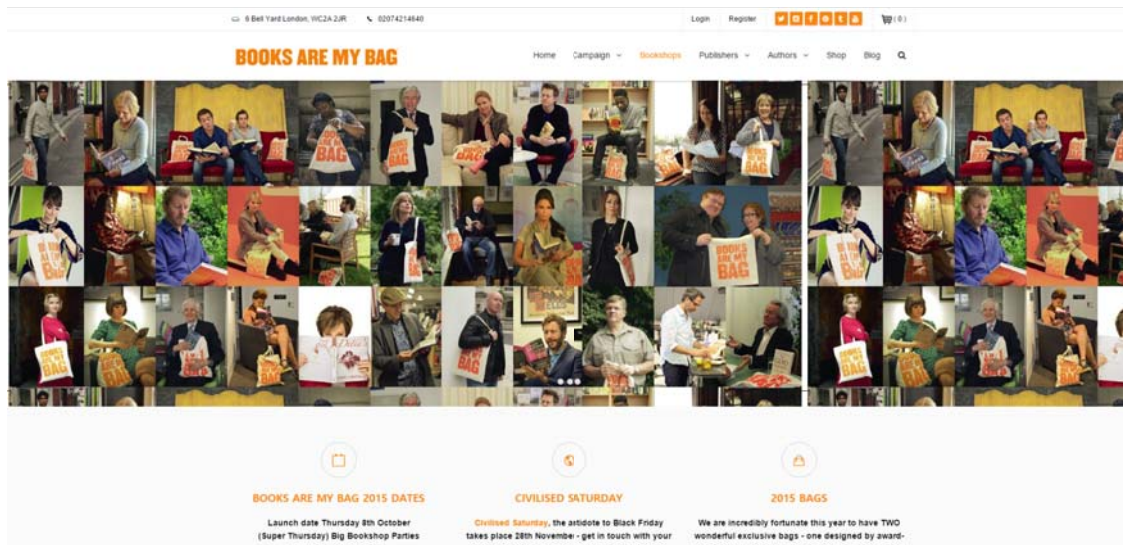


그림 48 영국 ‘책은 내 가방’의 사이트

〈출처〉 <http://www.booksaremybag.com/>

- 내용:
 - 작가와 유명인사들이 “BOOKS ARE MY BAG” 글자가 쓰여진 가방을 들거나 옆에 놓고 사진을 찍는다. 요리사, 코미디언, 가수, 모델, 정치인 등 다양한 유명인사가 참여한다
 - 책을 읽는 모습, 서점 앞에 선 모습, 가방을 맨 모습 등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 SNS로 알린다
 - 웹 사이트에서 전국의 서점 위치와 연락처, 웹 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다
 - 독립서점 보호를 위한 캠페인, 축제, 저자와의 만남, 공연 등을 개최한다
 - 2015년의 가방은 화가 Grayson Perry이 어른용을, 그림책 작가 Lauren Child가 어린이용을 디자인했다
- 웹 사이트: <http://www.booksaremybag.com/>

(10) 리딩웰 (Reading Well)

- 대상: 정신건강 관련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
- 목적: 책을 통해 정신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 추진기관: 리딩 에이전시가 주관하고, 정신과 전문의 협회가 자료를 제공하며, 보건소와 도서관이 시행한다
- 내용:
 - 정신과 전문의 협회와의 협조 하에, 리딩 에이전시가 질환과 관련된 책을 선정한다
 -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의사가 병원에서 책을 처방한다
 - 처방전 없이 개인이 책 목록을 보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을 구매 읽을 수도 있다
 - 현재까지, 우울증, 치매, 만성통증, 불안증,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처방도서목록이 만들어졌다
 - 치매가족 환우회 등의 조직과 함께 교육활동 및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 웹 사이트: <http://readingagency.org.uk/tag/reading-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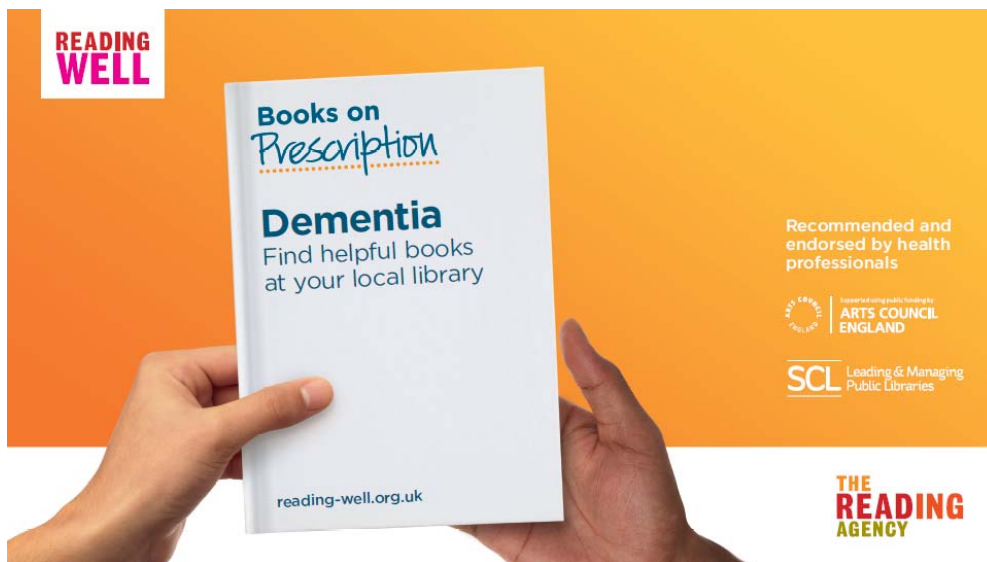


그림 49 영국 리딩웰의 치매 관련 처방 도서 자료

〈출처〉 리딩 에이전시

〈주〉 치매에 대한 처방 책 목록

(11) 도시에 책을 (Books about Town)

- 대상: 시민과 학생
- 목적: 런던의 곳곳에 영국의 문학적 유산을 기념하여 북 벤치(Book Bench)를 설치, 북 벤치 투어 등으로 런던 관광을 진흥하고, 북 벤치 경매로 독서 진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 추진기관: 전국독서재단(NLT)과 예술단체인 Wild in Art이 주관하고, 다양한 출판사와 작가모임, 문학 재단이 후원했다. 소더비는 경매를 주관했다.



그림 50 영국 런던의 북 벤치
<출처> 전국독서재단

- 내용:
 - 북 벤치는 영국의 유명 작가의 작품을 소재로 그림책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가 런던 곳곳에 책모양의 벤치를 만들어, 2014년 6월2일~9월15일 동안 한시적으로 전시했다
 - 웹 사이트에는 북 벤치를 찾을 수 있는 지도와 책에 대한 퀴즈를 제공했다



그림 51 영국 런던 그린위치 지역의 북 벤치 안내도
<출처> <http://www.booksabouttown.org.uk/>

- 2014년 북 벤치의 경매로 총 £251,500이 마련되었고, 소외계층의 독서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 매우 성공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북 벤치 프로젝트는 현재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를 위한 도시에 책을' 프로젝트로 확장되었다. 학생들이 북 벤치를 직접 디자인하고 칠하여 학교도서관과 학교운동장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다양한 책 읽기 활동을 한다
- '도시에 책을' 웹 사이트: <http://www.booksabouttown.org.uk/>
- '학교를 위한 도시에 책을' 웹 사이트: http://www.literacytrust.org.uk/books_about_town

(12) 모두를 위한 독서동아리 (Reading Group for everyone)

- 대상: 모든 청소년 및 성인
- 목적: 독서동아리 검색과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한다.
- 추진기관: 리딩 에이전시가 주관하고, 도서관 및 개별 동아리가 실행한다
- 내용:
 - 독서동아리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에서 지역별 동아리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 리딩 에이전시는 뉴스레터를 통해 독서동아리를 위한 주제별 도서를 소개하고, 활동 및 자료를 안내한다. 또한 사서와 동아리 리더 교육을 담당한다
 - 뉴스레터와 웹 사이트에 동아리들을 소개하여 좋은 실천 사례를 확산한다
 - 독서동아리 축제나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 웹 사이트: <http://readinggroups.org/>

4. 사례 탐구: 비독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

영국의 독서진흥사례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창의적인 독자의 개발 방법에 있다. 독자개발(reader development)의 목적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독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읽기에 대한 즐거운 경험과 긍정적인 태도는 이후 스스로 독자가 될 수 있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의 독자 개발 방식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창의적이다.

첫째, 비독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어, 독서진흥정책이나 진흥사례마다 목적하는 대상이(target group)이 매우 명확하다. 전체 인구에서 비독자는 누구인지, 어떤 사회경제적인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독서를 방해하는지, 어떤 읽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가 이루어진다.

둘째, 비독자의 관심사와 욕망을 어떻게 독서로 연결시킬지를 전략적으로 구상한다. 비독자는 어떤 주제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지, 비독자가 가진 독서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비독자에게 독서에 대한 역할 모델로 가장 적절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지 등에 대한 전략을 만든다.

셋째, 독서진흥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매우 창의적인 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국가가 프로젝트를 담당하지 않고, 시민사회에 맡겼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가진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인력풀에서 새로운 협업이 만들어진다. 각종 직종모임들, 작가, 출판사, 서점, 교사, 사서, 독자모임, 대학이 시민단체가 협업하고, 다양한 프리랜서 독서 프로젝트 기획자들이 활동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로 재정지원을 하고, 행정부의 협력이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경우(예, 학교,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방송사) 지원한다. ‘프리미어 리딩 스타’와 같은 프리미어리그 축구단과의 협업, ‘도시에 책을’과 같은 공공예술가와의 협업 등은 모두 시민단체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협업 사례를 이루었다.

넷째, 독서진흥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독자를 참여하게 하는 웹 사이트와 자료는 매우 비독자 친화적이다. 이 또한 정부가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프로젝트 기획자나 시민단체가 그래픽 예술가들이나 그림책 작가들, 영상 제작자들과 협업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하다. 독서가 익숙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비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진흥 프로젝트일수록 웹 사이트는 매우 매력적으로 꾸며진다. 비독자가 관심을 가질 단어를 선택하고, 그들이 흥미로워할 게임, 동영상 등을 선별하여 담아 놓는다.

북트러스트는 2013년 독립연구소인 DJS Research에 의뢰하여, 영국 성인의 독서습관과 태도를 조사했다.³⁰⁾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 통계청이 조사하는 전 인구에 대한 조사와 달리, 독자들의 특성을 집단별로 자세히 살피는데 있었다. 이는 각 독자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분석³¹⁾을 이용하여, 독서습관과 태도, 경험이 비슷한 집단을 9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의 특성과 가정독서환경, 성별, 연령대 등을 찾아냈다.

집단 S1 책벌레(6%)	- 종이책, 전자책을 탐독하며, 1달에 12권 정도 읽는다 - 가정에 약 1천권(995권)의 책이 있다. 60세 이상 은퇴자, 여성, 높은 학력자가 많은 편이다.
집단 S2 독서에 대한 사랑 (15%)	- 한 달에 3~4권을 읽고, 읽기를 좋아한다. - 아이들을 가진 가정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중상층에 속한 직업군이거나, 어릴 때 책이 많았고, 부모가 책 읽기를 북돋아준 가정에서 컸을 가능성이 높다.
집단 S3 잡지 세대 (14%)	- 집단 2만큼 읽으나(1달에 3권), 잡지를 좀 더 읽는다. - 자주 읽지만 집단 1,2만큼 책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향후 20년이면 인터넷이 책을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다. - 젊은 세대(18~44)이고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집단 S4 기회만 있다면 (8%)	- 한 달에 평균 2권정도 읽고, 읽기를 즐긴다(e-book 포함). 시간이 있다면 더 읽고 싶다고 말한다. - 이들은 특히 휴가철이나 공공교통을 이용할 때, 읽을 기회를 찾는다. - 양육할 아이들이 있는 기혼자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집단 S5 보통 사람 (17%)	- 한 달에 1~2권 읽는다. 독서에 대해 긍정적이나 집단 4만큼 즐기지는 않는다. - 이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은 분명하지 않다. 이 집단은 성별, 나이, 양육 어린이 여부에 관계없이 흩어져 있다.
집단 S6 읽기를 주저하는 (10%)	- 한 달에 1권정도 읽고, 전기, 스포츠, 특별한 관심사나 취미에 대한 읽기를 선호한다. - 전반적으로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약하다. 또한 독서는 지루하고 힘들다는 의견에 좀 더 동의한다. - 남성, 아이가 없는 18~29세가 이 집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30) DJS Research, *Booktrust Reading Habits Survey 2013: National survey of reading habits and attitudes to books amongst adults in England*, 2013.

31) 클러스터 분석은 '군집분석'이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를 유사성이 많은 것끼리 집단으로 모아, 집단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다른 집단과 구별하는 분석 방식이다.

집단 S7 읽을 시간이 없어 (10%)	▪ 책을 자주 읽지 않고, 가정에도 책이 많지 않다. ▪ 독서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독서에 더 시간을 내고 싶어 한다. ▪ 책을 읽지 않는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또한 양육할 아이를 가진 경우가 많다.
집단 S8 읽기 싫어 (11%)	▪ 독서를 즐기지 않아, 이 집단의 반은 종이책을 읽지 않고, 90%는 e-book을 읽지 않는다. ▪ 18~29세,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젊은 세대로 구성된다.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 부모가 책을 즐기지 않았고, 읽으라고도 독려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 또한 학교에서 읽기를 즐기지 않았다.
집단 S9 읽지 않아 (10%)	▪ 이 집단은 거의 읽지 않는다. 이중 3/4는 1년간 어떤 책도 읽지 않았다. ▪ 가정에서 부모가 책을 읽어준 경험이 없고, 학교에서도 책을 즐기지 않았다. ▪ 18~29세의 젊은 세대가 많고, 2/3 정도가 남성이다.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고, 특별한 자격증도 없는 경우가 많다.

표 33 영국 성인의 독서습관과 태도

〈출처〉 DJS Research, *Booktrust Reading Habits Survey 2013: National survey of reading habits and attitudes to books amongst adults in England*, 2013.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각의 집단은 독서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매우 다르다. 집단 S8과 S9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독서경험이 부족하고, 집단 S6은 읽기는 하지만 독서의 흥미가 떨어진 젊은 남성들이 많으며, 집단 S7은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많고 독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 보고서는 집단별로 독서습관과 독서태도를 비교하여 조사했다.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에 대한 집단별 태도를 살펴보면, 집단 S9는 읽지 않는 비독자이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읽는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책 읽기가 지루하다’, ‘독서를 시작하면 몇 장 넘어가지 못하고 금방 지루해진다’는 답변이 가장 많다. 독서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2%이다. 특히 이들은 학교에서의 즐거운 읽기 경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에게는 지루함이 없이 즐겁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독서 프로젝트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유명 저자의 책을 쉽고 짧은 단어와 문장으로 다시 출판한 퀵 리드(Quick Read) 프로젝트가 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집단 S4, ‘기회만 있다면’ 집단의 경우, 독서에 대한 흥미도 높고, 독서의 즐겁게 여기며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없다. 이들의 경우,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응답이 집단 S1과 S2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이들 집단에는 독서동아리 등 책과 관련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제공해주는 전략도 가능하다.

아래의 두 그래프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과 긍정적이지 않은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을 집단별로 분석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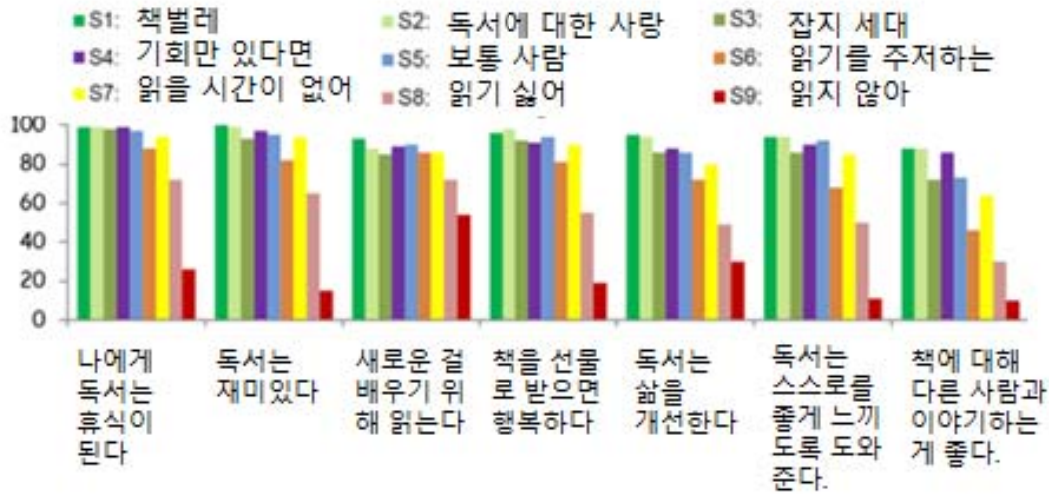


그림 52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

〈출처〉 DJS Research, *Booktrust Reading Habits Survey 2013: National survey of reading habits and attitudes to books amongst adults in England, 2013*

〈주〉 단위는 퍼센트, 그래프와 표에 나오는 색은 같은 그룹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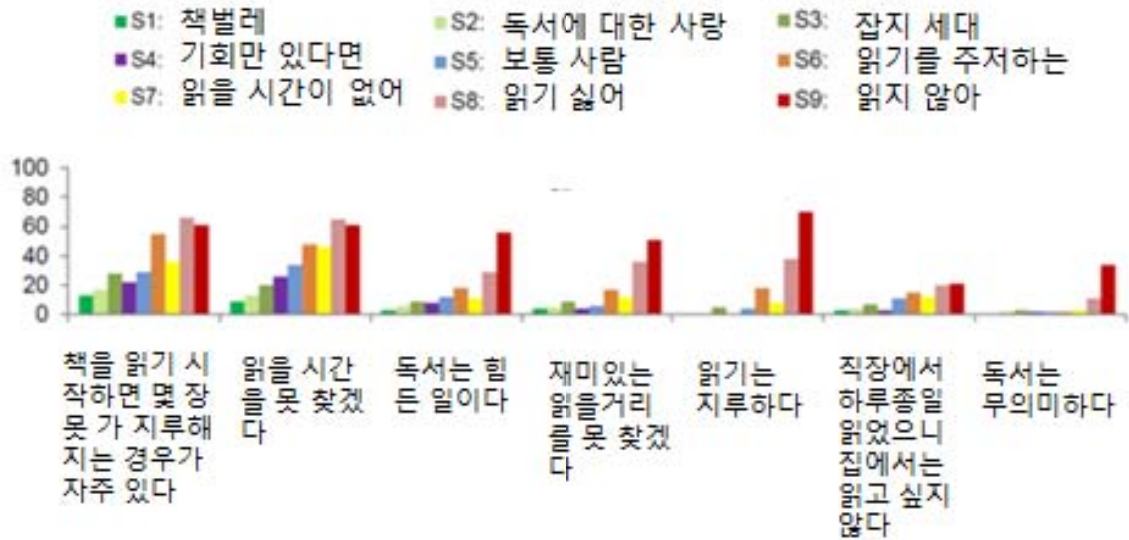


그림 53 독서에 대한 덜 긍정적인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

〈출처〉 DJS Research, *Booktrust Reading Habits Survey 2013: National survey of reading habits and attitudes to books amongst adults in England, 2013*

〈주〉 단위는 퍼센트, 그래프와 표에 나오는 색은 같은 그룹을 나타냄

다음은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비율을 집단별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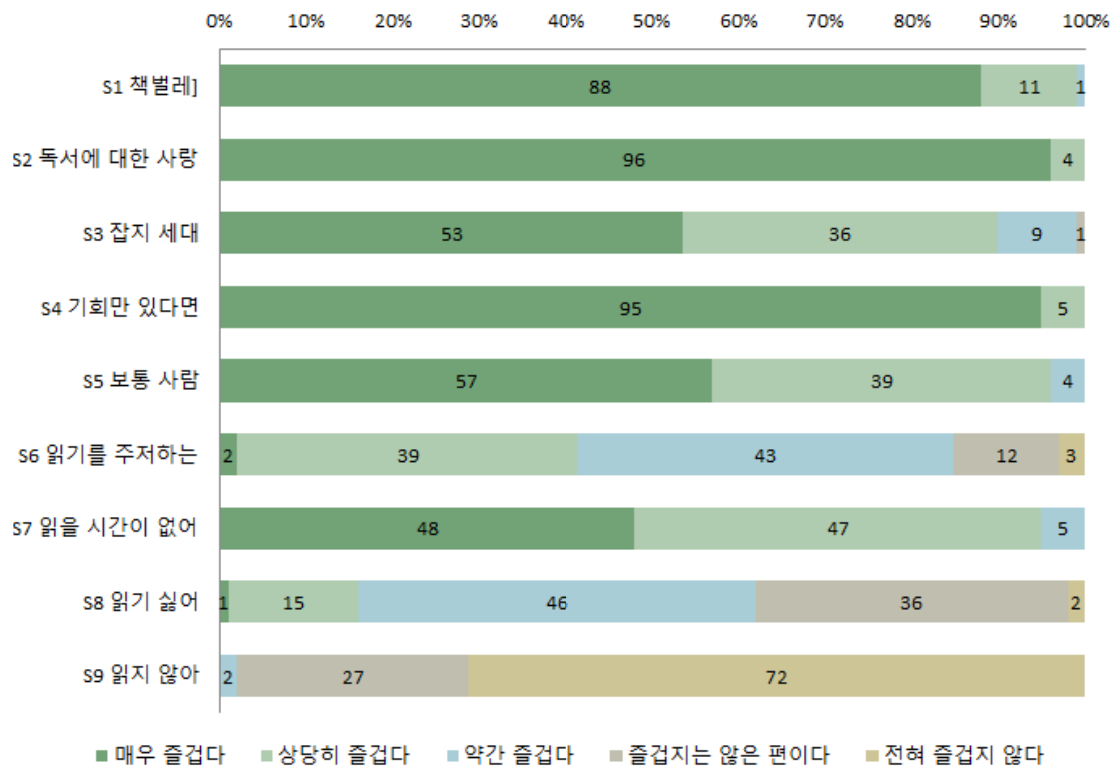


그림 54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비율

〈출처〉 DJS Research, *Booktrust Reading Habits Survey 2013: National survey of reading habits and attitudes to books amongst adults in England, 2013*

〈주〉 단위는 퍼센트

영국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독자 분류는 우리나라의 독자의 특성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우리도 책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기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독자를 중심으로 놓고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독자와 비독자의 독서습관, 독서태도, 독서경험, 비독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나 가치를 탐구하는 독서실태분석이 필요하다.

3절

핀란드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1. 독서환경과 독서실태

핀란드는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 약 5백5십만이 살고 있고, 이중 1백만은 헬싱키, 에스푸, 반타 등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기대 수명은 80.5세(2013, 월드뱅크)이다. 핀란드의 평균 가구 인구는 2.1명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90%의 인구가 핀란드어를 쓰고, 5.4%는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쓴다.

핀란드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2천7백3십억 US\$(2014, IMF)이고, 1인당 GDP는 49,541US\$(2014년, OECD)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은 농업 2.81%, 공업 및 제조업 25.96%, 서비스 71.23%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2014, 월드뱅크). 정부지출이 GDP대비 58.34%로, 유럽연합 내에서 공공지출이 1위(2014년, IMF)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세계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OECD, 2014).

PIACC 조사에 따르면, 핀란드인의 독서율은 83.4%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최상위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독서율이 9%p 더 높다. 핀란드인의 독서빈도를 살펴보면, 매일 읽는 독자가 16.2%,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21.4%,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 독자가 17.1%,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는 28.7%이다.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는 16.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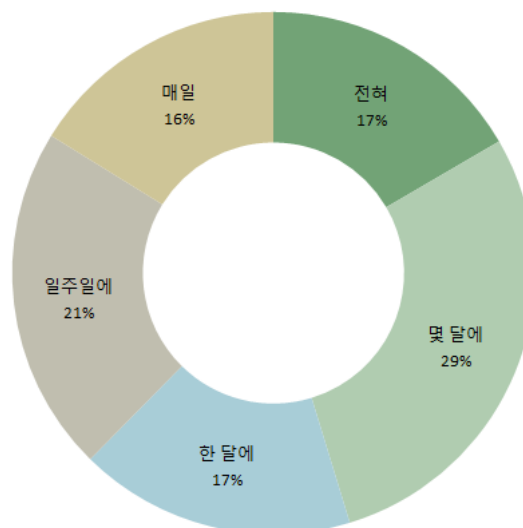


그림 55 핀란드인의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주〉 핀란드의 16~65세 5455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핀란드는 도서관의 나라라고 할 만큼 핀란드인의 도서관 이용률은 세계적이다. 인구의 90%는 도서관 회원이며, 핀란드 성인의 67%는 1년간 도서관을 방문(유럽 평균 23%)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달에 1번 도서관을 이용한 인구도 39%에 달한다.³²⁾

성별 독서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독서율이 77%, 여성이 90%로 여성의 독서율이 약 13%p 높다. 독서의 빈도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여성은 매일 읽거나(21.7%) 일주일에 몇 번 읽는(25.1%) 습관적 독자가 46.8%로 절반에 가깝다. 반면, 남성은 매일 읽거나(10.8%) 일주일에 몇 번 읽는(17.9%) 습관적 독자가 28.7%이다. 연간 도서관 방문율을 조사해도 여성은(76%)은 남성(58%)보다 도서관 방문을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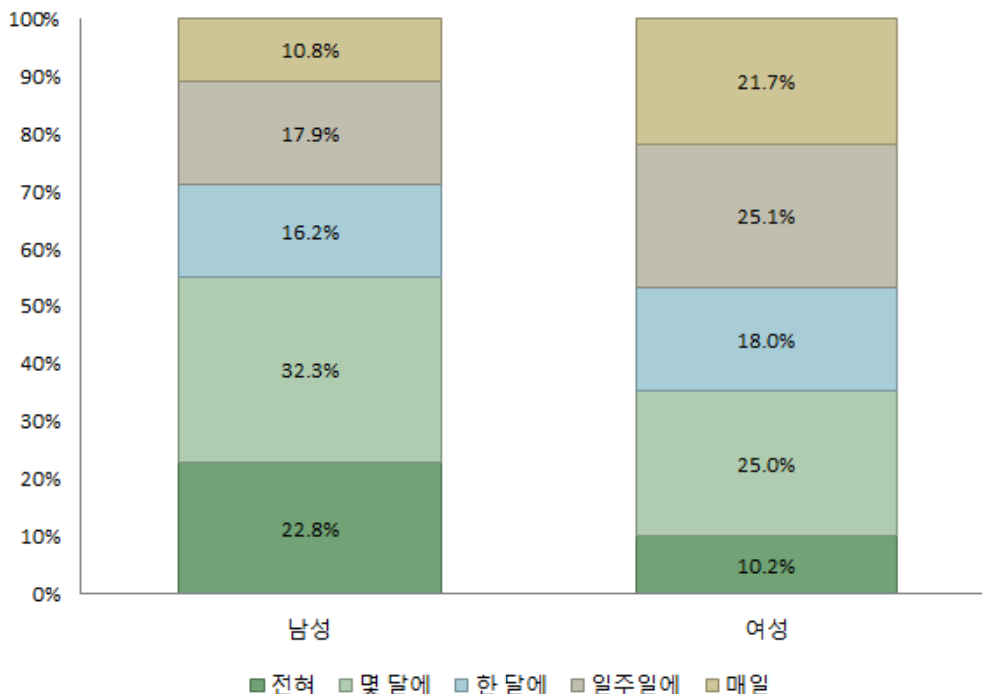


그림 56 핀란드인의 독서빈도 성별 비교

〈출처〉 PIAAC 2013

〈주〉 핀란드의 16~65세 5455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연령별 독서율을 살펴보면, 16~24세는 80.5%, 25~34세 86.1%, 35~44세 86.9%, 45~54세 83.3%, 55~65세 80.9%의 추세를 보인다. 25~44세의 청년층의 독서율이 86% 대로 가

32)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Finland*, 2013

33) *Ibid.*

장 높고, 연령이 높아져도 80%를 넘는 높은 독서율을 보인다. 연령별 독서빈도도 거의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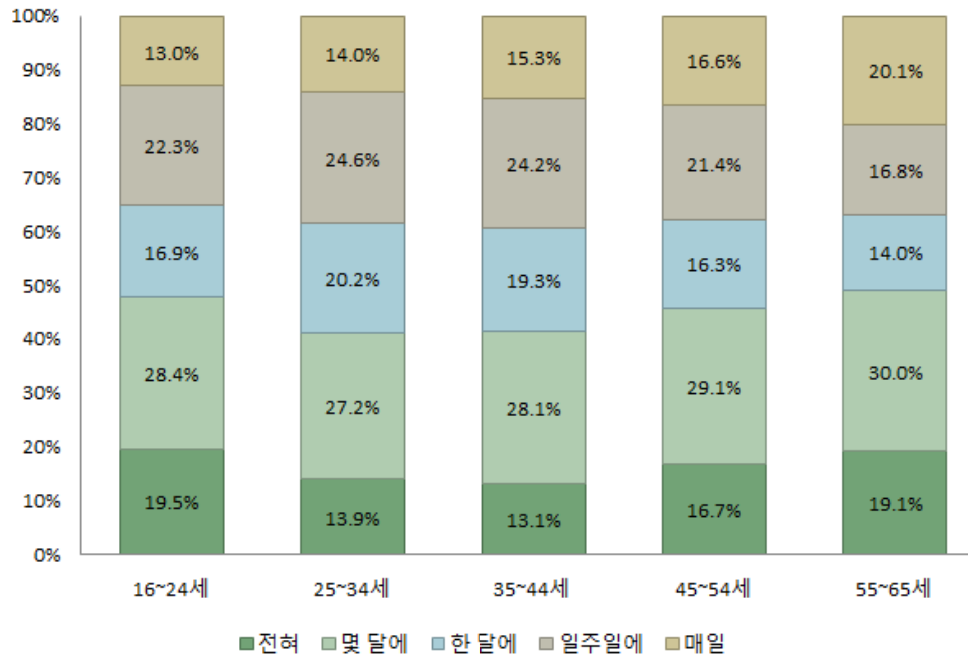


그림 57 핀란드인의 독서빈도 연령별

〈출처〉 PIAAC 2013, 핀란드의 16~65세 5455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도서관 이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4세의 77%, 25~39세의 75%, 40~54세의 64%, 55~64세의 59%, 65세 이상의 58%가 1년 내에 도서관을 이용했다고 보고된다. 핀란드인은 모든 연령대에서 도서관 이용률이 높다. 유럽연합 평균과 비교하면 특히 55세 이상의 도서관 이용자가 월등히 많다.

	핀란드	유럽연합평균
15~24세	77%	38%
25~39세	75%	25%
40~54세	64%	22%
55~64세	59%	18%
65세 이상	58%	14%

표 34 핀란드인의 연간 도서관 이용 연령별 비율

〈출처〉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Finland*, 2013

〈주〉 15세 이상 핀란드인 1008명, 유럽연합 17,816명 인터뷰

독서율을 연령별, 성별로 교차분석해보면, 연령대간 독서율 차이는 거의 없고,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의 독서율보다 6%p~14%p 높은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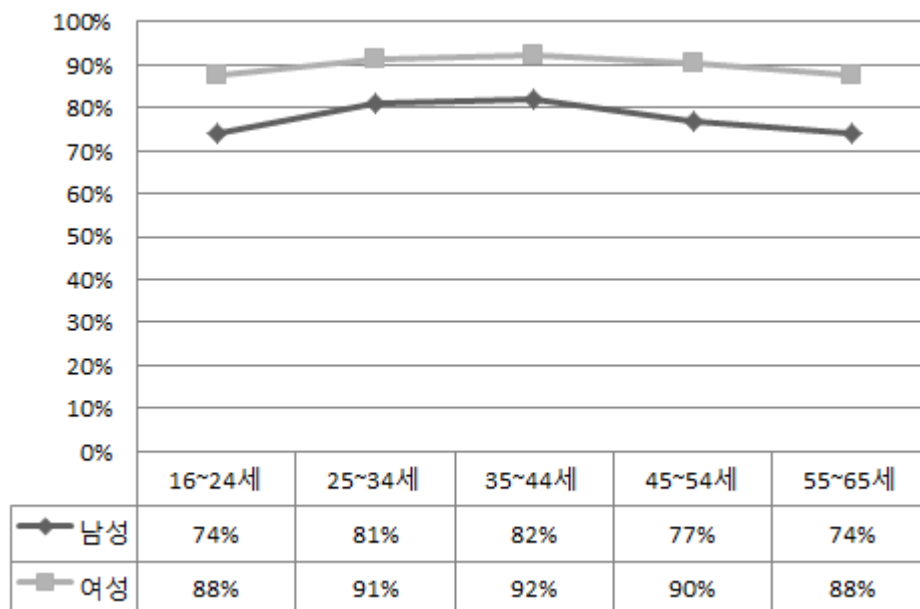


그림 58 핀란드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출처〉 PIAAC 2013

〈주〉 핀란드의 16~65세 5455명 대상 인터뷰 조사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연령별 비율을 조사해보면, 이용자의 17%는 55~64세이고, 65세 이상은 15%로 나타난다. 도서관 이용자의 32%가 55세 이상이다.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81%로 (유럽 평균 48%) 매우 높다.³⁴⁾ 뒤에 설명할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핀란드인은 책을 읽는 인구 뿐 아니라 신문 읽기를 하는 인구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15세 이상 매일 신문이나 잡지 읽기를 하는 인구가 71%로 유럽연합 국가 중 1위(유럽연합평균 33%)³⁵⁾ 이다.

읽기의 생활화와 일상적인 도서관 이용, 높은 공교육 수준은 독해력에도 영향을 미쳐, 핀란드인 언어능력은 세계 최상위이다. 15세 이상 성인의 언어능력은 287.5점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272.8점, 한국 평균인 272.6점에 비해 15점 가량 높은 점수이다. 15세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PISA 시험에서도 독해점수는 최상위이다. 핀란드는 PISA 2000년 1위 (한국 6위), 2009년 3위(한국 2위), 2012년 6위(한국 5위)를 차지했다.

34) Ibid.

35) European Commission, *Standard Eurobarometer 82: Media Use in the European Union*, 2014.

2.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핀란드의 독서진흥정책은 도서관과 학교 등 공적 기관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재교육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정부가 출판이나 독서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을 경제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독서진흥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는 사서와 교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주로 독서를 위한 인프라인 도서관 시설, 자료, 사서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는데 집중한다.

핀란드의 독서관련정책은 교육문화부(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n)를 통해 이루어진다. 핀란드는 교육부와 문화부가 통합되어 있어, 학교와 도서관의 협업이 행정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진다.

핀란드는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시민이 평생 누려야 할 교육적 권리로 접근한다. 도서관을 ‘학습하는 시민사회’의 중심 기관으로 여기기에, 도서관에 대한 접근의 평등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령기에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업이 가장 활발하다. 모든 시민이 인류의 지적 정보에 대해 평생 동안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도서관도 시민에게 공개된다. 인구가 희박한 핀란드 촌락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도서관이 운영된다.

- 유치원 및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업이 활발
-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대학도서관은 시민에게 개방
- 도서관 시설, 사서, 자료, 현대화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투자
- 핀란드 디자이너의 작품인 도서관 건물, 인테리어와 가구
- 도서관의 현대화(3D 프린터)와 이의 이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 인구희박 지역의 시민과 어린이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 핀란드어 문학 작품과 작가 보호를 위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 북유럽의 전통적인 스터디서클 운영 지원

(1) 도서관 중심의 독서진흥정책

핀란드는 1928년 도서관법을 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1945년 사서를 교육하는 전문학교 (Yhteiskunnallinen korkeakoulu)가 핀란드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 1961년 공공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정부의 공공도서관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4천 곳의 도서관이 설립된다. 이때부터 공공대여권을 인정하여,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대해 저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이 종료되고,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된다. 중앙정부는 도서관의 신축과 개축, 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지원이나 특수 도서관들(이동도서관이나 국가도서관)의 프로젝트에만 관여하게 된다. 1998년 새로운 도서관법을 개정하고, 모든 공공도서관에 컴퓨터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지식과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ICT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 교육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문화부는 5년마다 도서관 정책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행정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³⁶⁾

핀란드는 세 가지 유형의 도서관이 있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처럼, 핀란드국립도서관은 헬싱키 대학의 독립기구로 도서관의 네트워크 서비스, 기록문화유산의 보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모든 도서관은 교육문화부 산하에 있지만, 각각의 도서관을 맡고 있는 부서는 조금 다르다. 공공도서관은 문화, 체육, 청소년 정책국이 담당하고, 대학도서관은 교육과학정책국이, 학교도서관은 국가교육부가 담당한다.

공공도서관의 수는 2014년 현재 중앙도서관 291개, 분관도서관 465개, 병원도서관 34개, 이동도서관 142개 이다.³⁷⁾ 공공도서관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교육문화부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합쳐 충당된다.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의 1%는 매년 도서관에 투자된다. 교육문화부는 도서관의 건설이나 공간의 수리(renovation), 이동도서관의 구입 등의 지원을 한다.

36) Ministry of Education, *Finnish Public Library Policy 2015: National strategic areas of focus*, 2009

37) 핀란드 공공도서관 통계 <http://tilastot.kirjastot.fi/fi-FI/>

‘도서관의 나라’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핀란드인의 삶에서 도서관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럽 국가들의 1인당 연간 도서관 지출액에서 핀란드는 63유로(2013년)로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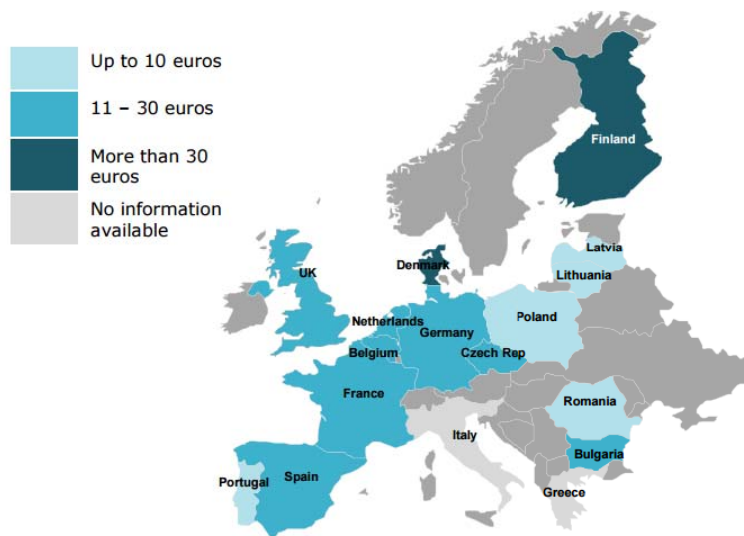


그림 59 유럽 국가들의 1인당 연간 도서관 지출

〈출처〉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Cross-European survey to measure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2013

2014년 핀란드 공공도서관 통계를 살펴보면³⁸⁾, 1인당 도서관 방문은 9.29회이고, 37.45%의 인구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공공도서관의 대출은 도서 및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비롯하여 16.76종 (도서는 약 13권)이다.

핀란드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 읽기의 차이(digital gap)을 좁히는 것이 핀란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핀란드 성인의 도서관 컴퓨터 이용률은 유럽평균의 2배 가까이 된다. 핀란드 정부는 도서관의 ICT 시설에 대한 투자가 높다.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음악 스튜디오,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구비하고 있다. 2013년 조사에서 핀란드인은 도서관의 ICT 시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가정이나 직장보다 더 뛰어나다고 답하고 있다.³⁹⁾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이다. 인구가 10만이 넘는 도시는 8개뿐이고,

38) 핀란드 공공도서관 통계 <http://tilastot.kirjastot.fi/fi-FI/>

39)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Finland*, 2013

336개의 지자체 중 인구 6천명 이하의 지역이 핀란드의 반이 넘는다. 이들이 10%의 인구를 차지한다. 핀란드 인구의 10%는 국토의 반 이상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러한 인구 희박 지역 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그림 60 에스푸 지역 이동도서관
〈출처〉 Anneli Salo (CC-BY-SA-3.0)

이동도서관은 버스에 책과 자료를 담아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이동도서관 142대가 11,267군데의 서비스 지점에서 운영된다.⁴⁰⁾ 이동도서관이 운영되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웹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책과 자료를 신청해두면 가져다준다. 이동도서관의 서비스 덕분에, 핀란드에서는 촌락에 거주하는 시민의 62%가 1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된다. 대도시 72%, 중소도시는 68%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유럽연합 평균 21%에 비하면 3배에 가깝다.⁴¹⁾

도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도서관은 가능하면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만들어진다. 50%이상 지자체에서 시민의 절반은 2km내에 공공도서관이 있다. 절반의 도서관은 학교 부

40) 핀란드 공공도서관 통계 <http://tilastot.kirjastot.fi/fi-FI/>

41)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Finland*, 2013. 지난 1년간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근에, 1/4의 도서관은 유치원 부근에 위치해있다.⁴²⁾ 새로 짓는 도서관은 모두 이 원칙에 따른다. 이 때문에 핀란드의 작은 학교는 별도의 학교도서관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교와 도서관의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까닭도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꼽아보라면 도서관이 자주 언급된다. 핀란드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바 알토(Alva Alto)는 도서관과 서점 디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핀란드에서 도서관을 새로 건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인테리어와 가구, 조명, 소품 등은 새로 디자인된다고 한다.⁴³⁾ 아래의 사진들은 알바 알토가 1965년 설계한 세이나요키 시의 중앙도서관을 다시 리노베이션한 도서관의 모습이다. 디자이너가 건물, 실내장식과 조명, 가구, 소품 디자인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건물에 들어서면, 작품 속에 들어온 느낌이 난다.

도서관의 환경에 대한 핀란드인의 자유서술형 응답을 살펴보면, 친숙한, 평화로운, 휴식 같은, 정보가 많은, 가정적인, 포근한, 자료의 다양성, 넓은 탁 트인 공간, 즐거운, 도움 받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직원들, 친구를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⁴⁴⁾라는 단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그림 61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입구

〈출처〉 Seinäjoen kirjasto (CC BY-NC-SA 2.0)

42) www.minedu.fi

43) 스칸디나비아 도서관 저널의 편집자인 Leena Jansson와의 인터뷰

44)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Finland*, 2013, 17쪽.



그림 62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서가와 자유 독서 공간
 〈출처〉 Seinäjoen kirjasto (CC BY-NC-SA 2.0)
 〈주〉 공연이 있으면 청중석으로 변신한다.



그림 63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어린이실
 〈출처〉 Seinäjoen kirjasto (CC BY-NC-SA 2.0)



그림 64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청소년
실과 미디어실
〈출처〉 Seinäjoen kirjasto (CC BY-NC-SA 2.0)



그림 65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좌석
〈출처〉 Seinäjoen kirjasto (CC BY-NC-SA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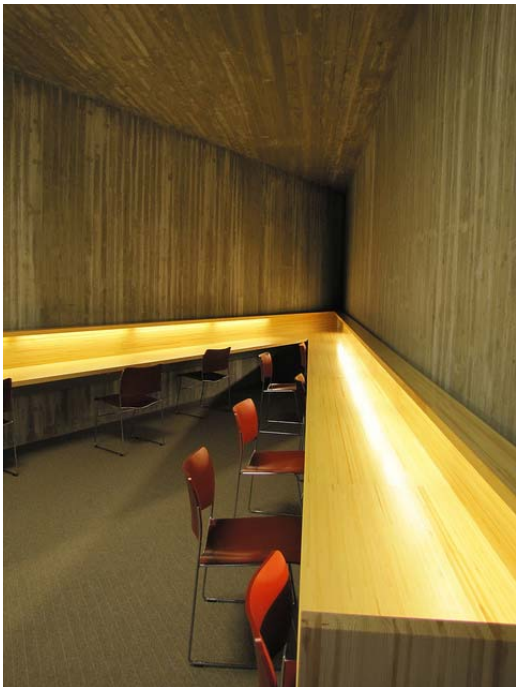


그림 66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조용한
독서 공간
〈출처〉 Seinäjoen kirjasto (CC BY-NC-SA 2.0)



그림 67 핀란드 세이나요키 도서관의 강의실
〈출처〉 Seinäjoen kirjasto (CC BY-NC-SA 2.0)

도서관에 대한 핀란드 시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90%의 시민들이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매우 효과적이다(45%), 효과적이다(43%), 효과적인 편이다(2%)라고 응답했다. 유럽연합평균이 각각 14%, 32%, 18%인데 비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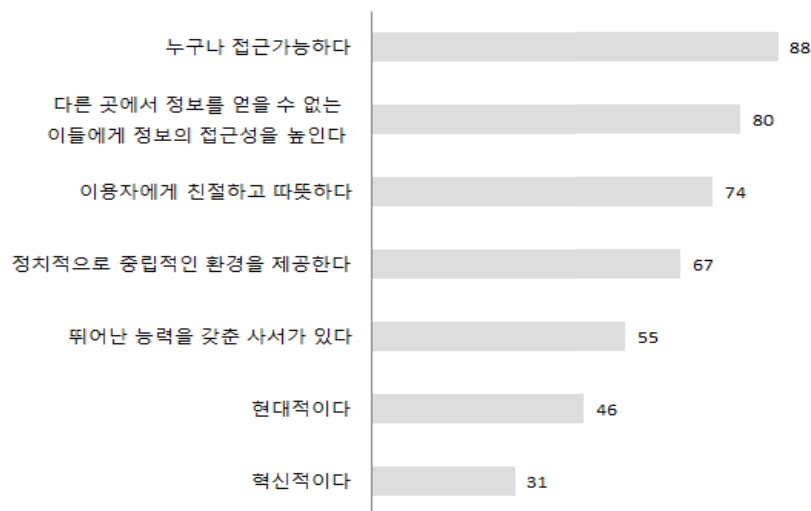


그림 68 핀란드인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출처〉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Finland*, 2013

〈주〉 15세 이상 핀란드 도서관이용자 1443명, 단위는 %, 중복응답가능

핀란드인은 공공도서관이 누구나 접근가능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평등한 정보접근성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친절하고 따뜻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뛰어난 사서가 서비스하는,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라고 핀란드인은 생각한다.

도서관 서비스 중에는 도서와 성인 및 아동 학습 자료, 뉴스와 잡지의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핀란드인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CD나 DVD, 복사기나 프린터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서비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취업 및 지역사회 정보, 정부 서비스 정보, 사업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여긴다.

45)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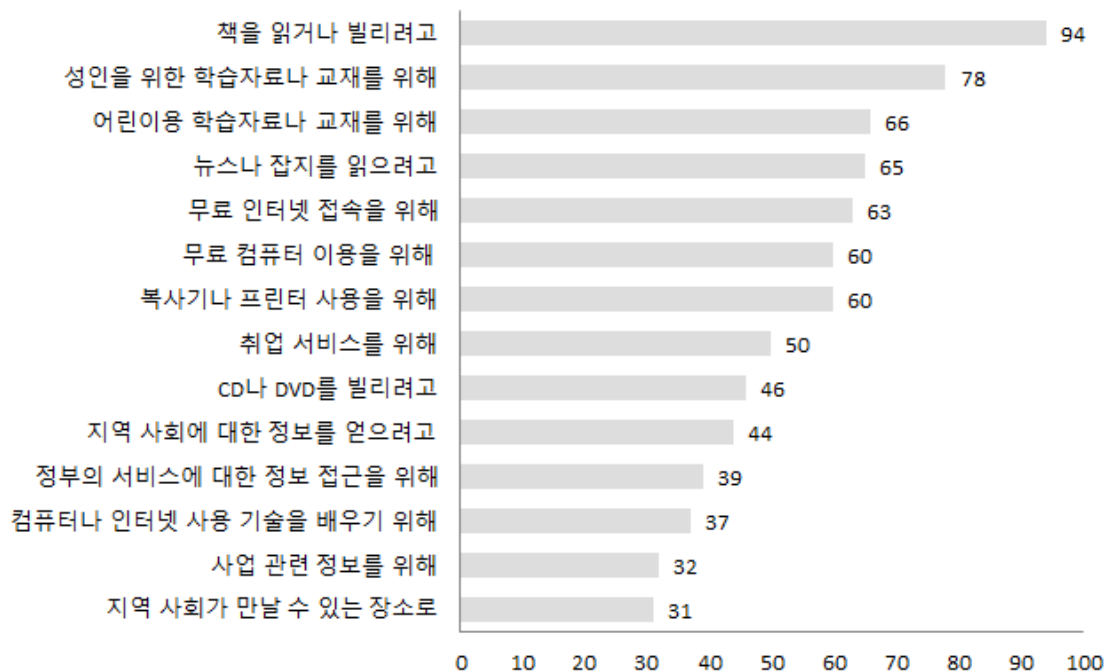


그림 69 핀란드인,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성

〈출처〉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User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of ICT in public libraries in Finland*, 2013

〈주〉 15세 이상 핀란드 도서관이용자 1443명, 단위는 %, 중복응답가능

서구 대부분의 도서관처럼, 핀란드의 도서관도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와 아동을 위한 책 읽어주기, 강연, 저자와의 만남, 독서 동아리, 취업 안내, 컴퓨터 이용자교육, 이민자를 위한 핀란드어 교육, 이민자를 위한 시민교육 등이 그것이다. 핀란드의 성인의 23%가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럽 연합의 평균인 25%보다 약간 낮다.⁴⁶⁾ 프로그램 참여율에 비해 도서관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67%)으로 유추하건데, 핀란드 성인은 특별한 프로그램에 이끌리기보다 일상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주로 학령기의 아동에 더 집중되어 있다.

46) *Ibid.*

(2)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핀란드 교육의 경쟁력은 이미 다수의 국제 지표로 증명이 된 바가 있다. 가장 적은 시간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월등한 언어능력과 수리력을 보인 나라로, 전 세계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핀란드 교육의 핵심어는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한 교육, 6세부터 대학까지 학비와 급식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높은 교사의 전문성이다.

핀란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교육은 전 과목에 걸쳐 책으로 이루어진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유럽의 국가들처럼 국가가 지정한 교과서가 전혀 없다. 또한 학교를 다니는 기간 중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평가도 전혀 없다. 학교 평가도, 교육청에 의한 학교 감찰제도도 1990년대초에 폐지했다. 국가는 매 10년마다 핵심교육과정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필수요소만 제공할 뿐이다.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할지, 어떤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을지,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 어떻게 평가할지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합친 종합학교의 과제 중 하나로 ‘학생들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즉, 자신에 대한 앎을 키우고, 자신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⁴⁷⁾이라고 본다.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야, 평생 학습하는 시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교육 및 독서교육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핀란드의 교사는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인재들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만 한다. 학교에는 학습상담교사와 특수교사가 있어 읽기 부진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업부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마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 수준을 높이고, 교사간의 협력과 연수를 지원하며, 교사와 공공도서관 사서의 협업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집중한다.

핀란드에서는 대규모의 종합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도서관이 없다. 대신 학교도서관보다 공공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이유는 우선 핀란드에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교마다 충분한 장서나 전문 사서를 둘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만들더라도 자료구입비가 부족하고 전문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와 사서가 있는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도록 한다. 지

47)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nish Education in a nutshell: Education in Finland*, 2013, p.17

방자치단체는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을 공공도서관으로 집중 지원하여 예산의 중복을 막으려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1/3이 학교 부근에 세워졌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쉽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공공도서관을 자주 방문하고 친숙하게 이용하며 사서와의 빈번히 만나게 되면, 부모가 도서관에 데려가지 않는 가정의 자녀라도 혹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문화적으로 친숙하게 된다.

핀란드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도서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할 의무가 있다. 학교도서관이 없는 모든 유치원과 종합학교, 고등학교는 공공도서관과 협업하도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아무리 작은 도서관이라도 인근의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할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공공도서관 사서와 일할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명문화된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어떤 예산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명시한다.⁴⁸⁾

48) 헬싱키 공공도서관의 학교담당 사서, Riikka Penttilä와의 인터뷰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핀란드의 독서진흥활동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 모두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인 도서관과 학교에서, 혹은 도서관과 학교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핀란드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프로젝트 레지스트리(Yleisten Kirjastojen Hankerekisteri)에 모두 등록되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사이트는 교육문화부에서 재정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위원회가 운영한다. 공공도서관 프로젝트 레지스트리의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hankkeet.kirjastot.fi/>

이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프로젝트는 운영주체, 대상, 시행 기간, 예산, 진행방식, 앞으로의 계획 등을 수록해놓고 있다. 2015년 258개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295만 유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2014년 에는 264개의 프로젝트가 282만 유로로, 2013년에는 262개의 프로젝트가 302만 유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이 사이트는 프로젝트의 주제별, 대상별, 지역별 검색 기능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 사서들이나 기획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새로 부임된 지역이라도 이전에 이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어떻게 협업했는지, 결과가 어떠했는지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대상의 촌락 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관련 프로젝트를 모두 찾을 수 있다. 또한 평가가 좋았던 프로젝트는 별도로 소개해놓아서 기획에 큰 도움이 된다.

핀란드의 독서진흥 프로그램은 대부분 공적기관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적 단위의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진흥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시민단체로 가장 큰 곳은 독서센터(Lukukeskus)이다. 독서센터는 저자, 출판사, 도서관 등 10개 단체가 모여 설립했다. 독서센터는 매년 독서주간을 기획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며, 저자와 독자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에 대한 서평지를 발간하기도 한다. 독서센터는 프로젝트의 기획이나 단체 간의 코디네이션을 주관하고, 교육문화부로부터 프로젝트의 예산을 받는다.⁴⁹⁾

49) Lukukeskus의 센터장 Ilmi Villacis와의 인터뷰

(1) 작가 데이터베이스

- 대상: 도서관과 학교, 독서 모임, 도서축제, 문화제 등의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
- 목적: 영어권에 비해 독자층이 얇은 핀란드 작가의 작품을 홍보하고, 핀란드 작가의 활동을 지원 및 촉진함으로써, 모국어 도서 출판의 진흥을 도모한다
- 추진기관: 독서센터(Lukukeskus)
- 내용:
 - 핀란드 작가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 독자와의 만남에 관심 있는 소설, 비소설, 희곡, 번역, 시나리오, 만화, 그림 작가 600명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다
 - 작가별로 사진, 장르, 작품, 생애, 독자들과 가능한 활동, 거주지, 활동가능 지역, 이메일 등의 정보가 담긴다
 - 학교와 도서관, 문화단체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장르별, 지역별 작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웹 사이트: <http://www.lukukeskus.fi/kirjailijavierailut/>

(2) 작가 방문 (Kirjailijavierailut)

- 대상: 어린이·청소년과 시민
- 목적: 핀란드 작가의 작품 읽기를 촉진함으로써 핀란드 작가를 보호하고 육성한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 추진기관: 독서센터(Lukukeskus)
- 내용:
 - 독서센터가 주선하여 원하는 학교, 도서관, 문화단체, 독서모임, 축제에서 작가를 연결해준다
 - 독서센터는 주최 측의 행사에 가장 적절한 작가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 지리수업에 여행작가, 역사수업을 위해 역사 논픽션 작가, 철학 수업에 시인, 미술 수업에 만화가나 그림책 작가, 심리학 수업에 범죄물 작가, 문학수업에 번역 작가 등을 소개하는 식이다
 - 매년 1000여명의 작가들이 독자와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
- 웹 사이트: <http://www.lukukeskus.fi/kirjailijavierailut/>

(3) 사서 예약제 (Varaa kirjastonhoitaja)

- 대상: 모든 어린이·청소년과 시민
- 목적: 도서관의 도서 및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검색하거나, 도서관의 다양한 시설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등과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작동법을 1대1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숙제 및 프로젝트 자료 검색에 도움을 준다
- 추진기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 내용:
 - 신청자가 도서관 사서와 미리 시간을 예약을 하고, 30~60분 동안 1대1로 서비스를 받는다
 - 서비스 내용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정보 검색, 독서 목적과 독자에 맞는 도서 추천, 음악 CD나 DVD, 악보를 찾는 서비스, 족보 추적 관련 서비스, 컴퓨터 사용, 복사기, 메모리스틱에서 사진 옮기기 등등의 ICT 관련 이용 방법 등이다
 - 헬싱키 도서관은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 사서 상담 사이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운영하고 있다
- 웹 사이트: <http://www.kysy.fi/>

(4) 독서의 즐거움 (Lukuinto)⁵⁰⁾

-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
- 목적: 어린이와 청소년의 읽기 동기와 미디어 문해력 증진한다. 또한 도서관과 학교의 파트너십과 대학의 독서연구자와 독서현장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 추진기관: 교육문화부, Oulu 대학 교육학과와 인문학과, 독서센터(Lukukeskus)가 주관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실행한다
- 내용:
 -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협력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현한다
 - 도서관 사서와 학교 교사가 지역사회의 상황과 문제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한다
 - Oulu 대학 교육학과와 인문학과는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및 사서를 교육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며, 핸드북을 제작한다
 - 2012~2015년까지 총 30개의 지역에서 15,000명의 학생 참가하였다
- 웹 사이트: <http://www.lukukeskus.fi/lukukeskus/>

50) 뒤에 사례 탐구의 예로 자세히 다룰 것이다.

(5) 학습동아리 (Opintopiirin, Study circle) 지원

- 대상: 성인
- 목적: 성인들의 자발적인 학습 연구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육성한다
- 추진기관: 70개 NGO단체의 연합체인 성인학습센터(Osaavaa Kansalaistoimintaa Opintokeskus)가 주관하고, 활동 예산은 교육문화부가 지원한다
- 내용:
 -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원하는 주제에 대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성인학습센터에 등록하면, 관련된 도서나 자료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약간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 성인학습센터는 학습동아리 리더 양성을 위한 교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습동아리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 (도서관, 지역성인학습센터, 박물관, 미술관, 리더 등)을 안내한다
- 웹 사이트: <http://ok-opintokeskus.fi/>

학습 동아리란?

학습동아리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북유럽 특유의 독서토론모임으로, 핀란드는 인구의 약 5% (2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⁵¹⁾ 학습동아리는 8~10회의 모임으로 이루어진다.

- 조직: 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인다
- 목표설정: 동아리를 통해 알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서로 나눈다
- 매회 공부할 세부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별로 토론을 주재할 의장을 정한다
- 의장은 매회 토론의 사회자로, 주제에 대한 책이나 자료,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함께 의논하여 정하고,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개인적인 독서를 한다
- 매회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한다
각자 읽어오거나 공부한 부분을 발췌하고 발표하기, 토의나 토론, 전문가 인터뷰, 가상 인터뷰나 역할극 (심리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주제), 마인드맵 (아이디어 모으고 정리하기)
- 학습동아리의 리더나 멘토는 효과적인 읽기 방법, 메모의 방법, 블로그나 에버노트 등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방법, 토론의 방법, PPT나 Prezi등으로 발표하는 방법 등을 학습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 마지막 모임에서는 배운 것을 요약정리하고, 포스터에 각자의 결심이나 실천 계획을 적는다

51) 스웨덴 인구의 20%는 학습동아리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 일까 파이팔레, 조정주역, 『핀란드가 말하는 핀란드 경쟁력 100』, 비아북, 2010. 237쪽.

(6) 도서관을 위해 자전거를

- 대상: 사서와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민
- 목적: 평생교육기관이며 인류의 지적 자산을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서관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이유를 설득한다. 또한 도서관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한다
- 추진기관: 도서관을 위해 자전거를 Cycling for libraries
- 내용:
 - 2010년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도서관·정보·문서협회(The 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에서 핀란드의 사서들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전거 행진 캠페인을 제안하여 시작되었다
 - 2011년 ‘도서관을 위해 자전거를’이 발족하고 전 유럽에 걸쳐 캠페인 진행하고 있다
 - 사서들과 시민들이 도서관대회나 컨퍼런스 등에서 특별행사로 자전거로 달리며 캠페인을 한다
- 웹 사이트: <http://www.cyclingforlibraries.org/>

4. 사례 탐구: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업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도서관을 담당하는 문화부가 통합된 교육문화부를 가진 핀란드에서,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협업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아온 핀란드 교사와 사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⁵²⁾ 학교와 도서관의 협업 프로젝트인 ‘독서의 즐거움’(Lukuinto)은 핀란드 독서진흥사례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한다.

‘독서의 즐거움’ 프로젝트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동기와 미디어 문해력을 높이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다. 교육문화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독서센터와 Oulu 인문학과와 교육학과의 주관하여 2012~2014년까지 전국의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와 평가를 모아 핸드북이 만들어졌고, 이 핸드북은 도서관과 학교의 협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지침이 되고 있다.



그림 70 ‘독서의 즐거움’에 참여한 핀란드 청소년들
〈출처〉 www.lukuinto.fi 독서센터의 허락

‘독서의 즐거움’ 프로젝트는 다음을 목표로한다.⁵³⁾

참여하는 어린이에게는 다음의 교육적 경험이 늘어난다.

- 함께 읽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독서 동기가 높아진다.
- 학습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학생의 경험, 흥미, 일상적인 환경을 고려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고, 활동을 함께 계획한다.

52) 독서의 즐거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헬싱키 공공도서관의 학교담당 사서, Riikka Penttilä와의 인터뷰.

53) 아래의 내용은 *The Joy of Reading Handbook*, 2015, 11~13쪽의 내용을 재정리했다.

- 문자, 이미지, 영상, 소리, 드라마 등 다양한 읽기 방식으로 문해력과 글에 대한 자기 해석력을 높인다.
- 전통적인 종이책 뿐 아니라 온라인,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읽고 제작하면서 테크놀로지를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도서관 시설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면서 학교의 경계를 넘고, 과목의 경계를 넘은 풍부한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참여하는 교사는 다음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독서 동기를 높일 수 있다.

- 교사가 독서를 강조하고 가치있게 여길 때, 아이들의 독서 동기가 높아지고 자신이 읽는 것들을 보여주려 한다. 또한 책과 문학에 대한 토론이 늘어난다.
- 독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일 때, 또한 독서에 대한 학생의 태도가 긍정적일 때, 읽기의 즐거움은 늘어난다.
- 교사와 사서는 학생들의 책과 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학생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충분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읽기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도서관은 학급 전체의 방문으로 다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 어린이, 청소년의 도서관 방문 횟수가 증가했다.
- 어린이, 청소년 도서의 대여율이 높아졌다. 특히 논픽션 분야의 대여율이 증가했다.
- 읽기 증명서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 비독자 어린이의 독서를 증진했고, 가족의 독서 참여를 높였다.
- 도서관이 다양한 학습 환경으로 활용된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학교 수업을 받거나 쉬는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공부를 하거나, 소규모 모임을 갖거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도서관을 학습하는 장소로 더 활용하게 된다.

‘독서의 즐거움’ 프로젝트에서 도서관과 학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했다.

도서관에서 학교로

- 사서가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책과 도서관을 소개하여, 아이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친숙한 사서를 만날 수 있게 한다.
- 이동도서관 버스가 규칙적으로 학교를 방문한다.
- 교사가 가르치는 특정 주제나 장르에 대한 책을 요청하면, 사서가 책을 선별하여 주제별 박스나 가방으로 배달한다.

- 교사가 독서동아리를 위한 복권의 책을 요청하면, 사서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여 책을 대여해준다.
- 교사는 기관회원으로 등록되어 한 번에 많은 책을 오랫동안 대여한다.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 교사는 반 전체를 규칙적으로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서 수업을 한다.
- 반 전체가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한다.
- 사서가 정보검색법을 매체별 (책, 논문, 지도, 음반, 악보, 그림, 사진, 영상 찾기 등)로 가르쳐준다.
- 반 전체에게 책 읽어주기, 독서모임 운영방법을 가르쳐준다.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법, 복사기, 스캐너 사용법 등을 가르쳐준다.
-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책 만들기, 영상과 사진 만들기 QR코드 만들기를 가르쳐준다.
- 참여 학생들이 도서관의 책 정리하기, 어린이에게 책 읽어주기, 친구에게 책 추천하기를 하여, 도서관 업무의 일부분을 도와준다.
- 도서관에서 학교의 학부모나 조부모와의 가족독서모임이나 파티를 연다.
- 도서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작품 전시나 공연을 연다.

(1) 게임을 바탕으로 한 ‘읽기의 즐거움’ 프로젝트

Myllyoja 학교와 Myllyoja 도서관이 협업하여 1년동안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 문학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다.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해본다. 학생들은 게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1~4학년) 게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쓴다(5~6학년).
- 학생들은 인터뷰 양식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인터뷰하고, 인터뷰 내용을 게임의 사진과 함께 전시한다.
-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전자 게임을 바탕으로 만화를 만들고, 그 만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디지털 스토리,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만든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하기 좋은 게임을 추천해준다.
- 학생들은 독서 동아리에서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그 책과 관련된 보드게임을 한다.
- 책을 읽고 난 후, 학생들은 미니어처 만들거나, 그것들을 도서관에 전시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본다.

(2) 미디어를 활용한 포올라라(Puolala) 학교와 투르크(Turku) 시립도서관의 프로젝트

활동	시기	학년	설명
미디어 토크	2월~4월	8학년	학생들은 흥미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발표 중 일부를 녹화한다.
비디오 북토크	2월, 6주	7학년	학생들의 북토크를 녹화한다.
디지털 스토리만들기	4월~5월	9학년 7학년	학생들은 정지화면, 대사, 음악 또는 음향 효과를 이용하여 약 2분정도 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야한다. 학생들은 영어로 설명을 단다.
프로젝트 블로그	3월, 블로그 공개	1~9학년	학생들에 의한 프로젝트 결과물과 일부의 작품을 블로그에 올린다.
아이들과 부모들의 미디어 독서동아리	가을 학기 1달에 1회	4~6학년 (1~9학년)	아이들과 부모들은 미디어와 전자자료(게임과 전자책)를 비판적으로 읽고 배워본다.
과정중심의 글쓰기 활동으로 영화 서평을 비디오로 만들기	10월~11월	2학년	학생들은 영화에 대한 평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린 다음, 이 자료를 조별로 영상으로 편집한다.
북토크 비디오워크숍	12월, 49~50주	3학년, 교사와 사서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읽은 책의 북토크 영상을 태블릿과 iMovie 어플을 통해 제작한다.
태블릿을 이용하여 책의 내용을 만화로 창작	12월, 49~50주	5학년과 7학년	학생들은 태블릿을 이용하여, 읽은 책을 만화로 창작한다.
학생 리포터	12월	4학년	학생들은 태블릿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시상식 행사를 녹화하고, 1위 수상자를 인터뷰하며 우수한 책에 대한 찬평을 한다.
서평과 영상을 Vinski 잡지에 투고	1월	5학년	학생들은 어린이들의 문학잡지인 Vinski에 서평을 작성한다. 또한 학생들은 잡지에 실린 책에 대한 영상을 찍고, QR 코드를 도서관 책에 붙인다.
버추얼 저자 방문	봄	1~9학년	학생들은 Skype를 통해 저자들을 인터뷰한다.

표 35 포올라라 학교와 투르크 시립도서관의 ‘독서의 즐거움’ 활동

〈출처〉 The Joy of Reading Handbook, 2015, p.45

4절

프랑스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1. 독서환경과 독서실태

프랑스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가입 국가로 세계 경제 선진국인 G7에 속한다. 인구는 약 6천 3백9십만 명(IMF 2014년)이며, 기대수명은 82.3세(2013년, 월드뱅크)이다. 2015년,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 4,695억 달러(2015 IMF)로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의 78.89%를 차지하는 3차 산업 중심이다. 농업은 1.68%, 2차 산업인 제조업 및 공업은 19.44%를 (2014년, 월드뱅크)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1인당 GDP는 42,736미국달러(2014년, OECD)이다. 실업율은 10.31% (2014, IMF)로 2011년 9.14%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프랑스의 문화 창조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나 화학 산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도서의 매출액은 약 39억 유로(2013~2014년 기준)로 문화상품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다.⁵⁴⁾ 프랑스어 도서는 영어도서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다.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조사된 프랑스인 독자의 특성을 통계 수치로 살펴보면, 프랑스인의 독서율은, 74.7%로 21개국의 평균인 76.5%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독서율인 74.4%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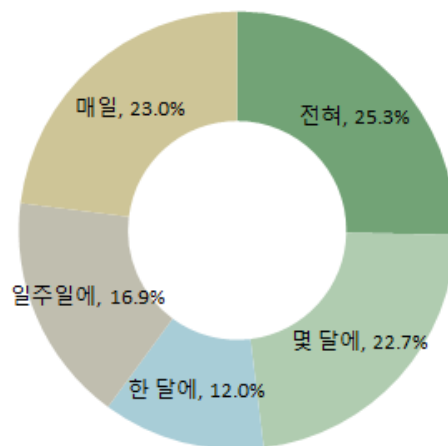


그림 71 프랑스인의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주〉 프랑스의 16~65세 6993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54) 한국출판문화진흥원, 「프랑스 출판정책 연구」, 2014, 14쪽.

책 읽기의 빈도는 전혀 읽지 않는다가 25.3%, 몇 달에 한 번이 22.7%, 한 달에 한 두 번이 12%, 일주일에 몇 번이 16.9%, 매일이 23%이다. 독서율 평균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은 프랑스가 훨씬 높다. 우리나라가 약 25%인데 비해 약 40% 가까이 된다.

성별 독서율을 비교해보면,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에 비해 독서율이 월등히 높다. 여성의 81.7%가 독자인데 비해, 남성은 67.4%가 독자로, 14.3%p 차이가 난다. 독서의 빈도를 살펴봐도 여성 독자가 더 자주 읽는다.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의 수가 여성은 49.3%인데 비해, 남성은 30.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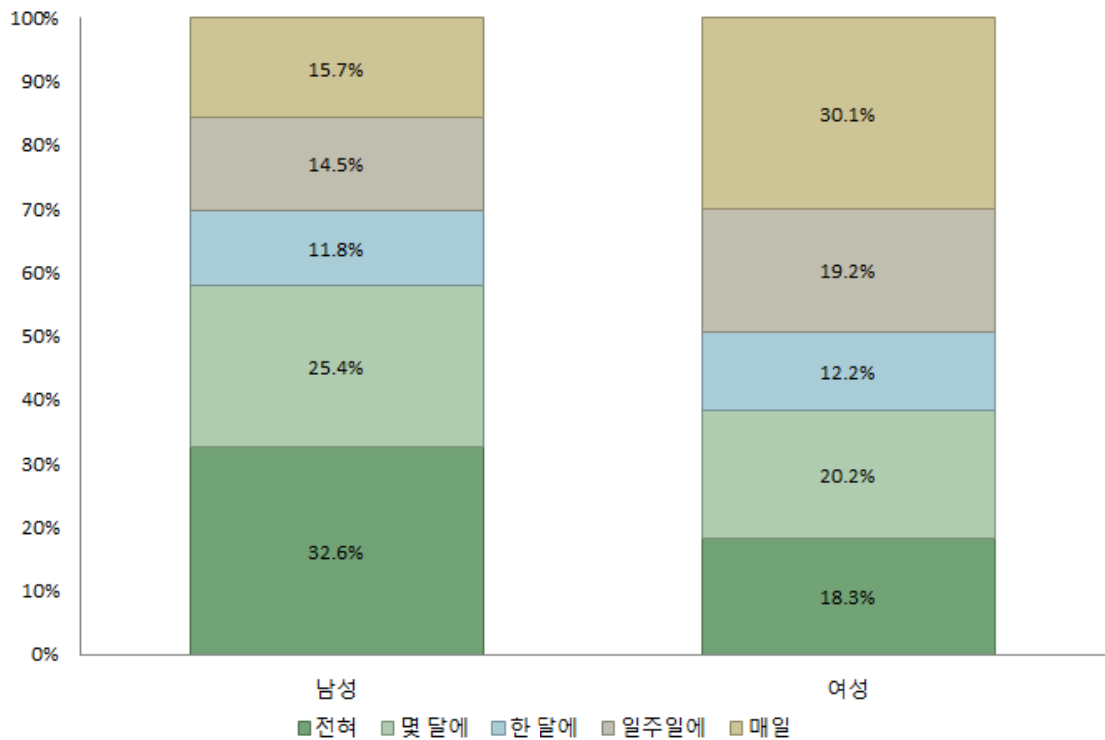


그림 72 프랑스인의 성별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주> 프랑스의 16~65세 6993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프랑스인의 독서의 동기를 살펴보면, 성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주된 읽기의 동기로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읽기의 즐거움(22%)이나 휴식의 방법(20%), 일상으로부터의 탈출(19%) 등이다. 지식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14%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남성은 더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읽기의 즐거움(19%), 휴식의 방법(13%), 일상으로부터의 탈출(9%) 순으로 답했다.⁵⁵⁾

연령별로 살펴보면, 프랑스인은 연령 간의 독서율 차이가 거의 없다. 독서율은 34~44세에 76.3%로 가장 높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의 독서율도 75%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16~24세 75.7%, 25~34세 75.3%, 34~44세 76.3%, 45~54세 73.9%, 55~65세 72.9%로 편차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 독서율 평균인 74.7%에 비해 1.6%p 높거나 1.8%p 낮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독서율과 비교하면, 매우 큰 대조를 이룬다. 한국인의 경우 평균 독서율인 74.4%에 비해 16~24세는 13%p가 높고, 55~65세는 23.4%p 낮다.

연령별 독서빈도를 살펴보면,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40% 정도 된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적 독자의 비율은 1~2%p 정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적 독자 비율이 급격히 적어지는 우리나라의 추세와 매우 상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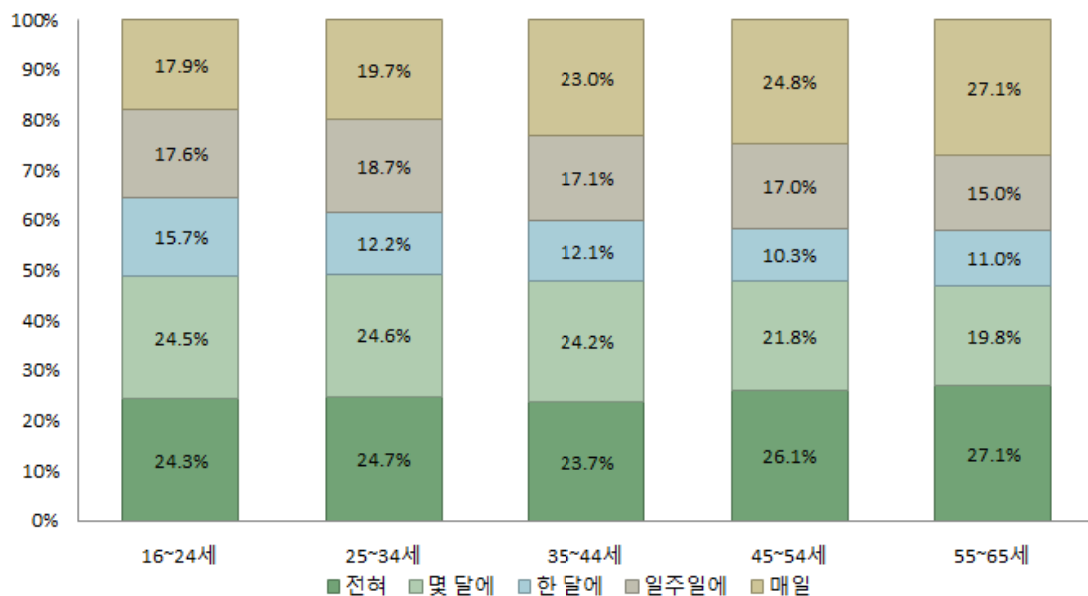


그림 73 프랑스인의 연령별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주〉 프랑스의 16~65세 6993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독서율과 독서빈도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지만, 독서의 목적은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갖는다. 다양한 읽기의 목적 가운데, 읽기는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읽는다거나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읽는다는 응답률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과 발견이나 직업에서의 성공, 사회적인 인정은 연령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읽기 자체의 내적 즐거움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55) Ipsos, *Les Français et la lecture*, 2015, 15세 이상 독자 938명 컴퓨터기반 전화 인터뷰(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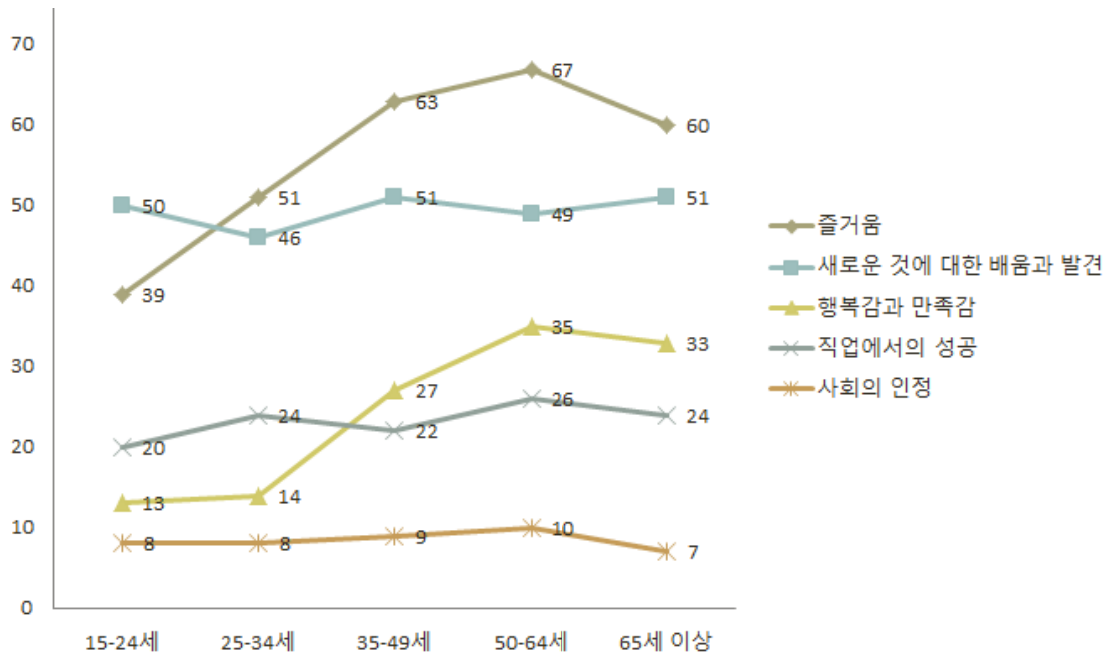


그림 74 독서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한 프랑스인의 연령별 독서 목적

<출처> Ipsos, *Les Français et la lecture*, 2015

<주> 15세 1012명 컴퓨터기반 전화 인터뷰(CATI), 중복응답 가능, 단위는 퍼센트

프랑스인의 성별·연령별 독서율을 교차 분석 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성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는 16~24세에 10%p로 가장 적고, 35~44세에 17%p로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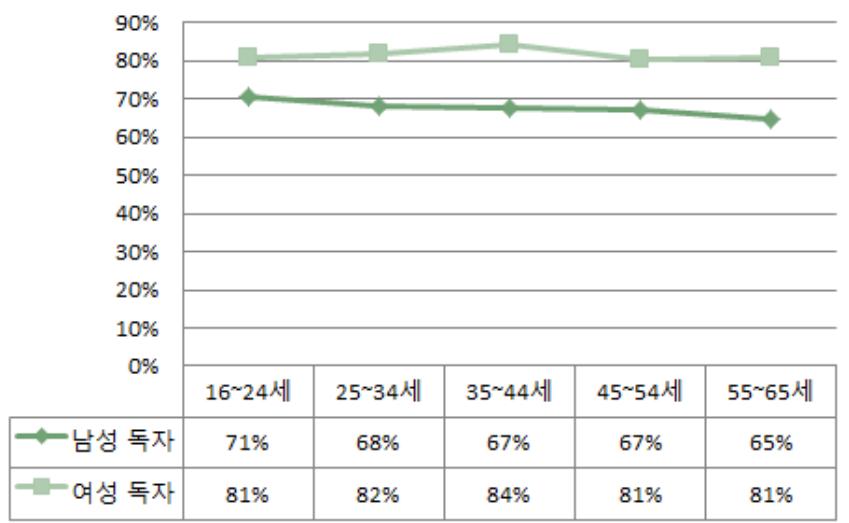


그림 75 프랑스인의 연령별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주> 프랑스의 16~65세 6993명 대상 인터뷰 조사

프랑스 독자들은 책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읽는다. 책을 샀다는 응답이 81%로 가장 높았다. 빌렸거나 받았다(72%), 중고책을 샀다(26%)이다. 도서관에서 빌렸다는 응답은 29%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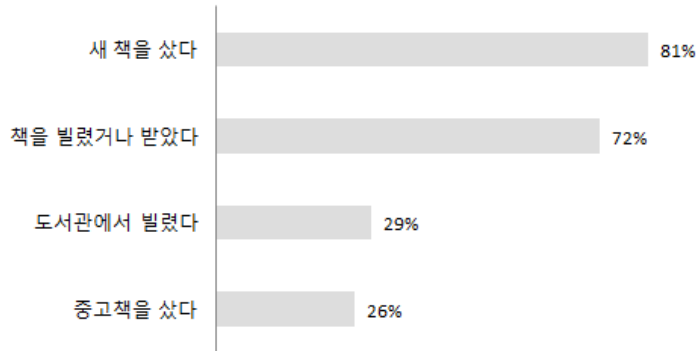


그림 76 프랑스 독자가 지난 1년간 읽은 책의 취득 경로

〈출처〉 Ipsos, *Les Français et la lecture*, 2015

〈주〉 15세 이상 독자 938명, 컴퓨터기반 전화 인터뷰(CATI)

프랑스인의 도서구입 경로를 살펴보면, 서점을 통한 구입이 75%로 가장 높다. 문화상품을 파는 슈퍼마켓(73%)이나 대형 슈퍼마켓(44%)에서의 구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온라인 사이트로 책을 구입하는 비중은 종이책이 38%, 전자책이 10%로 높지 않다. 도서 정가제와 반 아마존법 등으로 온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 정부의 서점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책을 만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서점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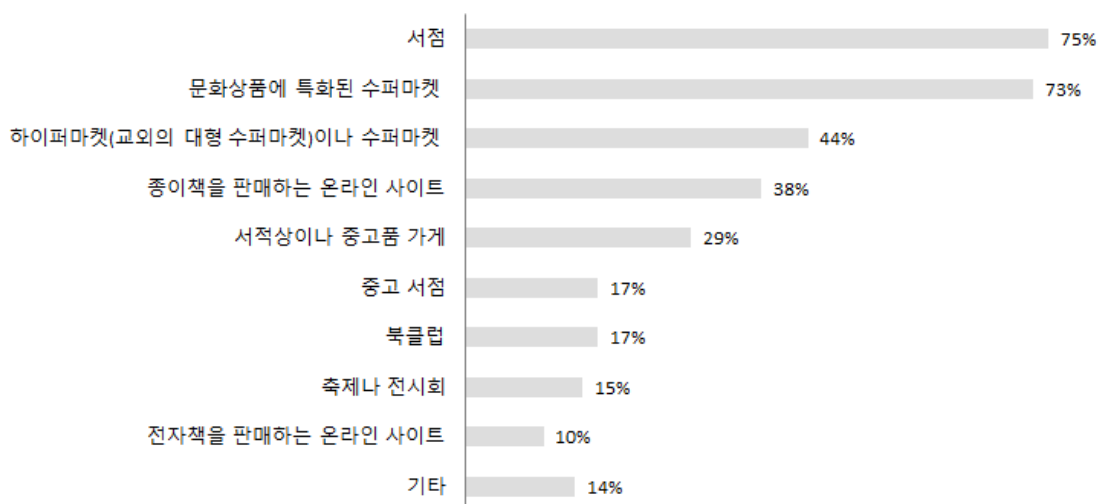


그림 77 프랑스 도서 구입자의 도서 구입 경로

〈출처〉 Ipsos, *Les Français et la lecture*, 2015

〈주〉 15세 이상 도서 구입자 942명, 컴퓨터기반 전화 인터뷰(CATI), 중복응답가능

프랑스 독자 중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29%의 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34세 청년들의 대출 비율이 16%로 가장 낮다. 15~24세 청소년기와 청년초기와 35세 이상의 청·장년층, 노년층의 대출 비율은 30% 전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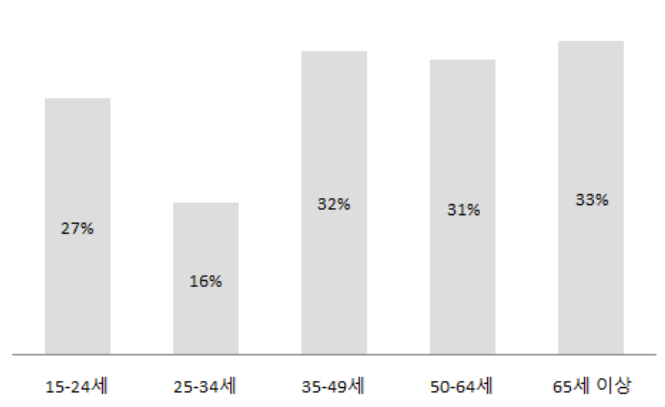


그림 78 프랑스 독자의 도서관 도서 대출 비율

〈출처〉 Ipsos, *Les Français et la lecture*, 2015

〈주〉 15세 이상 독자 938명, 컴퓨터기반 전화 인터뷰(CATI)

프랑스 독자들은 도서관보다 서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읽을 책을 소유하길 원한다는 응답이 73%로 가장 많다. 원하는 책을 항상 구할 수 있지는 않다가 33%, 대출기간이나 반납에 대한 심적 불편함이 그 뒤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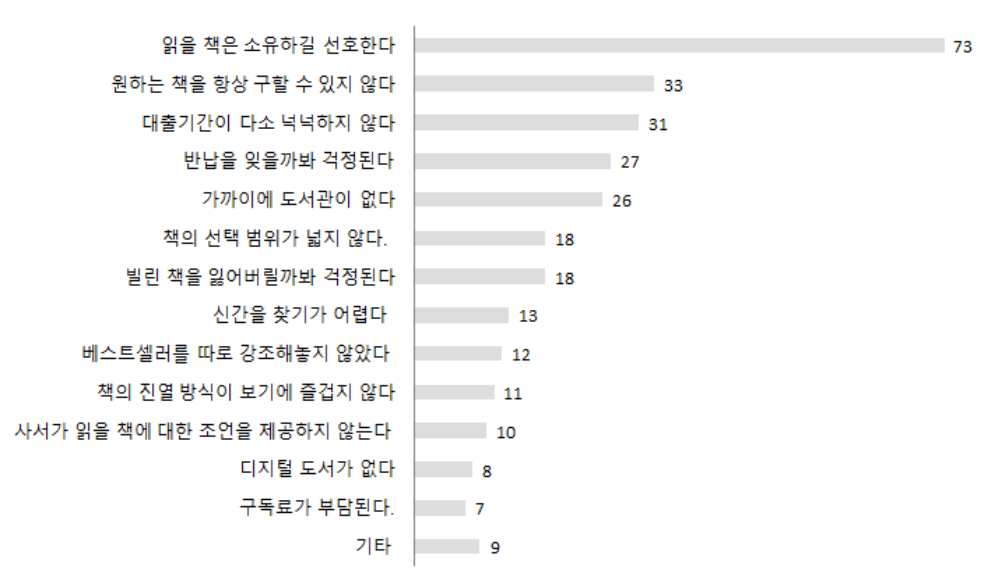


그림 79 프랑스 독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지 않는 이유

〈출처〉 Ipsos, *Les Français et la lecture*, 2015

〈주〉 도서관에서 책을 전혀 혹은 거의 빌리지 않은 15세 이상 독자 655명, 컴퓨터기반 전화 인터뷰(CATI), 중 복응답 가능

책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프랑스인에게 책의 어떤 요소를 주로 살펴 책을 사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프랑스인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책의 구입하는 경향이 높기에 책의 주제나, 책표지의 설명, 저자에 대한 지식, 책 제목, 사서나 서점 직원의 추천 등이 높은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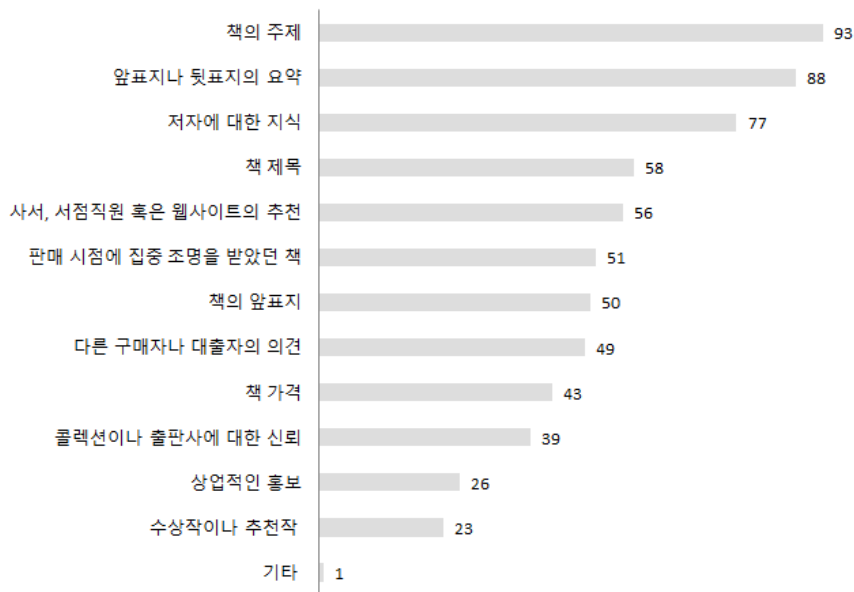


그림 80 프랑스인의 책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

〈출처〉 Ipsos, *Les Français et la lecture*, 2015

〈주〉 책을 구입하려는 15세이상 727명, 컴퓨터기반 전화 인터뷰(CATI), 단위는 퍼센트, 중복응답 가능

프랑스인은 어떤 책들을 주로 읽을까? 소설과 비소설로 나누면, 장르 소설을 포함한 소설을 많이 읽는다. 그러나 분야별로 더 나누어보면, 생활과 관련된 DIY, 라이프스타일, 레저활동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다. 프랑스인의 책을 읽는 목적 가운데, 읽기의 즐거움과 삶의 행복과 만족, 휴식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이한 점은 역사서가 46%, 시사 및 르포르물 33%, 정치, 철학 및 종교 에세이 31%, 프랑스 혹은 외국 고전문학 31%, 시집 19% 등 인문학 및 사회과학 서적의 판매율이 높은 점이다. 문학 및 사회과학 서적의 판매는 주로 서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점은 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는다고 한다. 서점은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 비해 다양한 책을 구비하고, 고객을 지원하는 서점 직원의 전문성이 높으며, 이 분야 독자와의 접점을 높이는 문화행사 등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⁶⁾ 또한 문화예술의 국가답게 예술서인 화집 및 사진집도 42%

를 차지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벨기에 만화 45%, 일본과 미국 만화 19% 등 만화의 인기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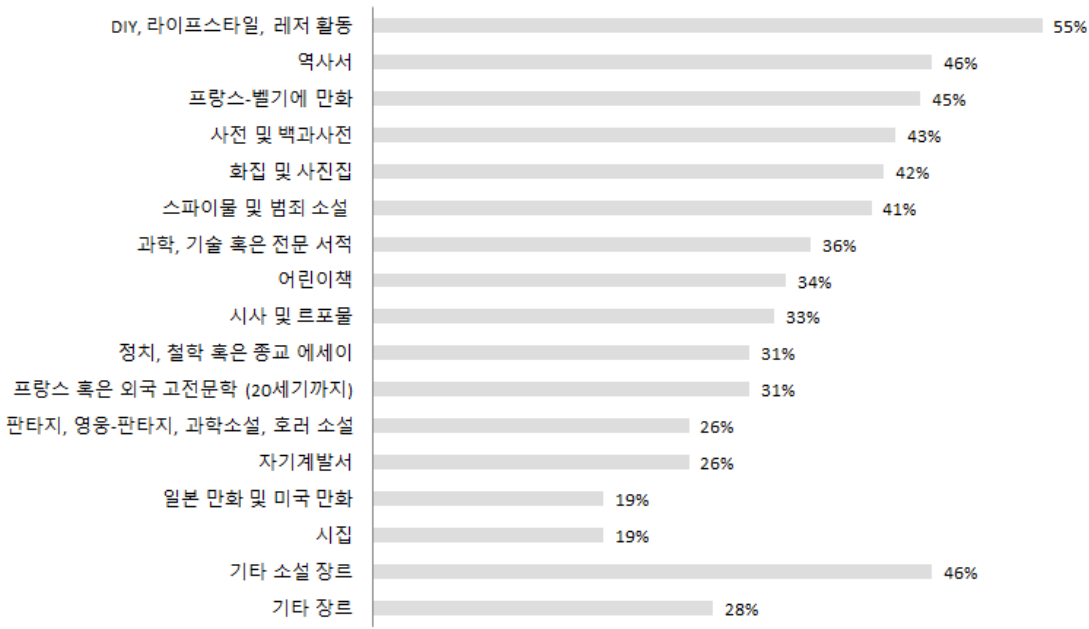


그림 81 프랑스인이 1년간 읽은 종이책 및 전자책의 장르

〈출처〉 Ipsos, *Les Français et la lecture*, 2015

〈주〉 15세 1012명 컴퓨터기반 전화 인터뷰(CATI), 중복응답 가능

56) 한국출판문화진흥원, 「프랑스 출판정책 연구」, 2014, 40쪽.

2. 독서진흥 주체의 조직과 활동

프랑스의 독서진흥정책은 중앙정부의 ‘도서·독서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독서 생태계를 총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와 도서관과 같은 전통적인 공적 영역에서도 독서진흥활동을 전개하지만, 저자와 출판사, 서점 등도 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책 ‘읽기’만을 단독으로 진흥하기보다, 책의 생태계를 넓게 보고, 책 ‘쓰기’(저자), ‘편집하고 만들기’(출판사), ‘독자 만나기’(서점과 도서관), 나아가 ‘해외로 수출하기’(번역 및 수출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 중심의 독서 및 토론 수업
- 도서정가제와 반 아마존법을 통한 서점 육성
- 책 읽기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
- 영상, 음악, 전시, 강의실 기능이 강화된 도서관, 미디어테크를 통한 미디어 문해력 증진
- 독립서점 활성화를 위한 우수독립서점 인증라벨제도 및 다양한 지원정책(대출, 보조금지원, 공동 카탈로그 제작지원)

(1) 문화부의 미디어문화산업실 산하 ‘도서·독서국’(Service du livre et de la lecture, SLL)을 통한 정책

중앙정부내에 도서와 독서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처가 있다는 점은 프랑스의 독서진흥정책이 다른 나라와 가장 다른 점이라도 볼 수 있다. 1975년 문화부에 도서와 독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음 생겼다. 이전에는 도서관은 교육부가, 도서수출은 외무부가, 출판산업은 산업부가 주로 맡고 있었는데, 이를 통합하여 업무를 효율화한 것이다.

도서·독서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주로 한다.

- 도서의 생산유통 라인에서 서점과 출판사, 공공독서, 디지털과 도서유산 정책에 대한 규정 제정과 평가
-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공공정보도서관 (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 BPI), 국립도서센터 (Centre national du livre, CNL) 지원 및 감독
- 문화커뮤니케이션부에 배치된 도서관 직원 감독 및 경력 관리
- 정부의 도서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역문화사업국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과 산하의 도서·독서국을 위한 자문관들의 지원을 받음

- 도서와 독서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의 주된 초점
 - 다변화된 출판과 우수한 서점을 지원
 - 독서 증진 장려
 - 공공도서관의 도서유산 홍보
 - 문화콘텐츠의 디지털 형태로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가고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인터넷상에 가용하도록 동반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정책 수립⁵⁷⁾

2000년에는 중앙정부의 독립기구로 국립문맹퇴치원 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 이하 ANLCI)을 만들었다. 다양한 문맹의 원인과 상황을 조사하고 공적 영역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이다. 문맹 퇴치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조직하고 재훈련하며, 문맹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한다.⁵⁸⁾

(2) 도서관을 통한 독서진흥

20세기초 프랑스에서 도서관은 공공서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작가이자 사서인 유진 모렐(Eugène Morel) 등이 영미권의 공공도서관 개념을 도입하면서 현재의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졌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었다가, 사회당 출신인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으로 책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을 많이 만들기 시작한다. 1991년 도서관 현장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정부 도서관 정책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 이 지침은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모든 시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책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프랑스 본토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 광역자치단체인 데파르트망(département), 권역자치단체인 레지옹(région)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립(코뮌) 도서관(Bibliothèque municipales)으로 우리의 공공도서관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지만, 도서관의 신축이나 보수, 확장, 기자재 구비,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서·독서국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

데파르트망 대출도서관(bibliothèque départementale de prêt)은 프랑스에 독특한 도서관

57) 한국출판문화진흥원, 「프랑스 출판정책 연구」, 2014, 77쪽.

58)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al Executive Agency, *Teaching Reading in Europe: Contexts, Policies and Practices*, 2011, p.123

서비스로, 직접 공공에게 열려있지 않지만 인구 1만명 이하의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도서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서 전문직이 부족한 작은 도서관 직원들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퐁피두센터에 위치한 공공정보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책과 시민을 연결하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프랑스의 도서관에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도서관은 미디어테크(médiathèque)의 등장이다. 미디어테크는 인쇄물을 조용히 읽는 활동이 중심이 된 전통적인 도서관에 더하여 이미지, 음악, 소리, 영상, 디지털, 고문서 등의 다양한 매체 자료를 서비스한다. 또한 전통적인 도서관의 검색, 열람, 독서활동에 더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만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서가가 중심이 된 전통적인 도서관에 비해 카페와 모임방, 전시장, 오디오리움, 아틀리에 등과 같은 공간이 더해진다. 도서관이 복합적인 문화 시설로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어린이 대상의 책 읽어주기, 독서 모임, 저자와의 만남, 주제별 책 전시, 문학 투어, 글쓰기 워크숍, 외국인 및 이민자를 위한 프랑스어 및 시민교육, 컴퓨터 활용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독서 프로그램

프랑스는 중앙정부인 교육부(Education nationale)에서 5~6년마다 교육과정을 설정한다. 해당 교과목의 전문가들이 국립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필수 교육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지침을 만든다. 프랑스의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어느 출판사가 이 지침에 따르면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약 23개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교사는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을 가진다. 초등의 경우 교사가 채택하고 싶은 교과서의 명부를 만들어 도 선정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 등재되면 그 목록 하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수업 교재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사는 교과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책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책을 읽고 토론하기는 프랑스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수업 방식이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철학을 가르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 계열과 상관없이 자연계열까지도 철학을 공부하도록 되어있다. 성인이 되기 직전의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사회가 처한 문제 상황을 직시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바칼로레아라는 논술형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바깥로레아의 철학 문제는 매년 프랑스 사회에서 화제가 되며, 시험을 치루지 않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생각할 거리, 토론할 거리를 던져준다.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강조되는 학교의 읽기는 위에서 밝힌 프랑스인들이 읽는 책의 장르에도 드러난다. 역사서, 예술서, 사회과학서, 고전문학 독자가 꾸준히 만들어지는 토양은 학교의 수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교의 수업이 독서와 토론, 논술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은 읽기 부진이나 독서환경이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에 국한되어 있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이다.

- ‘교육적 성공을 위한 개별화 프로그램’ (Personnalisé de réussite éducative, PPRE)
:학년말까지 필수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학습부진 프로그램. 아이의 개인 수준에 맞춰 프랑스어, 수학 등을 가르쳐준다.

- 작은 도움 (Coups de pouce)
: 가정의 독서환경이 미약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위한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에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읽기와 쓰기 등을 배운다. 학교의 수업과 달리, 읽고 쓰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아이들과 클럽을 이루어 재미있는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 공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부모에게 가정의 읽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좌도 진행한다.

- 마을을 위한 학생재단연합 Association de la fondation étudiante pour la ville (AFEV)의 활동
: AFEV는 1992년부터 시작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단체로, 주로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의 학습이나 생활을 돕는다. 1주일에 2시간씩 대학생과 아이가 1대1로 활동을 하는데, 현재 45개의 프랑스 대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 가운데, 책 읽거나 도서관 이용하기 등 지역사회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준다.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1) 첫 페이지 (Premieres Pages)

- 대상: 아기 (0-3세)와 가족
- 목적: 책과 문자 문화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도서 관련 기관들과 유아 관련 기관의 협업을 장려한다
- 추진기관: 문화커뮤니케이션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도서관 및 유아교육 기관이 정부에 신청하여 활동한다
- 내용:
 - 아기를 위한 책과 부모용 가이드, 책 읽어주기 팁을 무료로 제공한다
 - 도서관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책 읽어주기 워크숍 (부모 대상, 아기 대상)을 연다
 - 책 관련 종사자와 유아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교육을 제공한다
- 웹 사이트: <http://www.premierespages.fr/>

(2) 어린이 독서챔피언 (Les petits champions de la lecture)

- 대상: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 목적: 어린이들에게 책과 독서를 증진하고, 읽기가 게임만큼 재미있다는 경험 제공한다
- 추진기관: 출판협회(Syndicat national de l'édition)가 2012년부터 주관하고, 교육부, 도서관, 출판사, 라디오 프랑스, 프랑스 텔레비지옹 등의 매체가 협력한다. 출판사 및 저자, 서적상, 사서, 독서진흥 협회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내용:
 - 초등학교 5학년(CM2)의 반 학생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들이 고른 동화책의 일부를 3분 동안 읽는다
 - 경합은 모두 4단계로, 1단계는 같은 그룹의 학생들이 최고의 챔피언을 뽑는다. 2단계는 8강인 지역예선이고, 여기서 이기면 인터넷 영상으로 도(region) 예선인 4강에 진출한다. 최종 10명의 학생은 마지막으로 코미디 프랑스 (Comédie-Française) 극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결승전에는 교육부 장관도 참여한다
 - 우승자는 자신들 뿐 아니라 학급을 위한 도서를 선물 받는다
- 웹 사이트: <http://lespetitschampionsdelalecture.fr/>

(3) 읽기와 읽히기 (Lire et faire lire)

- 대상: 5~8세 어린이와 은퇴자
- 목적: 어린이의 읽기 능력의 발달을 돕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며, 은퇴자의 사회적 참여와 세대 간의 교감을 증진한다
- 추진기관: 시민단체인 읽기와 읽히기
- 내용:
 - 프랑스 전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5~8세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와 읽히기에 소속된 은퇴자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읽어준다
 - 자원봉사자들은 책 선정하기나 읽어주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 방과 후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2~5명씩의 소규모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2013~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수혜 학생 수가 늘고 있으며, 2013~2014학년도에는 총 15917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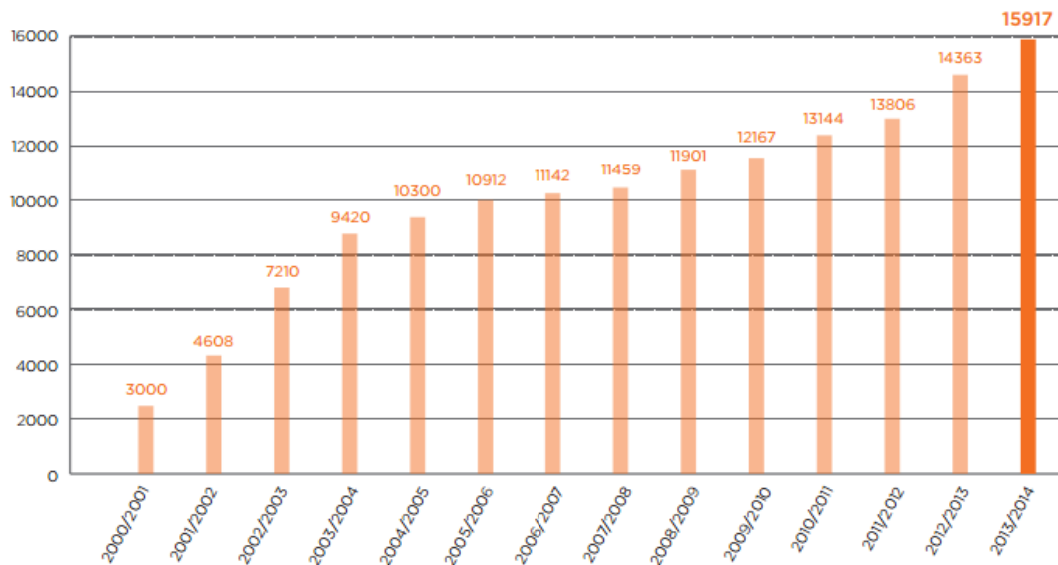


그림 82 프랑스의 읽기와 읽히기 프로그램 수혜 학생 수

〈출처〉 Lire et faire lire, *Rapport d'activite 2014*, p.14

- 웹 사이트: <http://www.lireetfairelire.org/>

(4) 문학 친구 (L'Ami littéraire)

- 대상: 초·중·고등학생
- 목적: 프랑스 현대 소설을 확산하고 학생들에게 문학적, 예술적 교감의 기회, 문학적 글 쓰기 워크숍을 제공한다. 또한 신진 작가를 포함한 문학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 추진기관: 문화커뮤니케이션부와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교육기관 (초·중등학교, 직업 학교) 및 문화기관(도서관, 극장, 모임 등)에서 실행한다, 정부 지원 단체인 문학의 집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실행 단체에서 50%로 공동 기금을 마련한다
- 내용:
 - 1992년 문학의 집에서 시작되어 2011년부터는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 작가가 교실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2시간 동안 학생들과 작가와의 만남 진행하는데, 주로 작가가 자신의 책을 읽어주거나 문학과 관련된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문학의 주제,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 문학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이 이루어진다
 - 작가는 글쓰기 워크숍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준다
 - 작가와의 만남 전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작가의 작품을 읽고 토론한다
 - 작가와의 만남 전후의 활동에 대해서 문학의집 웹 사이트에 자료가 제공된다
 - 작가에게 € 175의 강연비가 지급(여비, 호텔비 제외) 된다.
 - 2014~2015년, 253명의 작가들이 699회의 만남에 참여했다. 이중 68명은 신진 작가이다. 465개의 학교에서 691개의 학급 참여했고, 총 19,348명의 학생이 14,000권의 책을 구입했다
- 웹 사이트: <http://www.m-e-l.fr/fiche-education-artistique.php?id=1>

(5) 독서 축제, 당신이 읽을 차례 (À vous de lire)

- 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
- 목적: 시민들이 함께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도서관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알리고 이들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창의적인 읽기 문화를 만든다
- 추진기관: 문화커뮤니케이션부내 국립독서센터(CNL)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도서관 관련 기업들이 후원한다
- 내용:
 - 전통적인 독서공간에서 벗어나, 길, 광장, 시장, 상가, 카페, 공원, 대중교통, 병원, 교

도소 등에서 독서 및 독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 도서관 관련 전문가인 작가, 서점, 협회, 대중교육연합, 공공독서 및 교육 네트워크, 문화 공간 책임자까지 모두 참여한다
 - 전통적인 독서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읽기가 시도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책을 여러 독자들이 돌려보기, 텍스트로 구성된 공간, 내 인생을 바꾼 책에서 발췌한 텍스트, 기호 언어 독서, 공연, 문학 무도회, 문학 피크닉 등이 이루어진다⁵⁹⁾
- 웹 사이트: <http://www.avousdelire.fr/>

(6) 10단어를 말해요 (Dis-moi dix mots)

- 대상: 학생과 시민
- 목적: 벨기에, 퀘벡, 스위스, 세네갈 등 세계 각국에서 쓰이는 프랑스어 어휘를 배우고, 창의적인 글쓰기 촉진하며, 프랑스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인다
- 추진기관: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주관하고, 학교와 도서관, 서점을 비롯한 다양한 도서관 관련 기관에서 활동한다
- 내용:
 - 매년 10단어의 프랑스어를 선정하여, 이를 이용하여 문학적 글쓰기나 노래가사 등을 만들어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 9월부터 6월까지 공개적으로 글과 디자인을 모집한다. 그동안 10단어 글쓰기를 위해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서 작가와의 워크숍 등이 이루어진다.
 - 2015년에 공개된 10단어는 *amalgame*, *bravo*, *cibler*, *grigri*, *inuit*, *kermesse*, *kitsch*, *sérendipité*, *wiki*, *zénitude*로, 프랑스 본토 뿐 아니라 프랑스어를 쓰는 다른 국가에서 온 단어들도 포함된다
 - 웹 사이트에는 각각의 단어의 유래와 뜻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웹 사이트: <http://www.dismoidixmots.culture.fr/>

59) 박지선, 황금숙, “프랑스의 독서문화 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연구』, 57, 2011, 297쪽.

4. 사례 연구: 지역 독서 정보를 한 눈에

프랑스는 지역마다 독서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 이 중 랑그독-루시옹 지역의 도서·독서 센터 (Languedoc-Roussillon Livre et Lecture) 웹 사이트를 살펴보자.⁶⁰⁾ 이 사이트는 지역에 존재하는 책과 관련된 모든 가치사슬에 있는 저자, 서점, 출판사, 도서관, 미디어테크, 고문서, 문학 및 문화관련 이벤트 정보를 모두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에서 책과 독서에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싶다면 출판사로 연락하고, 도서관의 행사를 알고 싶다면 도서관 웹 사이트에 접속하고, 축제를 위해 지역의 작가를 알고 싶다면 작가 협회의 주소록을 뒤져야 한다. 지역의 서점에 가고 싶으면 구글 지도에서 찾아야 하고, 독서관련 전문가 워크숍이 있으면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이 모든 지역 내 독서관련 정보를 한군데에서 찾을 수 있고, 업데이트된 정보에 대해 뉴스레터를 받을 수 있으면, 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 찾기가 매우 손쉬워진다. 같은 지역에 있는 저자와 서점, 출판사와 학교, 도서관이 협력하기도 쉽다. 프랑스의 각 도는 이를 구현한 사이트를 구축해놓았다.



그림 83 랑그독-루시옹 도서·독서센터의 홈페이지

〈출처〉 <http://www.lr2l.fr/>

60) 랑그독-루시옹 도서·독서센터 (Languedoc-Roussillon Livre et Lecture)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안내한다. 웹 사이트는 <http://www.lr2l.fr/>

랑그독-루시옹 지역의 도서·독서센터 웹 사이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 작가

- 작가 연락처
 - 512명의 지역 저자에 대한 정보 수록, 글 작가, 그림 작가, 시나리오 작가, 번역가 별로 검색 가능하고, 소설, 시, 코믹, 실용서, 어린이, 청소년 등 장르별로 검색 가능
 - 글쓰기 워크숍, 그림 워크숍, 강연 등 활동별로 검색 가능
 - 작가 정보는 사진,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 장르와 가능한 활동, 생애, 작품 안내
- 작가의 현재 활동: 작가나 예비 작가를 위한 다양한 실용적, 법적 정보, 단체 등 안내
- 작가의 집: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 내, 프랑스 내, 해외 작가의 집 안내, 작가의 집 지원제도와 응모방법 안내
- 작가와 혁신: 디지털 글쓰기와 디지털 출판 정보, 디지털 글쓰기 활동과 워크숍 안내
- 작가 관련 뉴스: 문학상, 부고, 페스티벌 등 작가와 관련된 국내외 뉴스 안내
- 법령과 작가의 권리: 저작권, 사회보장제도, 세금 등 관련 법령과 작가 지원제도와 응모방법에 대한 안내
- 재교육: 작가와 예술가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안내
- 지역 언어: 지역에서 일부 사용되는 언어인 Catalanes과 Occitanes으로 쓰여진 문학 정보



그림 84 프랑스 랑그독-루시옹 도서·독서센터 웹 사이트의 작가 정보 사례

〈출처〉 <http://www.lr2l.fr/>

(2) 출판사

- 지역 출판사 연락처
 - 206개의 지역 출판사, 출판저널, 디지털 출판사의 정보 수록, 장르별로 검색 가능, 출판사 정보는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장르, 연혁, 출판 권수, 위치 수록
- 출판사의 현재 활동: 지역 출판사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행사 수록
- 출판 산업: 출판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 안내와 재교육 지원금 신청 안내
- 출판 뉴스: 출판 관련 법제, 규정, 축제 등의 뉴스 안내
- 출판과 혁신: 디지털 출판과 디지털 카탈로그, 웹 사이트 등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한 출판인 교육 정보
- 해외수출: 지역 출판사 도서의 해외 수출이나 국제도서전에 참가를 지원하는 정보

(3) 서점

- 서점 연락처
 - 97개 지역 서점의 연락처 정보 수록, 서점 종류별(일반, 특화, 도서/문구판매점), 장르별(어린이, 만화, 예술 등) 검색가능
 - 서점 정보에는 사진,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 개점요일 및 시간, 장르, 연혁, 크기, 장서량, 구글맵 위치 정보가 수록
- 서점의 현재 활동: 서점 네트워크의 활동, 법적 지원, 서점에 관련된 연구, 서점인 재교육 등의 정보
- 서점인 재교육: 서점 종사자의 재교육 정보와 재교육을 위한 지원금 응모 방법 안내, 예비 서점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
- 서점 뉴스: 서점 관련 정부 정책, 법안, 행사, 세금 관련 뉴스
- 지역내 독립서점을 위한 정보: 서점 실태 연구, 모범독립서점(Le label Librairie Indépendante de Référence, LIR)⁶¹⁾ 지원 정보, 서점지원사업 정보 등
- 서점과 혁신: 디지털 출판과 디지털 카탈로그, 웹 사이트 등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한 서점인 교육 정보

(4) 도서관 및 미디어테크

- ♦ 도서관 연락처
 - 총 157개의 고문서보관소, 공공도서관, 독립대출도서관, 대학도서관, 시립도서관의 연락처 제공, 도서관 관종별, 지역별 검색 가능
 - 도서관 정보는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 웹 사이트), 관종, 개방요일 및 시간, 장서량, 서비스, ICT 시설, 행사와 활동, 구글맵 위치정보 제공
- 도서관 뉴스: 도서관계의 뉴스, 도서관 정책, 도서관의 전시, 강연, 문화 행사 등의 정보
- 도서관 현재 활동: 도서관 네트워크의 활동, 도서관 종사자와 기타 도서관관련 종사자간의 만남, 재교육, 이달의 활동 등 안내
- 지역 도서관 정보: 지역 도서관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관련된 통계 안내
- 이 달의 주제에 관련된 정보: 매달 선정된 주제에 관련된 자료와 지역의 관련 기관, 행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예, 11월 다큐멘터리 영화의 달)
-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의 구분, 사서가 되기 위한 학위과정 안내, 사서 선발 안내, 사서 재교육 정보
-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정보, 지역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프로젝트

61) 모범독립서점은 프랑스에 독특한 독립서점지원정책의 하나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온라인서점이나 대형 체인서점에 경쟁하는 독립서점 중 모범이 될 만한 서점에 부여되는 인증제이다. 모범독립서점에 선정되면 국립도서관으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서점 입구에 인증라벨을 붙여 표기할 수 있다.

(5) 독서 문화 행사

- 독서문화 행사 디렉터리: 워크숍, 강연, 문학기행지 등의 다양한 행사를 행사별, 지역별로 검색 가능
- 독서문화 뉴스: 독서문화 행사 뉴스
- 독서문화 관련 현재 활동 : 독서문화행사나 프로젝트 기획자 지침, 프로젝트 지원방식 안내
- 독서문화 행사: 1년의 독서문화행사 달력, 독서문화행사 기획자의 모임, 페스티벌, 워크숍 정보
- 프로젝트 리더의 툴박스: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기획자를 위한 다양한 툴 키트
- 작가의 집: 레지던스 작가의 독서문화행사 기획 정보



그림 85 2015년 프랑스 랑그독-루시옹 지역의 독서 행사 안내도

〈출처〉 <http://www.lr2l.fr/>

(6) 문자 문화유산

- 고문서와 관련된 뉴스
- 고문서 보존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 지역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⁶²⁾
- 오래된 지역 신문의 디지털화
- 고문서 관련 종사자의 워크숍과 재교육

도서와 독서에 대한 지역의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웹 사이트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 지역 작가의 작품 활동을 촉진
-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간 횡적 협력 도모
-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디지털화에 대한 적응과 응용이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짐
- 향토 서점의 활성화
- 지역 출판사의 활성화
-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
- 지역 작가의 작품과 지역 출판사의 서적 홍보
- 독서 관련 행사와 전시, 워크숍의 효과적인 개발 및 원스탑 홍보
-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전시, 확산
- 도서와 독서 관련 전체 파이의 확대로 지역의 독서문화 증진
- 지역 사회에 맞는 독서 프로젝트의 개발
- 지역 시민 독서 문화 향유의 편리성 도모

지역(region)에서 만들어진 도서·독서센터들은 전국적 단위의 연합체인 지역간도서·독서연맹(Fédération interrégionale pour le livre et la lecture, FILL)에 속한다. 지역간도서·독서연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지방정부 사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도서와 독서 관련 업무에 관한 협력을 맺는다. 2015년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27개의 지역이 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지역간도서·독서연맹의 웹 사이트는 <http://fill-livrelecture.org/>이다.

62)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 프랑스의 모든 기록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갈리카(Gallic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도서독서국은 지방단위의 기록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갈리카에 포함시키는데 기여한다.

5절

일본의 독서진흥정책과 활동



1. 독서 환경과 독서실태

일본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126,795천명의 국가이다. 93%의 인구가 도시에 살며, 인구 밀도가 높다. 기대 수명은 83.3세(2014년, 월드뱅크)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0~14세가 12.94%, 15~64세가 61.36%, 65세 이상이 25.71%로 (2014년, 월드뱅크) 초고령사회이다. 국내총생산(GDP)은 4조 6015억US\$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다. GDP에 기여하는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이 1.21%, 공업 및 제조업이 26.21%, 서비스 72.58%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2014, 월드뱅크). 일본의 1인당 GDP는 36,194 US\$(2014년, OECD)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에 따르면, 일본인의 독서율은 67%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하위권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독서율이 6.6%p 더 낮다. 독서율은 낮지만 일본인은 최고의 언어능력 점수를 나타냈다. 16~24세는 299점으로 55~65세는 273점으로 모두 1위이다.

일본인의 독서빈도를 살펴보면, 매일 읽는 독자가 10.0%,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5.1%,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 독자가 15.7%,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는 26.2%이다.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는 3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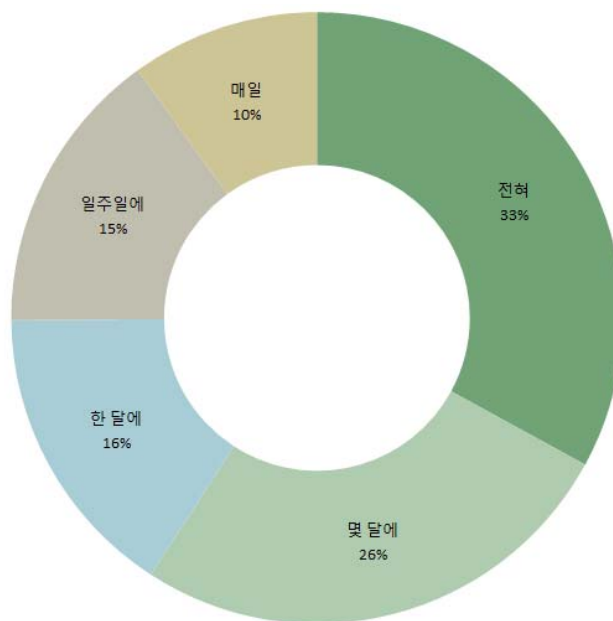


그림 86 일본인의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주〉 일본의 16~65세 5278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성별 독서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독서율이 63.2%, 여성이 70.5%로 여성의 독서율이 약 7.3%p 높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일본인의 성별 독서율의 차이는 한국과 더불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독서의 빈도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여성은 매일 읽는 독자가 11.3%,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6.6%,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가 15.9%,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가 26.7%로 나타난다. 남성은 매일 읽는 독자가 8.5%, 일주일에 몇 번 읽는 독자가 13.5%,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독자가 15.6%, 몇 달에 한 번 읽는 독자가 25.6%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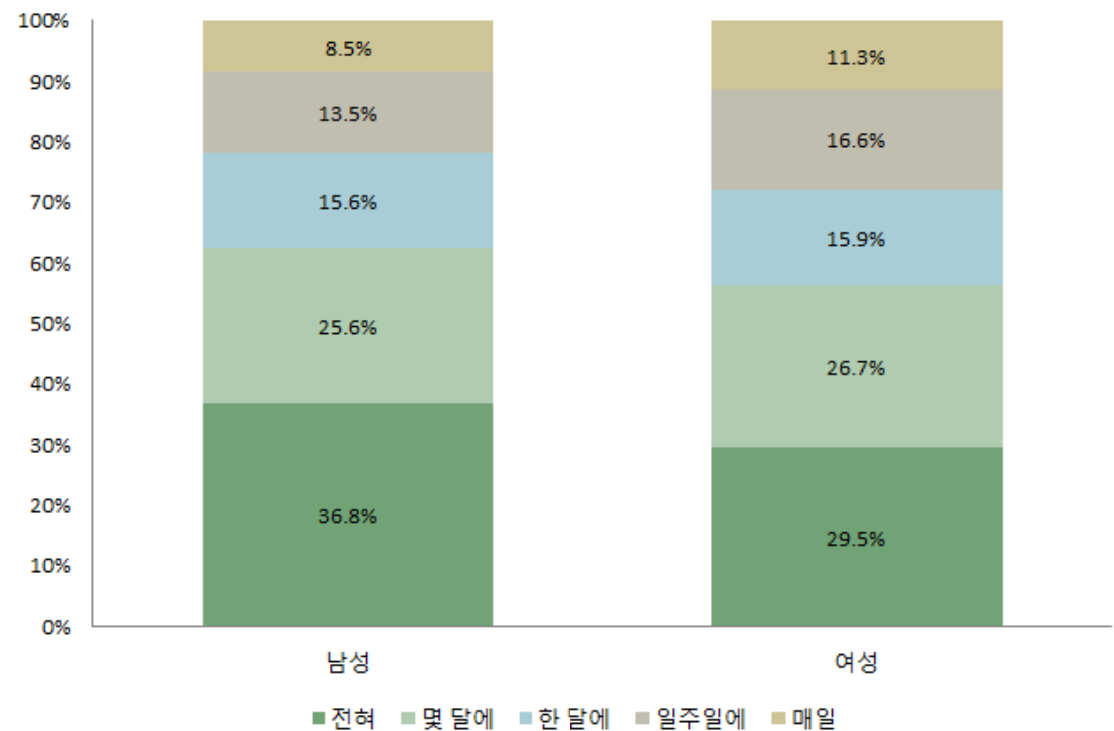


그림 87 일본인의 독서율 성별 비교

〈출처〉 PIAAC 2013

〈주〉 일본의 16~65세 5278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연령별 독서율을 살펴보면, 16~24세는 72.2%, 25~34세 68.6%, 35~44세 69.1%, 45~54세 69.0%, 55~65세 59.1%의 추세를 보인다. 16~24세의 독서율이 72.2%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약간 하락하나 25~54세까지 비슷한 독서율을 유지한다. 55세 이상이 되면, 59.1%로 급감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매일 책을 읽거나 일주일에 몇 번 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이 낮다. 젊은 연령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더 높고 습관적 독자도 더 많다. 그러나 45세 이상만을 비교해보면, 일본인의 독서율이 더 높고 습관적 독자도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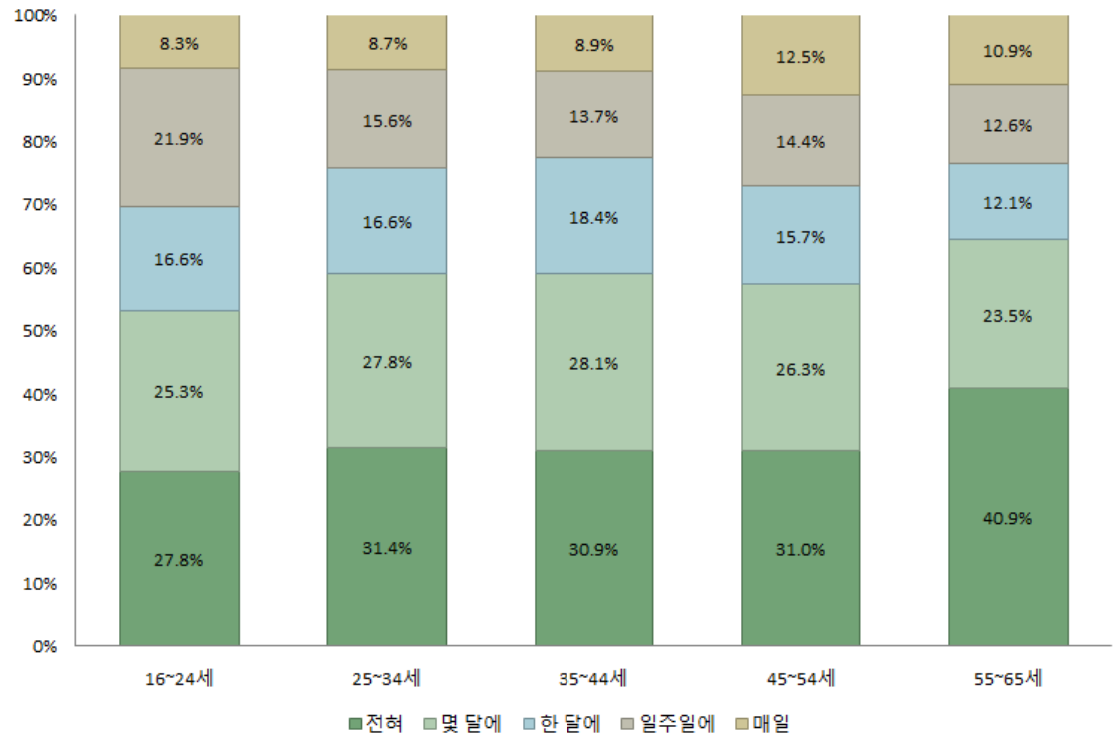


그림 88 일본인의 연령별 독서빈도

〈출처〉 PIAAC 2013

〈주〉 일본의 16~65세 5278명 대상 인터뷰 조사

전혀: 전혀 읽지 않는다, 몇 달에: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읽는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매일: 매일 읽는다.

독서율을 연령별, 성별로 교차분석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독서율이 남성의 독서율보다 약간 (3~4%p) 높다. 45~54세의 성별 독서율 차이는 약 15%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약간 하락하지만 그 차이가 우리나라만큼 크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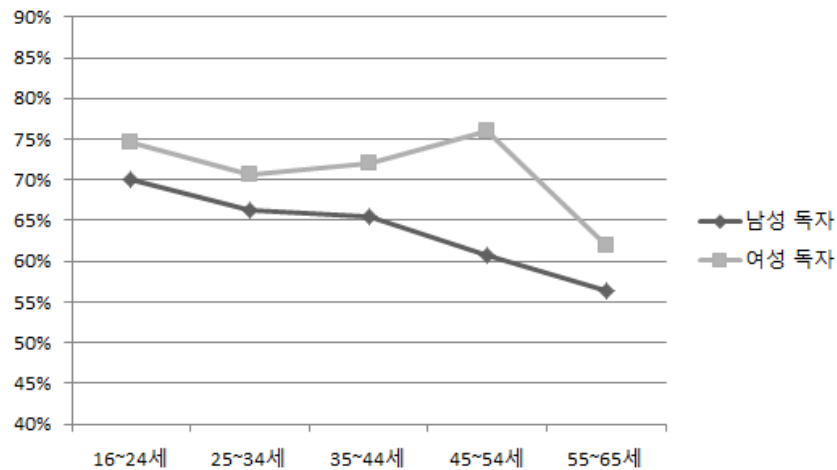


그림 89 일본인의 독서율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출처> PIAAC 2013, 원자료 정리

<주> 일본의 16~65세 5278명 대상 인터뷰 조사

일본 문화청이 2014년 3월 전국 16세 이상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만화와 잡지를 제외한 한 달 독서량이 ‘1~2권’이라고 답한 사람이 34.5%, ‘3~4권’이 10.9%, ‘5~6권’이 3.4%, ‘7권 이상’이 3.6%로 나타난 것에 비해 ‘읽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가장 많은 47.5%를 차지했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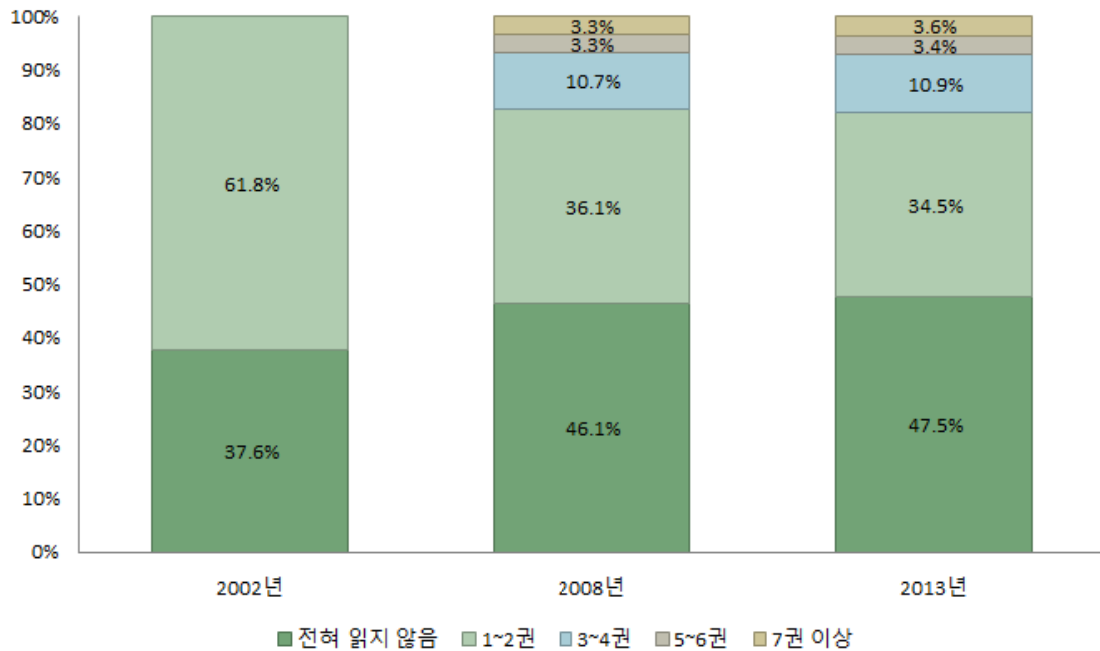


그림 90 일본인의 1달 독서량 추세

<출처> 문화청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 2014

<주> 2002년도는 1권 이상

63) 일본 문화청의 조사는 70세 이상까지 포괄하며, 전자매체를 통한 책 읽기와 만화책을 제외하고, 1달을 단위

이는 앞서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한 권도 읽지 않는 비율이 1.4%p 증가한 것이며, 그 앞서 2002년 실시한 조사보다는 10%p 가깝게 늘어난 수치로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읽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 70세 이상은 59.6%, 60대는 47.8%에 달했다. 한편 20대는 40.5%, 10대(16~19세)는 42.7%였다. 고령자의 경우는 시력 악화 등의 건강상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2002년 조사와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읽지 않는다'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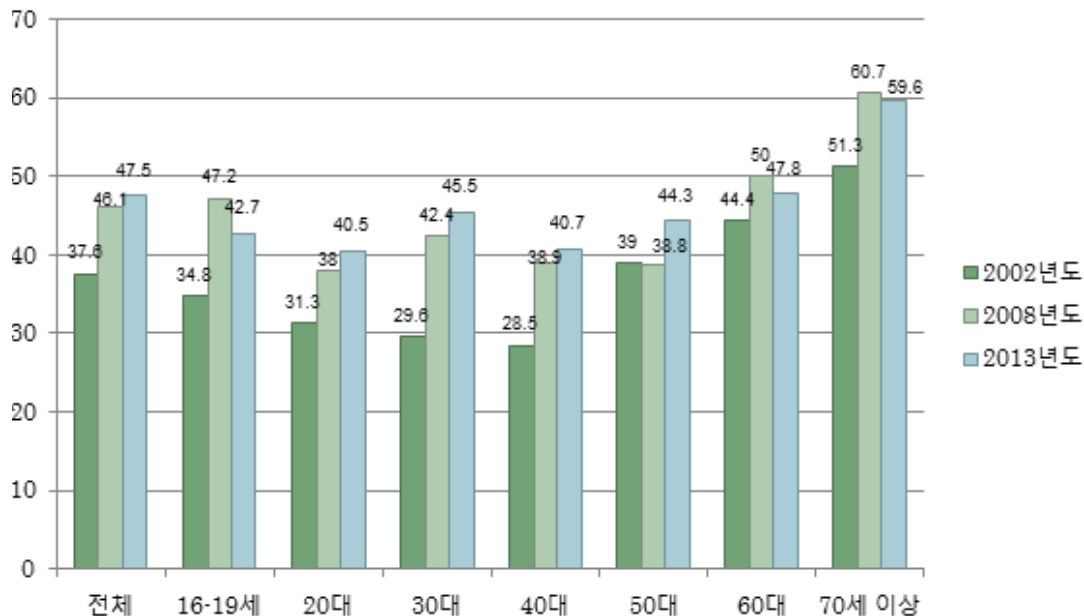


그림 91 일본인의 연령대별 1달 비독자율 추이

〈출처〉 문화청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 2014

〈주〉 단위는 퍼센트

연령대별 비독자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해가 갈수록 비독자가 늘었지만, 16~19세, 60대, 70세 이상은 2008년에 비해 2013년의 비독자율이 더 낮다. 이 연령대에서는 독자가 약간 늘었다는 의미이다.

독서량 감소는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에 비해 독서량이 줄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65.1%,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가 26.3%, '늘었다'가 7.4%로 집계됐다. 독서량 감소의 이유에 대해 가장 많았던 대답은 '일과 공부가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다'가 51.3%, 다음으로 '시력 등 건강상의 이유'가 34.4%,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로 시간이 빠듯하다'가 26.3%, '텔레비전 쪽이 매력이 있다'가 21.8%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정보기기를 이유로 꼽은 답변은 2008년 조사에 비해 11.5%p나 증가해 통신 정보기기의 보급이 독서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 조사하였기에, 국제성인역량조사의 독서율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난다.

2. 독서진흥정책의 현황과 추진방향

일본은 1998년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2000년에는 ‘어린이 독서의 해’를 정하여 꾸준히 다양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였다. 2001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안’을 제정하였고, 2005년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젊은 세대의 ‘활자 이탈’ 현상에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활자 이탈 현상은 개인의 발전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며 평등한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며 학교교육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적시하였다. 2006년부터 가을 독서주간이 시작되는 10월 27일을 ‘문자·활자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어린이독서활동추진법에 따라 학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내실화, 교사양성 과정에서의 ‘독서·신문열독’ 커리큘럼 제도화, 지역에서의 독서교육 지원, 신문 읽는 어린이 양성, 텔레비전의 독서 안내(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관련 도서 소개 등), ‘국제 어린이 독서의 해’ 유엔의 결 추진 등을 상정하였다.

2007년에는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안’과 ‘어린이독서활동추진법’을 추진하기 위해 범국민조직으로 ‘재단법인 ‘문자·활자문화 추진기구’가 발족하였다. 이 단체는 출판계와 언론계의 지원을 받아, 저자, 출판, 신문, 정치, 방송, 광고, 기업 등의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유명인사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2010년 ‘국민 독서의 해’를 지정하여 다양한 강연회와 독서운동 등으로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였다. 2010년 7월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생애학습은 우리의 평생교육에 해당)에 설치된 ‘국민독서 추진에 관한 협력자 회의’를 검토해 보자. 일본에서는 이 ‘국민독서 추진에 관한 협력자 회의’를 통해 국민 독서와 독서 환경에 관한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분석해, 독서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도를 검토하면서 총 8회에 걸쳐 협력자회의 전문 위원과 외부 지식인들의 의견 발표와 교환이 이뤄졌다.

그 결과물로 2011년 9월 발표된 보고서 ‘사람의, 지역의, 일본의 미래를 키우는 독서환경 실현을 위하여’에서 단지 책을 읽기만하는 독서가 아니라 책을 고르고, 권하고, 서로 읽고, 책을 펼치고 서로 물려주는 이른바 ‘공독(共讀)’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이 보고서의 제1장은 ‘왜 지금 독서가 필요한가’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독서는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기르고 개인이 자립해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 둘째 향후 사회의 최대 자원인 ‘지(知)’로의 접근과 새로운 ‘지’를 창조하는 열쇠가 되는 사회에 불가결한 문화적 인프라 형성. 셋째 동일본 대진재⁶⁴⁾를 경험한 일본이 위기적 상황에서 일어서서 다시 한 번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회 전체의 독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⁶⁵⁾ 일본은 정부가 앞장서 독서가 갖고 있는 자립적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함께 미래 사회의 지적 문화 인프라라는 인식의 공유, 나아가 독서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한 재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의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삶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삶을 더욱 원활하게 꾸려나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지적 문화 인프라라는 문화논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조한 점도 독특하다.

문부과학성이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교육조사’에 따르면, 2013년 발표된 3274개 (2011년 현재)의 도서관이 집계돼 1963년 이래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도서관은 독서회·연구회, 감상회·시사회, 자료 전시회, 어린이 독서회와 들려주기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장애우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해 대형 도서와 큰활자책, 확대 독서기 등 도입, 대면 낭독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역 정보거점으로서 비즈니스 지원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지역 과제의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새로운 공공(公共)’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도서관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서적 코너를 설치하는 등 정보제공은 물론, 사서의 전문적인 상담 및 조사 서비스와 산업진흥, 고용, 복지, 의료, 법무,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공부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도서관과 보건센터, 육아지원센터, 출판사 등 민간기업, 자원봉사 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 연계로 0살 영아 건강진단 등의 기회를 활용해 지역 내 모든 아기와 보호자들을 상대로 그림책 펴기 체험과 함께 그림책 선물하기 등 ‘북스타트’ 사업 등 지역자치단체가 중심으로 취학 전부터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역차도 큰 게 현실이다.

64)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피해

65) 국민독서 추진에 관한 협력자 회의, 「사람의, 지역의, 일본의 미래를 키우는 독서환경 실현을 위하여」, 2011년 9월

3. 독서진흥 활동의 내용과 사례

(1) 아침독서운동

- 대상: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 목적: 매일의 짧고 부담 없는 독서시간을 통해 독서의 습관을 기르고, 반 전체와 교사가 함께 읽는 시간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 추진기관: 아침독서추진위원회 주관하고, 문부성이 도서구입비용 부분적으로 지원하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실행한다
- 내용
 - 매일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10분 동안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해서 읽는다
 - 아침독서의 원칙은 크게 4가지로, 첫째, 학생과 교사를 포함하여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한다. 둘째, 날마다 한다. 셋째, (만화나 잡지를 제외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골라 읽는다. 넷째, 읽기만 한다. 독서후 독후감이나 퀴즈, 숙제가 없어 부담이 없다
 - 1988년 하야시 히로시가 재직하고 있던 후나바시학원 여자고등학교에서 오쓰카 미에코 교사와 함께 아침독서를 시작하여, 2010년 8월 현재 일본 전체 초·중·고의 71.2% (총 26,574개 교)가 참여하고 있다
 - 단순한 원칙이지만 현재 엄청난 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는 운동으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생활혁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성인과 달리 학생들의 독서율은 증가 경향이 나타난다. 이 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후원하며, NHK를 비롯한 방송사,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신문사, 교육기관, 출판유통회사, 서점 등이 전폭적인 지원하였다. 아침독서운동이 일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웹 사이트: <http://www.tohan.jp/csr/asadoku/index.html>

(2) 북스타트

- 대상: 유아와 가족
- 목적: 책 선물을 통해 가정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추진기관: 북스타트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며, 보건소에서 실행한다

- 내용:
 - 1999년 어린이 독서 활동에 관련된 280여개의 민간단체와 기업, 개인 등이 함께 ‘어린이 독서의 해 추진회의’가 설립되었다.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1년 4월 21개 지역에서 시작했다
 - 2001년 4월 북스타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2015년 11월 30일 현재, 일본 전역의 942개 도시에서 북스타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 웹 사이트: <http://www.bookstart.or.jp/>

(3) 독서주간과 어린이 독서주간

- 대상: 모든 시민과 어린이
- 목적: 독서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한다
- 추진기관: 독서추진운동협의회 주관
- 내용:
 - 1945년 종전 이후 ‘신생 일본을 문화국가로’를 내걸고 출판사와 도서관, 서점, 보도기관, 문화관련 등 30개의 단체가 모여, 1947년 ‘독서주간 실행위원회’를 결성해 실시하게 시작이다. 독서추진운동협의회는 일본서적출판협회, 일본잡지협회, 교과서협회, 일본서점상업조합연합회, 일본도서관협회,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 7개 단체가 1959년에 설립했다
 - 봄에 ‘어린이 독서주간’과 가을에 ‘독서주간’을 주최한다. 또한 ‘경노의 날 독서추천’, ‘젊은이에게 보내는 독서 추천’ 등 독서 보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대상별 독서운동도 전개한다
 - 해마다 새로운 공식 포스터와 표어를 발표하는데 2015년 실시된 제69회 독서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독서주간’ 테마를 내걸고 각종 행사를 열었다. ① 국민 모두에게 독서 추천 운동, ② 특히 청소년에게 독서 추천 운동, ③ 독서그룹의 결성 촉진, ④ 가정문고, 지역문고, 직장문고의 충실
 - 독서추진운동협의회 「2013년도 전국독서그룹총람」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국의 독서그룹(독서회, 직장, 지역단위 등)은 약 11,400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⁶⁶⁾
- 웹 사이트: www.dokusyo.or.jp

66) 독서추진운동협의회, 「독서추진운동」 제572호, 2015년 7월 15일

(4) 독서마을

- 대상: 이바라키 현 북서부의 '다이고 마치' 주민
- 목적: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독서 공동체를 형성한다
- 추진기관: 다이고 마치의 학교와 가정에서 실행한다
- 내용:
 - 다이고 마치는 약 2만2천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로 도서관과 서점이 한 곳 밖에 없었다. 국가의 대대적인 독서정책에 따라 2007년 6월 일본 최초로 독서마을을 선포한다
 - 관내 학교가 수업 전 아침독서운동을 벌이고 있고,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책을 읽는 '집안독서' 운동을 펼쳤다
 - 독서마을을 선포한 뒤 마을에는 청소년 탈선행위가 줄어들고 학업 성적이 증진됐다고 보고되었다. 다이고 마치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시험문제 정답률이 일본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5~10% 높아졌고, 집안독서운동을 통해 가족관계도 좋아졌다고 보고되었다

(5)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 대상: 학교도서관
- 목적: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열악한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 지원하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업을 강화한다
- 추진기관: 정부차원에서는 국제어린이도서관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현립 도서관과 시정 촌립 도서관이 주관한다
- 내용: 다음의 표와 같다

	아동&학생·교직원에 대한 지원의 예	학교도서관(사서교유, 학교사서, 도서위원회, 자원봉사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의 예
도서관의 정비·운영		순회상담, 방문상담·지도, 자원봉사자 상담일 개최, 어드바이스(폐기, 수서, 보수, 전시, 분류, 배가), 수서, 분류, 재적, 레이아웃 등의 정비, 도서위원회의 도서관시스템 이용 지도
자료의 제공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각종자료제공 공통이용카드 리퀘스트 레퍼런스 숙제지원	리퀘스트 물류네트워크 단체대출·배송, 학급대출 조사학습용자료, 향토자료, 종이연극자료등 대출세트의 배치 학급대출세트 (1세트40권) 학교세트대출 (『세계유산』『복지』『식육』『환경』등) 교과서내용에 준거한 대출세트 (1세트 40권) 학습지원팩 『1학년을 위한 읽어주기용 도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40권 대출 교재연구용자료대출 학교도서관관련자료코너 설치 리퀘스트 테마그림책 대출 (「일본의 동화」 「어린이」 1세트 20권) 초등학교이과·과학도서관서비스 (40권팩) 북토크키트 대출 (57세트) 학교도서관지원 1000권 플랜 (도서관 미설치 자치체) 시정촌(市町村)도서관의 학교도서관활용교육도서 2000권을 위탁 아동자료의 재 이용선택회(도서관의 폐기본을 무상제공) 신간아동서열람회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견학·탐방 직장체험, 직장견학 도서관방문 (NDC, 업무내용, 탐구학습의 방법) 도서관오리엔테이션 탐구방법 가이드선 여름자유연구응원강좌 탐구학습콘서트 강좌「손그림교실」 「도서관에서 보자! 검색을 통해 당신도 곤충박사」 「독서감상문강좌(중고생)」 독서회 레퍼런스 <교직원 대상으로> 레퍼런스 북리스트 아동서비스연수에 학교사서도 참가가능 도서관·자원봉사를 위한 설명회 (분류, 자료의 검색, 도서관의 정리·운영, 수리, 책읽어주기) 각종연수회·강좌(관내강좌, 출장강좌...도서관 정리, 수리, 책읽어주기, 스토리텔링, 북토크, 학교도서관활용...사서교육, 담당자 대상) 교원을 위한 출장강좌 아동과 학생을 위한 출장 강좌 (도서관이용강좌, 저작권강좌, 지역관계의 문학강좌) 학교방문(북토크, 이야기회, 종이연극) 수업에 참가(북토크, 도서관의 소개, 백과사전의 사용법) 도서관활용세미나(고교, 특별지원학교의 학생·교직원) 출장수업(문학가등에 의한 「고향과 문학체험학습회」) 강사파견(교원연수, 보호자를 위한 강좌,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고교생 책읽어주기 자원봉사의 지도와 연결 아침독서지원(의식조사 설문안의 작성, 북토크실시, 아침독서수첩의 작성) 여름추천도서리스트의 작성·배포 테마별 자료 리스트, 교원을 위한 북리스트 파일링 작업
교류 공동작업		<아동&학생대상으로> 청소년회(YA友の会)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의 체험연수 학교도서관간담회, 협의회, 연락회, 학습 연구회 학교도서관담당자회의의 참가 어린이독서연락회의의 운영 북리스트의 작성 추천책, 테마관련 사서의 파견 아동도서관선택협의회의 자원봉사의 등록·파견, [인재뱅크의 구축]
정보의 제공 & 발신	인쇄물	추천 책의 책자배포 「학교를 위한 신착도서안내」 「학교도서관정비의 안내」 「공공도서관이용의 안내」 「탐구학습의 안내」 「교재개발을 위한 도서관이용가이드」 「도서관에 대한 소식」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소식」
	H P	도서관HP내의 독서대응의 위한 HP를 설치 독서통신을 인터넷으로 발신(각 학교에서 정보공유) 어린이를 위한 향토자료의 제공·작성, 「학교의 선생님에게」 「청소년을 위한 페이지」 「어린이의 페이지」 「검색페이지」 「지역데이터베이스」 (옛날이야기 데이터베이스) 조사학습리스트집 시내학교도서관의 링크집 레퍼런스질문일람, 파일링, 워크시트 조사학습의 방법(「조사학습가이드」 「학습법 가이드」, 도서관활용방법의 설명) 서비스신청서서식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메일링리스트(자료탐색, 정보교환) 메일매거진의 발신, 홍보 [나라·자치체의 동향등과 관련정보, 관련자료정보, 연수정보] [학교도서관자원봉사관련정보]

표 36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사업

〈출처〉 〈<http://www.kodomo.go.jp/study/cooperation/forum/pdf/support.pdf>〉 [cited 2013. 7. 17]. 윤유라 (2013).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화 사업의 현황과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320~321 쪽 재인용

4. 사례 탐구: 시니어를 위한 서점, 출판, 도서관 서비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약 26%로 초고령 사회이다. 독서와 관련된 기관과 기업도 초고령 사회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사례 탐구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니어에 특화된 서점, 시니어 출판에 대해 알아보자.

(1) 일본 도서관의 시니어 서비스

일본 도서관의 시니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溝上智恵子·呑海沙織·綿拔豊昭 편저, 윤희운·손지현 공역,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 태일사, 2014 (원저: 『高齢社会につなぐ図書館の役割』, 學文社, 2012)의 내용을 소개한다.

도서관의 시니어 서비스는 장애인서비스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고령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처럼 ‘기타 장애인’의 하나로 여겨졌다. 노인은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카테고리로 바라보았다. 즉 사회적 약자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접근했다.

2001년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을 계기로, 시니어 서비스는 장애인과 별도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의 충실에 기여하기 위해 고령자를 배려한 구조나 시설의 정비와 함께 대활자본, 확대 독서기 등의 자료와 기기·장비의 정비를 충실히 갖춘다. 또한 관계기관·단체와 제휴를 도모하여 도서관 이용 시 도우미, 대면낭독, 택배서비스 등 구체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⁶⁷⁾ 2001년대 초까지도 여전히 노년을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집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령사회의 시니어가 처한 건강, 경제력, 독서경험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건강한 노령인구가 77%로, 이들은 도서관 이용이 어렵지 않은 독자이다. 그들이 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식되는 것은 오히려 도서관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활동적 시니어와 비활동적 시니어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구와 기대에 걸맞는 서비스가 필요해졌다.

활동적 시니어는 1947년~1949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인구가 많으며, 가처분 소득이 많고 고도성장과 대량소비를 경험했으며 활발한 경향이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에도 능숙한 편이며, 컴퓨터나 인터넷, 스마트폰의 이용에도 적극적이다.

67)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 태일사, 2014, 38쪽, 재인용

	활동적 시니어	비활동적 시니어
심신의 상태	건강	비건강
이미지	‘생활자 활동자’의 이미지	‘복지 보호’의 이미지
장애자서비스와의 관계	겹치지 않음	겹침
연령 ⁶⁸⁾	대략 65세에서 75세	대략 75세 이상

표 37 활동적 시니어와 비활동적 시니어

〈출처〉 溝上智恵子·呑海沙織·綿拔豊昭 편저, 윤희운·손지현 공역,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 태일사, 2014

■ 돗토리 현립 도서관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돗토리 현립 도서관은 출판된 모든 대 활자본을 구입하여 대여한다. 음악 CD, 낭독 CD를 대여하고, 인쇄물을 크게 비추는 확대 독서기, 노안경, 돋보기 설치, 잘 듣지 못하는 분을 위한 휴대 조청기, 필담보드 준비, 컴퓨터 화면의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 PC, 인쇄물을 읽어주는 음성독서기 등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

환자가 병마와 싸운 수기를 모은 ‘투병기 문고’를 개설했다. 투병기는 병을 받아들이고 맞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들이 담겨 있다. 투병기 문고는 ‘암’, ‘소아’, ‘질병’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병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서가에 따로 투병기 코너를 구성하여 창가에 소파를 두고 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2012년 3월 현재 투병기는 약 1,300권, 2011년도 연간 대출권수는 약 850권이다.

도서관은 돗토리현 의사회 주최로 건강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 강좌가 열리는 장소에 배달 도서관 서비스를 하여, 강좌 주제와 관련된 도서관의 책을 강좌 전후에 전시하고 빌려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치매예방의 방법으로 ‘도서관자료를 이용한 회상요법’ 강좌를 연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집이나 역사자료를 이용하여 옛날이야기를 나누거나 옛날 노래를 부르는 등 회상요법을 실시한다. 도서관의 새로운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다.

은퇴 후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 준비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 꿈 실현 응원 강좌 개최하기도 한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 이용법을 사서가 강의하고 관련도서를 전시한다. 도서관에 인명록 및 업체단체의 연감, 통계자료, 업계지, 전문잡지 등 시장조사 자료를 배치한 비즈니스

68) 연령은 대략적인 기준일 뿐 신체와 심신의 상태에 따라 시니어의 활동성은 달라진다.

스 코너를 만들었다. 또한 ‘세컨드 라이프’ 서가를 따로 마련하여 정년 후 취업과 창업, 자원 봉사에 대한 책을 따로 제공한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시니어의 자원봉사 기회도 안내한다.

돗토리 현립 도서관은 시니어를 위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혼, 재혼, 상속, 연금, 채무 등을 주제로 하여 리플릿을 마련한다. 리플릿에는 각 주제에 관련된 도서, 잡지, 인터넷 정보, 현 내의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관련도서와 잡지, 관계법령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도서관지도를 게재한다. 매월 행정서사의 무료 상담회 개최, 상속, 유언, 교통사고 후유 장애등급 인정, 외국인의 재류 수속, 귀화, 성년 후견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 히가시네시 사쿠란보도서관(東根市さくらんぼ図書館)⁶⁹⁾

“도서관의 고령자서비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월 1회 히가시네 온천에서 열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북 토크」이다. 이 사업은 히가시네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삶의 보람 활동지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생 데이 서비스」라는 명칭 하에 독거 노인들의 체력 저하를 예방하고 이웃과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어르신들은) 오전 10시경 시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온천장에 도착하여 온천을 즐기고 난 뒤 친목을 도모하면서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면서 오수타임에 들어간다. 오후 1시가 지나면 낮잠에서 깨어나 티타임을 가진 뒤 북 토크에 참여한다. 매회 20 명 정도의 참가자가 있으나 농번기 때는 인원이 많이 줄기도 한다. 이 날 참가자는 9명으로 대부분이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어르신들이었다.

북 토크는 매회 다른 테마로 진행되며 처음에는 도서관 소개부터 시작한다. 도서관 이용안내를 비롯하여 이용자카드 신청이나 도서 택배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노인층에게 인기가 많은 사극의 DVD도 소개하면서 도서관에는 책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이번 북 토크의 메인 테마는 「대활자본」으로 담당 사서는 역사소설, 실용서, 요리책, 50년 전의 TV 프로그램을 특집으로 다룬 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대활자본을 소개하였다. 또한 소개한 도서를 어르신께 한 권씩 돌리면서 직접 접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퀴즈를 내거나 질문을 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69) 손지현, 新藤 透, “일본 공공도서관의 대활자본 현황 조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2014, 133쪽. 히가시네 온천에서 열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북 토크」 참여관찰.

등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시간을 잘 이끌어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 이 날은 도서관 직장 체험학습으로 여자 중학생 3명이 사서와 동행하여 추천 도서를 소개하거나 그림연극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 아키타현의 유자와 시립도서관의 택배 자원봉사 서비스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이용자에게 자원봉사자가 희망 도서를 배달한다. 신청 도서를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의 취향을 파악하여 관련도서를 선정하기도 한다. 월 2회 서비스한다.

- 아키타 현립도서관의 대출자본 대여 서비스

대출자본은 가격이 비싸 일반 도서관이 많은 권수를 마련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키타 현립도서관은 고령자를 위한 대출자본을 40권씩 한 세트로 준비하여, 원하는 공공도서관에 3개월간 대출하여 지원한다.

- 요코하마 나카도서관의 고령자 이야기교실

고령자 복지시설인 케어플라자에서 1년 내내 자원봉사자들이 그림책과 이야기책을 읽어준다. 주로 어린이 교실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책을 읽어주고, 어린이에게는 내용이 어렵다고 제외했던 책 혹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책,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책도 포함한다. 과학 그림책 중 사계절의 변화에 대한 책, 자연의 그린 책은 매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또한 어렸을 때의 경험과 추억을 되돌릴 수 있는 책이나 전래이야기도 호응이 좋다.

(2) 시니어 전문 서점

일본의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CCC)가 운영하는 ‘쓰타야 북스(TSUTAYA BOOKS)’는 초대형 서점 기노쿠니야서점을 누르고 2012년 연간 서적 판매고 1위에 올라 큰 화제가 되었다. 2012년 전국 696개 점포의 판매액이 1097억 엔을 기록했다. 2013년에도 701개 점포의 잡지와 도서 매출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1109억 엔을 기록하면서 연간 서적 판매고의 정상을 지켰다.

이런 쓰타야서점의 집대성이자 야심작인 다이칸야마 쓰타야서점⁷⁰⁾은 지난 2012년 12월 5일 도쿄의 다이칸야마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널찍한 매장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독특한 컨셉트 등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CCC)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셀 수 없는 기획들의 결정판이라고도 불리는 다이칸야마의 쓰타야서점은 총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2 일본의 다이칸야마 쓰타야서점

〈출처〉 淳平 笥井, (CC BY-ND 2.0)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곳은 ‘숲 속의 도서관’을 내걸고 쓰타야가 창업했던 1983년 당시 젊은 세대였던 ‘프리미어 에이지’로 명명한 50~60대 시니어 층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 세대의 기호에 맞춰 서점, 음반 및 영상 매장, 카페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많이 판매되는 비즈니스, 처세술 등의 분야는 취급하지 않는 반면 인문, 자동차·바이크, 손목시계, 잡지, 아트, 건축, 디자인, 요리, 여행이라는 아홉 가지 테마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70) <https://daikanyama-ec.tsite.jp/tsutaya>

즉 ‘서적 판매’를 취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프리미어 에이지’ 세대의 관심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서적은 물론 관련 상품과 예술품 전시까지 ‘문화’를 다루고 있으며, 심도 있는 기획이 빚어내는 문화의 향기를 맡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각 매장에는 안내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화 코너 바로 옆에는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행 카운터까지 마련되어 있다. 여행 지도를 찾아주고, 비행기와 호텔 예약도 상담해준다. 3동 중앙 꾸며진 55미터짜리 매거진 서가는 일본 잡지 1300종류와 서양 잡지 1000종류 등 총3만 권이 비치되어 있는데 희소가치가 뛰어난 빈티지 잡지도 많이 갖추고 있어 잡지 마니아들에겐 잡지 천국이다.

현재 20~30대 젊은 층이 주요 고객인 츠타야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현재 50~60대인 창업 당시의 고객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자 추억과 전문성을 내세우고서 야심차게 선보인 다 이칸야마의 츠타야서점은 아날로그적 정서가 물씬 풍긴다. 또한, ‘없는 영화가 없다’를 내걸고 다양한 장르의 신작은 물론 국내외의 클래식한 작품 등을 골고루 갖춘 영상 매장이 있으며, 재즈 클래식 록 등 1960~80년대 음악에 주력한 음반 매장은 대여 12만 장, 판매 1만 장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밖에도 북 소믈리에로 불리는 각 테마별 매니저 36명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책들을 추천하고 설명해 준다. 특히 직접 손 글씨로 친절하게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문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영상 매장에는 5명의 매니저가 영화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신간을 소개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려는 배려와 노력이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절판돼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 이전 서적들을 전시해 독자들의 직접 투표로 명저를 다시 부활시키는 기획 행사도 책을 사랑하는 애서가와 애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넓찍한 공간에 여유롭게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한 손님은 여기저기 배치된 의자에 앉아 읽을 수 있으며, 건물 내 스타벅스에서도 차와 함께 독서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다. 서적을 구입할 때도 중앙 계산대와는 별도로 현금, 신용카드, 전자머니 등 편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셀프계산대에서 직접 책값을 치를 수 있다.

한편, 츠타야서점은 활기를 잃어가던 지역 문화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츠타야서점이 들어서기 이전에 1,500명 내외였던 1일 통행 인구는 주말에만 3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많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도 일부러 이곳을 찾아 새로운 도쿄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3) 시니어 출판

일본은 활자의 크기를 키워 노령자 및 장애인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대활자본 도서가 많이 출판되어있다. 1996년에 (주)대활자사가 설립되면서 2000년대 붐이 일어났다. 산신도(三心堂)출판사, 나츠메사, 슈에이사(集英社), 카규샤, 삼슈샤(三修社)등의 소규모 출판사가 대활자본을 활발히 출판해왔으나, 1권당 단가가 너무 비싸 2014년 6월 현재 모든 출판사가 대활자본 출판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주)대활자사가 주문을 받아 인쇄 제본하는 주문제작(On-Demand 방식)을 도입하여 독자가 주문 시에 자기한테 맞는 활자의 크기(19에서 26 폰트까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주문제작(On-Demand방식)전문 대활자본 출판사로 코단샤(講談社)온 디멘드문고, 산세이도서점 온 디멘드, 독서공방(讀書工房)-아동서 전문, 코림사(響林社)등 몇몇 출판사도 주문을 받아 인쇄 제본하는 출판에 참가하고 있다.⁷¹⁾

일본은 시니어를 타깃 독자로 쓰여진 도서 출판이 2000년대부터 매우 활발해졌다. 출판된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 장수	치매 예방과 관리, 식생활을 통한 건강법, 뇌내 혁명
노년기의 남성과 여성	여성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미용과 패션, 남성은 은퇴 후 가정에서 제자리 찾기와 새로운 도전하기
재혼	노인의 재혼과 이성교제
자립	자녀로부터의 자립과 독신으로서의 자립
평생현역	평생 현역으로 사는 생애 설계법
창업 및 전업	정년 후 시작하는 사업 성공스토리와 노하우
평생학습	노년을 위한 공부법
취미활동의 구체화	노년의 동아리 활동과 취미활동

표 38 2000년대 일본 시니어 출판의 주제들

〈출처〉 “[일본] 2000년대의 시니어 출판 흐름 짚어보기 ①~⑦” 정리,
평생현역학교 블로그, <http://blog.naver.com/senioreye>

일본의 시니어 출판은 최근에도 강세를 나타내며 연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2015년 일본 시니어 출판에서 다룬 주제는 ‘노화와 죽음, 건강’이었으며, 재능을 겸비하며 장수하는 90~100세의 저자들의 책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간단한 요리책, 패션 스타일리스

71) 손지현, 新藤 透, “일본 공공도서관의 대활자본 현황 조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2014, 124쪽.

관련서도 주목을 받았다. 만화책에서도 시니어의 영향력이 커져 '간병'을 주제로 한 만화들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잡지의 시장규모도 크다. 여성 시니어 잡지인 「이키이키」는 매월 20만부를 발행하며, 남성 시니어 잡지인 「사라이」가 매월 18만부를 발행 중이다.⁷²⁾ 시니어 출판의 독자는 모두 노인들만이 아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노년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중년들도 두꺼운 독자층을 이루고 있다.

72) 백원근, “일본 시니어출판의 현주소”, 「기획회의」, 399호, 2015년 9월

4

우리나라 독서문화진흥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 장에서는 1장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독서실태 국제비교 결과와 2장의 주요국의 독서진흥정책과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서문화진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1. 독서의 생태계

- **책의 생산자인 저자와 출판사, 매개자인 도서관과 서점, 소비자인 독자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협업체계와 플랫폼이** 요구된다. 프랑스 문화부의 도서·독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도서·독서국은 지역 내의 독서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다. 따라서 중복적인 프로젝트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협업이 촉진된다. 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서와 독서의 생태계에 종사하는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검색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독서관련 활동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종사자, 출판계 종사자, 서점 종사자, 저자, 지방정부의 독서정책담당자, 독자모임 등은 서로의 활동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저자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자국어 문학을 보호하며 출판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저자 디렉터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자국어 사용자가 소수인 핀란드는 독서센터를 통해 핀란드어 저자의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나 도서관이 저자를 쉽게 초대할 수 있도록 핀란드 저자 디렉터리가 만들어져, 활동별로, 장르별로, 활동대상 연령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핀란드의 독서센터 뿐 아니라 프랑스의 지역 도서·독서국 또한 지역 저자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웹 사이트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자초청은 친분이나 출판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 시나리오 작가 등 활동을 원하는 작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면, 학교와 도서관이 쉽게 작가를 접촉할 수 있다. 더 많은 독자가 한국어 작가를 만나고 그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의 독서 흥미도 높이고 한국어 출판의 진흥도 꾀할 수 있다.
- **도서관 공간의 재구성과 수리(renovation)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주요국은 책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저장의 장소보다 모든 세대가 만나고 쉬이는 만남의 장소로 도서관 공간을 재편하고 있다. 새 책을 구비하되 책을 자주 속아내고 중고로 판매하면서 서가를 줄이고, 동아리실과 강의실, 라운지, 카페의 비중을 높인다. 도서관 강국인 핀란드는 도서관의 인구 1인당 책 수보다 인구 1인당 책 구입비를 중요하게 여긴다. 도서 폐기 또한 사서의 전문적 영역으로 중요하게 간주된다. 또한 도서관의 건축과 인테리어, 가구, 커튼 등 독서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 자주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데 투자한다.
- 주요국의 도서관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독서동아리 세트**를 마련한다. 독서동아리 키

트 혹은 가방 안의 북클럽(Bookclub in a bag)은 미국의 도서관에서 가장 활발하다. 도서관은 독서동아리에서 읽을 만한 책을 6~10권정도 복권으로 마련하여, 이를 가방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통째로 독서동아리에 대여한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여 기간은 평소 보다 2~3배 길게 정한다. 독서동아리에 직접 도서관입비를 주기보다 도서관이 독서동아리 세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면, 더 많은 독서동아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서동아리 세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동아리를 시작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킬 수 있다. 영국의 '학교도서관 패키지'도 학생들이 동아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6권씩 세트로 학교에 제공한다.



그림 93 북 클럽 키트를 안내하는 도서관 사이트

〈출처〉 미국 Lewis Public Library

http://www.leweslibrary.org/links_resources/book_club_bag.htm

- **독서 동아리 상설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상설 지원센터가 있으면 동아리 활동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웹 사이트나 이메일, 전화로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이나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영국의 리딩 에이전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독서동아리에 대한 상설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맡고 있다. 주로 정기적인 뉴스레터와 리더 교육, 동아리 활동을 위한 주제별 도서 안내, 어린이 독서동아리인 채터박스의 활동 자료를 지원한다. 또한 핀란드의 성인학습센터도 학습 동아리의 운영을 도와주는 상설지원 센터이다. 지원센터에서는 효과적인 읽기 방법, 읽으면서 메모하거나 정리하는 법,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모으고 생각한 바를 정리하는 법, 토론하는 법, 발표하는 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 주요국의 도서관은 독서동아리 및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동아리 모임 공간**을 적극

적으로 만들고 있다. 영국에서 새로 건설된 도서관인 아이디어 스토어나 캐나다워터 도서관은 서가 공간을 늘리기보다 도서관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공간에 다수의 모임방을 만들어 대여한다.



그림 94 런던의 Canada Water 공공 도서관의 동아리방

© 2015. 김은하 all rights reserved.

- 주요국은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캠페인에 **폭넓은 유명인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미디어의 영향이 강력하므로 영국은 **국영방송인 BBC**와 Channel 4가 독서진흥사례의 홍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축구선수나 요리사, 연예인 등의 유명인사들은 독서에 관심이 없는 어린이나 시민의 독서 역할 모델로 활동할 수 있다.
- 영국 **복권(National Lottery)**의 수익은 대부분 문화예술정책을 위해 쓰였고, 대단위의 독서진흥프로젝트에 재원이 된다. 오렌지(Oragne)사는 리딩 에이전시를, 테스코(Tesco)는 북 트러스트를 부츠(Boots)는 전국독서재단의 청소년대상 직업 문해력 프로그램을, 미국의 달러스토어는 시민단체 프로 리터러시를 지원하고 있다. 독서진흥프로그램이나 도서관의 청소년실 구비 등에 **기업의 참여**가 더 폭넓게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해당 기업의 후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경우, 프로젝트 이름에 회사명을 넣거나, 공로를 수상하거나 브로슈어에 기업 마크를 실는 방법을 택한다.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여 ‘도서관 챔피언’으로 수상한다.
- **전자매체 읽고 쓰기 프로그램**이 학교와 도서관에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읽기는 종이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미디어 문해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대인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 폰 등 전자매체를 통한 다양한 읽기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미디어테크는 인쇄물을 조용히 읽는 활동이 중심이 된 전통적인 도서관에 더하여 이미지, 음악, 소리, 영상, 디지털, 고문서 등의 다양한 매체 자료를 서비스한다. 런던

의 아이디어가게도 서비스하는 매체가 다양하다. 또한 핀란드의 ‘독서의 즐거움’ 프로젝트도 전통적인 종이책 뿐 아니라 온라인,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읽고 제작하면서 테크놀로지를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했다.

- 종이도서와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듯, **전자매체의 글과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매체 읽기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전자매체 읽기에 대한 워크숍이나 1대1 개인지도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전자매체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면, 매체를 통한 읽고 쓰기가 불가능해진다. 과거에 종이와 펜이 없으면 읽고 쓰는 것이 불가능했듯이, 전자매체를 통하지 않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읽고 쓰기에 참여하기 어렵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명을 읽고,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이메일을 쓰는 것이 일상이다. 이력서를 내더라도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한다. 주요국의 도서관에서 노년 세대를 위한 ICT 강좌나 1대1 개인지도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까닭은 현대 사회의 읽고 쓰기에 이들이 배제되기 쉽기 때문이다.
- **인구 희박 지역의 책과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도서관의 디자인을 현대화하고 지역 사회를 잘 아는 아웃리치 담당 사서**가 탑승하여 전문적인 독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핀란드는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촌락지역의 연간 도서관 이용률이 62%로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농어산촌 지역, 특히 책과 도서관, 서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동도서관은 농어산촌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장터, 유치원이나 학교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택한다.
- **프로젝트와 관련된 웹 사이트나 기념품, 자료, 설명서, 배너 등의 심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독서관련 웹 사이트는 실용적이지만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주요국의 독서진흥 프로그램 웹 사이트는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의 참여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프리미어리그 리딩 스타’ 웹 사이트에는 남자 아이들이 열광하는 워피 키드가 그려져 있고, ‘책은 내 가방’은 로렌 차일드와 같은 유명 그림책 작가가 가방을 디자인한다. 북 벤치에도 예술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참여로 호응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비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웹 사이트는 자주 오고 싶도록 디자인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독서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독자 연구**가 필요하다. 최인자는 독서율과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 자체는 궁극적인 선이 아니라고 하면서, “독서의 진정한 자발성은 독자가 자신이 주체가 되는 현실 삶 속에서의 문제와 관심, 욕구와 취향과 접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자발적 독서 능력의 부족을 독서가 습관화, 생활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

동주의적 판단일 따름이다.”⁷³⁾라고 주장한다. 무조건 많이 자주 읽어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맥락에서 읽고 싶도록 만드는 동기,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활동, 읽고 싶은 공간 등을 연구해야 한다. 돗토리 현립 도서관의 ‘투병기 문고’와 치매예방을 위한 ‘도서관자료를 이용한 회상요법’ 강좌, ‘세컨드 라이프를 위한 창업관련 도서 서비스’는 시니어 세대의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독서와 관련시켜 자발성을 끌어냈다. 핀란드의 ‘독서의 즐거움’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소설 읽기와 글쓰기에 연결 지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리딩 스타’와 같은 프로젝트는 노동자 계급의 축구에 대한 관심사를 독서와 연결시킨 성공 사례이다.

- **독서에 도움 혹은 장애가 되는 요인을 세대별로, 독서에 대한 경험과 태도별로, 성별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국 북스타트의 독자연구가 대표적인데, 독서의 장애가 바쁜 시간 때문인지,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독서경험 때문인지, 독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실천이 부족해서인지, 또래 집단의 영향력인지, 독서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사한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 독서의 즐거움은 평생 독자가 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독서진흥 캠페인과 정책은 **독서의 즐거움(지적, 정서적, 윤리적, 사회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입시나 성적 관련 사교육업체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상적인 소설 및 교양서 독서율은 중위권이지만, 교과서나 교재 등의 학업 및 업무 관련 독서율은 최상위권이다.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학업 및 업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독서를 한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독서를 학업이나 직무와 관련해서 주로 읽어온 이들은 학업이나 직무를 그만두는 순간 독서를 멈추기 쉽다. 주요국의 습관적인 독자들이나 노년의 평생 독자들은 독서를 여가나 즐거움, 휴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리딩 에이전시나 전국독서재단은 ‘독서의 즐거움’이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넘어서, 국가적 의료 및 복지비용의 절약, 창의 산업의 경쟁력 창출, 사회적 통합 등의 효과를 낳는다고 설득한다.
- **성인의 언어능력 또한 개인적·직업적·시민적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그러한 사례가 더 많이 홍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독서는 어린이·청소년기의 언어능력과 입시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이 주로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낮은 언어능력은 성인에게도 다양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 해석, 경제 및 직업 활동 및 시민의 정치적 참여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자가 많은 젊은 세대의 언어능력에 비해 비독자가 많은 중·노

73) 최인자, “문화 정책으로서의 독서 정책 방향”, 『독서연구』, 30호, 2013, 272쪽.

년의 언어능력이 OECD 조사국 중 가장 현저하게 떨어진다. 몇 달에 한두 번이라도 책을 읽는 독자와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의 언어능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성인의 독서와 언어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설득할 논리와 사례를 개발해야 한다.

-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홍보창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비독자를 책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인데, 도서관에 프로그램 브로슈어가 놓여 있으면 도서관 이용자만 프로그램을 알 수 있다. 비독자들이 많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의 저소득층의 쇼핑 장소인 달러스토어에 홍보물을 두거나, 유아교육기관에 가족독서프로그램 안내서를 두거나, 축구경기 중 쉬는 시간에 프리미어리그 독서 스타를 홍보하는 것처럼, 비독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 **도서관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도서관의 수는 늘어가지만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인적 자원이다. 기획자나 프로그래머로서의 사서가 가능하려면, 핀란드의 ‘사서예약제’처럼 전문화된 독자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지역의 독자에 대한 연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서관 밖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농어산촌 지역의 이동도서관에서 전문적 사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다양한 공간에서 비독자를 찾아 나서려면, 사서의 수를 늘리지 않고 불가능하다. 독서문화진흥정책이 국가나 지자체 단위에서 만들어지더라도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정책의 실현은 요원하다. 핀란드와 덴마크 등 북유럽의 높은 독서율은 인구 1인당 60유로가 넘는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하나의 요인이다. 투자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서의 인건비와 전문화를 위한 교육비다.
-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은 프로그램 만족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독서생활의 변화에 기여했는지 여부**이다. 주요국의 프로그램 영향력 평가는 ‘이 프로그램에 만족하는지’ 혹은 ‘참여자 수와 출석률’을 묻기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더 하게 되었는지, 더 읽고 싶은 책이 생겼는지, 도서관을 더 자주 가게 되었는지, 도서관이 더 친숙하게 되었는지’, 독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평가한다. 프로그램 평가에서 참여 인원에 초점을 맞추면, 비독자, 인구희박지역, 독서에 흥미가 낮은 인구를 배제하게 된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 유아의 독서는 가정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독서진흥정책은 가족을 단위로**를 이루어진다. 영국과 일본의 북스타트, 프랑스와 미국의 프리미어 북 등은 책 선물을 매개로 가정 독서 환경의 중요성, 초기 문식성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다. 우리나라의 북스타트도 계속 확대되어 2016년 1월 현재 229시군구의 142개(62%)가 참여하고 있다. 영국처럼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북스타트에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시민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청소년 전문 서비스를 위한 사서양성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서교육 사례 탐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되고 현장화 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도 사서가 **전문 서비스 사서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는 특정한 독자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한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 사서, 청소년 전문 사서, 학교도서관 협력 담당 사서 등 특정 독자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들은 해당 독자층을 위한 도서관의 자료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으며, 수십 년에 걸친 분과 모임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예비사서의 교육과 사서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이들은 또한 개별 도서관이나 지방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가적 정책에 관여한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를 비롯한 주요국의 사서연합의 전문 분과의 활발한 활동은 한 분야의 독자 서비스를 오랫동안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처럼 특정 독자 대상의 정책을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사서를 재교육하는 **극도의 전문성과 파트너십이 필요한 도서관은 순환근무제를 폐지하거나 순환주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전문 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저자, 사서, 교사, 학자, 출판, 시민단체, 교육단체와의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순환근무제는 이러한 전문성과 네트워킹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 **예비교사 교육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사 재교육기관에 전 교과에 걸쳐 책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강의와 워크숍, 수업사례발표**를 활성화해야 한다. 독서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책은 수업의 주된 교재로 쓰인다. 교과서와 문제풀이를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다. 유럽의 경우, 객관식 시험이 없이 모든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 수행평가이다. 특히 독서율이 높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교육과정의 지침만 존재할 뿐 수업 교재의 선택을 온전히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긴다. 단행본 읽기를 통한 독서와 토론 교육은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방과 후나 숙제로 혹은 교과서 진도를 빼고야 가능하지만, 독서율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교 수업의 기본이다.

- **읽기 부진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 미국의 리딩 리커버리는 읽기 능력이 하위 20%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30분씩 12주~20주간 일대일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랑스의 ‘작은 도움’도 1학년 대상의 집중적인 읽기부진아 개입 프로그램이다. 읽기부진 경험이 축적되어 자신감을 잃기 전에 1학년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핀란드의 읽기의 즐거움’과 같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업**은 부족한 학교도서관의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방문은 학교 밖 독서공간에 친숙해지는 효과도 있다.
-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자료와 방법,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 시급하다. 어린이 전문 사서는 어린이실의 역사와 함께 조금씩 발전되어 왔지만, 청소년 전문 사서는 별도의 예비사서과정도 거의 없고 재교육도 활발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가 축적한 경험이 가장 많은데, 이들과 함께 학교도서관이 아닌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 사서양성과정에 대한 구상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에서 중등학교 학교도서관은 청소년의 “연구 기술과 정보 문해력”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는 “즐거움으로서의 독서”에 더 초점을 맞춘다.
-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실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도서관은 대체적으로 청소년실 혹은 청소년 전용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실은 따로 마련하지 않거나 많은 경우에 사립 독서실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배제된 공간을 제공하여, 오히려 도서관 및 독서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든다. 학교도서관이 ‘학생’으로서의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공도서관은 ‘청소년 독자’로서의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독서를 통한 휴식과 놀이, 친구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동아리 활동을 우선으로 한 청소년실이 요구된다.
- 청소년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몇 개의 서가를 할애하여 앞에 카펫을 깔고 소파

나 테이블을 두어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 수 있다. 서가에 청소년 문학과 장르소설, 만화를 담고, 취미, 운동, 성과 사랑, 독립,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 삶의 가치관, 학업, 직업, 참여 등의 주제를 담은 정보 책을 놓는다. 청소년 공간은 청소년 이용자에게 자신들을 위한 책이 도서관에 있다는 점을 알게 해주며, 쉽게 찾도록 도와준다. “청소년 공간”이라는 별도의 간판을 두며, “평일은 3시부터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있는 자리”라는 사인을 놓아둔다.



그림 95 영국 페컴도서관의 청소년 공간

〈주〉 오후 3시 30분부터 청소년만 이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사인이 놓여있다.

© 2015. 김은하 all rights reserved.

3. 성인과 노년의 독서

-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한국인은 학업 및 직업과 관련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독서도 이와 관련성이 높다. 절대적인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그것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적인 과제라면, 근로시간 내에 독서 시간을 보장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직장 내 도서관과 전문 사서를 마련하거나, 근무 시간 내 독서 시간이나 독서 동아리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소설이나 교양서 읽기든 업무 관련 읽기든, 책 읽기를 하는 인구는 그렇지 않은 인구에 비해 언어능력이 높다. 책 읽기와 언어능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내 독서 시간 마련은 기업의 경쟁력과 창의성, 소통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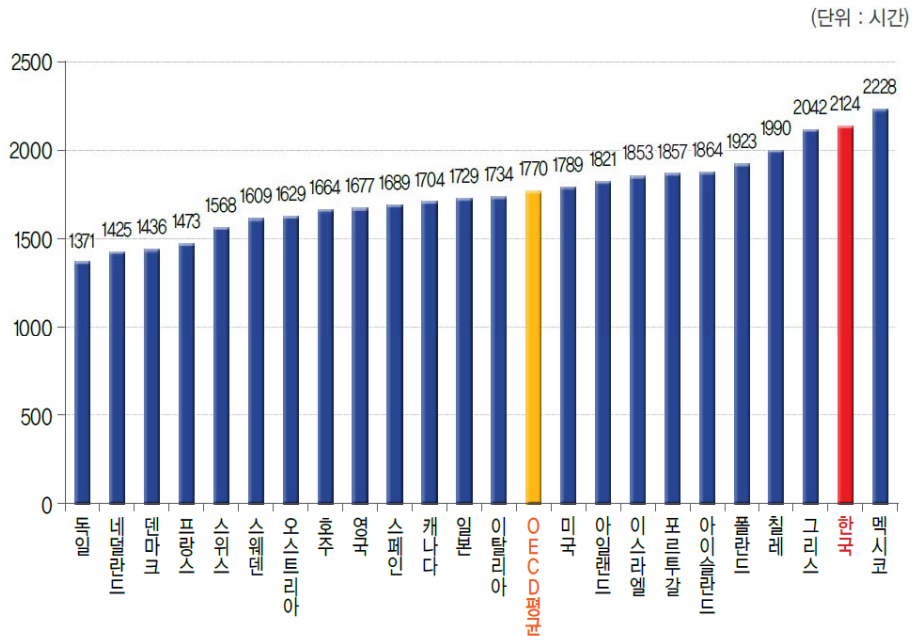


그림 96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 (2014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근로시간 지표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41호.

- 주요국의 도서관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미국의 도서관은 실업 급여 및 혜택의 온라인 지원서 작성법(95%), 공동 작업 공간이나 인큐베이터 제공(91.3%), 취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취업 자료 사용법(89.8%), 입사 지원법(89.8%), 온라인 비즈니스 정보자료 이용법(88.5%)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서가 제공하고 있다. 협업기관을 통해서도 창업 및 소규모 사업계획(58.1%)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국 또한 직업센터가 도서관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실업률과 이직률, 비정규직, 세컨드 잡이 늘어가는 환경에서 도서관의 경제 및 취업 관련 도서관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다.

- 청년과 중년 세대 남성의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 **남성 친화적인 독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성별·연령별 독서율 교차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의 독서율은 16~54세에 9~14%p 차이를 보인다. 영국에서 진행된 남성 친화적 독서 프로젝트처럼 아버지와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성적 이미지의 독서 역할 모델 (예, 축구선수, 프로레슬러 등)을 확대하며, 남성들의 관심주제를 담은 도서 목록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 **중·노년층의 비독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하면, 중·노년의 독서율이 현저하게 낮다. 독서와 도서관문화에 익숙한 경제 선진국의 중·노년층과 달리, 우리나라의 45세 이상 중·노년 세대는 학교수업에서 교과서 외 도서를 수업 교재로 사용한 적이 없고, 어린 시절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경험도 부족하다. 독서는 개인의 취미였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문화진흥정책인 적이 없던 성장기를 보냈다. 특히 독서를 학업 및 업무를 위한 도구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인 이들의 경우, 은퇴와 더불어 책 읽기를 멈추기 쉽다. 은퇴 이후의 독서가 주는 지적, 정서적, 실용적 유용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 서구의 주요국은 중·노년층의 비독자 문제가 우리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서구의 사례보다 일본의 시니어 대상 출판, 도서관, 서점의 독서진흥정책에서 참고할 바가 많다. 시니어 서비스를 구상할 때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고, **활동적 시니어와 비활동적 시니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활동적인 시니어는 장애인서비스와의 공통점이 많지만, 활동적 시니어는 젊은 세대가 가진 직업과 취미활동과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dots리 현립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를 위한 창업관련 도서관 서비스, 법률관련 서비스, 건강관련 서비스는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이칸야마 쓰타야서점도 활동적 시니어의 다양한 문화적 관심사(인문, 예술, 건축, 요리, 여행, 디자인, 자동차, 전자매체)를 충족시켜준다.
- **중·노년의 비독자**를 독자로 포괄하기 위한 정책의 첫 번째 단계는 이들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이다. 이들이 어떻게 책을 경험했고, 독자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며, 생활 속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전략 (설득의 논리, 독서자료, 공간, 네트워킹, 홍보방식, 역할 모델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비독자에 대한 연구와 전략은 비독자의 관심사를 어떻게 책과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한 사례이다. 이러한 연구가 우리나라에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독서율은 심각하게 더 낮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포괄한 비독자 연구가 시급하다.

부록: 한국과 주요국의 성별·연령별 교차분석 데이터

한국

케이스처리요약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Trend-IALS/ALL)	유호		케이스 결측		
	N		전체		
	6651	퍼센트	N	퍼센트	퍼센트
		99.8%	16	0.2%	100.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Gender (Trend-IALS/ALL) 교차표									
Gender (Trend-IALS/ALL)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Never	Less than once a month	Less than once a week but at least once a month	At least once a week but not every day
Male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24 or less	빈도	81	104	135	108	39	467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7.3%	22.3%	28.9%	23.1%	8.4%	100.0%
		25-34	빈도	130	171	172	109	48	63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0.6%	27.1%	27.3%	17.3%	7.6%	100.0%
		35-44	빈도	180	216	161	83	47	687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6.2%	31.4%	23.4%	12.1%	6.8%	100.0%
	55 plus	45-54	빈도	271	166	173	77	43	73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7.1%	22.7%	23.7%	10.5%	5.9%	100.0%
			빈도	275	88	101	75	39	578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47.6%	15.2%	17.5%	13.0%	6.7%	100.0%
			빈도	937	745	742	452	216	3092
Female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24 or less	빈도	53	131	200	155	60	599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8.8%	21.9%	33.4%	25.9%	10.0%	100.0%
		25-34	빈도	58	161	217	133	59	628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9.2%	25.6%	34.6%	21.2%	9.4%	100.0%
		35-44	빈도	104	216	250	159	114	84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2.3%	25.6%	29.7%	18.9%	13.5%	100.0%
	55 plus	45-54	빈도	211	175	219	136	73	81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5.9%	21.5%	26.9%	16.7%	9.0%	100.0%
			빈도	339	109	112	75	40	675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50.2%	16.1%	16.6%	11.1%	5.9%	100.0%
			빈도	765	792	998	658	346	3559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24 or less	빈도	134	235	335	263	99	1066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2.6%	22.0%	31.4%	24.7%	9.3%	100.0%
		25-34	빈도	188	332	389	242	107	1258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4.9%	26.4%	30.9%	19.2%	8.5%	100.0%
		35-44	빈도	284	432	411	242	161	153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8.6%	28.2%	26.9%	15.8%	10.5%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45-54	빈도	482	341	392	213	116	154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1.2%	22.1%	25.4%	13.8%	7.5%	100.0%
		55 plus	빈도	614	197	213	150	79	125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49.0%	15.7%	17.0%	12.0%	6.3%	100.0%
			빈도	1702	1537	1740	1110	562	6651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5.6%	23.1%	26.2%	16.7%	8.4%	100.0%

미국

케이스처리요약									
		유료		케이스 결속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N		퍼센트		N		퍼센트	
		4896		97.7%		114		2.3%	
						5010		100.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교차표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At least once a week but not every day			
		Never	Less than once a month	Less than once a week but at least once a month	At least once a week but not every day	Every day			
Male	24 or less		73	71	69	94	105	412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7.7%	17.2%	16.7%	16.7%	22.8%	25.5%	100.0%	
	25-34		110	99	72	93	82	456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4.1%	21.7%	15.8%	15.8%	20.4%	18.0%	100.0%	
	35-44		113	119	60	67	82	441	
Female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5.6%	27.0%	13.6%	15.2%	18.6%	18.6%	100.0%	
	45-54		149	126	66	74	81	496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0.0%	25.4%	13.3%	14.9%	16.3%	16.3%	100.0%	
	55 plus		116	112	46	77	103	45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5.6%	24.7%	10.1%	17.0%	22.7%	22.7%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561	527	313	405	453	2259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4.8%	23.3%	13.9%	17.9%	20.1%	20.1%	100.0%	
	24 or less		46	65	60	106	124	401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1.5%	16.2%	15.0%	26.4%	30.9%	30.9%	100.0%	
	25-34		76	123	90	120	161	57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3.3%	21.6%	15.8%	21.1%	28.2%	28.2%	100.0%	
	35-44		67	104	65	123	155	51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3.0%	20.2%	12.6%	23.9%	30.2%	30.2%	100.0%	
	45-54		91	106	60	112	194	56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6.2%	18.8%	10.7%	19.9%	34.5%	34.5%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85	89	65	121	229	589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4.4%	15.1%	11.0%	20.5%	38.9%	38.9%	100.0%	
	55 plus		365	487	340	582	863	2637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3.8%	18.5%	12.9%	22.1%	32.7%	32.7%	100.0%	
	24 or less		119	136	129	200	229	813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4.6%	16.7%	15.9%	24.6%	28.2%	28.2%	100.0%	
	25-34		186	222	162	213	243	1026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8.1%	21.6%	15.8%	20.8%	23.7%	23.7%	100.0%	
	35-44		180	223	125	190	237	955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8.8%	23.4%	13.1%	19.9%	24.8%	24.8%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40	232	126	186	275	1059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2.7%	21.9%	11.9%	17.6%	26.0%	26.0%	100.0%	
	45-54		201	201	111	198	332	104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9.3%	19.3%	10.6%	19.0%	31.8%	31.8%	100.0%	
	55 plus		926	1014	653	987	1316	4896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8.9%	20.7%	13.3%	20.2%	26.9%	26.9%	100.0%	

케이스처리요약					
		케이스 결속			
		유료		전체	
		N	퍼센트	N	퍼센트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8804	99.0%	88	100.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교차표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Less than once a month		Less than once a week but at least once a month		At least once a week but not every day			
		Never						Every day	전체
Male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24 or less	빈도	161	104	58	98	100	521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0.9%	20.0%	11.1%	18.8%	19.2%	100.0%
		25-34	빈도	179	159	91	150	154	73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4.4%	21.7%	12.4%	20.5%	21.0%	100.0%
		35-44	빈도	204	187	85	143	183	802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5.4%	23.3%	10.6%	17.8%	22.8%	100.0%
		45-54	빈도	227	158	94	154	195	828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7.4%	19.1%	11.4%	18.6%	23.6%	100.0%
		55 plus	빈도	186	175	77	144	226	808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3.0%	21.7%	9.5%	17.8%	28.0%	100.0%
	전체		빈도	957	783	405	689	858	3692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5.9%	21.2%	11.0%	18.7%	23.2%	100.0%
		24 or less	빈도	135	134	104	132	193	698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9.3%	19.2%	14.9%	18.9%	27.7%	100.0%
		25-34	빈도	153	195	144	250	367	1109
Female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3.8%	17.6%	13.0%	22.5%	33.1%	100.0%
		35-44	빈도	168	194	138	235	484	1219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3.8%	15.9%	11.3%	19.3%	39.7%	100.0%
		45-54	빈도	142	175	107	199	417	104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3.7%	16.8%	10.3%	19.1%	40.1%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0.7%	12.9%	7.3%	18.6%	55.1%	104.6%
		55 plus	빈도	705	827	566	1002	2012	5112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3.8%	16.2%	11.1%	19.6%	39.4%	100.0%
		24 or less	빈도	296	238	162	230	293	1219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4.3%	19.5%	13.3%	18.9%	24.0%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25-34	빈도	332	354	235	400	521	1842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8.0%	19.2%	12.8%	21.7%	28.3%	100.0%
		35-44	빈도	372	381	223	378	667	2021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8.4%	18.9%	11.0%	18.7%	33.0%	100.0%
		45-54	빈도	369	333	201	353	612	1868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9.8%	17.8%	10.8%	18.9%	32.8%	100.0%
		55 plus	빈도	293	304	150	330	777	185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5.8%	16.4%	8.1%	17.8%	41.9%	100.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6.62	1610	971	1691	2870	880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8.9%	18.3%	11.0%	19.2%	32.6%	100.0%

핀란드

케이스처리요약									
		유효			케이스 결측			전체	
		N		퍼센트	N	퍼센트	N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5455		99.8%	9	0.2%	5464	100.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교차표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Never	Less than once a month	Less than once a week but at least once a month	At least once a week but not every day	Every day	전체		
Male	24 or less	120	150	66	77	41	454		
	25-34	26.4%	33.0%	14.5%	17.0%	9.0%	100.0%		
	35-44	101	163	97	116	55	532		
	45-54	19.0%	30.6%	18.2%	21.8%	10.3%	100.0%		
	55 plus	91	160	100	99	47	497		
Female	24 or less	18.3%	32.2%	20.1%	19.9%	9.5%	100.0%		
	25-34	133	179	98	102	54	566		
	35-44	23.5%	31.6%	17.3%	18.0%	9.5%	100.0%		
	45-54	183	236	85	98	100	702		
	55 plus	26.1%	33.6%	12.1%	14.0%	14.2%	100.0%		
전체	24 or less	628	888	446	492	297	2751		
	25-34	22.8%	32.3%	16.2%	17.9%	10.8%	100.0%		
	35-44	54	104	85	122	75	440		
	45-54	12.3%	23.6%	19.3%	27.7%	17.0%	100.0%		
	55 plus	44	121	114	141	91	511		
전체	24 or less	8.6%	23.7%	22.3%	27.6%	17.8%	100.0%		
	25-34	36	113	87	136	101	473		
	35-44	7.6%	23.9%	18.4%	28.8%	21.4%	100.0%		
	45-54	54	148	85	138	132	557		
	55 plus	9.7%	26.6%	15.3%	24.8%	23.7%	100.0%		
전체	24 or less	89	191	115	141	187	723		
	25-34	12.3%	26.4%	15.9%	19.5%	25.9%	100.0%		
	35-44	277	677	486	678	586	2704		
	45-54	10.2%	25.0%	18.0%	25.1%	21.7%	100.0%		
	55 plus	174	254	151	199	116	894		
전체	24 or less	19.5%	28.4%	16.9%	22.3%	13.0%	100.0%		
	25-34	145	284	211	257	146	1043		
	35-44	13.9%	27.2%	20.2%	24.6%	14.0%	100.0%		
	45-54	127	273	187	235	148	970		
	55 plus	13.1%	28.1%	19.3%	24.2%	15.3%	100.0%		
전체	24 or less	187	327	183	240	186	1123		
	25-34	16.7%	29.1%	16.3%	21.4%	16.6%	100.0%		
	35-44	272	427	200	239	287	1425		
	45-54	19.1%	30.0%	14.0%	16.8%	20.1%	100.0%		
	55 plus	905	1565	932	1170	883	5455		
전체	24 or less	16.6%	28.7%	17.1%	21.4%	16.2%	100.0%		
	25-34								
	35-44								
	45-54								
	55 plus								

프랑스

케이스처리요약									
		케이스						전체	
		유요		결속					
		N		퍼센트		N		퍼센트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6907		98.8%		86		1.2% 6993 100.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교차표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Never	Less than once a month	Less than once a week but at least once a month	At least once a week but not every day	Every day	전체		
Male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빈도	159	145	86	80	69	539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9.5%	26.9%	16.0%	14.8%	12.8%	100.0%	
		25-34	182	148	64	93	83	57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1.9%	26.0%	11.2%	16.3%	14.6%	100.0%	
		빈도	219	179	75	92	108	67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2.5%	26.6%	11.1%	13.7%	16.0%	100.0%	
		45-54	251	190	89	114	124	768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2.7%	24.7%	11.6%	14.8%	16.1%	100.0%	
		빈도	293	197	86	112	146	83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5.1%	23.6%	10.3%	13.4%	17.5%	100.0%	
Female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빈도	1104	859	400	491	530	338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2.6%	25.4%	11.8%	14.5%	15.7%	100.0%	
		빈도	107	123	86	112	127	555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9.3%	22.2%	15.5%	20.2%	22.9%	100.0%	
		빈도	116	149	83	133	155	636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8.2%	23.4%	13.1%	20.9%	24.4%	100.0%	
		25-34	113	160	94	148	214	729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5.5%	21.9%	12.9%	20.3%	29.4%	100.0%	
		45-54	146	142	68	144	253	75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9.4%	18.9%	9.0%	19.1%	33.6%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빈도	163	137	99	141	310	85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9.2%	16.1%	11.6%	16.6%	36.5%	100.0%	
		25-34	645	711	430	678	1059	352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18.3%	20.2%	12.2%	19.2%	30.1%	100.0%	
		빈도	266	268	172	192	196	109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4.3%	24.5%	15.7%	17.6%	17.9%	100.0%	
		25-34	298	297	147	226	238	1206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4.7%	24.6%	12.2%	18.7%	19.7%	100.0%	
		35-44	332	339	169	240	322	1402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3.7%	24.2%	12.1%	17.1%	23.0%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빈도	397	332	157	258	377	1521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6.1%	21.8%	10.3%	17.0%	24.8%	100.0%	
		45-54	456	334	185	253	456	1684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7.1%	19.8%	11.0%	15.0%	27.1%	100.0%	
		빈도	1749	1570	830	1169	1589	6907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5.3%	22.7%	12.0%	16.9%	23.0%	100.0%	

일본

케이스처리요약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유료		케이스 결속	
	N	퍼센트	N	퍼센트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5172	98.0%	106	2.0%
			N	퍼센트
			5278	100.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교차표									
Person resolved gender from BQ and QC check (derived)					Skill use everyday life - Literacy - Read books				
					Never	Less than once a month	Less than once a week but at least once a month	At least once a week but not every day	전체
Male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24 or less	빈도	120	102	61	90	27	40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0.0%	25.5%	15.3%	22.5%	6.8%	100.0%
		25-34	빈도	146	117	83	53	34	43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3.7%	27.0%	19.2%	12.2%	7.9%	100.0%
		35-44	빈도	189	168	93	61	38	549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4.4%	30.6%	16.9%	11.1%	6.9%	100.0%
		45-54	빈도	183	113	69	53	49	467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9.2%	24.2%	14.8%	11.3%	10.5%	100.0%
		55 plus	빈도	270	132	78	76	62	618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43.7%	21.4%	12.6%	12.3%	10.0%	100.0%
Female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빈도	908	632	384	333	210	2467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6.8%	25.6%	15.6%	13.5%	8.5%	100.0%
		24 or less	빈도	94	93	67	79	37	37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5.4%	25.1%	18.1%	21.4%	10.0%	100.0%
		25-34	빈도	142	138	69	90	46	485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9.3%	28.5%	14.2%	18.6%	9.5%	100.0%
		35-44	빈도	188	175	131	106	70	670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8.1%	26.1%	19.6%	15.8%	10.4%	100.0%
		45-54	빈도	131	153	90	93	78	545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4.0%	28.1%	16.5%	17.1%	14.3%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빈도	242	163	73	82	75	635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8.1%	25.7%	11.5%	12.9%	11.8%	100.0%
		24 or less	빈도	797	722	430	450	306	2705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9.5%	26.7%	15.9%	16.6%	11.3%	100.0%
		25-34	빈도	214	195	128	169	64	77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27.8%	25.3%	16.6%	21.9%	8.3%	100.0%
		35-44	빈도	288	255	152	143	80	918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1.4%	27.8%	16.6%	15.6%	8.7%	100.0%
		45-54	빈도	377	343	224	167	108	1219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0.9%	28.1%	18.4%	13.7%	8.9%	100.0%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빈도	314	266	159	146	127	1012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1.0%	26.3%	15.7%	14.4%	12.5%	100.0%
		24 or less	빈도	512	295	151	158	137	1253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40.9%	23.5%	12.1%	12.6%	10.9%	100.0%
		35-44	빈도	1705	1354	814	783	516	5172
	전체		Age in 10 year bands (derived) 중%	33.0%	26.2%	15.7%	15.1%	10.0%	100.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책과 교육연구소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책과 교육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

발 행 일 2015년 12월 21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609 팩스 044-203-3470

연구기관 책과 교육연구소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 56-101

전화 02-599-7893

© 문화체육관광부 · 책과 교육연구소

Printed in Korea.

K.D.C. 029.9 (독서 경향)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